

Cyber world
Leader
"더 빠르고, 더 행복한 세상"

Cyber world Leader

더 빠르고 더 행복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이버 월드 리더, 한국통신



인터넷을 가장 잘 아는 기업, 사이버 세상에서 주목받는 기업, 사이버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정을 나누는 빠르고 행복한 사이버 세상, 한국통신이 만들겠습니다.

BuyJoy
국내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KORNET
게임에 특화된 인터넷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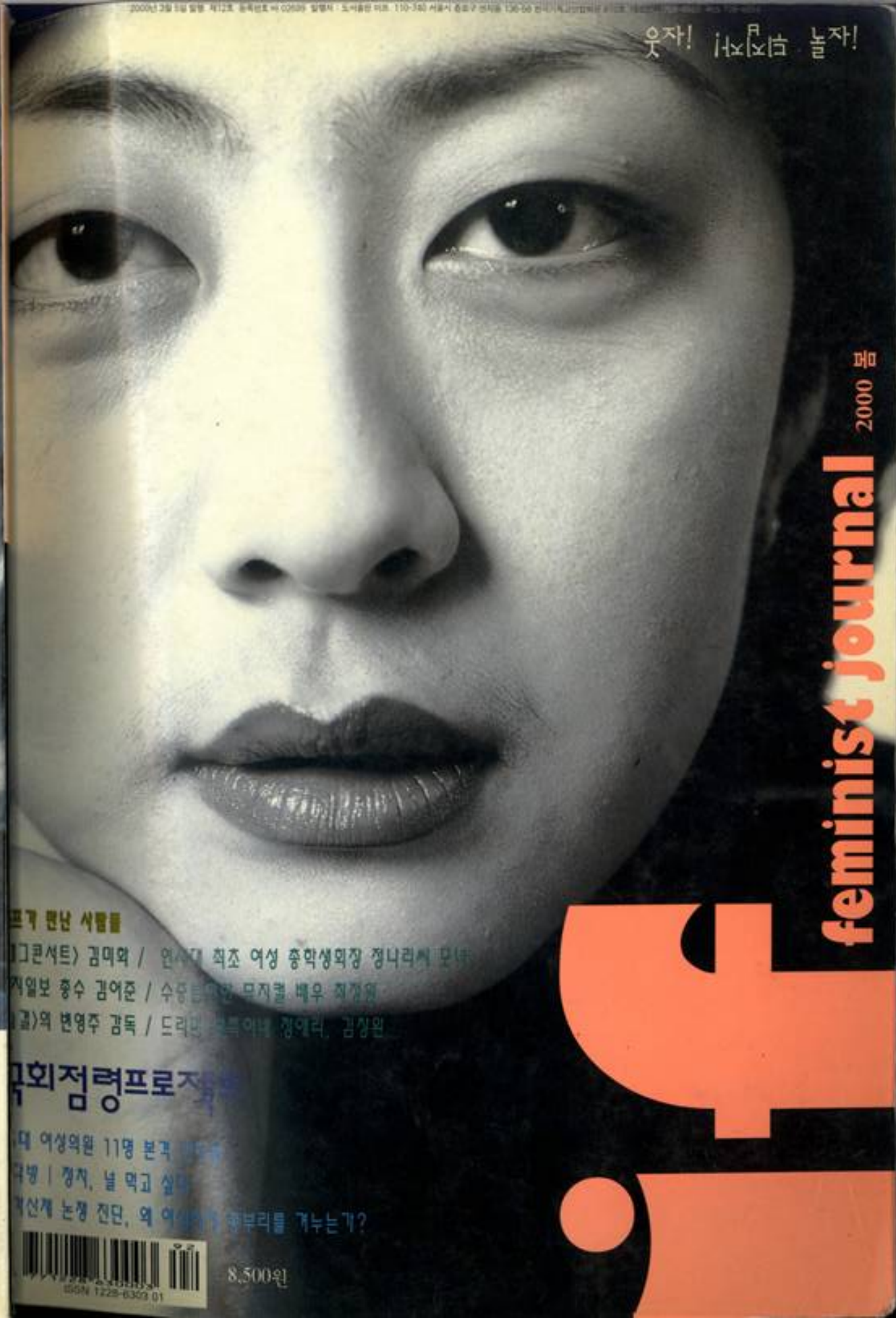
HanMir
국내 최대 검색엔진

NetWorl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터넷 서비스

한국통신 초고속 워킹인터넷
국내 최초 워킹 인터넷 서비스

ADSL
한국 어디서나 통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이버 월드 리더
한국통신
Korea Telecom
www.kt.co.kr



웃자! i-ha-ha 놀자!

페
2000
feminist journal

프기 만난 사람들

〈그콘서트〉 김미화 / 연세대 최초 여성 중학생회장 정나리씨 모녀
지일보 중수 김어준 / 수능시험관 무지컬 배우 최정원
〈길〉의 변영주 감독 / 드라마 〈복수야〉 장여리, 김성원

국회점령프로젝트

대 여성의원 11명 본격 활동
국방 / 정치, 날 먹고 싶음
최신계 논쟁 진단, 외 여성가장 공부리를 겨누는가?



8,500원

SAMSUNG DIGITall everyone's invited™

모두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삼성 디지털

원하는 것은 뭐든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해지는 세상!
삼성디지털(SAMSUNG DIGITall)
모든이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이기에
삼성전자는 DIGITall입니다.
생각만으로도 힘이 되는 가솔터함
을 우리 곁에서 정과 정을 이어주고
행복을 키워주는 따뜻한
디지털 기술! 삼성전자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한걸음 앞선 기술로 만드는 새로운 디지털 제품!
삼성전자에서 20년째 믿어 제1의 디지털 제품만을 선보이고
제1의 고객에게만 디지털 신제품은 2000년 이후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 24시간 상담: www.sec.co.kr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포토 앱



또 한걸음 가깝게
SAMSUNG
삼성전자



사이즈는 콤팩트, 성능은 퍼펙트-



정직한 정수기 '필탑' 덕분에 요즘은 집집마다 약수!

첨단 중공사(中空絲)막 필터로 실현한
효성의 자연 정수방식-
가격부담도 줄여 요즘 '필탑'이 인기랍니다.

효성의 최첨단 섬유 기술로 개발한 중공사막 필터가
불순물은 깨끗이 걸러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살려
주니까 집에서 먹는 약수가 따로 없습니다.



- 정수용량이 뛰어나 필터 하나로 10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0% 정수로 불당비가 없어 수도요금까지 절약해 드립니다.
- 99년형 신제품을 부담없는 10만원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알아봐도 정수기 속이 보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LTOP
효성정수기 필탑

- 제품구입문의: 080-707-8585, 080-708-7000
- 홈페이지: <http://www.filtop.co.kr>

얇아질수록 NEW FACE

라네즈 에어라이트 파운데이션 (Air Light Foundation)

가장 자연스러운 피부 톤, 들뜨지 않고 산뜻한 마무리. 피부는 이제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원합니다.
수분감을 잡아주는 Hydro Fine Gel System으로, 가볍게 스미고 피부 감촉은 더욱 부드러워진 에어라이트 파운데이션.
피부 타입과 피부색에 따른 다양한 선택으로 내 피부에 딱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아보세요.
늘 새로운 나 - 라네즈

amORE



라네즈 에어라이트 파운데이션-Mist type
자외선 차단력 SPF40, PA++++, 30ml/40ml
라네즈 에어라이트 파운데이션-Soft type
자외선 차단력 SPF40, PA++++, 21g, 30g, 33g/40ml
화장품 안전정보센터 02-709-5081

Everyday New Face

LANEIGE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작은 행복을 지켜주는 일-
그것이 저희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늘 곁에있는 보험서비스-Thank you~, 현대해상!

Thank you
H 현대해상 화재보험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로 178번지 · 02)732-1212



난, 2% 마신다!



왜 심심하고 땀뻘 땀
땀뻘을 마셔? 난 물 안먹어!
기분까지 달라지는
2%부족할때가 있는데...
너흰 계속 물이나 마셔!



사람의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셔야
건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2% 부족할 때
보통 그날을 넘겨서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기분까지 신맛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분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먹고도...
좋았나?



신선한 원유로 만드는 아이스크림 - 투게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아이스크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르세요!

겉으로는 다 같아 보이는 아이스크림, 하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좋은 아이스크림은 원료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우유로 만들어 더 신선하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탈지분유를 가공해서 만든 일반 아이스크림. 그 맛과 신선도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세요!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생산하는 빙그레니까 신선함이 다릅니다.

육장에서 갓 짜낸 원유로 만드는 신선한 아이스크림, 투게더! 투게더를 먹어 보면 왜 사람들이 탈지분유 아이스크림보다 원유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신선한 맛의 비결은 신선한 원유! 투게더가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 카본류 아이스크림 주원료 비교표 (2000년 1월 판매제품 기준)

회 사	제 품	맛	법적 성분기준	주요 유원료
빙그레	투게더	바닐라, 초콜릿, 호두	아이스크림	원유
A 사	a 제품	바닐라	아이스밀크	혼합 분유
B 사	b 제품	초콜릿	아이스밀크	탈지분유 조제품

*유지방이 6% 이상이면 아이스크림, 6% 미만이면 아이스밀크입니다

원유사랑-투게더 **B 빙그레**

못 참겠다, 땀냄새!



더블블록 방식으로 땀냄새를 없애주는 데오니아! 내의와 과학이 만나면 이렇게 상쾌해집니다.



만약 지하철에서도 땀냄새 걱정 마세요.
 데오니아의 뛰어난 소취 효과로 쾌적
 하고 상쾌하게 출, 퇴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 데이트에도 데오니아의
 강력한 소취 파워로 땀냄새 걱정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땀 흘린후 벗어놓은 셔츠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의함에 불쾌감을
 주지 않아 안심입니다.



자신은 괜찮겠지 했지만 주위의
 사람에게서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 데오니아가 해결해 줍니다.



BYC, BYC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데오니아, 100%생체막이 효과 입증!
 뛰어난 냄새흡수력, 전신에 구멍을 뚫어 10% 흡수하는 데오니아의 놀라운
 기능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
 성과 테스트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땀냄새를 없애주는 데오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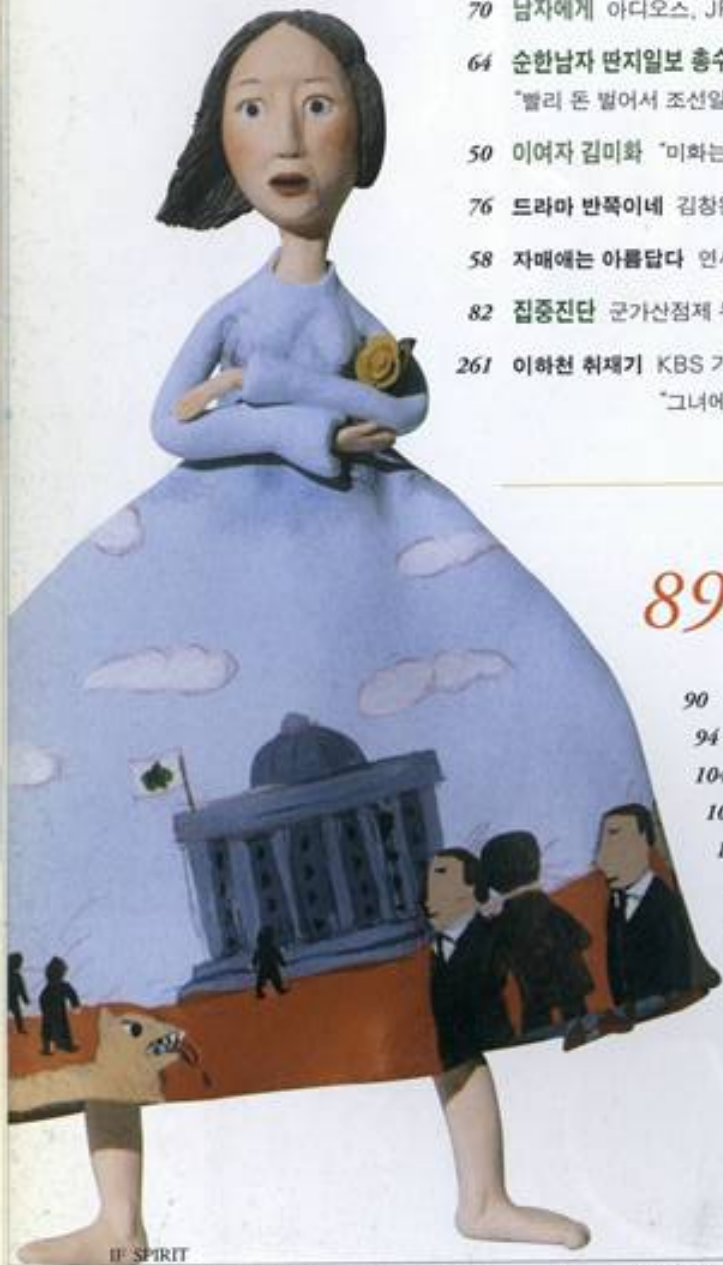
기분까지 불쾌해지는 땀 냄새, 이제 데오니아로
 말끔히 없애주세요! 세균과 불쾌한 냄새를 한꺼번에
 막아주는 더블블록 방식이니까 효과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BYC 연구소가 국내최초 개발한 신소재 원단내의-
 데오니아가 상쾌한 하루를 책임집니다!

- 국내최초 면 100%의 천연 신소재 원단
- 흘리고 또 흘려도 효과는 하루 내내 OK!
- 매일 세탁해도 방취(防臭) 효과는 오래오래! (BYC연구소의 100회 세탁 테스트 통과)

상쾌한 내의 과학



Deonia



- 18 이프를 열며
- 70 남자에게 아디오스, JP(류숙렬)
- 64 순한남자 만지일보 총수 김어준
"빨리 돈 벌어서 조선일보 사야지" (권혁란)
- 50 이여자 김미화 "미화는 미화시키지 않는다" (이숙경)
- 76 드라마 반쪽이네 김창완과 정애리 그리고 KBS 제작진 인터뷰(박미숙)
- 58 자매애는 아름답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정나리와 그의 어머니
- 82 집중진단 군가산점제 무엇이 문제인가?(정미경)
- 261 이하천 취재기 KBS 기자가 쓴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박예스터)



89 특집 국회점령프로젝트

- 90 국회를 점령하라! (김신명숙)
- 94 15대 여성의원 본격 인터뷰 11명 (황오금희)
- 104 여성의원 국회에서 살아남기 (김보미)
- 108 수다방 정치, 날 먹고 싶다!
- 122 4·13 총선을 뛰는 여성후보들 (최진숙)
- 126 설문조사 네티즌들의 여성정치 의식은? (에드게이터킴)
- 128 이미지 컨설트 20대가 제안하는 여성정치인 옷차림 (이은하, 구령윤, 김민정, 이공경창)
- 120 난나의 if 세상 바뀌!

IF SPIRIT

웃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번 웃고 있다. 웃음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특별한 일목적인, 웃음으로서는 분수처럼 그렇게 웃고 있다. 자, 웃어!

이웃을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욕망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뒤집고 있다. 이 세상을 한 번 신나게 뒤집어보고 싶다. 낯설게 하는가? 어떻게 할까?

놀자!

우리는 그 동안 눈물과 고통에만 익숙해 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통과 인내, 희생의 지겨운 학습과 함께 따랐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게 마침내 노예의 광란을 선사한다. 이젠 싫다. 웃고 싶다. 재밌고 싶다. 놀고 싶다. 그러하여 세상을 즐겁게 만들고 싶다.



REMIT

백화점 전용 브랜드 레미트

레미트 베이직 케어는 중·간성증과 저·복합성증 등 피부 타입별로 품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화이트로 토닝 포뮬러 1 / 160ml (중·간성증 토닝)
- 화이트로 에멀전 포뮬러 1 / 130ml (중·간성증 필크 토닝)
- 밸런스 프레스 포뮬러 1 / 160ml (저·복합성증 토닝)
- 밸런스 소프트 포뮬러 1 / 130ml (저·복합성증 필크 토닝)
- 듀블 볼 에센스 / 45ml
- 나리상 세럼라이 크림 / 50g



content 2000_{spring}



179 REVIEW

- 180 **SCIENCE** 요즘 여자를 살기 편해졌다고? (윤정로)
184 **ADVERTISING** 아기분유 모델의 '의미심장' 한 조건 (이남경)
188 **CARTOON** 김지운의 '마이 퍼니 베이비' (난나)
192 **BOOK** 이프가 봄은 봄의 책 (윤숙경, 김정복, 유여중, 박미숙)
198 **MUSIC** 이프가 '딱딱' 미는 여가수 음반 (김보미)

- 200 음악사의 여성들 고전음악시대의 여성작곡가 (박선민)
204 스타일리스트 이정우의 색시한 옷입기 근대화된 여성들의 옷입기
211 유인경의 옷이야기 21세기 봄의 색시룩
228 백수일기 백수, 아르바이트 하다 (김영선)
232 여성과 수련 수련이 여성주의를 만날 때 (김정희)

235 세상 밖으로

- 236 음식기행 강화도 속속들이 즐기기 (이유명호)
240 사이버원도우 사이버, 남성들의 천국 (들레꽃)
244 가상리포트 미래일보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박미숙)
248 발글 조선시대 간통살인 논쟁 (정성희)

- 252 if 연재소설 내 사랑 투명반창고 I'm still loving you (이숙인)
265 소설비평 「미스코리아대회를 꼭파하라」를 읽고 (정성희)

174 색녀열전

- 210, 216, 230 영나니가 건진 유머
43, 88, 227, 231 심리테스트 당신의 성격은 과연 어떤 타입일까?
187 이프 주소가 변경됐어요!



메주는 묵히면 장이 되지만 변비는 묵히면 병이 됩니다

"아락실 장마사지로
하루 한번 화장실!"



이젠, 묵히지 말고 비우세요!

하루 이물 사흘... 변비를 계속 묵히면
나중엔 더 큰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배변습관은 하루 한번!
이젠 묵히지 말고 매일매일 비우세요.

하루 한번, 깔끔하게 비우세요!

아락실은 식이섬유소가 대장 속에서 팽창,
마사지하듯 장의 운동리듬을 되살려주니까
장 속은 깔끔해지고, 기분은 상쾌해집니다.
아락실 장마사지로 하루 한번 비우세요!



식이섬유성분의 상쾌한 변비약
아락실

표지 : 이번 표지의 주제는 '여성과 정치'... 그녀는 연세대 총학생 회장으로 뽑힌 '정나라'다. 순수한 세대, 중립적인 냉철함과 여성이 엮어오는 인간적인 눈빛, 여성성이 들어나는 입매... 이 단정한 흑백의 톤이 앞으로 기성정치와 세상의 부조리에 의해 기괴한 색깔로 물들지 않기를 소망하며 너무도 바뀌어버린 표지 스타일이 용서되길 바란다.

제호 : 잡지의 장르를 설명하는 '페미니스트저널'과 고유이름 'IF'를 합해서 만들었다. IF는 페미니스트들이 '만약에...'라고 가정해 본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완결된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페미니즘(infinite feminism)이라는 의미에서 이니셜로 읽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I'm Feminist 또는 I'm Female로도 해석할 수 있다.

if를알며

새천년이 바뀌었다. 새천년이 바뀐 올해 초 핀란드에서는 북극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타랴 할로렌 핀란드대통령의 취임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지구상 190여 개국 중 여성이 국가수반으로 있는 나라는 방글라데시,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리랑카, 파나마, 스위스, 핀란드까지 8개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세기의 100년 동안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수반으로 선출되었던 여성은 총 28명.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뉴질랜드는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에서 여성끼리 총리 자리를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여성의 세기라고 불리는 21세기에 이른 지금 여성대통령의 꿈은 더이



딸아, 너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상 '불가능한 꿈'도, 정신나간 여자들의 헛소리도 아닌 것이다. 이제 아시아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아메리카에서나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엄마라도 '대통령'을 꿈꾸는 딸에게 "애야, 대통령은 남자만 되는 거란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계인구의 남녀비율은 남자 100명 당 여자 98.6명, 또 전세계 노동인구의 46.7%는 여성이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관련한 숫자는 사정이 달라진다. 여성 국회의원 수는 전세계적으로 13%에 불과하며 여성장관의 수도 6.8%뿐이다. 세계 1위의 평등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에서는 지난 95년 처음으로 남녀 동수의 각료수를 기록했다.

여성들이 남성중심과 남성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양성관계를 보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이론가 케이트 밀레트는 1968년 처음 발표한 그녀의 저서 「성의 정치학」에서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지배할 때 그 두 그룹간의 관계는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 현대 여성운동을 이끈 미국여성들은 여성운동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사적인 것이 정치적(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대명제를 내놓았다. '성(private+sexual)'과 '정치(public+political)'라는 갈등과 모순의 두 영역을 통합시킨 이 슬로건은 이후 여성운동을 이끄는 전세계적인 지도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95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UN여성회의는 여성할당제 채택에 대한 권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가들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가속화시켰다. 현재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190여 개국 중 32개국, 32개국 중 의석할당수를 규정한 나라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네팔, 북한, 필리핀 등 6개국이다.

할당제는 해묵은 여성문제를 풀기 위한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한 한시적 보상책에 불과한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그 나라의 정치관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할당제의 혜택으로 정계에 진출한 여성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며 사회 또한 여성정치인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여성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할당제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등의 정치지도자로 선출되었으며 그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실로 엄청나다. 부패하고 폭력적인 남성 정치문화에 물들지 않은 여성정치인들은 어디서나 오랜 사회문제를 싸우며 자신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특유의 열정과 헌신으로 전혀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 정치지도자를 집단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여성들도 '대통령의 꿈'을 키우는 딸들에게 맘껏 꿈을 펼치라고 말해 줘야 하는 시대가 왔다. [1]

류숙렬 편집위원



“오늘, 이번 스타일을 골랐다”

한 번 염색으로 품격과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표정까지 밝아지는 헤어칼라링 유한양행 매직브라이트

때론 우아~하게 이번 스타일로 꾸미고 싶은 것이 여자의 입지 않은 욕심! 그러나 머리가 희끗 희끗하거나 숏처럼 감다면? 원래의 머리 색처럼 자연스런 칼라는 물론, 풍부한 트리트먼트 성분이 머리 결을 부드럽고 윤기있게 지켜주는 매직브라이트-표정까지 밝아지고 품격까지 살려주는 매직브라이트로 우아~하게 살자구요!

매직 브라이트 65 밝은 갈색 50 약간붉은 갈색 45 갈색
• 세제, 백오염 염색약 • 염색시간 20분 • 권장 소비자 가격 : 12,000원



한 번 써보면 다시 찾게 됩니다

모발보호

감초추출물과 비타민 C, E가 첨가되어 두피와 모발을 튼튼하게! 호호비 오일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실속형

크림타입 조금씩 덜어 쓰는 실속형!

저자극

암모니아 성분이 적어 자극적인 냄새 또한 적습니다!

간편하다

흘라~되지 않는 크림타입이라 혼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헤어칼라링 —

매직브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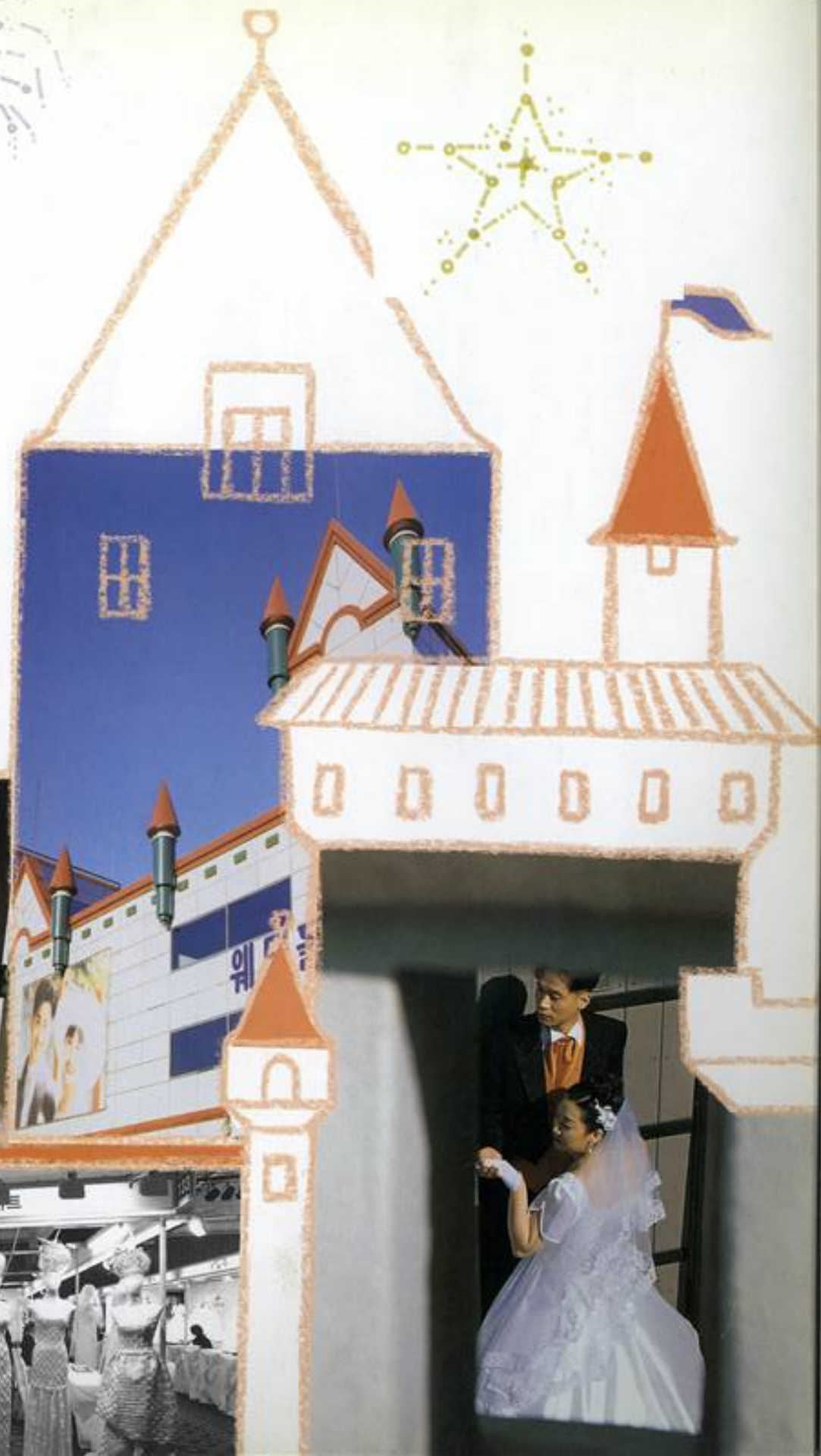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관련기사 219 ~ 226쪽)
사진: 정영진, 임지아

여자는 왜 결혼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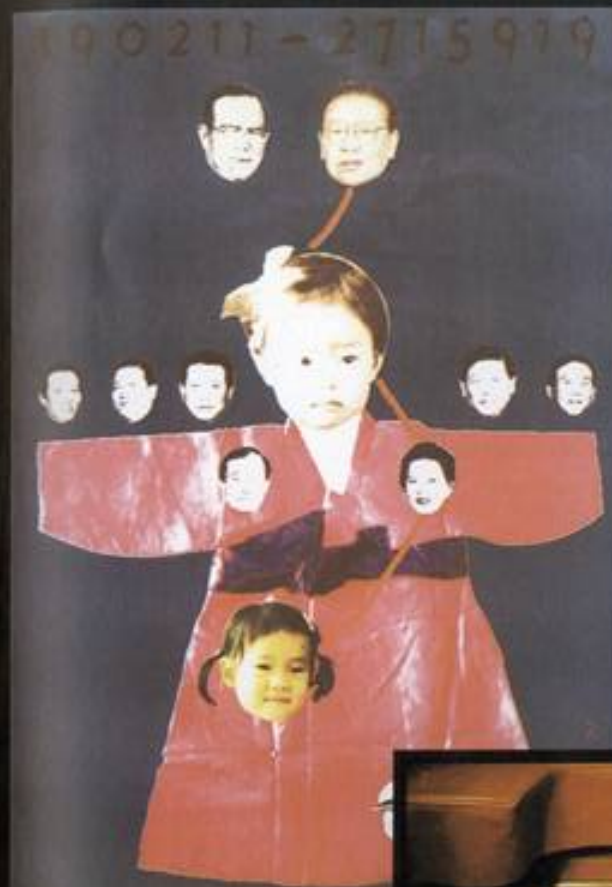
사랑과 행복



여자들의 밥그릇展

1999. 12. 22-12. 31 / 나무회관
한국여성사진가 협회에서 주최한 이 전시회는
남녀성비불균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이금진, <여왕의 불꽃>
2. 김민숙, <영3세00>
3. 홍미선, <너의 친구>
4. 정현자, <고추를 달고 나를 잘 그렸구나>
5. 김미경, <엄마, 나 결혼할 수 있어요?>
6. 박영숙, <여자생선>
7. 허만숙, 김민정, 홍경, 공동작품





왜 여성에게 총부리를 겨누는가?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남성들의 반응은 피해의식에 젖은 군필남성들이 군가산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불거져나온 '오발탄'이다.

(관련 기사 82~87쪽)

당신도 소리죽여 외치고 있진 않습니까?

사실 나도 제사가 싫다고...

삼십년 동안 가부장제와 맞서 싸운 한 여성작가의 외침

이 책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향해 계속 돌을 던집니다.
『미스코리아대회를 폭파하라』, 『사위에게 주는 요리책』에
이은 도서출판 이프의 세번째 단행본 『나는 제사가 싫다』

이 책은 이하천의 30년에 걸친 반(反)제사 투쟁기다. 그래서 결론을 아진 것이다.
『제사의 형식을 전면 폐지하라. 호주제를 폐지하라. 사회적 의무를 없애라』

문화일보 김재복 기자

작가 이하천씨는 "제사가 그렇게 신성하고 좋은 것이라면 남성들이 다 가저가라"고 주장한다. 그는 동학사상에서 새로운 제사양식을 발견, 대안적인 제사법도 제안한다.

경향신문 유인경 기자

여성작가 이하천씨가 고유의 미풍양속인 '제사의식'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다.
제사에 대한 그의 언어는 단언 전무적이며, 남성들에게는 거만하게까지 들린다.
그는 이를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제에 대한 몸부림이요,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장기홍 기자

그는 한국사회를 불공정한 사회로 만든 핵심이 제사와 호주제, 양대제도를 축으로 삼은 가부장제라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가 보기에 죽은 자는 산자들, 강자는 약자들, 남자는 여자들, 어른은 아이를 찍어누르는 것이 유교적 가부장제였다.

시사저널 김은남 기자

나는 드디어 이 불평사납고 우아하지 못하고, 여성의 창의성을 발산시키는 괴물 같은 제사의 모습을,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도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잘못된 제도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부계 조상에 대한 제사가 마치 인간의 본능이라도 되는 듯이 여성에게 강요해 온 이 제도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또한 인간 본연의 모습에 찻줄을 대놓고 있지 못한 제도를 어른으로서 내 후손들에게 절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본문 중에서

나는
제사가
싫다

이 하 천 지음
값 7,500원



“나는 내 몸의 힘을 믿어요”

남편과 함께 '수중분만' 경험, 책으로 펴낸
뮤지컬 배우 최정원씨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여기까지라면 새삼스러울 건 없다. 그러나 이 여자는 '물 속에서' 첫아이를 낳았다. 시원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내 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 키피 광고로 친숙한 뮤지컬 배우 최정원. 그는 최근에 방송된 '출산 다큐멘터리'로 더 유명해졌다.

남자들은 모여 앉으면 군대이야기, 아이 낳은 여자들은 각자의 출산 무용담(?)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자들에게 출산의 경험은 세계관도 바꿀 만큼 두렵고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첫아이를 물 속에서 건져냈던(?) 그가, 그 때의 수중분만 경험과 그들만의 태교법을 모아 책으로 써냈다. 디자인하우스에서 펴낸 책의 제목은 『나는 내 아이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다—이 세상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내가 원래 약을 안 먹어요. 아니 아무리 아파도 음식이나 운동으로 치료하지 약을 못 먹어요. 공연중에 감기라도 걸리면 남편이 억지로 먹여준 적도 있는데, 돌아서면 다 토해버릴 정도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억지로, 일부러 몸에 칼을 대가면서 낳는 건 싫었어요.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모를까, 자연분만을 원했죠.”

수중분만에 대해서는 예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을 때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아이엄마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던 날렵한 몸매의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수중분만을 했다는 것. 그냥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잊고 있다가 임신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는 한국에서 최초로 수중분만을 한 사람이 되었다.

31살에 첫 임신.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지 않았다. 혈액을 많이 했고 병원에서도 유산이 확실하다며 수술을 권유했다. 그러나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병원엘 갔더니 '아이가 아직도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 권유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안정을 하는' 대신 조용히 책을 읽고 평소에 하던 운동을 하면서 아이를 살리기 시작했다.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소망은 누구나 있는 거지만 너무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한 생명을 포기하라는 병원에 분노했죠. 남편은 태교와 출산에 관한 자료를 구해서 공부하고, 난 나대로 이런저런 공부를 했지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3일 후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연분만의 의지를 가진 연예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더군요.”

그 다음 문제는 남편이 아내의 출산현장에 동참할 수 없게 만드는 병원의 관행에 대한 것이었다. 함께 출산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막는 병원 때문에 임신 9개월까지 다니던 병원을 옮겼다. 다행히 수중분만은 산모가 고통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이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고, 남편도 처음부터 끝까지 출산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공연기획을 하는 임영근씨가 배우 섭외차 그를 찾아온 것이 인연이 되어 98년 5월, 최정원씨는 임영근씨와 결혼했다. 비슷한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외국으로 연극을 보러 다니며 여행을 즐겼다.

그는 아이를 낳아 기르며 지내고 있는 요즘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또다시 아이를 낳는다면 그 때도 수중분만을 할 예정이다. 어떤 의료적인 행위 없이 순수한 몸의 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런가, 이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기가 건강하고 순해요. 물도 엄청 좋아하구요. 자고 일어나도 울지를 않아요. 엄마 아빠보다 먼저 깨서 혼자 놀면서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걸 보면 신기해요. 우리가 출산방법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분위기를 환기시켰다면 그걸로 됐어요. 출산의 주체가 아이엄마고 그들의 가족인데 우리는 그 동안 너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길들여지지 않았나요?”

그 날, 아이의 출생을 지켜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남편은 육아나 가사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분담이나 책임의 차원을 넘어 당연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동참한다고 자랑이 대단했다. [E]

글 권혁란

열려라! 고용평등!



현재 우리나라 전체공무원 중 여성은 30%에 육박한다. 그러나 정작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오른 여성은 많지 않다. 그래서 몇 되지 않는 그 여성들에게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최초' 이력은 그 소유자에게는 영광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여성의 '입성'을 허용하지 않았던 공무원사회의 배타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1월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장 직무대리에 취임한 신영(55)씨도 마찬가지다. 최초의 여성 근로감독과장(서울중부지방사무소), 최초 여성 사무국장(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초 여성 일선기관장(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이라는 이력들이 그를 설명하는 데 빠질 수 없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새로운 역사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성이 적었던 분야의 업무들을 맡았던 것뿐"이라고 한다.

그가 1967년 9급 말단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30여 년간 공무원이라는 한길을 걸어와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도 근로여성국장 취임을 빛나게 하는 요인이다. 여성에게는 여전히 부수적인 직책만이 주어지는 공무원 인사관행 속에서도 그는 81년 최초의 여성 근로감독과장으로 선임돼 청계상가 여성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여성노동문제와 인연을 맺었다. 그 후 여성노동문제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그의 손을 거처갔다. 1985년부터 89년까지 근로기준국 부녀소년과에 재직할 당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개정하는 데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고 과장으로 승진해서는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기틀을 만들었다.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는 고용정책실 실업급여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해 여성이 대다수를 이루는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고통을 여성에게 전가해 여성노동자의 존재 자체를 위협했던 무더기 여성해고의 분위기에 맞서 여성실직자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도 하는 등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왔다.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목표

로 하는 근로여성정책국장이라는 자리는 그의 이력으로 보아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국장 직무대리라는 자리에 앉은 지 한 달이 채 안됐지만 그는 벌써 앞으로 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에 대한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데 바쁘다. 고용과 승진·임금에서의 차별관행 개선, 직장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여성관리자 진출 지원 등, 근로여성들의 절실한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그의 일이다. 이런 지원책들을 크게 보면 노동시장의 변화에 걸맞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길러내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라서 힘의 논리가 점점 약화되고 유연함과 섬세함의 능력이 요구되는 추세죠. 당연히 노동시장에서의 성 구분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고용이나 승진에서 남녀의 성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근로여성국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겠죠." 앞으로 지적·정신 중심으로 노동개념이 변화하고 다양한 근로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다. 남성중심적인 공무원사회에서 여성정책을 밀고나가는 것은 여전히 외로운 싸움이다. 그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은 그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다. "'고용평등'이라면 '모성보호'나 잠정적 우대조치 또한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역차별' 논리에 맞서 슬하에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그가 얻은 협상능력은, 고유의 업무보다는 정부내 여러 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 대부분인 근로여성국의 책임을 맡게 된 지금의 그에게 무엇보다 든든한 자원이 될 것 같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에 공직생활이 즐겁다는 그는, 단지 '최초'라는 이력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여성공무원이라는 이력으로 평가받기 위해 오늘도 바쁜 일과를 시작한다. [1]

글 정미경 / 사진 엄윤순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여성경호팀 '블루버드' 임미화 실장

균형 잡힌 근육질의 몸매, 굳게 다문 입술에 비장해 보이는 표정, 까만 양복, 그리고 그보다 더 까만 선글라스. 할리우드영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탓인지 우리에게 '경호원'의 이미지는 이처럼 획일화되어 있다. 더군다나 그 이미지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자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경호원의 세계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엔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경호'를 내걸고 파랑새처럼 높이 날아오른 '블루버드'의 임미화 실장이 우뚝 서 있다.

국내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밖에 없다는 여성경호팀 블루버드의 설립 시기는 약 2년 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특히 경호원에 대한 인식이 '강한 남성들'의 특수한 직업으로 여겨질 뿐이어서, 여성만으로 구성된 블루버드 팀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많은데 반해 정작 경호를 의뢰하는 손님은 드물었다. 남성이 주요 고객인 데다 이미 남성에게 의해 장악된 그 세계에서 블루버드의 진가를 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업과 정치인, 정부기관, 기획사 등이 경호업체의 주요 고객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로 남성경호원을 상대해 온 탓인지 여성이라 하면 일단 알보는 경향이 강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만나주지 않아 일단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홍보의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은 경호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임실장은 지난 2년간 꾸준히 경호시범회를 열고 무료 호신술강좌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단 한 건이라도 일을 맡긴 고객은 무조건 단골로 확보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 다행히 결과는 좋았다. 특히 여성기업인 사이에서 블루버드는 '함께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경호팀으로 꼽힐 정도가 됐다.

임실장은 또한 여성단체를 설득하는 일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스토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이 너무나 많은데도 정작 그들은 유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예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가정폭력법 등 여성을 위한 법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다수 여성이 전적으로 법에만 의존하기에는 아직도 여성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이 낮고 걸림돌이 많다고 임실장은 판단한다.

"여성단체의 경우 처음엔 경호원을 조직폭력배 정도로 파악해 우리를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다. 그러나 남성의 폭력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여성에게 때로는 경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의뢰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과정에서 유부남에게 사기당해 결혼을 하거나 혼인빙자간음에 걸려들어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사람들의 입소문이 두려워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여러 명 만났다. 이럴 때 흔히 여자는 법에 의존하기를 꺼려하고 남자는 그것을 악용해 오히려 여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임실장에 따르면 이런 경우 여성경호원의 개입으로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돼 피해여성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야말로 블루버드 활동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강조한다.

초등학교 시절, 몸이 약한 오빠가 항상 또래 남자애들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이 분에 겨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임미화씨. 체육과를 선택하고 무술 고단자로 성장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나의 평생 업일까' 싶었다는 임씨는, 그러나 블루버드 팀장이 된 이후로는 세계 최고의 여성경호원이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키우느라 여념이 없다.

여기서 '최고'란 단지 무술의 달인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임씨는 기술적인 면 못지않게 인내심과 자부심을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자는 늙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싶어한다. 40~50대가 돼서도 현장을 누비는 맹렬 여성경호원으로 활약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글 박미숙 / 사진 조여권

“유능한 악녀 이미지가 좋다”

‘99 여성관객이 뽑은 최고의 영화... 발표



‘99 여성관객이 뽑은 최고의 영화...에서 최고의 국내영화로 뽑힌 <미술관 옆 동물원>의 이정향 감독.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더 나아가 여성전사나 악녀같이 남성을 조종하고
마음껏 비웃는 영화 속 여성캐릭터를 기대한다.
지난 1월 31일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이혜경)은 제4회 ‘99 여성관객이 뽑은 최고의
영화, 최악의 영화’를 발표했다. 영화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99년 12월 15일부터 2000년 1월

20일까지 한 달간 20대학생 및 직장인
1,1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은 작년
3회와 달리 해를 넘겨 올 1월까지 이어졌는데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등을 비롯 99년
12월에 개봉한 작품들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눈길을 끈 것은 영화 속의 여성캐릭터에
대한 질문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99년
최고의 여성캐릭터로는 <탈미남딩>의
채수연(심은하), <해피엔드>의 최보라(전도연)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전문직 여성캐릭터. 특히 이들 모두
사회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여성캐릭터로 뽑힌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하겠다.

한국영화 속 여성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보통이 70%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이 34%,
만족이 22%였다. 작년의
만족도 6%에 비하면
올해의 22%는 큰
증가이며, 불만족도도
68%에서 34%로
줄어들어 여성관객들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만족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여성캐릭터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미지가 고정되지 않았다’, ‘여성의 직업유형이
다양해지고 묘사가 현실적이다’, ‘여성의 성적 욕구가
외국되지 않고 주체적이다’ 등을 들었다.

99년 최고의 국내영화로는 이정향 감독의
<미술관 옆 동물원>(15%)이, 최악의 영화로는
<노랑머리>(25%)가 선정됐다. 99년 제4회
여성관객영화상 특별상은 <쉬리>에게 돌아갔고,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작품이나 감독, 배우 등에게
주어지는 명예상은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가
수상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한 장운주 간사는 “영화를 한
해 한두 편밖에 보지 않는 여성관객들의 의견까지
수렴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며 “5회 때는 좀더
대중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에는 설문에 성실히
참여했던 관객들이 직접 시상식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골프경기 보조원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소공동 한화빌딩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40세 여성에게도 일할 권리를 달라!” 지난 1월 31일 오후
1시경 서울 소공동 한화빌딩 앞에서 한화그룹 산하
프라자컨슈머클럽(이하 프라자CC)의 경기보조원들은 다른
골프장 경기보조원들과 함께 부당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프라자CC의 경기보조원 7명은 2000년
1월 1일자로 회사측이 정한 정년 40세(만 39세)가 되면서
해고돼 현재 복직을 위한 출근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 또
아들은 이 날 종로5가까지 가두시위를 벌인 후 종로성당
세미나실에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골프경기 보조업무가 단순한 서비스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기보조원은 경기의 규칙, 날씨, 풍향,
코스의 지형 등을 파악해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보조하는 ‘전문서비스’ 직. 그러나 이제까지는 ‘40세
정년이 통상관례이다’, ‘서비스직이므로 나이가
중요하다’는 회사측의 주장대로 퇴직해 왔던 게 현실이다.
이는 40세 혹은 43세 등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88CC, 부산CC, 대둔산CC, 한양CC 등도 마찬가지.
“프라자CC의 경우 다른 남성직원들의 정년이 57세임을
감안한다면 이 해고사유는 합리적 논리가 결여된
부당해고이며 명백한 성차별적 해고에도 해당된다”고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여노조) 조직국장은
토론회에서 말했다.

조기정년 외에도 골프경기 보조원들이 겪고 있는 작업상의
문제점은 많다. 우선 경기보조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근로자로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 고정급여가 없이 자신의 차려가 돼야만
일할 수 있고 자기 순번이 아닐 때는 일할 수 없으며, 혹
회사 규칙을 어기더라도 하연 손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일만 하는 일명 ‘백대기’ 벌칙을 받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캐디 최악의 노동조건 개선하라”

골프 경기보조원 40세 정년에 맞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조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는
‘골프경기 보조원들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내려지기도 했다. ‘고용형태는 일반 사업체와 다르지만
사업주에게 고용돼 있어 종속관계가 성립되고, 손님에게 받는
봉사를 근무 후에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등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여노조 산하 88CC분회 신윤자 분회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산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이종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피약밭에서 일해도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해 각막
손상이 심하고 피부병은 물론 일사병도 많으며 공에 맞는 일은
다반사다. 하지만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하고 간혹 손님에게
성화통을 당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고발조차 할 수 없다. 심한 경우 한
여성은 공에 맞아 이가 8개나 부러졌지만 사업주는 손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모른 채했다는 것이다.

여노조 최상림 위원장은 “골프의 역사가 긴 서구의 경우 우리와 같은
개념의 경기보조원은 없다. 우리 나라는 경기보조원에 대해 ‘절고
예쁜 여자가 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노조 산하
프라자CC분회는 프라자CC를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한
상태이고 여성특별위원회에는 남녀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성차별적
해고로 고발을 했다.

최위원장은 “이번 시위는 무엇보다 경기보조원 자신들이 부당함을
알고 같은 뜻으로 함께 모여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골프장이 120여 개를 상회하고 있고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보조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업주의
정당한 대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직장내 성희롱 수면 위로

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조항이 신설, 시행된 후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전화연합 부설 서울성폭력상담센터(소장 정춘숙, 이하 상담센터)가 1999년 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 직장내 성폭력의 상담건수가 98년 240건에 비해 99년에는 377건으로 늘어났다. 상담센터의 남지향 간사는 직장내 성폭력 상담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여성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어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을 시행 이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상황을 성폭력으로 인식해 상담 접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보면 직장내 성폭력은 강간과 강간 미수,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추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성추행의 사례들은 뒤에서 겨안기, 얼굴 및 손·다리 만지기, 강제적 키스 등이 있다. 피해 장소는 업무를 보는 사업장 안이 49.8%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피해여성은 가해자를 피할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없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고려하거나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등 경제적, 심리적 피해까지 입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들의 대처방법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고려중이다', '경찰이나 신고센터, 직장 내 노조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등의 순으로,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거운 오즈 '가볍게'

종이잡지 폐간하고 웹진으로 재창간

만화전문지 '오즈'가 2000년 1월호를 끝으로 폐간하고 2월 웹진(www.dadam.co.kr)으로 다시 태어난다. 작년 10월 제작진들이 재출판하기 위해 감행했던 휴간이 한 일간지에 의해 '폐간'으로 잘못 보도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독자들의 빗발치는 문의전화가 쇄도한 데 이어 유통과 제작의 문제까지 겹쳐, 결국 오즈는 폐간과 웹진으로의 탈바꿈을 결정했다.



「오즈」, 2000년 1월호 표지.

많은 매니아를 확보했지만 자금문제와 열악한 출판 유통구조에 밀려 신화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인터넷상에서 계속 오즈를 만날 수 있다니 너무 애석해하지는 말 것. 「오즈」는 1998년 12월에 창간, 지금까지 총 12권을 발행해 만화는 어렵지만 본다는 편견을 깨고 만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오즈는 단지 자회사의 작가 발굴을 위한 기존의

단순한 공모를 과감히 탈피한 바 있다. '만화'는 장르의 특성상 혼자서 습작만 하다보면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자주 작품을 만들고 '발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오즈의 의도. 작가를 지망하지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오즈는 작가들의 창작의도를 북돋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 2회로 실시했던 독자공모에서는 1회보다 훨씬 질 높은 작품들이 응모됐다고 오즈측은 밝혔다. 오즈에서 웹진임을 알고 있는 김경훈씨는 3월 전에 반드시 웹진을 탄생시킬 각오로 올 가을이 바쁘더라도 '기존의 종이잡지 「오즈」가 좀 무거웠다면 웹진은 더 가볍고 쉽게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웹진 「오즈」는 만화를 사이버상에서 읽을 수 있도록 기존 잡지에서 연재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실는 등 다양하게 재구성된다. 만화에 대해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하는' 공간, 웹진 오즈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손덕수 교수 복직

손덕수 교수 복직

지난 11월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학교법인 선목학원)측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던 손덕수 교수(사회복지학과)가 복직한다. 25일 교육부 교원징계심사위원회에서 '1개월 징직후 복직' 판정을 받아낸 것이다. 손교수는 해임된 지난 11월 3일부터 1개월이 징직 기간으로 이미 상채제 3월부터 정식으로 복직한다. 손교수는 "복직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번 사건은 내 개인적인 슬리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 여성운동 30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직을 위한 손교수의 개인적 대응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여성국과 한국여성학회를 비롯 김은실(이대 여성학과), 조은(동국대 사회학과) 등 90여 명의 여교수들의 노력도 컸다. 이들은 '학교당국이 밝힌 해임사유가 과연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는 명백한 탄압행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공개서한을 각각 교육부 교원징계심사위원회에 보냈다. 전교조 본부 백영애 여성국장은 "교육부에서는 양성평등을 하도록 교사에게 지시하면서 정작 양성평등을 교육하는 교사는 탄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백국장은 지난 1월 전국여교사연수에서 여교사들과 '양성평등과 성차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하던 중 손교수 해임 건에 대해 "명백한 교권탄압으로 해석했다"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연대서명에 나서고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외에도 전국 고교 교사와 연대해 양성교육을 지양하는 대구효성가톨릭대학에 '학생 안 보내기 운동'도 벌였다. 손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교수, 여교사 나아가 여강사들의 인권을 위한 모임의 필요성을 느꼈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 앞으로 상담망을 구축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2000년 봄 여성계 '시끌벅적'

2000년 봄, 생명의 기운 왕성한 시기여서일까 크고 작은 여성관련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 돕기 위한 하루 첫집'까지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가 읽은 민족 재흥 조선인

장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사진이 있는 마음' (02-720-9955)
일시: 2월 29일까지
행사내용: 사진작가 조여권 기획전

2000년 3·8 세계여성의 날 92주년 기념 2000년 한국여성노동자대회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02-708-4628)
일시: 3월 5일(서울)
장소: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행사내용: 여성노동자 한마당, 비디오텍-20세기 한국여성노동운동사, 노래극 <그대 좋아, 우리들 손으로!>, 비정규직 여성 권리 찾기 운동본부 발족, 대동마당
• 부천 11일 부천 북부역 • 인천 15일 여성문화회관 소강당 • 안산 16일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강당 • 부산 11일 적십자회관 대강당
• 마산창원 8일 마산시 청동 사거리 • 광주 9일 충정로 광주우체국 앞
• 전북 8일 익산 중앙시장 사거리

에코페미니스트 가연무도회

장소: 서울 안국동 현대빌딩 뒷편 원서빌딩 지하
정신세계원(02-733-3135)
일시: 3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행사내용: 「깨어나는 여신」(정신세계사 펴냄) 출간기념회 겸 한국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만남의 자리

중국조선족 1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하루 첫집

장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 '철학아담 스타나루' (참여연대 2층, 02-720-1991)
주최: 나눔의 집(0347-768-0064)
행사내용: 중국 거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가급이런 일일첫집
일시: 3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오후 1시 다도 시연, 오후 5시 국악연주)

2000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6회 한국여성대회

주최: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02-2273-9535)
일시: 3월 12일 일요일(오후 12시 30분)
장소: 서울 여의도 KBS 홀
행사내용: 단체부스, 여성미술전, 먹거리 장터, 제2회 여성문화제 '새로운 천년' 시상식 및 수상식 공연, 여성축제, 부패정치인 추방을 위한 여성대행진(여의도 공원).

김보미 기자

낙선운동과 여성단체

새천년에 급부상한 주류세력은 단연 시민단체이다. 낙선운동으로 불을 지핀 눈부신 시민단체의 활동이 해방구를 찾지 못했던 민심과 타성에 젖은 정치권을 뒤흔들어놓았다. 총선시민연대에는 그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NGO(비정부기구)들이 대거 참여해 있다. 물론 한국여성전환연합, 여성민주회 등 여성단체들도 대거 참여했다.

여성비하 의원은 떨어뜨려라



이번 낙선운동에서는 여성들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먼저 여성비하 발언이 낙선시켜야 할 의원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국창근 의원과 김중위 의원이 대표적이다. 전남 담양 초선의원인 민주당 국창근 의원은 99년 12월

13일 국회 정무위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게 "씨가지 없는 년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따귀 서너 대는 맞아야 해"라는 폭언을 했다.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단식농성을 벌였고, 결국 12월 23일 국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하고 나서야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은 부천서 성고문사건 때 당시 피해자였던 권민숙씨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 시간씩 가해 오는 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인권적 발언을 해 문제가 되었다.

총선시민연대의 공식적인 발표에 올라온 반여성 인사 외에도 12명의 의원이 더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성폭력특별법 등 각종 여성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시 반여성적 의견을 개진한 의원, 여성 관련예산 배정에 반대한 의원, 여성 비하발언을 한 의원, 여성의 안전침해 행동을 한 의원이 포함된다. 이제 반여성적인 행동을 하는 의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낙선운동과 관련된 웹사이트

그냥 밀레니엄

<http://www.naksun.co.kr/main.html>

총선시민연대

<http://www.ngokorea.org/>

여성의원, 지지할 것이나, 말 것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433후선 D-65일



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여성정치단체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이들 두 단체는 추미애, 한영애, 박근혜 의원 등 현역 여성의원 9명과 여성 공천희망자 20명을 유망한 정치신인으로 전원 공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인에 대한 추천, 당선 운동을 벌이지 않는다'는 총선시민연대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전협의 없이 추천자 명단을 발표한 것.

추천 대상자에는 저절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H의원과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한나라당 P의원 등이 포함돼 자격과 상관없이 여성이면 누구나 공천받아야 하느냐는 비난의 소리가 있었다. 이것이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자 여성정치세력시민연대는 총선시민연대를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및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 실사를 목표로 운동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총선시민연대 게시판에는 "여성단체는 총선연대에서 손을 떼라", "여성단체가 무도덕하다" 등의 글들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번 일을 통해 여성정치단체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아직 꽃봉오리도 채 맺지 못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당분간 가위를 들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남성위주 정치판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여성정치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격려이지 준엄한 비판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군가산제 게시판 논란의 초점

최근 군가산점과 관련된 게시판이 다수 생겨났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직후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가 반대자에 의해서 해킹을 당하는가 하면 현재의 게시판은 넘치는 항의글들로 마비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대부분은 현재의 결정에 불복하고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라는 남성들의 빔발치는 항의였다. 간혹 이에 반발하는 여성들의 주장이 나오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비난의 글들이 쇄도하고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인신공격이나 욕설을 담은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다. 결국 물줄을 뚫고 남성들의 빔발치는 성토가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군가산점 존치라는 결과를 끌어내게 된 것이다.

이색 대안 & 의견

게시글 중에는 군가산점에 대한 대안으로 이색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먼저 남성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남녀공동징병제'이다. 여성에게도 똑같이 병역의 의무나 그에 버금가는 의무 내지 고통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천리안 토론실에서 '여성 징병 의무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맞서 병역의 의무

대신 여성에게는 출산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올라왔고, 출산한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때마다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의 5% 가산점을 3% 정도로 낮추고 30% 정도의 여성공무원고용할당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온건(?)한 의견도 있었다. 또 군필자에게 군복무 기간만큼의 용서기간 연장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고 거의 무임금 착취나 다름없는 군복무에 대해 현실적 수준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든지 모병제로의 전환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표적이 된 이대생

개정법안에 대한 반발을 특정 여성단체나 집단으로 옮겨 집중공격하는 표적공격의 양태도 보였다. 게시판에서 남성들의 주 공격대상은 이화여대생인 경우가 많다. 군가산점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이화여대 졸업생이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대 게시판은 비난에 위협을 걸들인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헌법소원을 낸 이대생들에 대한 협박의 글도 있었다. 이대 출신의 여성들이 활동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문제가 이대생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빔발치는 폭언 때문에 게시판에 암호를 걸어놓자 암호를 해킹해 다시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명희 사건

이번 군가산점 문제 논란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박명희'라는 사람이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게시판에 등장한 것은 지난 1월 6일. 그(녀)는 여러 관련게시판에 "군대의무와 군가산점 등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피해를 당하는 사안"임을 지적하고 오히려

문제의 초점은 다른 데 있으므로 반여성적 발언을 중지하라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했다. 어느 때처럼 반박의 글이 쏟아지자 박명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백포박판을 펼쳤는데 일부가 대부분 반박인 데다가 남성들을 싸잡아 비난 혹은 모욕하는 발언이 많았다.

가뜩이나 흥분상태에 있는 남성들은 박명희를 표적으로 삼아 집중공략하기 시작했다.

성명	성별	연령
박명희	여성	24
김영수	남성	24
김영수	남성	24
김영수	남성	24
김영수	남성	24
김영수	남성	24
김영수	남성	24
김영수	남성	24
김영수	남성	24
김영수	남성	24

박명희는 게시판에서 그야말로 '왕따'를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군가산점과 남성들에 대한 반박을 계속했다. 심지어는 박명희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김영수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박명희일 것이라는 의심도 받기도 했다.

끝없는 공방을 벌이던 박명희가 드디어 2월 4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저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살을 빼서 군대를 다행히도 면제받았으나... 저는 이희창 아들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살을 빼기 위하여, 2달 3달 동안의 단식을 하면서 군대를 안 가기 위하여 노력했지요. 저는 남자이며, 병역을 면 사람입니다." 어쨌든 보나 이름으로 보나 당연히 여자일 것으로 추정되던 박명희의 실체가 과연 사실인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명희 사건의 출발점은 이번 논란이 여성 대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서 시작됐다. 군연제를 받아내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그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남성인 그조차도 군가산점제의 피해자인 것이다.

이같은 해프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단지 성(性)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인터넷의 익명성만이 문제일까?

최혜숙(일요시사신문사 뉴미디어부 기자)

군가산점과 관련된 사이트들

A. 주요 논란 게시판

헌법재판소

<http://www.court.go.kr/pub/pb.html>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군필자를 위한 사이트

<http://www.ssaw.co.kr/>

국가보훈처 <http://pvea.go.kr>

군가산점 철폐를 위한 웹보드

<http://www.bbs4u.com/Board/ViewBoard.asp?bcode=fm128716>

재향군인회 <http://veterans.choibiz.com/>

국방부 <http://www.mnd.go.kr>

B. 이색 사이트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징반모) 1

<http://members.tripod.co.kr/zingbanmo/index.htm/>

징병제 반대 모임 2

http://board2.superogi.com/kr/board.cgi?id=6_ssamj99

군가산점 찬성하는 여성들의 모임

http://www.geocities.com/ipunil_3k/

여성징병추진위원회

<http://myhome.dreamx.net/mahler/>

천리안 go forum 여성징병의무회

<http://www.mind.go.kr>

서명운동

C. 논란

이화여대 <http://www.ewha.ac.kr/>

이대 학보사 참여게시판

<http://mm.ewha.ac.kr/~hakbo/cgi-bin/board.cgi>

이화여자 대학

<http://mvm.ewha.ac.kr/~Ewhaakum/submain5.html>

이화여대 시사열전 DEW 게시판

http://dew.ewha.ac.kr/sample.asp?treeboard01/board01_main.asp?skind=freeboard02&first=1

이화여대 처징소통 게시판

http://www.ewha.ac.kr:9799/bbs/owa/b_free_chk?id=ewha&passwd=ewha

남성학연구회

천리안(men), 하이텔(sg1793), 유나텔(men),

태넷아이(norman)



당신의 성격은 어떤 타입인가? 1

낙천적 유형 알아보기

당신은 낙천적인 성격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인 성격입니까? S.Cyberia라는 여성 임상심리학자가 만든 이 설문지로 당신의 성격을 체크해 보세요.

다음 질문들을 잘 읽어보고 당신에게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봅니다. 질문의 내용이 자신과는 상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하고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봅니다.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모두 18개이고 10분 이상 걸릴 것입니다. 모두 답했다면 아래에서 지시한 방법으로 결과를 찾아보세요.

1) 당신은 자신에게 생명보험이나 재해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0 - 결코 필요하지 않다.
-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2 - 중요하지 않다.
- 3 - 중요하다.
- 4 - 매우 중요하다.
- 5 - 반드시 필요하다.

2) 직장을 구하던 중, 당신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의 채용공고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지원자격도 당신에게 해당되네요. 지원서류를 제출했고 면접시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격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0 - 가능성이 전혀 없다.
- 1 - 가능성이 적다.
- 2 - 희망적이지만 떨어질 것을 자오하고 있다.
- 3 - 상당히 확실하지만 잘 안될지도 모른다.
- 4 - 거의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5 - 반드시 합격한다.

3) 기차역에서 필히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당신에게 기차표를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기차표 값은 3만원인데 자기에게 2만7,500원밖에 없고 2,500원이 부족하다면서 2,500원을 보태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돈을 출분히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5 - 전혀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2,500원을 줄 것이다.
- 4 - 조금 의심은 가지지만 돈을 준다.
- 3 - 돈을 주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대표소에서 표를 사는지 확인한다.
- 2 - 미심쩍은 부분을 따져본 후 돈을 줄지 결정하겠다.
- 1 - 거짓말일지도 모르니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 0 - 분명히 거짓말이고 무시한다.

4) 당신의 품에서 중앙철철 생긴 양어리가 한겨울입니다. 당신은 얇게 걸린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얇게 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 0 - 악성암일 것 같아 두려움에 떨며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간다.
- 1 - 신경과민 상태가 될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검진을 받는다.
- 2 - 불안할 것 같고 검진을 받는다.
- 3 - 검진을 받을 것이지만 그 결과가 양성종양으로 나올 것이고 나쁜 결과는 없을 것이다.
- 4 - 검진을 받을 것이지만 양성 종양이라고 확신한다.
- 5 - 아무 것도 아니므로 그냥 넘어간다.

5) 친구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미처 돈을 돌려받기 전에 이 친구가 다시 경제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친구에게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현재 필요로 하는 돈을 위주어도 당신의 생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액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5 -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먼저 연락한다.
- 4 -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돈을 빌려주겠다고 먼저 연락한다.
- 3 - 친구가 부탁해 오면 나중에 돈을 갚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빌려준다.
- 2 - 친구가 부탁해 오면 돈을 갚을지 의구심이 들어 망설임 끝에 빌려주게 될 것 같다.
- 1 - 친구가 돈을 갚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 0 -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게 분명하고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88쪽 계속

'말' 하기보다 '실천' 한다

독일에서 시작된 새로운 여성운동



원한다. 이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정치와 경제
분야의 권력에
침투하여

독일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새로운 여성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눈에 띄지 않게' 사회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들은 여성해방에 대해 말하는 대신 여성해방을 '살고' 있다.

현재 독일 신생기업의 3분의 1은 여성에 의해 창업되고 있다. 기존 조직의 승진체계에서 차별을 당할 경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곳을 뛰쳐나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유리천정'을 감수하기보다는 그것이 없는 자신의 회사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심전 여성기업인으로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박람회를 개최하여 성공의 길을 모색한다. 이같은 여성들의 약진세는 업계 뿐만 아니라 정계 언론계에도 미치고 있다. 현재 독일정부의 여성장관은 모두 다섯 명,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정부 복지부 저개발국원조부 장관이 모두 여성이다.

최근 독일여성들에게서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권력에 대한 욕구'. 10년 전만 해도 권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좋아하지 않던 여성들이 이제는 권력을 즐거운 것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학자들은 그 원인을 '요즘 여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렇게

독일에서 새로운 여성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예전처럼 거리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직장에서. 젊은 여성들이 연대와 커리어 네트워크 결성 등을 통해 권력을 향한 길을 뚫어나가는 한편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새로운 형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다음은 최근 '슈피겔'지가 커버스토리로 다룬 독일의 젊은 여성들의 새로운 의식과 모습들이다.

독일건축가연맹은 16개의 주지부가 있는데 그 중 한 곳인 함부르크 주지부의 장은 알렉산드라 체르너라는 36세의 여성이다. 그런데 유일한 여성 주지부장인 그녀는 얼마 전 독일건축가연맹이란 이름을 바꾸는 데 앞장섰다. 남성명사로 쓰인 건축가(Architekt)란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독일 남성건축가 및 여성건축가(Architektin) 연맹'으로 바꾼 것이다. 체르너는 그 일이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말한다. 투표권자의 90%가 남자였기 때문이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체르너가 자기 건축사무소를 세운 것은 8년 전. 큰 조직에 고용되어 희박한 고위직 승진가능성을 기다리느니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여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각종 건축설계 공모에 억척스럽게 응모했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 6년 전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몇 달간 쉼 후 아이를 사무실에 데리고 다니며 정신없이 바쁘게 일했다. 그녀의 집과 사무실은 한 건물에 있다.

독일사회에 새로운 여성세대가 행진해 들어오고 있다. 그녀들은 아심에 차 있고 강인하면서 대개 뛰어난 능력과 자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자아실현과 성공, 영향력을

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권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성공은 섹시하다

독일여성들은 회사나 조직에 들어간 후 시간이 흘러 30, 40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승진의 차별을 느낀다. 여성들이 서로 뭉쳐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치열하게 찾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같은 조류를 타고 '여성을 위한 마키아벨리', '성공은 섹시하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여성법칙' 같은 책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현재 독일 내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의 네트워크나 각종 조직들도 300여 개, 90년대 초반 해도 75개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엄청난 폭발세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은 직업적 성공의 최대 걸림돌인

남성 동료와의 경쟁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남성 동료와의 경쟁'은 독일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남성 동료와의 경쟁'은 독일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러시아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체첸의 전설적인 여저격수 '화이트스타킹'이 13일 러시아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영국의 '더 타임스'에 따르면 엘레나 혹은 에르보이는 웅모 때문에 '로리타'라고도 불리는 이 여성은 22세 때인 지난 95년 체첸의 바사예프군에 합류했다.

엘레나는 경찰에서 '저격수는 월급을 더 잘 준다는 소문을 듣고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웅병으로 입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선택은 체첸군을 감동시켰고 결국 그녀는 체첸의 아전사령관과 결혼했다. 엘레나는 이번 전쟁에서 20명의 러시아군과 경찰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병사들간에는 오래 전부터 공포의 저격수들인 화이트스타킹에 대한 소문이 전설처럼 퍼돌았다. 이 소문에 따르면 발트해 연안국 등에서 온 이 여저격수들은 철사 같은 불론드머리를 가졌고 대부분 스키를 타며 총을 쏘는 바이애슬론선수 출신이라는

육아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사는 법을 새로 만들기 위해 총체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새로운 법의 핵심은 바로 남자들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의 실현에도 적극적이다. 육아문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변화도 눈에 띄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여성인력을 잃지 않기 위해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작업시간과 근무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기업가들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여성들의 육아문제에 대해 남성기업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호의적이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건축가 체르너는 자기 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엄마가 돼서도 별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다. 엄마들에게 독립된 방이 주어지면 그곳에서 여성들은 아기를 돌보며 근무할 수 있다. 아기를 수가 많아지면 놀이방도 만들고 보모도 고용할 생각이다.

김신명숙 편집위원

전설의 '화이트스타킹' 잡혀

것이다. 전 바이애슬론선수였던 엘레나는 소문으로만 들던 '화이트스타킹'의 존재를 확인시킨 첫번째 여저격수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신문 '세고드냐'는 2명의 체첸 여저격수가 다게스탄에서 사살당했다고 국방부 정보를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이름도 사진도 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이 보도를 작문기사로 간주했다. 체첸전을 취재해 온 영국 일간 '더 타임스'의 아나톨 리벤 기자는 여기자들과 함께 있다가

'화이트스타킹'으로 오인받아 러시아군 정보요원에게 체포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남자보다 더 침착하고 민첩하며 명사수인 여저격수들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류숙철 문화일보 차장



체첸의 여전사들.

여자는 못생긴 것도 죄인가?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넵, 미언론 비판

미국 여성운동의 대모 글로리아 스타이넵(사진)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 여성에 대한 언론의 무지비한 인격모독을 비난하며 그녀를 외모로 단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스타이넵이 거론한 여성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전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성추문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린다 트리플.



악점을 거론하지 않는다. 배가 볼록한 사장족이나 닭모가지를 한 남자영커, 몇 가닥 남은 머리카락으로 대머리를 감추는 언론계 거물, 등갑대기를 벗은 거북이처럼 생긴 상원의원의 외모를 비난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불쾌하게 느껴지는가. 물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스타이넵은 "힐러리 클린턴이나 모니카 르윈스키가 빌 클린턴에 대한 미움을 대신 받았다"며 "르윈스키 파문을 수사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보다는 린다 트리플이나 과거 클린턴과 스캔들을 일으켰던 폴라 존스를 조종하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얼굴이 예쁜 여성의 경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의 열쇠는 외모로 돌려지는 것이 현실. 게다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문제가 최근 언론의 힘을 빌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스타이넵은 "지난 몇 년간 여성지위의 향상에 대한 반발은 폭음악의 기사와 인터넷 포르노물 등을 통해서도 아비하게 확산됐다"며 "린다 트리플이나 모니카 르윈스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여론재판은 앞으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자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힐러리와 그의 딸 첼시턴, 재닛 리노 법무장관 등에 대해 동성애자같이 생겼다는 농담을 던진 뒤 사과는 당사자 여성들이 아니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했다. 리노장관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은 아예 무시했다. 스타이넵은 "언론이 이같은 폭력에 대해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타고난 외모에 대한 조롱이 바로 언론인들에게 쏟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혜승 문화일보 기자

서구 예술계에 4명의 '나쁜 여자(Bad Girls)'가 나타났다. 세실리 브라운, 라이사 유스케비치, 슈 윌리엄스 등 3명의 화가와 사진작가 샘 테일러 우드가 바로 그들이다.

특정 그룹에 속해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을 욕망의 동물로 비하시킨다는 평론가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성의 돌출된 성기나 항문, 매춘부, 요열한 소녀 등을 묘사하며 성적 일탈을 감행한다. 이들은 피카소를 비롯한 수많은 남성예술가가 그랬던 것처럼 여성예술가 역시 타락한 성을 묘사하고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평등은 일탈의 자유 역시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세실리 브라운은

1990년대

젠더이론(gender

theory)의 비판에 밀려 명맥이 끊긴 '살(肉)'을 묘사하는 기쁨'의 재생을 표방하고 나섰다. 최근까지도 건장한 남성이나 요열한 여성을 묘사하는 것은 남근중심주의(phallocentric culture)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상업적인 포르노물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계만이 성에 대해 논하기를 꺼려온 것이다. 브라운은 '90년대 들어 회화(painting)는 죽었다'는 일부 미술가들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섹스의 죽음'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한다. 섹스가 죽어 회화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발표한 <보이 트러블>을 통해 이같은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온통 핑크빛으로 그려진 건장한 남성의 누드는 마치 심상한 살코기를 연상시킨다. 요열한 여성이미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작가인 라이사 유스케비치는 특히 10~14세의 성적 매력에 넘치는 소녀들을 즐겨 그린다. 파스텔톤 속에 어른거리는 어린 소녀의 누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산비감을 자아내는 동시에 '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유스케비치의 작품을 본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눈부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얀 바탕 위에 수많은 곡선들을 담아놓은 슈 윌리엄스는 추상화의 계보를 잇는다.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곡선들은



세실리 브라운, <보이 트러블>, 1999.

얼핏 무질서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귀뚜나 엉덩이의 길러진 틈, 항문 등 온통 섹스와 연결되는 소재들이다. 한때 남편의 심한 구타로 인해 죽음에 이를 뻔한 경험을 했던 윌리엄스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모티프를 '친밀한 공포'라고 규정한다. 알게

뻐놓은 남근의

단면을 묘사하는 등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격양된

감정은 느낄 수 없다.

'나쁜 여자 4인방' 갤러리 강타

대담한 누드화 로 예술계 도전

4명의 악녀 중 유일하게 필름을 사용하는 샘 테일러 우드는 작품 속에 서로 이질적인 소재들을 배치함으로써 '착한 여자(Good Girls)'와 악녀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최근작 <독백3>에서 그는 대부분의 도시소녀들이 한 번쯤 꿈꿔왔을 깔끔한 다락방을 등장시킨다. 작품 속의 여성은 너무도 편한 자세로 침대에 누워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알몸을 감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를 보면 침대 옆의 TV를 통해 포르노영화의 장면들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이들은 한껏 부풀어오른 꽃잎으로 자신의 열정을 나타내 '착한 여자'의 위상에 오른 조지아 오키프나 90년대의 성인롱가들과는 정반대에 서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차이를 넘어 누구나 성적 일탈을 꿈꿀 수 있다는 이들의 메시지는 여성운동의 큰 흐름 속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남석 문화일보 기자

“스파르타의 여성들은 해방됐었다.” 전사가 될 아기를 낳는 기계로 여겨져 고대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중 가장 열악한 삶을 산 것으로 알려진 스파르타의 여성들이 사실은 많은 권한을 누리며

해방된 삶을 살았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뉴욕

현터칼리지 및 시립대 대학원 고대사 석좌교수 사라 포에로이 박사의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고대그리스 여성연구의 독보적인 존재인 포에로이 교수의 연구는 수세기 동안 똑같은 사료와 유물로 연구를 해온 고대사학자로서 새로운 해석을 가한 결과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꺾은 그리스 남부의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후 200년까지 1,000년 동안 존속했던 스파르타는 고대 도시국가 중 우생술을 실시한 급속적 군사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스파르타에서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기 위해 양육되며 군대의 정신과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0세까지 군대를 떠나지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군대에서 살아야 했다. 스파르타의 여성들은 종종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속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어신, 청년, 아내,

노예—고대여성들’이라는 책을 쓰기도 한 포에로이 교수는 이 이미지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포에로이 교수는 시, 음악, 춤, 체육 등의 공식교육을 받은 스파르타의 여성들은 고대그리스 국가들 중 가장 해방된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또한 스파르타의 여성들은 술을 즐기고 뛰어난 미모를 지닌 것으로도 유명하며 트로이의 전쟁을 일으키게 한 헬레네도 스파르타 출신이다.

고대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여성들에게 공식적인

“스파르타 여성은 해방됐었다”



참정권을 부여했던 나라는 아무 데도 없으나 스파르타의 여성들은 재산권을 갖고 있었으며 기원전 323년부터 시작되는 그리스시대 스파르타에서 가장 부유한 두 사람도 모두 여성이었다. 또한 기원전 396년과 392년에 열린 올림픽에서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경기의 우승자도 모두 여성이었다.

테베에 의해 침략당한 기원전 370년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외부인들을 허용하지 않았던 폐쇄성으로도 유명한 스파르타는 사료가 없어 고대사 연구자들에게 거의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었다. 아테네인들과 달리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기록도 별로 남기지 않았고 대형 공공건물도 별로 짓지 않았다.

스파르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는 기원전 400년에 이곳에서 망명생활을 했던 아테네의 철학자 제논과 기원후 46년부터 120년까지 이곳에 살았던 플루타르코에 의해 쓰여진 것뿐이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당대의 많은 철학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스파르타를 이상국가의 모델로 삼았다. [1]

류숙필

“시집가는 딸아이의 혼수에 넣어주고 싶다!”

이 감동과 아름다움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혼불

최명희 대하예술소설

90년대 최고의 걸작

교보문고 조사, '90년대의 책' 가운데 제1위

‘혼불’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더불어서 귀향할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 상실, 존재성 박탈,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부정적인 자기증명, 너무나 아픈 자화상입니다. 이같은 우리들의 자기치유, 자기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할 곳이 어디인가를 작품, ‘혼불’은 보여주었습니다.

● 김열규 교수 연세대 국문학



- ▶ 1998년 호암상 예술부문 수상작
- ▶ 1998년 여성동아대상 수상작
- ▶ 1997년 세종문화상 수상작
- ▶ 제11회 단재문학상 수상작
- ▶ 전북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작

전10권

각권 값 7,000원

투혼의 작가 최명희가 17년에 걸쳐 써낸 혼불은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는 우리 시대 최고의 소설입니다



혼불의 문학적 가치와 미학적 본질을 만난다

혼불읽기 문화읽기

장일구 지음 값 10,000원

‘혼불’을 더 재미있고 깊이 있게 읽자!

독자들에게 소설읽기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는 길잡이

이여자김미화

살의 기획자, 20 김미화

박하사탕을 보다

나는 <박하사탕>이 그런 영화일 줄은 정말 몰랐다.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보고 싶다는 미화 말에 후배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언니, 박하사탕이 짱이야!" 했다. 내용을 물어봐야 하는 건데... '박하사탕처럼 톡 쏘면서 짜한 그런 재밌는 영화겠지'라고 짐작해 버렸건만 엄청 의미심장한 영화였다.

영화미니스트 출판기획집단 <달과 입술> 멤버들(가은, 송화, 현옥, 현경, 양숙)과 나, 그리고 미화 이렇게 일곱 명은 '매우 진지한 영화'를 함께 보았다.

영화를 보고 나서 386세대인 나와 미화는 싱글벙글 하면서 "야, 출연자들 머리, 진짜 옛날하구 똑같더라" 히히덕거렸는데... 20대 후배들은 매우 심각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아니, 이것들이! 발랄하고 생기 있게 나와 미화에게 젊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했건만!

커피를 마시다

극장에서 나올 때부터 모두 배가 고팠다.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6시가 지나야 문을 여는지라 커피를 마셔야만 했다. 그래서 홍대 앞 산울림소극장에 있는 커피숍에 우~ 몰려가 커피를 마셨다.

솔직히 나는 후배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애들과 함께 인터뷰하면 일인당 질문 하나만 나와도 여섯 개... '같이 밥 먹고 놀면서 나는 가

만히 앉아 녹음기만 틀어도 되겠지'라는 압박한 잔머리를 굴렸으나 애들은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 망각하고 개그콘서트 리더 미화언니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과 약간의 애정을 갖고 두서없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솔직히 그 자리가 인터뷰 자리라는 사실을 초지일관 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바로 김, 미, 화.

현경: 이렇게 놀러 나올 시간 있어요?

미화: 없어요. 아주 오랜만에 놀러 나왔어요. 실 때는 그냥 집에서 자요. 잠이 부족하니까.

가은: 딸 있으시죠?

미화: 딸만 둘. 아홉 살, 여섯 살.

나: 지금 미화씨 또래 다른 여자애들 그랜들은 다들 MC만 하고 개그는 안 하고 그러던데...

미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비중있는 역할을 못하게 되지.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MC를 해도 오래할 수 있어요.

나: 잠수 타고 싶을 땐 없었어?

미화: 외국두 가구 싶지. 잠수도 타고 싶고. 지난번에 내가 신랑한테 그랬어요. 한 6개월만 미국 가서 브로드웨이 연극도 보구 공연두 보고 이러구 오겠냐. 그랬더니 가라구 하더니만 내가 진짜 갈 거같이 준비하고 그러니까 야, 집안일 돌아가는 건 어떡하냐 그러더라구. 결혼한 여자들은 그래서 좀 어렵더라구. 일년 365일 맨날 아이디어 짜야 되구. 아이디어 짜러 가기도 싫고 그럴 때도

있잖아. 도망가고 싶은데 안 되데, 나는. 잘 안돼.

나: 결혼을 86년인가 그 때 했지? 애도 둘이나 있는데 놓고 키우면서 한 번도 잠수 안 타고 계속 일한 거 하나만도 대단한 일이야. 엄청 노력하고 성실하다는 건 정평이 나 있던데, 방송계에서.

미화: 음, 노력만 해. 왜냐면 노력 안 해도 딱 되는 사람이 있지만 난 아니거든. 실력이 딸리니까. 근데 요즘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국에서 여자가 남자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PD들한테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라. 둘째아이 가졌을 때도 방송국은 6개월에 한 번씩 개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맨날 바쁜데 애만 갖나 뭐 이런 얘기두 듣고 그랬지, PD들한테서. 그래두 남자들한테 지기는 싫구. 내 인물로 이쁜 여자 역할 하기두 어렵구, 그 가운데서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는 수밖에 없더라구...

나: 애들 어릴 땐 어떻게 했어?

미화: 친정엄마한테 떠맡겼어. 엄마가 애들 하고 앞으로 이사를 왔어. 애들이 엄마집에서 아주 살아요. 토요일에만 우리집에 오지. 애들한테 미안해. 친정부모님 도움이 없으면 일 못했지. 집에선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만 살아요.

나: 요새 제일 아끼는 후배가 누군지 알아맞춰보자!

일동: 김대희! 심현심!

미화: 안 그래. 다 이쁘지 뭐. 진짜



불가마에서 필자와 함께.

다 이빠요, KBS 후배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네들은 개그맨 되고 나서 7~8년 막 이렇게 인기가 없었던 애들이거든. 김영철, 김대희는 신인이자. 나머지는 전부 몇 년씩 고생한 애들이에요. 보통 개그맨이고 누구고 후배들 키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밀리니까, 후배들한테. 사실 후배들을 주목받게 해준다는 그 마음이 상당히 어려운 거야.

가온과 몇몇: 저희도 그 점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자들이 또 후배 키우는 걸 잘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미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지 않으면 코미디언들이 발붙일 데가 없어. 저는 지금 코미디 한 지가 18년째. 코미디언 세상도 참 경쟁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남으려면 후배들이 자꾸 커줘야 돼. 그래서 코미디가 재밌어지고, 좋은 프로가 생기

구 그러면 위에서 "코미디프로 하나 더 만들어라" 하면 우리 밥그릇이 커지는 거지. 나도 한 5년 빛 못 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마음이 읽혀진다고. 애들이 참 열심히 해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도 개들은 지금도 안에서 아이디어회의 하고 있어요. 난 선배니까 '야, 제대로 짜' 이러구 나오지. 하하. 하루 정도만 같이 밥 새면서 연기하는 거 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기 살려주고 그러면 잘해요. 코미디는 기 살려주는 게 중요해. 못하던 애들도 잘한다고 그러면 정말 잘해요.

현욱: 아이디어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미화: 월요일 10시 반에 공연 끝나면 헤어지고, 화요일 저녁 6시에 만나서 다음날 새벽 다섯시까지 회의하고, 수요일엔 작가하고 만나서 하고, 목요일엔 자들끼리 하고, 금요일엔

일엔 나하고 만나서 리딩하고 무대 선 그려주고, 금요일엔 앵콜을 정해요. 앵콜은 애드립이 많지. 외국 어디에도 그런 앵콜 코미디가 없대요. 그래서 일본 코미디언들이 보러 와요. 우리보고 어떻게 코미디를 앵콜하냐구. 금요일까지 연습하고, 토요일에 만나서 다시 연습하고 일요일 두시에 만나서 또 연습해요.

가온: 다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세요?

미화: 다른 프로그램은... 내 편밥 정도면 팩스로 받아요 (교만한 표정으로). 인기 있으면 되게 편해요. 작가하고 한 번 만나서 주제만 정하면 돼.

양숙: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렇게 내세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미화: 어떻게 그냥... 먹고사는 일이니까 거기다가 총력을 기울이면 나와요.

나: 개그맨 되는 게 꿈이었어?

미화: 그런, 그니까 회사 들어가서도 계속 개그맨시험 보고 그랬지. 내 이상형이 배삼룡 선배였잖아. 학교 갔다오면 가방 집어던지고 맨날 텔레비전 보는 거야. 우리집엔 텔레비전이 없었어. 그래서 옆에 찰집 가서 맨날 텔레비전 보구... 그 집에 딸내미들이 있었어. 내 또래가. 내가 켈 미안한 게 그 집에서 500원을 훔쳤어. 찰집에 앉은뱅이 책상인데 왜 서랍 달린 거 있죠? 그거를 돈통을 하는 거야. 근데 500원짜리 종이 돈이 딱 걸려 있는 거야, 살짝. 근데

내가 머리가 참 비상하거든요. 그 집 딸들한테 니네 얼굴 그려줄까? 그래가지구 스케치북 큰 걸루 그림 그려준다고 가리고 그 돈을 빼서 잘 썼지. 여태까지도 미안해. 하하.

나: 어려선 어디에 살았어?

미화: 수유리. 수유리에 있는 가오리에 살았지. 사일구탐 있는데, 셋방 전전하면서.

송화: 개그맨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불우한 경향이 있어.

미화: 우리 때만 해도 그랬지. 근데 지금은 부잣집 자제들이 많아. 그런데 개그콘서트 하는 애들은 다 또 가난해. 근데 가난한 거를 알아야 사람의 정 같은 게 좀 있지. 너무 부유하게 살아도 서민정서를 잘 몰라요. 그런 게 참 중요한데... 보통 텔레비전 채널을 주도하는 건 서민들이라구.

나: 좀 있으면 밥 먹으러 장소 옮길 건데 옮기기 전에 남편 얘기 좀 해봐!

미화: 하하하. 할 얘기가 없지 뭐. 남편은.

나: 결혼도 일찍두 했어.

미화: 꼬서갖구.

나: 누가?

미화: 남편이. 우리 신랑이 나이가 좀 많아. 우리 신랑은 텔레비전에 별로 안 나왔는데 요 일주일 전에 스타데이트에 나와가지구... 내가 돈두 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말한 마디두 못하고 노래만 하나 했어. 말수가 별로 없고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이지 뭐. 부인하는 일 지지해 주고. 밤늦게 아이디어회의하고 힘든 걸 아니까 잘 챙겨주고 그



살아남으려면 후배들이 자꾸 커줘야 돼.

그래서 코미디가 재밌어지고, 좋은 프로가 생기구 그러면 위에서 "코미디프로 하나 더 만들어라" 하면

우리 밥그릇이 커지는 거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문제야.

여자는 뭐 남자들이 아이디어 주면 이쁜 역할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야.

이쁜 게 문제야. 하하.



래, 결혼은 참 잘한 거 같애. 남편한테 신경 안 쓴다는 거 그 부분이 얼마나 큰데. 남편 얘기는 뭐, 별루.

나: 별루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질 않는구만. (우하하) 할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미화: 중요하지 뭐. 하하.

나: 솔직히 말해!

미화: 째려, 째려! 하하. 맞아. 내가 내 생활이 너무 크니까 남편

뭐 그렇지. 뭐, 연애의 남편은 해야 돼. 한 사람이 크게 보이면 한 사람은 작게 되. 서로 끌어주는 역할. 우리 남편도 그래요. 뒤에서 지켜봐주고, 내가 무슨 상을 받으면 혼자 집에서 기림받을 척주고 그래요. 대단해. 소리 없이 애들 봐주고 그런 거 남편이 잘 해줘. 애들이 아빠를 더 따르고 저를 더 무시해요.

양철집 풍가루 인터뷰

드디어 6시가 넘었다. 우리가 고문 배를 움켜쥐고 기다린 이유는 양철집이 6시가 넘어야 문을 열기 때문이다. 양철집... 참 좋은 고깃집이다. 두툽한 돼지고기를 스테이크처럼 숯불에 구워준다. 주인아저씨 혼자 하는 작은 가게. 아저씨는 옛날에 '음악'을 했단다. 밴드에 있었다는데 몇 번을 물어봐 밴드이름은 알

안 한다. 음악 했던 아저씨의 양철집엔 정말 양철이 많다. 벽면이 모두 양철이고 거기 손님들이 때직으로 낙서를 해놓았다. 한쪽엔 가수 김현식을 별로 달지 않은 김현식 캐리커처가 액자에 들어 있다.

우리 일행이 우~ 하고 양철집에 들어서자 텅 빈 가게가 우리를 맞았다. 아저씨가 동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아저씨는 동해도 인상이 좋다. 도통한 목살(숯불에 기름이 빠진)을 풍가루에 묻혀 먹는 맛이란다! 우리는 양철집을 독차지하고 목살구이에 풍가루를 찍어 먹으며(청하도 몇 병 시키고) 다시 인터뷰를 시작했다.

나: 나는 여성운동 하면서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때가 있었거든. 그런 때 없었어?

미화: 근데 나는 그런 적은 없어. 왜냐면 이 길은 나의 천직이라구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면 뭐 할 게 없었구. 내가 정해놓은 길이니까 계속 가야지. 끝까지 해먹을 생각이니까. 근데 힘들었던 때는 있지. 아 이 가져서 실패해 가지고 좌절했을 때... 그럴 때는 힘들구 주변에 사람

도 없구... 이 세계가 뭐 위로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굉장히 고독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다른 데 나쁜 쪽에 빠져들기도 쉽구.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미화: (고기가 불판에 올려졌다. 지금지글. 두툽한 목살이 타고...) 청하를 시켰다. 애들하고 내가 피는 담배연기와 고기연기가 양철집 안에 그득히 퍼졌다.)

미화: 여자들 담배 피는 거 잘 피면 참 멋있어.

나: (괜히 몸을 잡으면서 담배 연기를 뿜어낸다) 그지?

미화: 에이! 잘 피야 멋있단다. 이런 데 와보고 싶었어. 집하고 방송국만 왔다갔다하니까...

나: 우리가 만 건 몰라도 인터뷰 장소 섭외는 엄청 했지.

미화: (청하를 자꾸 마시면서) 이거 맛있다. 쓰지도 않고.

아버지가 일찍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폐병이라는 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복지 쪽 공부도 좀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가은: 여자개그맨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드문 거 같아요.

미화: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래. 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부부를 하거든. 외국자라도 사서 보고, 비디오도 사서 보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문제야. 여자는 뭐 남자들이 아이디어 주면 이쁜 역할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야. 이쁜 게 문제야. 하하. 경쟁사회니까 빛나고 싶으면 집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열심히 해와야지. 만들어오라구 그러면 못 만들어온단다. 그게 땅을 칠 일이지.

(고기가 불판에 올려졌다. 지금지글. 두툽한 목살이 타고...) 청하를 시켰다. 애들하고 내가 피는 담배연기와 고기연기가 양철집 안에 그득히 퍼졌다.)

미화: 여자들 담배 피는 거 잘 피면 참 멋있어.

나: (괜히 몸을 잡으면서 담배 연기를 뿜어낸다) 그지?

미화: 에이! 잘 피야 멋있단다. 이런 데 와보고 싶었어. 집하고 방송국만 왔다갔다하니까...

나: 우리가 만 건 몰라도 인터뷰 장소 섭외는 엄청 했지.

미화: (청하를 자꾸 마시면서) 이거 맛있다. 쓰지도 않고.

나: 그거 맛있다구 자꾸 마시면 나중에 골 때려.

미화: (주인아저씨를 향해) 이런 집이 실속 있는 집이야. 아저씨 돈 많이 버시죠? 억수무요.

아저씨: (여전히 동한 얼굴로) 그냥 유지만 해요.

미화: 아이, 행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수유리에서 이런 해장국집을 했거든. 맨날 손님들이 북적거렸어. 그래서 학교 갔다와서도 손님들 다 나갈 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랬어요.

송화: 키 작은 콤플렉스는 없었어?

미화: 전혀. 작으니까 덕본 게 많지. 작은 여자가 열심히 한다 이러니까.

송화: 왜 결혼을 일찍 하신 거예요?

미화: 운명이지 뭐. 신랑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갑자기 또 인터뷰가 됐나? 신나게 놀다가.

하하. 방송국에 형이 있어서 놀러왔었거든. 형이 짝궁 안무했어. 남편의 형이. 그래서 만났지. 그 시절엔 짝궁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김희애, 전인화 다 짝궁이었어.

나: 만약에 그 때 결혼 안 했으면 아예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 쉽게 결혼할 타입이 아닌 것 같아.

미화: 그랬을지도 모르지. 지금은 좀 불편해. 사실. 내 생활이 너무 강하니까. 주로 모든 생활을 다 나 위주로 하니까. 밤에 공부해야 되니까 따로 자지. 서로 밤 차려주는 일 별로 없고. 어떤 때는 남편한테도 미안하구. 어떤 때는 산 속 같은 데 처박혀서 아이디어두 짜고 싶고 그런

데 집안문제 때문에 막 얹히구 이러면 아이, 힘들다. 그런 심정이 되지.

"나는 김미화씨가 무서워,
다른 연예인들은 사진
찍으려구 그러면
예쁘게 보이려고 야단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잖아."

개그콘서트의 김미화

미화,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어쩌다 행사 하나를 치르고 나면 그 후유증이 한 달은 가는데... 개그콘서트, 40분 정도의 프로그램이다. 내가 방송국에 간 건 한창 리허설을 하던 중이었다. 조명, 음향 맞추고 리허설을 서너 번 했다. 보는 사람이 진이 다 빠질 정도.

본 공연 시작 1시간 전 분장실에 내려간 미화, 나도 따라 내려갔다. 출연진들은 모두 긴장된 얼굴로 바빠 움직이고... 그 긴장감, 모두 바짝 얹어 있는 분위기에 아주 편안~한 표정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전유성' 아저씨였다.

나하고 사진 찍으러 온 엄윤순 선배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분장실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다. 공연 직전 무대 뒷편의 분주함. 우리는 그 분주함을 여유있게 구경하면서 유쾌하게 '때'를 기다렸다.

인터뷰하자고 채근도 안 하고 자들끼리 뭐가 재밌는지 떠드는 두 명의 낯선 아줌마가 신기했던지 전유성 아저씨가 슬금슬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이때다 싶어 말을 걸었다. "김미화씨 일 잘하죠?"

운을 띄웠더니 전유성 아저씨 왈, "예전에 미화 신인이었을 때 나하구 프로를 하나 같이 했어요. 그때 여자개그맨들이 너무 아이디어를 못 내서 내가 여자들은 아이 디어회의에 들어오

지 말라구 그랬어. 그랬더니 악바리처럼 대들면서 꼭 들어와야겠다고 우겼던 애들이 둘 있었지."

"그게 누구예요?"

"미화하고 경애."

오후 6시 30분. 방청객들이 입장했다. 공연 전에 젊은 개그맨들이 방청객들과 함께 작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연은 장장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녹화였지만 마치 생방송처럼 생동감 있게 공연이 계속되었다. 이날 공연은 386세대를 위한 특집프로그램이었다. 앵콜공연까지 마친 시간은 오후 10시. 공연 끝나고 인터뷰를 조금 더할 생각이었지만 엄윤순 선배와 나는 그냥 발길을 돌렸다. 공연을 볼 때도 웃음이 잘 나오질 않았다. 어휴, 저 사람들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리허설부터 주옥 지켜봤던 터라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가마 인터뷰

화요일 오전. 전화벨이 울렸다. "나 누구게?"

미화였다. 엄선배가 사진 찍으러 미화가 잘 가는 불가마집으로 온다고 했단다. 나도 초대한다고. 양철 집에서 인터뷰를 함께 했던 후배 한 명을 데리고 불가마로 갔다. 밤 10시 30분. 불가마는 여인천국이었다. 숙탕, 맥반석찜질방, 불가마, 안마실, 목욕탕, 그리고 쉴 수 있는 방들. 가운을 입고 왔다갔다하는 여자들.

미화를 찾을 수 없었다. 안내방송을 하자 미화가 나타났다. 엄선배도 나타났다. 엄선배는 분당 친구 두

명과 함께 와 있었다. 이 날 불가마 인터뷰에선 엄선배의 활약이 눈부셨다. 거의 엄선배의 리사이클.

미화는 피곤해 보였다. 그 날도 일이 많았나보다. 그래도 우리와 어울려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분당의 엄선배 친구들, 나, 후배 현옥이, 미화, 엄선배, 미화 친구 이렇게 방에 모여 '제사 이야기'를 조금 했다.

엄선배 동네친구A: 아유~ 나는 제사 때 여자들이 명절증후군 어쩌구하면서 떠드는 거 정말 듣기 싫더라.

엄선배 동네친구B: 맞아, 작년 추석 때 엄청 떠들드만, 여자들 하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제사 때나 좀 일하는 게 뭐가 힘들다구 말야.

나: (천연덕스런 얼굴로) 그거 내가 떠든 건데?

엄선배 동네친구A: (내 말을 못 들었는지) 여자들이 말야, 맨날 퍼져서 불가마나 다니구 그러면서 제사 때 일하는 거 갖구 그러면 안 돼지.

미화: 아줌마! 아줌마는 불가마에 앉아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씨익 웃는다)

나: 제사 때 일하기 싫어하는 여자들 욕할 게 아니라 제사 때 일 안 하는 남자들 일 시켜야지. 저들 집 제사에 왜 여자들만 일 시켜!

엄선배: (큰 눈을 굴리며 이리저리 눈치를 본다.)

미화: 나처럼 일하는 여자들은 남자하고 똑같아요. 일하구 집에 오면 꼼짝 못하겠다니까. 일하는 여자들은 집에 와서 또 일해야 되구. 그러니까 힘들다구 그러는 거지 뭐.

엄선배 동네친구A, B: 맞아. 일하는 여자들은 그럴 거야. 우리는 집에만 있었거든.

우리는 모두 함께 불가마에 들어갔다. 오밀조밀 아줌마들이 모여앉아 따를 빼고 나와서 시원하게 식혜를 마셨다. 맥반석 찜질방에서 미화 남편을 보았다. 미화는 나를 자기 남편에게 '여성운동가'라고 소개했다. 그래서인지 나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아니면 그냥 수줍은 성격인가? 나는 친구 남편들이 나를 경계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다. 사실 내 남동생도 내가 올케랑 무슨 얘기를 좀 길게 하면 매우 불안해한다.

미화는 미화시키지 않는다

엄윤순 선배가 사진을 찍으면서 한 말이 있다. "나는 김미화씨가 무서워. 다른 연예인들은 사진 찍으려구 그러면 예쁘게 보이려고 야단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잖아. 대단한 사람이야." 사실 줄줄이 자기 인생을 세워낸 내공 있는 아줌마 엄윤순 선배가 무섭다면 무서운 거다.

인터뷰하는 동안 120분 짜리 테이프 4개를 사용했지만 미화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미화에게 참 잘 어울리는 명칭을 하나 찾아내긴 했다. '살을 기획하는 여자.'

여러 명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인터뷰하는 그 때마다 미화는 미화로 있었다. 자신의 삶을 구태여 미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으며, 나는 '개그맨 김미화가 서른일곱 나이에 끝

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인기를 유지하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잡은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가 궁금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몇 개의 답을 찾았다. 미화의 최강점은 자신을 작시하는 힘이었다.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외모나 신체적 강점은 무엇인지 미화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게 외부환경을 조정해 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미화는 삶을 이해하고 있었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외로움, 고독, 슬픔을 굳이 떨쳐버리려고 애쓰지 않고 조용히 그것들과 친구하면서 살아가는 내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느낌은 말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뜻언뜻 슬퍼 보이는 표정을 내 맘대로 해석한 거다.

그리고 또 꾸준한 성실성. 섬없는 자기계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기, 후배들 챙기기(후배를 챙긴다는 것이 곧 자기 밥그릇 넓히기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살을 기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 있게 될 거다.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11**

사진 엄윤순

이숙경

여성운동가, 시립대학교 여성학 강사,
말 하나를 쓴 아줌마, 서른여덟 살.





“여자로 태어나서 버려져 살아야지”

자매애는 아름답다

서민영의 어머니 정나리씨와 정나리씨의 어머니 하종식씨

■신1: 랑데뷰

시간: 1999년 12월 17일 금요일 저녁

장소: 신촌의 어느 카페

출연자: 정나리(연세대 총학생회장), 황금봉(이프 기자)

연세대 최초의 여성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정나리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이프 기자 황금봉(이프 사진기자 엄선배가 부르는 별명) 출동. 정나리씨는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96학번으로 과학생장, 단대학생장을 거쳐 총학생회 노래매〈어울림〉활동을 해온 한 마디로 ‘골수 운동권’. 단, 한총련의 운동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학생들의 모임인 ‘전국학생회협의회’(전학협) 소속으로 학생운동권의 ‘뉴웨이브그룹’에 속함. 정나리씨의 얼굴을 모른 채 약속 장소로 나간 황금봉. 흰칠한 키에 숏컷머리 눈썹, 쌍꺼풀 없는 왕방울 눈을 가진 여자 발견. 범상치 않은 ‘필’을 받음. 황금봉 다가감. 두 사람, 서로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신촌 지하철역으로 나와 근처의 한 카페로 들어감. 맥주 두 병에 오징어 한 마리 안주로 시킴. 일단 목부터 축인 후, 황금봉 작업 개시.

금봉: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되었는데...

나리: 저는 여권신장을 위해서 한 번 해볼 테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진 않았는데 언론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언론에 대해 화가 치밀었던 것 중의 하나가 여학생 회장 당선, 여권신장, 대학가의 우먼파워 이렇게 나

가다가 나중에 딱 한 마디 다는 게 남학생 많은 공대와 상대에서 일위를 차지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면서 남학생들의 호기심이나 불거려서 당선됐다는 얘기도, 두 가지가 모순인데 왜 같이 실어났을까 싶어서요.

금봉: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나리: 선거 준비하면서 운동권에서는 모험이다 그럴 것이고, 학우들한테서는 신기하다 그런 얘기 나올 것 이다 짐작했어요. 부담은 아니었지만 예상질문도 훑아보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강의실 유세에서도 신기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고, 공대 같은 데 들어가면 “와, 여자다” 이런 건 있었지만 공대는 워낙 어떤 여자가 들어가도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학우들의 반응이 참 궁금했는데, 대부분 일단 잘 하면 되죠 뭐, 그런 반응이어서 놀랐어요.

금봉: 여성 총학생회장,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리: 여성 총학생회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운동이 어떤 식으로 설득력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로 대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우들이 섬세한 사람을 원하고 있고, 그 섬세한 것이 이렇게 하자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방식에 있어 섬세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서울대에서 비운동권 출신의 ‘광란의 10월’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것도 다 이유가 있

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읽지 못하면서 당위성만을 가지고 구호만 외치면 학우들은 계몽 당하는 느낌을 받죠. 총학생회장이 옛날처럼 멋있는 정장 입고 앞에 서서 주먹 한 번 쥐면 학생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서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운동은 망하죠.

금봉: 이상형이랄까,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어렸을 땐 손석희나 백지연 같은 방송기자들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 기억 속에서 남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리: 어렸을 때는 손석희나 백지연 같은 방송기자들이 좋았어요. 그때는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내 기억 속에서 남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저 사람처럼 돼야지 했는데 지금은 저 사람처럼 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짜들어서 그러나... 운동하는 선배들 봐도 자기 생활까지 포기하면서 희생적으로 운동하는 것 보면 나는 저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하면서도 완전히 등 돌리고 딴 세상에서 사는 선배들 보면 저건 아니다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변증법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전...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금봉: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나리: 그냥, 파워풀하고... 회사 다니는데 직장여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전업주부도 아니고 부업처럼 그렇게 일하세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대학엘 다니셨어요. 그런 것 있잖아요. 형제 중에 남자가 많아서 오빠들 대학 보내느라 자기는 못 가고... 엄마가 애들 키워놓고 꼭 대학 가리라 그렇게 결심하셨대요. 엄마는 항상 저한테 너 나중에 평생 일하면서 살아라. 애 낳기 싫으면 낳지 마라. 남편이 집안일만 하라고 그러면 살지 마라 그러세요.

금봉: 와우!

나리: 아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외로워서 술 한 잔 해야겠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학생회 일 때문에 제가 항상 늦게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면 엄마는 자다가 일어나서 밥차려 주면서 우리 한 잔 하자 그러세요. 엄마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보통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것까지 다 얘기해요.

정나리씨의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총학생회장 '딸내미'를 키운 엄마는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졌다.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꼭 한번 어머니를 만나뵙자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그런데 이게 웬일, 정나리씨 모녀 이야기를 전해주니 이프 편집장 박여사, "모녀이야기로 나가자"며 긴급 요청. 그리하여 정나리씨를 인터뷰한 지 1세기 후에(20세기에 서 21세기로 바뀌었으니) 그의 어머니 하종심 여사를 만남.

#신2: 하종심 여사 이야기

시간: 2000년 2월 12일 토요일 오후

장소: 연세대 앞의 어느 레스토랑

출연자: 첫번째 신의 두 사람과 하종심 여사, 사진기자 엄선배.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만난 네 여자. 학교 안으로 들어가 엄선배의 지시에 따라 앵글 각도에 맞추어 여러 저리 포즈를 취함. 사진을 찍은

아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외로워서 술 한 잔 해야겠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후 공간 이동. 연세대 앞 한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음. 하종심 여사는 올해 47세, 경남 남해가 고향이라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씀. 하여사가 절대 비밀로 하자고 했지만, 입이 간질거려서 참을 수 없음. 하여사는 처녀적 남해에서 '유자아가씨'로 선발된 적이 있다고 함.

금봉: (하여사에게) 애들 학교 보낸 후에 대학공부 하셨다고요?

하여사: 고등학교 때 간호사관학교 나 그런 데 가려고 했어요. 그래요. 좀 김강자 서장 보면 나도 그 때 공부만 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그리 안타까운기라. 맞선으로 만난 나리 아빠가 처음 청혼을 할 때 난 시집갈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문간 게 한이 돼서 청혼하는 나리 아빠에게 내가 너무 학교가 가고 싶은데, 학교

보내줄 수 있다고... 그런데 보내주겠다는 거요. 그럼 결혼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애들 낳고, 손톱에 피가 맺히도록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놓고, 딱 10년 만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학교는 별로 좋지 않은데요. 유아교육 전공했어요.

금봉: 공부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하여사: 힘들었게... 학교 딱 들어가서 다니는 와중에 뇌하수체에 혹이 생겼다고. 잘 하면 3년 산다고 그랬어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진짜 안돼. 7살, 5살 먹은 우리 나리, 준이 놔두고 손톱에 피가 맺히도록 절약해서 집도 사났는데 아휴 남자가 장가들면 되지만, 도저히 이 새끼들이 불쌍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나는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나는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최면을 건 거예요. 약도 열심히 먹고, 그렇게 지금 17년째 안 죽고 살고 있어요.

모두: 하하하!

금봉: 친구처럼 나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하여사: 이 녀석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지 나름대로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러면 강변역에 내려서 전화해요. 거기서 우리집까지 마을버스로 한 40분 걸리는데, 역에서 전화해서 엄마 술안주 있어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난 그래, 알았다 그러죠. 우리집에는 언제든지 술안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술 한 잔 하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리: 학생회장 하겠다고 엄마한테

허락 받을 때 뼈갈 두 병 마셨어요. 하여사: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사이가 좋으니 나리 시집 못 보낸다고. 사위감 호적 파가지고 와서 살으래...

금봉: 사윗감 있잖아요?

하여사: 그게 사윗감인가?

나리: 인정 안 해요. 그 '오빠야'한테 정 다 주지 마라. 퇴금만 주고 있어라. 나중에 헤어질 때 상처 입으니까.

금봉: 나리가 사귀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드세요?

하여사: 마음에 안 들고 들고를 떠나서 앞으로 지 앞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왜 지금 그 굴레 속에 묶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낭비인기라. 감정 낭비. 아니, 30년 40년 살다가도 황혼이혼도 하는데.

(하여사, 나리가 손가락에 낀 커를 링을 가르키며) 요거 반지 끼고 있다고 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참 때여 사는 게 싫거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십수 년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리: 엄만 나보고 시집가지 말라고...

하여사: 가이 마, 시집 가기 싫으면 가이 마. 뭐하러 시집가. 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 여자로 태어나서 한번 맛있게 살아보지...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하는 마음에서 했고, 딱 부러지게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한 거지... 그리고 결혼을 할 경우에 다른 조건을 보지 마라. 둘이서 열심히 별면 5년 안에 집 산다. 넓은 것 사봐야 기어



총학생회장이

옛날처럼 맛있는 정장 입고

앞에 서서 주먹 한 번 쥐면

학생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서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운동은

망하죠.



다니면서 마룻바닥 닦으려
면 무르팍만 아파...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하는 일
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 마
음을 제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 그것이면 족하
다. 그렇게 선택을 해라. 엄
마는 살아보니까 그렇더
라. 회사일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집에 일찍 들어와
서 살림 안 한다고 잔소리
나 하고 그러면 뭐하러 시

집가? 내가 가만 안둔다고 했어. 그
런 놈 있으면 패죽인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지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
런 남자랑 결혼했다, 그러면 데리고
와버리지, 딸을...
금봉: 두 사람이 갈등도 있을 것 같
아요.
나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총
학생회장 하기 전에 수배당한 적이
있었는데 짐 싸가지고 나오면서 엄
마, 내일부터 못 들어와요, 그랬더
니 엄마가 호적 파서 나가라, 어쩌라
하면서 집안이 뒤집어졌죠. 그때 엄



대학에 들어가니까 품안의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이놈의 지지배야' 하면서
쥐어박기도 하고,
한 반년 정도 그렇게 앓고
나니까 그냥 세상이
투우옥 트이더라고.

마한테 후라이팬으로 맞았다고...
하녀사: 그기는 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니가 엄마한테 눈을 흘겼기
때문에 때려준 거야. 그걸 듣고 있
는데 자꾸 앞에서 갑죽거렸잖아.
나리: 그래도 나중에는, 현금카드
주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학교에
갈까 살고 있는데 어느날 엄마가 동
산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요. 버
너, 코펠, 삼겹살 다 싸가지고 와서
잔디밭에서 구워 먹었어요.
하녀사: 언젠가 영화 <마요네즈>를
보는데, 나리 동생 준이가 '꼭 엄마
하고 누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장난칠 때는 애인처럼 놀다
가도, 화날 때는 또 막 싸우고... 제
일 갈등이 있었던 것은 나리가 대학
교 들어가니까, 청바지 질질 끌고 다
니고, 매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이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늦게 오누, 거
기서 참 갈등을 많이 느꼈거든. 대학
에 들어가니까 품안의 자식이 아니
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이

놈의 지지배야' 하면서 쥐어박기도
하고, 지는 분명 지 말을 하는데 내
가 보기엔 전부 반항이고, 저것이 머
리가 굽어졌다고 엄마를 무시하고,
외면한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 반년
정도 그렇게 앓고 나니까 그냥 세상
이 투우옥 트이더라고, 고마 아, 그
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받
아들이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금봉: 가족 때문에 힘들 때도 있으셨
죠?
하녀사: 힘들 때 많았죠. 나리 아빠
사업하다 있는 돈 다 날리고 경제적
으로 정말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한 3~4년 힘들었을 때는 수면제 한
주먹씩 가지고 다닌 적도 있어요.
가지고 다니다가 약 쓴 종이가 너덜
너덜 떨어지면 새 종이에 써서 또
가지고 다니고, 이젠 힘이 들 때는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내 얼
굴에 대고 이렇게 말해요, 야, 하종
심 너 이리 와봐라, 너 죽을려고 수
면제 싸가지고 다니고 너 정말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라 생
각했는데, 야, 넌 괜찮다. 너 신랑이
벌어다준 돈으로 한 시대 누리고 안
살았나, 그리고 야, 네 새끼가 그래
이름도 나고, 남편도 이제 너한테
그리 잘하고, 잘 참고 산다 아이가.
그럼 넌 괜찮은 여자야. 또 한번 열
심히 살아보자, 영?

엄선배, 나리, 황금봉: (동시에) 맞아,
맞어...

세시간 가까이 웃고 떠들던 네
여자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아쉬
운 마음에 사진기자 엄선배, 황금
봉, 그리고 나리 엄마 하종심 여사
는 조만간 하녀사의 집에서 한번
더 뭉치기로 했다. 온갖 종류의 술
과 풍성한 안주, 그리고 하녀사가
직접 만든 화장품까지 먹을거리,
불거리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젖어
엄선배와 황금봉은 인쇄소에서 막
빠져나온 뜨끈뜨끈한 이프 봄호를
들고 하녀사 집으로 달려가기로 약
속함. 끝. **III**

글 황오금희 / 사진 엄윤순

'99 여성미술제 <팔뚝들의 행진> 단행본으로 출간!!



드디어 나왔습니다. '99 여성미술제 도록 겸 한국페미니즘미술 개관서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총 340 쪽에 달하는 이 책은 전시총론 1부-역사전 2부-주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문 9개가 실려 있고
전시에 출품되었던 모든 작품과 참고도판이 울감화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페미니즘 미술을 일별하고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귀중한 도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자: '99 여성미술제 추진위원회 / 출판: 홍디자인 출판부 / 가격: 23,000원
구입문의: 여성문화예술기획(02-3476-0662~3, 담당자: 장운주)

“저”
“아”
“사”
“보”
“이”
“것”
“조”
“어”
“서”
“포”
“니”
“리”
“를”

“압구정동, 청담동, 평창동 어를
에 사는 갑부 연홍부라는 사람이 자
식 10명을 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실의 침상에서 죽었더라.” ... 그
렇담 홍부 사망 뒤, 이 집안의 호주
는 과연 누가 됐을 것인가, 평생 동
안 홍부의 아내였으며, 일명 자식의
어머니이자, 집안 어른인 홍부 마누
라? Oh No. 자식 10명 중 아들이 홍
부 마누라를 제치고 호주가 된다.

만약 홍부가 아들이 없고, 딸로만
10연타석 홈런을 때렸다면, 이제 홍
부 마누라 차례인가? 아니요, 그렇
다면 그 딸들인가? 그것도 아니요.
그 딸들이 결혼해 낳은 자식 중 아
들이 있다면, 그에게 바톤이 넘어간
다. 이거 ‘웃기기’ 시작한다. 만약
그 결혼한 딸들이 전부 또 딸만 낳
았다면? 여전히 홍부 마누라 차례
가 아니다. ... 이거 ‘웃긴가’ 안 ‘웃
긴가’. ‘웃기다’ ...

호주제를 비롯한 김어준의 글을
어느 신문에서 읽은 그 날 아침, 기
분이 괜찮았다. 앞으로 너의 행보를
애정의 시선으로 지켜보리라, 마음
먹었다.

그리고 그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틀리는 풍문으로도, 신
문이나 잡지에 실린 쪽글로도, 그가
아주 합리적이고 올바른 ‘상식’(우
리 사회에서 이만한 상식 가진 사람
도 드물다)을 가진 사람일 수 있겠
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후 홍대 앞의 분위기 끝내주
는, 커피 한 잔만 시켜도 은식기에
은발침이 달려나오는 근사한 카페

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이프 같은 무서운 잡지에서 왜 날
보라고 하는 건가? 그가 말문을 열
었다. 이프가 왜 무서울까?

“싸우자고 하니까, 모든 불합리
와 비상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거지 않나. 판지랑 비슷하다. 이
프는 우연찮게 창간호부터 접해서
재미있게 읽고 있다. 그런 공격적인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올해 서른
셋. “정곡만 찌른다”는 죽이는 카피
하나와 ‘동침’ 찌르는 익살스런 아
이의 모습으로 인터넷세상에 ‘똥고
김쭉기’ 그만의 ‘언론 인 (판지일
보)’을 만든 사람.

바닷가, 언덕, 겨울바람이

내 결혼의 종인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옆의 여자
가 궁금하다. 아내 이야기를 해달
라. 어떻게 만났나?

‘96년 가을에 만났다. 미국 유학
중이었던, 장래에 처형이 될 여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여동생을 소개해
준다고 했다. 그녀? 그녀도 미혼이
었는데, 내가 자기타입은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동생을 만났다. 바로
마음에 들었다. 일주일 후에 결혼하
자고 했다. 좋다고 하더라. 그 때 내
나이 29살. 일사천리로 엄마한테 가
서 ‘나 결혼한다’고 했다. 그 때 우
리 엄마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는
가? ‘누구랑?’ 이 아니라 ‘언제?’ 였
다. 다음 달에, 그랬다. 결혼은 꿈에
서 했다. 원래 내 결혼식은 섬에서
하고 싶었다. 괜히, 생각이야 누가
못하나? 그럼 제주아일랜드? 하객

들 다 불러야 되잖아. 그것은 그냥 박살이지. 우리 엄마는 원래 용돈을 안 준다. 학비도 안 주고, 나쁜 부모지. 결혼 경비라고 쟁겨줄 리가 없는데 한국에서 하면 안될 것 같더라. 자, 그럼 콧에서 하자. 사실 결혼식이 직계가족에겐 '우리 이제 이렇게 같이 산다' 승인받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경비는 반반씩. 직계가족은 각자 10명만 부르자. 피로연은 나중에 식당에서 결혼식비도 오 틀어주고 노래하고 먹고 놀면 되잖아. 우리 결혼식 한 방에서 결혼 자금 벌 생각 없었다. 게다가 직계가족 전체가 여행하는 것이 언제 가능하겠는가. 또 사돈들끼리 해외여행 하는 거 재미있지 않겠는가. 의미를 마구 부여했다. 반대하면? 그래도 하는 거지. 반대해서 안 오면 사람 하나 주는 거고, 콧에 사전답사를 갔다. 바닷가에, 언덕이 있는 한 호텔을 발견했다. 요기다. 해질 녘, 바닷가에서 한국에서 모셔간 목사님 말씀 듣고, 난 양복 입고 와이프는 웨딩드레스 빌려입고 콧 동네 미장원에서 머리 하고... 펄럭 같은 거 안 했다. 그런 거 뭐라 해? 바로 노래방 가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함께 콧 사이판 관광하고, 스무 명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남아 신혼여행을 했다. 경비는 각자 500만원씩으로 끝. 판지일보 안 할 때였다. 나중에 이런 결혼식 이벤트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적 있다. 이프랑 같이 하자고? 이프 안돼. 이프는 끼지 마."

아내는 무얼 하고 지내나?

"일 안 한다. 직장을 안 다닌다는 얘기다. 자기가 싫다. 그러더니 요즘 심심해한다. 어떻게 생겼나 구? 미인이지. 늘씬하고(확인된 바 없다). 이젠 아이를 낳아야겠다. '더 놀자'고 의기투합해서 안 가졌는데 올랜 아기를 낳고 싶은 모양이다. 혼자 벌여 잘 살만큼 넉넉하진 않지만, 돈 없으면 그냥 굴자, 하고 산다. 일산에서 그렇게 돌아. 같이 헬스클럽 다니면서... 결혼하고 나서 여자에 대해 뭘 몰랐던 걸 새삼스럽게 안 것은 없다. 아내에게 별 불만 없다. 아내는? 물론 아주 많은 것 같다. 내가 너무 지저분하고 생활이 불규칙하고 지나간 흔적이 꼭 남는다는 것에 대해 화 좀 낸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고? 아내가 '너 죽을래' 그러면 '네. 그럼 시정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정하려고 노력은 한다."

그는 얼마 전 출산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 보면서 아내와 수중분만을 해볼까 고민중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자에게 편하니까"가 그의 이유다.

나쁜 엄마, 날 살찌게 한다

어준씨가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도시락 싸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게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두 분만 드신다는 얘기도. 엄마 아버지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아들을 막 키운 건가? 딸 아들이 많은가?

"딱 둘이다. 나하고 여동생. 엄마는 유치원 원장이었다. 돈에 별 관

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정치적인 견해는 보수적이었지만 엄마의 일에 대해선 참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설거지도 잘 하시고, 도시락 안 싸준 거도 사실이고, 용돈을 풍족히 주지도 않았고, 내 삶에 관여해 이래라저래라 한 적이 없다. 난 예전에도 지금도 엄마가 나에게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두신 것을 서운해하거나 뭐 그런 적 없다. 요즘엔 더욱더 그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자신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나?

"누구하고 소리내 싸운다거나, 화가 나 못 견디거나 그렇지 않다. 진짜 화나도 혼자 삭이는 편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누가 먼저 공격해 오면? "우짜겠노, 니가 참아야지" 하고 만다. 낙천적이고 잘 웃는다. 남이 칭찬해 주면 다 받아들이고 좋아한다. 스트레스도 잘 받는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가 결혼하고 한 10킬로, 컴퓨터에 앉아 한 1년 정도 보내니까 또 10킬로 뺐다. 예전엔 아주 날씬했다. 안 믿기면 말고. 머리 묶는 거? 그냥 빗는 거 싫어하다보니 묶게 됐다. 난 허리띠도 안 맨다. 머리도 안 빗고, 넥타이 안하고, 불편한 거는 못하겠다."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해야 된다?

여성문제에 대해 진지해 보인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전엔 아주 날씬했다.

안 믿기면 말고.

머리 묶는 거? 그냥 빗는 거

싫어하다보니 묶게 됐다.

난 허리띠도 안 맨다.

머리도 안 빗고.

넥타이 안하고.

불편한 거는 못하겠다.

너무나 간단하다. 여성들 현실이 불합리하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판지일보가 인기 있는 이유도 바로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잘 보면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만 한다. 뭐 이상한 주장하는 거 봤나. 워낙 판이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다보니까 튀어보이는 거다. 말로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해야 된다. 아니면 불편하게 해야 된다. 세상이 남자들에게 불편을 끼치질 않으니까, 그냥 살만 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다. 불편해야 움직인다. 법도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법도로 대항하고, 상식 좋아하는 사람에겐 상식으로 도전해야 한다."

뭐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그런 거 말해 달라.

"영화는 좋아한다. 보기 쉬우니까. 책은 많이 읽지 않는다. 머리는 좋다! 잡식이다. 영화는 <바그다드 카페> 진짜로 좋아한다. '여성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게 해주었다."

요즘 한국영화 중에 좋았던 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재미없고 싶었던 영화는 <새기말>.

그는 영화 얘기 끝에 한창 논란중인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이프는 그런 데 지지서명 같은 거 안 하느냐고 물었다. 백 번 지당한 말씀이다. 그동안 구단측과 비인간적인 계약을 맺어왔던 선수들이 인간적으로 살았다는데... 하지, 뭐.

낮선 풍경.

낮선 인물이 날 키웠지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다는데? 돈이 많았나?

"여행을 선천적으로 좋아한다. 대학교 때 많이 다녔다. 여행은 가고 싶고 돈은 없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대학생 여행그룹의 인솔자로. 예를 들면 89년 말 90년 초, 배낭여행 자유화될 때, 여행사에 찾아갔다. 여행설명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자료가 없어 보였다. 비디오 있나? '파리' 하면 여행답을 보여줄 게 아니라 유스호스텔 이용법, 기차 타는 법, 환전소 이용법 등

등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없다. 그럼 짜자. 근데 직원을 보내서 찍게 하면 직원 일이 땀구나. 새 직원 쓰면 월급 줘야 돼. 그러니 나를 보내라. 난 배낭여행 경험도 있고 비행기표만 주면 되니까서 좋고, 비디오도 찍어봤고, 영어도 잘하고, 죽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 연락 달라. 연락이 왔다. 그래서 임주일 정도 이것저것 찍어 보내고 난 여행했다.

돈이 떨어지면 암달러상에게 간다. 동구권에 가면 암달러상이 있는데 환율이 공식환율과 차이가 많이 난다. 아랍인들이 주로 암달러상인



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랍사람이다 테러리스트인 줄 알고 무서워한다. 동양사람들이 그렇다(이미지는 다 조작된 것이지만). 그러니 내가 그 일을 대신 해주마, 수고료만 다오, 아니면 민박 가서 잔 후에 숙박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한다. 유스호스텔 같은 데는 잠시 취직도 가능하다. 청소도 하고, 문구 만들어주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산 사람답게 아주 탁월한 서바이벌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부러워서 침을 꿀꺽 삼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 참, 남자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도 인생을 즐기는 것도, 여자보다는 쉽구나.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나?

"팔레스타인 난민지역을 두 달 정도 여행했는데, 이스라엘사람보다 아랍인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랍계는 다혈질이고 지저분하고 자존심 강하고 무분별하고 뭐 이런 무의식이 박혀 있었고, 유대계는 머리 좋고 우리편이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견디고 민족을 지킨 장한 주인공들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다. 하지만 거기서 있어보니까 정서적으로나, 사람들의 성향이나, 역사적인 상황이 사실은 팔레스타인 난민이나 아랍계 사람들이 우리하고 더 가깝다. 근데 왜 아랍계 사람들을 우리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내가 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였다. 경험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세계를 보는 창이 다 미국의 창이었구나 하

는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다. 여행으로 뭘 배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의 작은 경험들이 내 안의 편견을 내가 확인하고 돌아보게 하는 힘이 되더라."

허공에 대고 외친다고?

그럼, 그가 꾸는 꿈은 무엇일까?

"미래의 꿈? 빨리 판지일보를 위해서 조선일보를 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농담 아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왜 쓰러지지 않고 잘 나가는지, 편집, 논조, 이슈를 다루는 방식을 눈여겨본다. 조선일보는 실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른바 광고빨이 잘 듣는다고 모두 믿고 있다. 그게 그들의 힘이라면 사실 판지일보는 허공에 대고 외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가 힘드니까. 인터넷의 진정한 미덕은 신에게서 인간으로 관심의 대상과 권위의 주체가 올라간 중세 르네상스처럼 기존 사회의 권력구조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힘없고 이름 없었던 개개인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게 한다는 데 있다. 왜? 인터넷에서의 모든 권력은 개개인의 마우스 클릭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오로지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취향에 따라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 개개인의 마우스가 움직일 때 기독교력과 대자본의 힘에 맞설 수 있는 거라고 보면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생각했다.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

다. 소규모의 커뮤니티. 예를 들어 노트북을 일년에 4번 이상 바꿔서 쓰는 사람들의 모임, 스타크래프트를 하다가 밤새고 직장에 지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등. 그래서 힘을 모으는 거지. 이런 노트북은 이래서 안 좋다, 사실 마라, '이거 쓰다가 열받았다, 그래서 슬퍼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지일보에 실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떤 걸 사지 말라고 불매운동을 하는 것도 영향력의 한 방법이다. 소극적인 구매집단이 아닌 권리단체가 될 수도 있다."

그 마우스를 잡은 손이, 약자나 소수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투하하는 잔인한 남자들의 손이라면 그것도 민주적이라고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나중에 한 번 더 만나서 판지 걸어보지, 뭐.

어쨌든 평소에는 화낼 일도 욕할 일도 없다는, 소처럼 순한 인상을 가진 남자가 욕심이 꽤 크다. 조선일보를 인수한다고? 하—, 그래도 그의 욕망이 개인적인 지배력을 과시한다거나 상식을 거스르는 건 없어보여서 잘되길 바란다고 흔쾌히 맞장구를 쳤다.

부모의 간섭이 없어서 혼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공동체가 가져야 할 '상식'을 터득해 온 김어준. 욕쟁이 판지일보를 만드는 욕 잘 못 하는 총수 김어준.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페미니즘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김어준은 상식에 '순(順)하는 남자'였다. □

글 권혁관(이프 출판팀장) / 사진 조여진

아디오스, JP

남자에게

이젠 남이나 하러 가시죠

JP선생님.

지난 1월 24일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하는 장면을 보며 참으로 묘한 감회를 느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수없는 변신을 하며 또는 정권이 바뀌는 틈을 타 켜 켜 국회의원이 된 다음 끈질기게 정계에 남아 있는 서슬퍼런 전현직 의원들(그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정치사의 산 증인들이라 할 만하지요)의 이름이 줄줄이 발표되더군요.

그러나 그 수많은 정치인들을,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도를 누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일이 다 기억한다는 것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

니다. 그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정도였고 그들의 부적격 사유를 세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이름이 불려진 것 또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제 머리에 유일하게 각인되어 남은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JP선생님, 당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명예로운 은퇴를 권함"

김대중 대통령은 1월 2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김명예총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명예총재는 지난 대선 때 나를 지지해 50년만에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총리로서 국제통화기금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었으며 여러 개혁 입법을 하는 데도 협조를 해줘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대통령의 한 핵심측근은 "김대통령은 김명예총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부연설명을 했더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안타깝다'며 '역사적으로 앞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의중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의미했습니다. 처음엔 노인네들은 참 복잡하게 표현



김기태

한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시민연대는 '공천부적격 사유' 말미에 친절하게도 "현재 자민련의 총재로서 공천 반대 대상자라기보다 명예로운 은퇴를 권함"이라는 사족을 붙였거든요. 한쪽에서 은퇴를 권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미래의 시점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부여하더니요? 혹시 김대통령이 김총재의 '은퇴'를 '앞으로 할 일'이라고 추천한 걸까요? 솔직히 헛갈리더군요.

JP계서는 "무슨 나라가 이러나, 걱정이다"는 탄식을 내뿜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다고 하더군요.

청구동 자택을 방문했던 측근인사들은 김명예총재가 2차대전 종전후 일본의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전범책임자로 몰린 육군대장의 마지막 유언을 인용하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에 대해 깊은 사색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여성단체가 뽑은 '결림들 정치인'

JP의 반응을 다룬 신문기사들을 보며 JP선생님의 '깊은 사색' 속에서 역사의 의미는 김대통령이 말한 미래시점의 역사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DJP연합의 외형과 실체만큼이

나 복잡하리라는 생각이 드니 골치만 아파지더군요.

김종필 명예총재는 지난 96년 3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여성권익발전을 후퇴시킨 결림들 정치인'으로 선정됐습니다. 5·16주체로 지난 62년 중앙정보부장 재직 당시 '김-오히라 메모'를 교환했는데 바로 그 메모를 기초로 한일청구권협정이 맺어졌고 그것이 정신대문제 해결에 결정적 결림들로 작용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난 97년 대선 때 저는 3당 대선 후보 여성정책 취재를 위해 JP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켜켜이 묻는 질문이었지만 '여성들

은퇴를 권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며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부여하더니요?

혹시 김대통령이 김총재의 '은퇴'를

'앞으로 할 일'이라고

추천한 걸까요?

의 걸림돌 정치인'으로 선정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JP께서는 "어제는 어제의 논리에 충실했고 오늘은 오늘의 논리에 충실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대답만으로 보자면

JP선생님의 인생관이나 정치관에 '역사'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군요. 그런데 그런 JP선생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에 잠겨봐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충선시민연대는 JP선생님의 '공천부적격 사유'로 첫째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제2공화국 붕괴, 둘째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공작정치의 시대를 열고 스스로 초대 정보부장에 취임, 셋째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새나라 자동차사건/ 위키힐 사건/ 증권파동사건/ 파친코사건)의 주역, 넷째 65년 한일협정과정에서 완전한 과거청산 문제를 포기, 다섯째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정축재가 드러난 점, 여섯째 6·27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햇바지론'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점 등을 들며 명예로운 은퇴를 권고했습니다.

JP선생님께서 5·16 군사쿠데타 관련자로는 유일하게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지요. 저는 그것이 언제 일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40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막 초등학교(그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이번 충선시민연대의 명단에서 제일 반가웠던 이름이 바로 김종필 선생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에 입학해 컷물을 담기 위한 손수건을 매단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산토끼 토끼야'와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노래를 배우는 '새나라의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무시무시한 말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리고 "가시는 곳 월나암땅 하늘은 멀더라도...님의 뒤를 따르리다"라는 맹호부대, 청룡부대 노래를 하며 파월장병 아저씨께 위문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5·16쿠데타, 그리고...

교련수업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은 삼각봉대 감는 법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왜 여학생들은 간호병 노릇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도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상 밑으로는 매점에서 사온 삼립 크림빵을 몰래 뜯어먹으며 봉대감는 법이 아기 기저귀 접는 법과 어떻게 다른지 옆자리 친구와 내기를 하며, 킬 킬거리고 장난을 치면서 시간 때우기에 몰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대로 즐거운 소녀시절을 보냈으니까요.

아, 그리고 직접 JP선생님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저희 교장선생님께서 5·16민족교육상인가를 받아서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강당에서 외규와 글 떠들던 저희들은 연단에서 약간은 허스키한 목소리로 사근사근 속삭이듯 여성교육의 미덕(결론은 현모양처론이었겠지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천방지축의 여중생이었던 제가 정치인의 연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도 이상하겠지요.

제게 JP선생님이 강렬하게 각인되었던 것은 '검은 선글라스에 비친 바둑알'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몇 차 외유 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3선개헌 반대로 인한 외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항에서 바둑을 두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신문기사들은 당신을 한국의 케네디로 부르며 정치적 불운으로 외유를 떠나는 풍운의 정치가로 묘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흔치 않았던 검은 선글라스와 거기에 반사되어 찍힌 고뇌의 바둑판. 그래서 저는 JP선생님을 한국의 케네디 같은 정치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이상으로 여기고 있던 여성이 바로 재클린 케네디 여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남편을 잃은 재클린 여사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시는 걸 앞에서 봤기 때문이지요.

유신시절의 대학생활

그리고 대학열 들어갔습니다. 제

의 대학시절은 유신과 긴급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신반대 대모를 하거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걸려 들어가거나 한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유신이 왜 나쁜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휴교령과 휴업령, 위수령이 뭐가 뭔지 그 차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느 학기도 제대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낙제를 면하고 졸업장을 따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시절 공부 안 한 탓까지 유신정부에 돌리려니 면목이 좀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JP선생님께 편지를 쓰려고 옛날 기사스크랩들을 뒤적이다 보니 지난 96년 부인 박영옥 여사가 졸업한 대구 신명여고에 일일교사로 나가 특강을 하셨던 적이 있더군요. 이 자리에서 "요즘 특하면 세대교체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리는 골다 메이어 여사는 74세에 수상을 했다"고 말하고 "...세월을 거둬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을 때 비로소 늙게 된다"는 미국시인 새뮤얼 윌슨의 「청춘」이란 시를 읊으셨다지요.

또 60년대 초부터 30년도 넘는 세월을 비교적 근거리에서 JP를 봐왔다는 소절가 홍성유씨는 JP선생님에 대해 "방대한 독서량과 해박한 지식, 꿈과 낭만이 있는 인생관, 나름대로의 투철하고 이념이 있는 정치철학, 좌



박영옥

중을 휘어잡는 달변과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고 평하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친분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알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고 어떤 글에 썼더군요.

저도 JP선생님께서 매력있는 분이며 '마음은 청춘'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충선시민연대의 명단에서 제일 반가웠던 이름이 바로 김종필 선생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젠 낚시하러 가셔도 됩니다

그냥 더 이상은 당신의 얼굴을 신문지상이나 또는 TV화면에서 보고

여성들의 걸림돌

정치인'으로

선정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JP께서는 "어제는

어제의 논리에 충실했고

오늘은 오늘의 논리에

충실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당대비평

긴급의제/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태동하는 시민 의식과 정치 질서의 재편

좌담 한국 사회의 정치 현실과 이성적 질서를 향한 모색 김우창 최장집 홍윤기
권력의 희생자와 권력의 계승자들 임재경
새 천년, 16대 총선, 그리고 낙선 운동 손학재



동아시아의 한마당을 향하여 황석영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되살아나는 사회적 이성의 공간 도정일

쟁점/한국의 지식 권력 1-언론을 해부한다

기획산문 누가 학교의 붕괴를 슬퍼하라

문자원 성혜영 김진경 서동진

대학의 '1990년대'는 언제까지일까 이수광

르포 늙은 창녀와 가난한 포주: 성 매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 김소희

특집/동아시아 지성의 고뇌와 모색: 지구화와 내셔널리티 사이에서

한반도 민족주의와 권력 담론: 비교사적 문제 제기 임지현

혼성화 사회를 찾아서: 내셔널리티의 저편으로 강성중·요시미 슌야

세계화 속의 중국, 자기 변혁의 추구: 근대 위기와 근대 비판을 위하여 왕후이

국민이란 무엇인가: '시민 퀴리엔' 혹은 에르네스트 르낭의 정신의 정치학 우카이 사토시



논단

내 안의 자본, 그 절친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공생의 가치로 강수들
창바지를 걸친 중세의 우화들: 신화와 계몽의 변증법 임옥희

시 이면우 최두석 양애경 고운기 장대승 손필영 이대홍

문학비평 김수영과 4·19: 사랑을 만드는 기술—「사랑의 변주곡」을 다시 음미하며 유중하

삼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9-4 삼행빌딩 4층 전화 322-1845 팩스 322-1846 천리안 h3952 하이텔 hhoa E-MAIL samin@interpia98.net

김종필 약사

1926년 1월 7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출생. 자수성가한 조부는 쌀 2,000섬지기 부농이었고, 15년 동안 규암면장, 부여면장 등 공직자로 일한 선친 김상배씨의 7형제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 이미 플루타르코 영웅전을 읽었고 공주중학에 진학해서도 늘 이와나미문고판 책들을 호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공주중학을 졸업하고 대전사범학교 강습과 수료후 보령 천북면의 초등학교에 발령 받아 교사로 재직하다 46년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 대학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졸업 1년을 앞두고 대학을 포기, 49년에 육사 8기로 정식 입교, 5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 배속된 곳이 육군본부 정보국, 여기서 전투정보과 문관으로 근무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운명적 조우, 6·25를 겪으면서 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박정희 중령의 조카딸 박영옥씨와 결혼하면서 '조카사위와 처삼촌'의 관계로 발전.

4·19 직후 소장파 장교들과 정군운동을 주도한 JP는 하극상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강제 예편을 당하고 박정희와 함께 '5·16거사'의 길로 나선다. 박정희가 5·16의 지휘자였다면 JP는 기획자였다. 혁명공약과 혁명후의 군사정부체제와 사업, 민정이양 스케줄, 그리고 정치개혁 사회개혁 군부개혁 등의 계획서가 모두 그의 머리에 서 나왔다.

초대 정보부장에 취임,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JP는 5·16 주체세력 내부의 갈등으로 63년 이른바 '자외반 타외반' 외유길에 올랐다가 6대 국회의원 당선, 당의장으로 복귀하나 1년도 지나지 않아 대일청구권 협상과 관련 '김-오하라 메모' 소식이 전해지면서 6·3사태 발발로 또다시 장기외유를 떠난다. 6개월만에 외유에서 돌아와 부여에서 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68년 3선개헌 문제에 봉착,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했다.

71년 6월 정계은퇴한 지 3년만에 국무총리로 기용, 4년 6개월간 재임, 79년 10·26이 터지면서 공화당총재직을 떠났으나 '체육관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김영삼, 김대중씨와 함께 대선출마 준비, 발은 '서울의 봄'을 경험한다. 80년 5·17과 함께 부정축재자로 몰려 46일간 보안사 서빙고실에 갇히는 수모를 겪고 도미, 미국 체류중 85년 3월 서울에서 온 전화로 정치규제법에서 풀려난 사실을 알고 86년 2월 귀국, 87년 10월 정치재개 선언, 신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13대 대선출마 4등 낙선, 89년 3당 합당 민주당 대표로 김영삼씨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나 95년 집권 민주계가 자신을 내몰려 하자 탈당, 자민련 창당 총재로 취임했다. "장들기 전에 가야 할 몇 마일이 남아 있다"며 15대 대선 재도전, 96년 4월 15대 국회의원 당선으로 8선의원 기록, 대 국회의원 당선으로 8선의원 기록.

실지 않다는 소박한 생각에서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JP선생님이 활동하는 무대를 주시하며 살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편지를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신의 존재는 코흘리개 시절부터 40여 년간 제 인생의 모든 부분에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새천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낚시하러 가셔도 됩니다. 일요 화가회 회장직을 다시 맡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정치하느라 아무래도 소홀했던 가족들과 친지들을 보듬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십시오. 그런 자리에서 부인 박영옥 여사에게 「청춘」이라도 낭송해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JP선생님께서 바로 그런 순간에 인생의 참맛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이 바뀐 정치마당에서 다시 JP선생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마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비현실감을 저에게 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면 저희는 JP선생님께 '아듀'를 고해야 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JP선생님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오늘날의 평가가 어떻게 간에 오랜 세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2000년 2월 5일

류숙필(문화일보 차장)

드라마반쪽이네

반쪽이가 '반쪽이'와 다른 이유

최정현의 육아만화 드라마로 만든

KBS 제작진 인터뷰



반쪽이 육아만화로 알려진 변재란 최정현 부부의 이야기가 공중파 방송에서 드라마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환호성을 올렸다. "와— 대단하다. 보수적이라는 방송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지다니..." 그들 부부의 이야기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 데서 벗어나 전국 모든 가정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어쩌면 역사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반쪽이네>(극본 정형석/연출 이재영)를 만드는 사람들과 출연진들을 만나기 위해 급히 방송국으로 달려갔다.

녹화 날마다 한밤 강행군

'반쪽이네' 녹화가 있는 날은 매주 일요일이다. 1월 30일 오전 10시, KBS 별관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만나기로 한 PD는 안 보이고 누군

가 분장실 문앞을 지키고 서 있다. 진행 보조를 맡고 있다는 그 청년 왈(曰), "지금은 리딩(배우들이 함께 모여 대본을 읽는) 시간이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문 앞에는 '배우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다. 옆방에선 곧 시작될 녹화 준비를 하는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 소품을 준비하는 사람, 철제사다리를 들



드라마 <반쪽이네>의 변재란(정혜리)과 반쪽이 최정현(김창완).

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엄혀 분주하게 움직인다.

30분쯤 지나서야 반쪽이네를 연출하는 이재영 PD를 만날 수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과 초췌해 보이는 얼굴, 며칠을 입고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구겨지고 때탄 외무가 한 눈에 봐도 촬영이 강행군임을 짐작케 했다. "앉으면 자니까 서서 하자"는 그의 첫 마디에 "그렇게 피곤하냐"는 우문을 던지니 기다렸다는 듯 고충을 털어놓는다.

"수요일과 일요일에 촬영을 하는데 보통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끝난다. 빠르면 7~8시고 늦으면 12시까

지 간다. 나머지 요일엔 아이디어 회의와 대본수정 하느라 정신없다. 촬영하면서도 계속 고민다. 누더기처럼 너덜해진 이 대본을 좀 보라."

"만화는 만화, 드라마는 드라마"

반쪽이네가 방영되기로 한 것은 원래 3월초. 예정보다 방영일이 앞당겨지면서 촬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완전 초짜 PD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 나라 TV 프로그램의 열악한 제작 여건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터. 어쨌든 연출자를 고심하게 만드는 요인은 따로 있지 않을까 싶

어 슬쩍 질문을 던져보았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극과 극이다. 원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경우 좀더 진지하게 나갔으면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락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사실 반쪽이네의 주제 자체는 진지하고 이데올로기적이다. 하지만 그것만을 부각시킨다면 6·25 특집드라마나 세미나가 돼버릴 거다. 건강함은 건강함대로 추구하면서 재미도 잡으려다보니 어려운 거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제를 던져주고
시청자들이 해답을 찾도록
여백을 남겨두어야
거기서 진정한 재미를 얻는 건데
(반쪽이네)는 일일이
답을 내려주고
설명까지 하려는 것 같다"

여기서 두 마리 토끼란 건강한 주제 의식과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말한다. 담당연출자도 토로 하듯 그것을 동시에 거머쥐기란 쉽지 않다. 잘못하면 둘 다 놓치는 기박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통신에는 비판적인 반응들이 꽤 올라오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드라마 반쪽이네가 겪는 어려움은 또 있다. 이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청자의 다수가 만화 『평등부부 반쪽이네 가족일기』를 애독한 적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또 다수가 원작이 주는 감동과 여운을 기대하면서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쪽이네는 어찌 보면 행운아고 어찌 보면 불운아다. 잘 하면 매니아까지 만들 수 있지만 못 하면 두 배로 욕을 먹게 되기 때문이다.

반쪽이네 제작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인지 "만화와 비교해서 드라마를 보는 것은 다소 무리"

라고 말한다. 만화는 만화고 드라마는 드라마라는 예기다. 실제로 반쪽이네는 원작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원작이 육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드라마에서는 거의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기혼여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육아를 왜 다루지 않는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아쉬움과 불평이 이어지곤 한다.

'아기' 하에린은 어디에

"원작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캐릭터를 따오고 소재를 취하는 것 정도다. 그 이상의 연결고리는 없다. 남녀의 고정된 역할을 캐프치려는 움직임이 이미 사회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반쪽이네> 제작에 나섰지만, 그렇다고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육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의 연기력은 성인에 못 미친다. 특히 갓난아기를 등장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다. 영화

찍을 때도 보통은 쌍둥이를 쓴다. 촬영일정이 급박한 드라마에서 아이가 주연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육아문제는 나중에 이웃집 아이를 등장시켜 부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원작과 다른 점은 또 있다. 극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반쪽이네(김창완-정애리)와 정반대인, 가부장제의 표상이 되는 가정(최양락-금보라)을 이웃으로 배치했다는 점이다.

특히 1월 22일에 방영된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첫 회라는 특성상 등장인물 소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지, 모든 캐릭터가 일관되게 과장돼 있었다. 인물 성격이 부풀려지다보니 당연히 극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못했고, 결국 시청자의 감정이입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출자에 따르면 "재미를 주려다보니 생긴 해프닝"이다.

재미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처럼 종종 강박관념으로 작용해 역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원작자 최정현씨는 "처음 대본은

괜찮다가도 수정하면 할수록 오버되는 걸 발견하게 된다"며 "문제를 던져주고 시청자들이 해답을 찾도록 여백을 남겨두어야 거기서 진정한 재미를 얻는 건데 <반쪽이네>는 일일이 답을 내려주고 설명까지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그래도 최씨는 원작자로서, 아니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가 제대로 풀려나가길 원하는 페미니스트로서 반쪽이네에 대한 애정을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는 사람끼리 모여 여성문제를 논했다. TV 드라마로 방영된다는 것은 그 한계를 짚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시행착오를

겪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래도 1회보다는 2회가, 2회보다는 3 회가 나아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는 원작 『평등부부...』에서 경이로운 새 세계를 보았던 독자들의 소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은 실망하며 채널을 돌렸다가도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제 그만 봐야지 했다가도 토요일 8시 50분이면 채널을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물론 드라마 <반쪽이네>가 원작만큼의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의의는 적지 않다. 남녀의 역할이 뒤바뀐 드라마가 방영된다는 것만으로도 그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내는

출근 준비로 분주한데 40대의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찌개를 끓이며 애를 끼워 학교에 보낸다는 설정 자체가 많은 여성들에게는 일탈과 해방의 기쁨으로 다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시청자들은 <반쪽이네>가 어서 길을 제대로 찾았으면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 <반쪽이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라고 때문이다. <반쪽이네> 제작팀이 선불리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좀더 정공법으로, 하지만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부부

정애리 · 김창완 인터뷰

독 부러지기보다는 약간 흐릿해 보이는, 그래서 웬지 더 정이 가는 표정과 어눌한 말투. 이제는 배우라고 불려도 좋을 김창완씨가 반쪽이네 주연을 맡았다. 미대를 졸업한

만화가면서 집안살림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최정현이 그가 연기해야 할 인물이다. 원작 『평등부부 반쪽이네 가족일기』를 본 사람이라면 주연배우로 김씨를 캐스팅한 것에 무릎을 칠 만큼 이미지가 달아 있다. 김씨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감한다. 여태까지의 역할이 그랬듯이 이번 역도 자신의 실제 이미지와 다를 게 없어 아무리 주연일지언정 부담을 느



끼기는커녕 오히려 편안하다는 것이다.

반쪽이네의 상황 설정, 즉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온 남녀(혹은 부부)의 역할을 뒤집어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남녀관계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고정시키는 태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 무엇이 흥미를 느끼고 잘 할 수 있는가는 사람에게 따라 다른 것이지 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남녀를 막론하고 개인의 흥미나 능력과

무관한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 직업이 좋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도 큰 재미를 느낀다. 그리고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내'가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여자가 그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방영된 1~2회분과 관련하여 다소 산만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 사정상 예정보다 급박하게 촬영하면서 생긴 문제 같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정) 인정한다. 하지만 처음이라서, 아직 시청자와 함께 호흡할 만한 시간을 갖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차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창완씨는 생각만큼 실천을 하고 있는지?

(김) 글썄... 확실한 것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심리적인 양극을 풀어내는 것이 실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배역을 생각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

(김) 어떤 것에 의도적으로 신경 쓴다기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하려고 한다. 지금은 특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자세로 일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

(정) 며칠 전인가, 변재만씨 역을 맡은 배우 정애리가 머리모양까지 똑같이 하고 나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내 머리 모양은 원래 이렇다. 변재만씨와 같게 하려고 일부러 바꾼 것이 아니다. 나는 배우이고 내 역할은 드라마를 통해 어떤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반쪽이네가 실존하는 가족을 모델로 했었지만 그건 엄연히 모델 아닌가. 배우는 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본다.

이 드라마가 대중에게 어떻게 읽혔으면 하는지?

(김) <반쪽이네>에는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남녀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측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현실을 부정하고 뒤엎어버리는 반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진정으로 남자답고 진정으로 여자다운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데 <반쪽이네>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시청자들이 그 과정에 동참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정) <반쪽이네>에서 다루는 것이 꼭 남녀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또 때로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이웃간의 관계를 소재로 채택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소재를 다루든 기존의 관계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는 드라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시청자들이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반쪽이네와 함께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기대한다. □

박미숙

이프 객원기자

한 때 프리랜서였고, 2년여 동안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왔다. 요즘 고민은 늘어나는 영향에 비해 주어지는 기버워치고, 생활은 느슨한데도 항상 부족한 수면으로 허덕인다는 것.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억지로 시간을 내서 드림을 칠 수 있다는 것. 박지도 잘 안 맞고 세기도 일정하지 않은 그 어설피름이 마치 내 인생을 보는 것 같다. 나는 어쩌면 전생에 벼랑이가 아니었을까. 그래도 2000년이 가기 전에 한 번은 무대에 서 봐야 하는데,

친정엄마와 딸이 함께 쓴 빈난 부엌이야기

사위에게 주는 요리책

딸아, 네 부엌이 아닌 데선 일하지 마라.
엄마, 착한 며느리 야망 다 버렸어요.



박형욱 · 박이은경 지음 / 이프 펴냄 / 값 7,500원
신국판면형 / 265쪽

'행복한 요리'를 하기 위해

박형욱 · 박이은경 모녀가 제시하는 몇가지 조건

맛을 비롯한 이 땅의 며느리들에 대한 격려와 연대감이
박력있는 필치에 실려 펄럭펄럭 된다.

월간 달 집소회 기자

아주 특별한 요리책.

때에 봉후추를 박는 일은 힘센 남편이 할 것.
같은 목록 뒤는 설명이 재미있다.

서사재널 김은남 기자

여성에게는 억압의 공간이자 해방과 자유의 터일 수 있는
부엌과 요리라는 작업을 통해 가족사회학을 그려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일보 최현수 기자

미 · 스 · 코 · 리 · 아 · 대 · 회 · 를 · 폭 · 파 · 하 · 라

한국 소설 사상 최초의 초특급

액션 스릴러 미스터리 에로틱 래디컬 페미니즘 소설



한 명의 미스코리아 후보와 11의 편집진들이
미인대회를 폭파하기 위해서 공작을 꾸민다.
마구재, 한국남, 강남근, 돈 리,
용드레 김, 도리앙 한과 연두보라, 가여린,
고마, 장비랑, 고여해, 김유미, 유정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
그들은 과연...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허난설헌'의 저자
김신영숙 장편소설

왜 여성에게 집중진단

총부리를 겨누는가

군가산제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 내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직후 여러 공간에서 술하게 쏟아지는 남성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권리 보장'이라는 추상적인 슬로건을 외친다 해서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구호는 구호일 뿐이니,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이 구호가 자기 권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된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들을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낙인찍는다. 이번 군가산점 논쟁에서 페미니스트들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팽개친 이기주의자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군가산점제 폐지를 가장 민감하게 반대하고 행동했던 것은 '예비역' 네티즌들이다. 많은 여성들은 예비역이라는 정체성이 단 며칠 사이에 수천 명의 남성들을 뭉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랐고, 이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의 '용맹성'에 두 번 놀랐을 것이다. 놀라움의 마지막 장식은 정부여당이 했다. 그 '용맹성' 앞에 위헌시비까지 감수하고 가산점 유지를 발표한 것이다.

"여자를 정신대 보내라"

이들 예비역들은 판결 직후 동시다발적인 접속과 항의 메일, 해킹으로 헌법재판소와 행정자치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몇 차례

씩 작동불능으로 만들었다. 여성단체의 게시판에 포르노 사진이 게재되는가 하면, TV 토론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김신명숙씨의 사진이 욕설과 함께 게재됐다.

이 남성들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군가산점은 26개월간의 군생활을 보상해 주는 유일한 보상책이므로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비인간적인 군생활에 대한 회한과 그런 경험을 '무시하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적개심, '백'이 좋아 군대 면제된 미필자에 대한 분노가 뒤범벅이 되었다. 이들에게 군가산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생명과 젊음을 담보하고 희생했지만 그 희생된 사



지난 1월 29일 서울역에서 군가산제 폐지를 위한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는 남녀대학생들. 이날 시위에는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람의 생명과 젊음의 가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소한 이익의 구현만을 내세우는' 인간들이다. 이 정도면 아주 점잖은 공격에 속한다. 앞뒤 맥락 없이 단지 자기의 분노를 배설하는 글들이 대다수다. "군가산 폐지를 찬성하는 여자들, 군기교육대에 보내 뺨뺨이 쳐야 정신 차려겠다", "정신대에 보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소리들이 버젓이 게시판에 올려졌다. 생각의 다름을 확인하는 순간 '군기교육대'를 떠올리는 것은, '말로 안 되면 해야 된다'는 우리 사회의 군사주의적 사고가 끔찍히도 팽배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많은 남성들이 '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일

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분단 상황이다. 막상 전쟁 나면 전방으로 달려가 총 맞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그러니 '입 닥치고' 가만 있으란 이야기이다. 많이 들던 소리다. '안보가 서야 나라가 선다' 류의 안보이데올로기, 무의식 속에서 수도 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위급상황'을 만들어내고 남자인 자신이 그 상황을 헤쳐나갈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갖는 한국남성들에게 '그깟 군가산점 5점 가지고 평등권 운운하는 여성들'이 사소한 이익에 목매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 나우누리의 여성모임 '미즈' 운영자인 김권현 영씨는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과, 그 의무의 신성성을 침범하는 은혜 모르는 여성들이라는 구도로 이 논쟁이 이끌려간다"고 언급한다. 대다수 남성들이 '군가산제 폐지=국방의 의무 거부'라는 등식으로 이해한다는 것.

당신들의 전쟁시나리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이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남성집단 내부에서도 군가산점제 폐지에 찬성하는 논조의 발언을 한 사람은 여지없이 공격당하고 있다. 판지일보의 김어준씨와 진보적인 지식인들, 그리고 일부 언론의 기자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타깃이 되었다. 이들이 전부 미필자이기 때문에(사실 여



〈군가산점 폐지를 위한 전국대학생 비상대회〉 200여 명이 서울의 거리시위 전에 세천년민주당 앞에서 군가산점 폐지에 반대하는 항의농성을 하여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군가산점 폐지 논란은 피해의식에 젖은 군필남성들이 군가산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불거져나온 '오발탄'이다.

있을 때, 실직과 임금삭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과 가정해체의 불만이 여성들에게 향해졌다. 그 시기에 캐나다의 한 실직노동자가 대학교내에 들어가 16명의 여대생을 향해 총을 난사하면서 한 말은 "쫄 같은 페미니스트녀들"

이었다고 한다.

2000년,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사회도 여성에 대한 집단적인 반격(백래쉬)의 징후가 일하는 것이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을 "집안일 쟁쟁치고 애들 굴기거나 하는" 여자들로 공격하고, 자기의 이야기에 '감히' 반대하는 여성에게는 "밤길 조심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성들에게 공포를 주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지금 통신상에서 집단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악자를 향한 악자의 분노

일부 남성들은 군가산점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던 여성 5명을 '이화 5적'이라고 이름붙이고(이들이 당시 이화여대 재학생이거나 졸업생들이었다) 자기를 손으로 가장 먼저

처단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모든 여성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제대군인의 정당한 평가와 역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모임'에서는 군가산점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한국남성운동협의회'라는 단체에서는 남자인 군대 가는 것이 위헌이라는 소송까지 냈다. 언론 또한 이들 남성들의 이해를 반영한다. 군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 남성들이 초중등학교 입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실을 '교단의 여성화'와 악삭빠르게 연결시키고, '혹한 속에서도 용명을 잃지 않고 맨살로 훈련하는' 해병대와 특전대원들의 훈련장면을 '감동스럽게' 내보낸다. 이런 상황에서 페미니즘과 여

성운동이 남성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위기의 주범으로 내몰릴 사회적 분위기는 언제고 또다시 만들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체적 조건으로만 들어지는 '군필 여부'라는 기준에 저항하고 거부장제하의 피해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이번 위헌소송에 같이 참여했던 김형수씨(전국예바다학생연대)는 "군필여부로 구분되는 사회적 기준을 흐트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군가산점 폐지'를 위한 예비역 모임과 '군필자 권리를 위한 장애인 모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29일 군가산점제 시위에서 "예비군도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비역 훈련복을 입고 참가한 정김명훈(외대 물리3)씨는 "군가산점 문제는 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징병제도에 대한 보상을 국가권력이 도외시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가산점 논쟁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공격적 사회 분위기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개입하고 조직하는 한편, 소수집단 남성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을 고민하게 하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

여성들이 알아야 할 군가산점제 상식

한국 남성의 80%가 강제적으로 얻게 되는 군정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 부여된 군가산점. 그러나 이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이나 장애인에 극복할 수 없는 특혜가 돼버린 지 오래다. 여성계가 그의 폐지를 10여 년간 요구해 온 결실로 작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번 기회에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모든 정보를 여성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군가산점제, 무엇이 문제이며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군가산점제 논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 논쟁이 촉발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을 내리면 서부터다.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계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한다는 결론이다. 판결 직후, 많은 군필 남성들이 "군가산 폐지는 역차별"이라고 심하게 반발했고, 이에 여당은 위헌판정까지 난 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나섰다. 군가산점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 가산점을 받으라는 것.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선미 노동간사는 "봉사를 받아야 할 장애인들에게 '취업하려면 봉사활동 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의 사회봉사 시스템으로는 가산점을 받기 위한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군가산점은 어떻게 시작, 유지되고 있나?



앞으로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26개월의
군경력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미련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군가산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안정을 도모' 한다는 취지로 1997년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항을 옮겨온 것으로, 1961년부터 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군가산점을 부여받았다.

7급과 9급 공무원과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제대군인이 지원할 경우, 2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은 5%, 2년 이하는 3%의 가산점을 준다. 그러나 군가산점 혜택을 받는 대상이 공무원 6급 이하라는 기준이나 가산점 5~3%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 거치지 않아 군가산제는 입법과 당시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94년 행정세신위원회에서 가산점 비율을 1.5% 내지 3%로 낮추려 했다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98년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가산점을 적용하고 복무기간을 호봉과 승진에

도 적용하려는 병역법 개정안은 여성계의 반발로 유보됐다. 이 법은 통과될 때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끝나는 2000년도에 전면적으로 제점토한다는 전제를 달았을 정도로 법률적 근거가 빈약하다.

▲군가산제로 인해 여성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군가산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시험은 여성과 장애인이 도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공정한 경쟁시장이다. 민간기업들이 채용, 부서 배치, 임금, 승진 등에서 상중사중의 성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공정한' 경쟁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여성이 계속 증가해 98년에는 여성응시자가 5만 명(7급 1만 명, 9급 4만 명)에 이른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합격선이 높아져 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5~3점의 군가산점은 이미 '제대군인의 사회적 복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숫제 군필자만 뽑겠다는 이야기다. 7급 일

반행정직 합격자(99명) 중 군가산점을 받지 못하고도 합격한 사람은 단 6명인 6.4%에 불과(그 중 3명의 여성은 채용목표제로 합격했으니 실제 숫자는 3.3%인 3명이다)하고 7급 검찰사무직은 단 한 명, 심지어 98년 철도청 기능직 시험은 합격선이 100.50점으로 만점을 받은 여성들이 불합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가산점이 적용되기 이전인 97년도 9급 공무원시험에서 여성합격률이 35%였던 반면 98년에는 합격률이 21%로 급락했다.

군가산제를 폐지하면 어떤가.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합격자가 7급 일반 행정 세무의 경우 현재의 5.6%에서 27.2%로, 9급 행정직의 경우 114명에서 232명에 이르게 된다. 이 적급에만 100명이 넘는 여성이 더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군가산제 폐지는 역차별인가?

군가산점 논쟁에서 많은 남성들은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제대군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반대했다. 이는 '군가산점

폐지 주장'을 '군경력을 인정 않겠다는 의도'로 곡해한 남성들의 무지의 소치다.

또다른 역차별 주장은 군가산제를 폐지하라는 채용목표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공정한 경쟁'이라면 다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그러나 채용목표제는 군가산제와는 그 도입이나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이 겨우 3.2%만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채용목표제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들에게 이 제도는 단순히 '여성우대제도'로 비칠 뿐이겠지만 채용목표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러 면에서 차별받아 왔다는 것, 사회는 그 차별을 여성집단에게 보상해 주고 '결과의 평등'을 이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제도로 수혜를 입은 여성은 행정·외무고시까지 포함해 많아야 20~30명. 군가산제로 합격한 남성의 수, 군가산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의 수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

▲군가산제를 폐지하면 군필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

앞으로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26개월의 군경력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여성개발원의 김태홍 박사는 채용과 임금, 승진의 3중 차별을 막기 위해 군경력자에게 채용가산점이 아니라 임금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과 연봉제라면 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군경력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 정부나 기업에서 이들을 채용할 때 군복무 기간만큼 응시연한을 늘려주는 것, 제대 및 개월 전에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군경력 인정과 군 개혁은 어떤 관계가 있나?

현재 군경력을 보상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강제징집되는 군체계에 있다. 한 개인의 신체가 국가권력이 만든 기준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고 입대 여부가 결정되는 강제징집 아래서, 개인의 인권침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열악한 군대환경이나 폭력 등 성역이 돼버린 군집단의 구조개편

을 고집해야 한다. 군가산제 논란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온 군측이나 모병제 논의의 물꼬가 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는 "80만이라는 군사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인력낭비일 뿐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군측과 경영 개편을 통해 30만을 유지하고 군을 현대화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군필자의 보상책은 궁극적으로 군구조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군가산제 폐지로 인한 교원의 여성화는 어떻게 되나?

통계를 보면 여성교원은 전체 교원 중 47%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교장은 4.9%, 교감은 7.5%에 불과하다. 게다가 교원의 여성화를 군가산점제의 유지로 막을 수는 없다. 실제로 여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이 있다. 교사들의 임금이 향상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어준다면 교직은 여성들뿐 아니라 실력 있는 남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원하는 직종이 될 것이다. □

박정미경

여성의 편지걸기에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묻는다. "인정하지, 그럴당 대안은?". 군가산제를 취재하는 동안 만났던 아들도 마찬가지다. 편지를 걸자마자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 이는 차츰 페미니스트 남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사회에서 또다시 여성의 입을 다물게 하는 폭력이다. 여성은 행정가, 경제전문가 혹은 법률가, 심리분석가가 되어야만 발언할 수 있다 말인가? 아니 나는 '전문가'가 아니올시다. 문제제기에서 대안으로 직행하는 그 외길 주변에서 항상 섯길을 찾는 페미니스트로 남고 싶을 뿐이요. 그리고 남성분들, 미안하지만 그 섯길은 똥먼지 차듯할 뿐 아니라 직행버스는 다니지 않는다고요.



당신의 성격은 어떤 타입인가? 2

낙천적 유형 알아보기

6) 당신이 제주도 1주간 휴가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던 중 날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 5 - 날씨가 완벽하게 좋을 것이고 좋은 날씨일 때 필요한 것들만 가져간다.
- 4 - 대부분 날씨가 좋겠지만 날씨가 궂을 때를 대비한 약간의 물건을 가져간다.
- 3 - 다소 날씨가 좋겠지만 날씨가 궂을 때를 대비한 여러 물건을 필수 가져간다.
- 2 - 날씨가 좋을 때도 궂을 때도 있을 것이고 모든 날씨에 대비해 준비한다.
- 1 - 날씨가 대부분 좋지 않을 것이고 철저한 준비를 한다.
- 0 - 날씨가 고약할 것이고 나는 왜 피는 일이 없을지 생각한다.

7) 당신은 승진을 했고 여러 직원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당신과 남편(부인 혹은 애인)을 함께 저녁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 0 - 지나친 아첨이므로 초대를 기절할 것이다.
- 1 - 지나친 아첨이지만 초대에 응한다.
- 2 - 약간의 아첨이지만 초대에 응한다.
- 3 - 의도가 다소 미심쩍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응한다.
- 4 - 아무 생각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에 응한다.
- 5 - 친절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초대에 응한다.

8) 당신은 호텔과 휴원을 엇갈리게 받고 있는 개봉영화를 보러갔습니다. 영화관화를 하기 전에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 5 - 무척 감동적인 영화일 것이다.
- 4 - 좋은 영화일 것이다.
- 3 - 별다른 예감 없이 영화가 시작되길 기다린다.
- 2 - 그리 좋지는 않은 것이다.
- 1 - 실례작일지도 모른다.
- 0 - 실례작일 것이 분명하고 보려온 것을 후회한다.

9) 아주 관심이 끌리는 어떤 영화를 물기로 했습니다. 첫 시간은 예상과 다르게 지루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일까요?

- 0 - 즉시 그만 두겠다.
- 1 - 한 번 더 들어보고 또다시 지루하면 그만두겠다.
- 2 - 몇 번 더 들어보겠지만 언제라도 그만둔다.

- 3 - 그만둘 생각은 안 하지만 강박이 나아지길 바란다.
- 4 - 언젠가는 흥미로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 5 - 아주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10) 당신이 미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미팅을 주선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일까요?

- 0 - 실망스러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팅에 나가지 않는다.
- 1 - 별 볼일 없겠지만 어쨌든 나가기는 할 것이다.
- 2 -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나가서 최선을 다 하겠다.
- 3 - 어느 정도 기대한다.
- 4 - 상당히 기대한다.
- 5 - 흥분이 되고 몸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11) 당신이 집에 도착해서 전화 자문상담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같이 전화 소식이 있다는 전갈을 남기고, 즉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일까요?

- 5 - 기뻐서 서둘러 전화하고 친구가 전해줄 좋은 소식을 듣고 싶다.
- 4 - 이유를 갖고 전화하고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한다.
- 3 - 이유를 갖고 전화하지만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궁금해한다.
- 2 - 좀 나쁜 소식일지도 모르므로 약간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한다.
- 1 - 나쁜 소식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고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한다.
- 0 - 아주 불행한 일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전화한다.

12) 남편(아내 혹은 애인)이 예정보다 한 시간 가량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 0 - 극도의 공포감이 들고 머리 속에 최악의 사건들이 떠오른다.
- 1 - 매우 불안하고 머리 속에 최악의 사건들이 떠오른다.
- 2 - 위험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상당히 불안해한다.
- 3 - 약간 불안하지만 별일 없을 것이다.
- 4 - 어떤 불일 때문에 늦는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 5 - 아무 생각 않고 그냥 기다린다.

43쪽에서 ➡ 227쪽 계속

국회점령프로젝트



들어가는 말 국회를 점령하라!

15대 여성의원 본격 인터뷰 11명. 그들의 존재 이유

여성의원 국회에서 살아남기 여성 의원은 국회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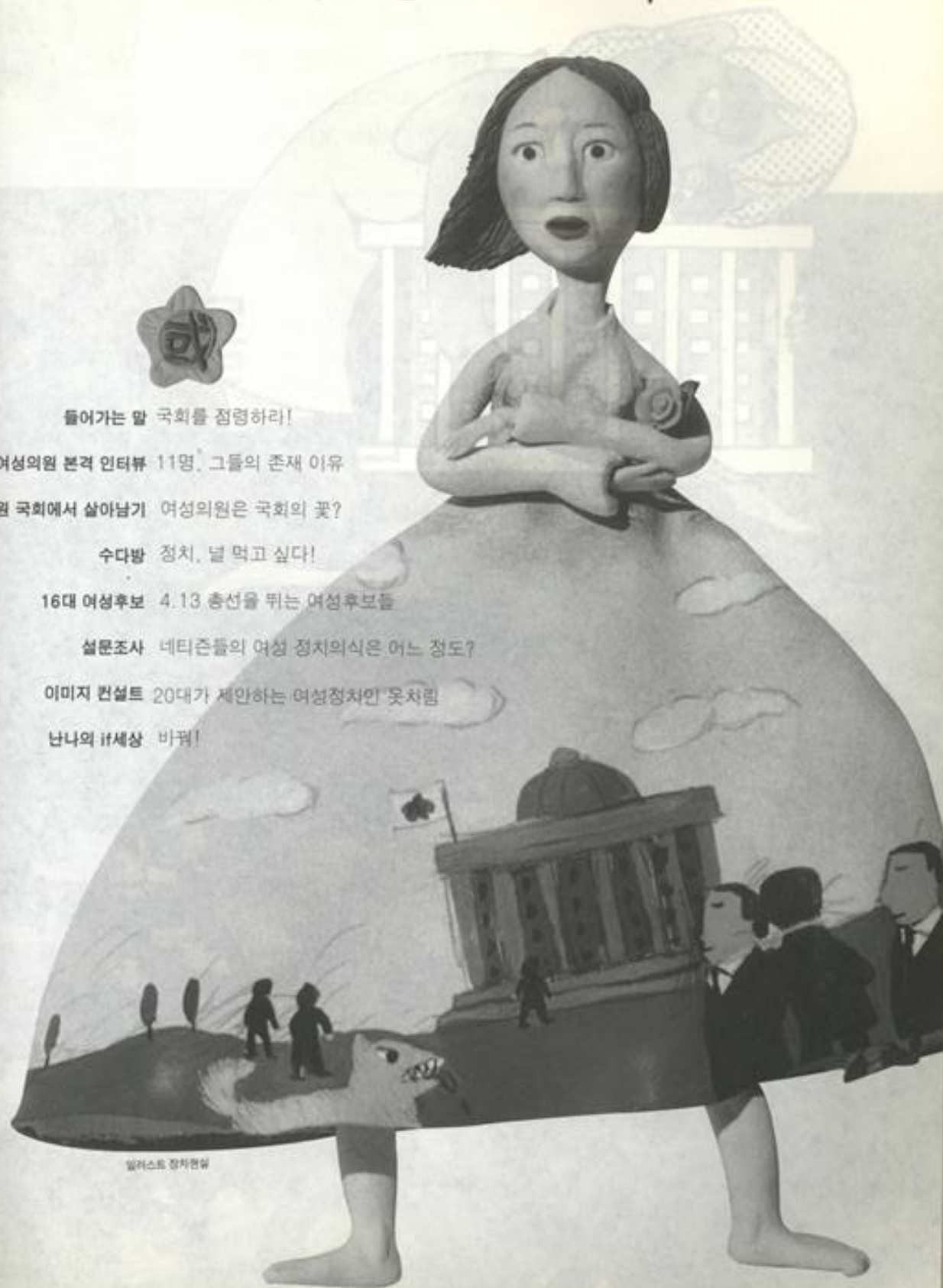
수다방 정치, 널 먹고 싶다!

16대 여성후보 4.13 총선을 뛰는 여성후보들

설문조사 네티즌들의 여성 정치의식은 어느 정도?

이미지 컨설팅 20대가 제안하는 여성정치인 '웃차림'

남녀의 if 세상 바뀌!



일러스트 장지현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라!

차별은 부당하다고. 그 부당함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 부당함이 일그러뜨린

남성과 여성, 세상의 모습을 고쳐놓겠다고.

국회를 점령하라!

자, 이제 때가 왔다.

국회를 점령하라!

천지간에 음기가 차오르고 작지만 진지가 구축되었으며 여자들끼리 결은 어깨에 힘이 실렸으니 보무도 당당하게 국회를 향해 진격하라. 저 길고도 오랜 세월 눈과 귀를 가리우고 목소리를 빼앗긴 채 놀리고 갇히고 짓밟혔던 앞서 산 여성들의 함성이 우레처럼 우리를 후원하니.

말하라.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라!

차별은 부당하다고. 그 부당함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 부당함이 일그러뜨린 남성과 여성, 세상의 모습을 고쳐놓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용감하게 다시 말하라.

세상의 절반은 원래 우리 몫이라고. 그러니 일자리의 절반과 의회 의석의 절반이 우리 몫이고 가사와 육아도 절반만이 우리 몫이 아니겠느냐고. 호주제가 댜 말이고 취업차별이 어찌된 연유이며 여성의원 비율 3.7%가 무슨 야만이냐고. 며느리 자리가 억울하고 재사가 싫으며 명절이 끔찍하다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자라는 불운 때문에 어찌어찌 주부로 주저앉았으니 취업 등 사회진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라



고, 어머니, 아내이기 이전에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만 하겠다고, 여성은 남성의 성적 쾌락을 위한 젖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니라 스스로 오르가즘을 찾는 똑같은 성의 주체라고, 이제 착한 여자의 가면을 벗고 나쁜년, 미친년, 화냥년들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듣는가. 낮지만 벌써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이 혁명적 목소리를? 그 뒤를 따르는, 길고 엄혹했던 동토의 시간을 접으며 마침내 봄을 부르는 상쾌한 빗소리 같은 이 곳저곳의 수련거림들을?

그 목소리와 수련거림들은 더 이상 무력한 수다가 아니다. 이제 그것들은 정색을 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요구한다. 그러니 국회를 향해 진격하라!



필리스톤 난나

여성은 더 이상 '악한 성'도, '제2의 성'도 아니다.

이제 여성은 황폐하고 병든 세상의 치유자이자 구원자이며 새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다. 여성의 눈은 남성중심의 역사가 만든 정복과 지배와 무한경쟁의 비인간성을 보며, 여성의 귀는 소외된 약자와 만신창이가 된 자연의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듣는다. 부활하는 여신이 이것들을 감싸안을 때 비로소 세상은 구원될 수 있다.

국회에 여신을 부활시켜라!

여신의 깨끗한 손으로 부정부패를 쓸개 하고 여신의 자유로운 발로 지역주의, 연고주의를 차버리게 하며 여신의 부드러운 자궁으로 권력정치가 아닌 민생정치, 강자의 정의가 아닌 약자의 정의,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잉태하게 하라. 그리하여 마침내는 답답하게 막히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가부장 국회의 형상을 여성이 조화를 이루며 소통하고 순환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탈태시켜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세상과 자연은 평등과 조화와 복지와 공생의 아름다운 노래하기 시작하리라.

어머니 지구 위에 자리잡은 이 나라 저 나라의 국회와 정부들에서 여신이 속속 부활하고 있다. 핀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리랑카 라트비아 등 10개의 국가에서 여성이 대통령 혹은 총리로 활약중이며 이웃 일본에서도 최초의 여성지사가 탄생했다.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은 퍼스트레이디라는 타자가 아니라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주체가 되기로 결정했다. 영화로운 타자의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고생스러워도 빛나는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깨어나는 여신의 복음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이 40% 내외에 이른다. 이들 국가의 여성과 약자들은 우리처럼 억압받고 차별당하지 않는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 누구나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인권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신이 만드는 세상을 엿볼 수 있다.

누가 의심하는가?

여성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 우리의 목소리를 우렁찬 합성으로 터지게 하라. 한 손에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다른 손에는 투표용지를 들고 함께 느끼고 모이며 작더라도 승리를 실현하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아직 우리의 힘은 크지 않다. 최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모든 선거에서 여성을 50% 공천하도록 한 '양성평등 선거법' 같은 초강력 최신품기도 우리에게겐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나라의 정치문화가 평등할수록, 여성의 사회진출 정도가 클수록, 비례대표 선거제를 많이 택할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할수록 여성의 국회 점령도는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의 가부장적 정치문화, 밑바닥을 기는 여성의 사회진출, 빈약한 비례대표 의석, 보수일색인 정당 현실 등을 감안하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얼마나 불리한 지세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지 깨닫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코 움츠러들지 말라!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품기도 지형지세도 아니다. 역사의식과 사명감에 바탕한 병사들의 투지와 사기야말로 결정적인 변수다. 재래식 무기로 성능은 별로 좋지 않지만 '비례대표 후보 30% 여성할당제'라는 것도 새로 얻었다. 또 이번 총선에는 우리 선거사상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장수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점점 더 빠른 간격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전해지는 여성들의 승전보, 그것들이 이루는 세계적 대세도 우리에게 큰 후원이다.

잊지 말자!

세계평균 여성의원비율 13.2%, 한국 여성의원 비율 3.7%의 수모를, 국력에 걸맞지 않는 밑바닥 여권의 부당함을, 과반수의 여성유권자가 무력한 소수집단 취급을 받는 치욕을, 그 결과 여성의 한숨과 비탄과 좌절이 그치지 않고, 움울하게 비틀린 여성의 초상이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이 모국의 현실을.

선거를 통해 선언하라!

남성공화국은 이제 끝났다고. **II**

김신명숙 편집위원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동티모르 파병에 과감히 찬성.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모았던 이미경 의원(왼쪽 흰자켓의 뒷모습)의 모습.

배치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문화관광위, 정부위, 내무위, 재정경제위, 교육위, 노동환경위 등에 골고루 들어가 각개격파식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않는 모범 국회의원상을 만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상복이 터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 시민단체의 우수의원상을 휩쓸다시피한 이미경 의원, 동료남성의 저질 욕설 발언을 단식농성이라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 여성의원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던 김영선 의원, 연세대 한총련 사태 때 여대생에 대한 진압경찰의 성폭행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 고발함으로써 공간정국에서의 인권문제를 공론화시켰던 추미애 의원의 활약에는 기립박수가 아깝지 않다.

조직의 쓴맛과 럭비게임의 물

우리 나라같이 보스 중심의 계파 정치문화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소신을 지킨다는 것은 자칫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원들에게 유독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니는 것은 이들이 기존의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정치관행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 "여자들은 한 번 주장하면 끝까지 관철시키려 노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유로우니까 그래요. 지역구 안 가지고 있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정치에서 지역구 가지고 있으면 약자예요. 지역 민원 들어오는 것 해결해야지, 돈 들어가죠. 국정감사 해보면 남자들은 험박도 못해요. 내가 봐도 눈에 보여요. 여자가 훨씬 지조 있고 깨끗해요."



한나라당 당론에 거스르며 노사정위원회법안에 찬성하고, 동티모르 전투병 파견에 찬성하면서 당권정지, 제명이라는 '조직의 쓴맛'을 보아야 했던 이미경 의원도 "공천에 연연하지 않고, 약점 잡힐 일이 없다는 자신감 덕분에"에 소신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

김영선 의원은 이를 "안 잡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날렵한 반사적인 장점을 가진 럭비 같은 것"이라고 비유한다. "남자들은 여러 가지 인맥이나 네트워킹이 있어서 유리한 반면에 어떤 문제든지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나도 전반기 여당의원 시절에는 여성으로서 정보를 모으고, 결정난 결론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네트워킹이 없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야당의원이 된 이후에는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안면을 생각해야 될 것이 없고, 그 문제에만 전념하고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밝힐 수 있더라고요."

이러한 의견에 대부분의 여성의원들은 공감한다. 권영자 의원의 경우 "우리 나라 정치풍토라면 지역구 선거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회의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수십만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부심이야 폄하할 수 없지만, 그를 위해 치러야 할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4·13선거가 임박해 오는 요즘,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하루일과는 보통 새벽 4~5시에 약속터에 오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 외에 지구당의 조직관리나 크고 작은 지역주민들의 경조사 챙기는 데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뱃지 달더니 변했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어서 정작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 본 업무에 소홀하기 쉬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한 여성 의원은 한 국정치가 발전하려면 의정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전국구 의원과 여성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영예의 뒤편길

정치환경이 아무리 그렇다해도 소신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소위 '왕따' 될 각오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미경 의원의 말을 들어보자.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 외로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낙천적인 성격이라 해놓고 나서는 잊어버리니까

김영선 의원.





그렇지, 그때 그때마다 이젠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어떻게 참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오죠.”

국정감사 때마다 송곳 같은 질의로 공무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김영선 의원도 국회의원회 국창근 의원과의 일명 ‘싸가지’ 사건으로 단식농성을 결심하기까지 여러 차례 망설였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잔다르크’, ‘아마조네스’, ‘파발총’ 등 유난히 별명이 많은 김영선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보여주는 강성 이미지와는 달리 평상시 자신은 “명랑쾌활”과 “애매몽롱”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김의원을 특별히 아낀다는 정치선배인 권영자 의원도 그를 “순수하고 눈물이 많고, 사적으로는 애교덩어리”라고 평한다.

“저도 심리적인 갈등이 많았어요. 과연 육 몇 마디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 저혈압이라 단식을 하면 건강상에 치명적인 해가 되거든요. 국창근 의원의 평소 성품 때문에 사과까지 받아내려면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겠나 싶어서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마저 폭력이 제어가 안되면 국회가 만든 법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나 싶었고, 주변 여성들의 반응을 보니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는 거죠. 노처녀인데 이렇게 하면 분명 시집가긴 힘들 거고, 좋은 평가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누군가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그 옆에 있는 시민이라면 뭘 요구할까를 생각해 보면 대답이 나올 거예요.”

당장 눈앞의 평가에 급급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대로 밀고 나가는 여성의원들의 초지일관이야말로 그들을 의정활동 베스트 의원으로 만드는 자산이다.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정부관료들도 초지일관하면 첫 손가락으로 꼽는 베스트의원은 바로 추미애 의원이다. 그는 국회에서 특별검사제가 통과되기 전부터 당론과는 달리 줄기차게 특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특검제 도입과 관련, 당시 박상천 법무장관을 상대로 추궁을 해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전자주민카드에 개인의 사생활을 담아 전 국가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막아낸 것도 추의원이다.

추미애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다!

추미애 의원은 조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핵심의원 ‘빅5’ 중 한 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간간이 그가 여성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들려왔다. 모 의원은 “추미애 의원은 여성의식이 전혀 없다”고까지 힐난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소극적인 데다, 여성의원들과의 친목에도 소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15대 여성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그의 비중을 고려할 때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다. 더군다나 추의원은 새로 출범한 새천년민주당에서 첫번째로 지역구 공천을 받아 큰 이변이 없는 한 16대 총선에서도 낭보가 기대된다. 얼마 전 지구당 창당대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간 추미애 의원을 1월의 마지막주 일요일 오후 그의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다. 추의원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인터뷰 과정의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옮겨보았다.

Q: 여성의원으로 화제가 되거나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부담스러운가?

추미애: 내가 일하는 자세가 터무니없이 여성 옹호적이라든가, 여성만을 위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거나 소외를 당한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말끝마다 여자라거나, 여자라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써먹지는 않아요. 자꾸 그런 관점으로 언론이 나를 키운다면 나는 그걸 사양한다는 거죠.

Q: 여성특위 활동에 소극적이라고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미애: 내가 여성특위 국회의원회 간사였어요. 여성특위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인데 정부에서 어떤 대 여성 정책이 발표됐는데 그것이 못마땅하다 싶으면 하나의 새로운 법안을 가지고 나와 회의를 여는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상의가 없이 회의를 막 여는 거지요. 특위라는 것은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설위원회가 열려 있으면 그것을 결석할 수는 없는 거죠. 상임위와 항상 중복되는 시간에 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었어요. 간사의 역할이 우리 당 의원들의 시간에 맞출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시간 고지도 안되고, 시간 상의도 안되고 회의를 여니까 출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내가 여성특위 여는 것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해요. 이름 날리려고요?

Q: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지 않은가?



추미애 의원.

공적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까지도 양해해 주는 가족이 있다 얘기해야죠.



추미애: 나도 처음 정치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자가 무슨 정치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 내가 여자니까 아침에 출근시간 되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신뢰감이 형성 되지 않죠. 어떻게 일해요, 그렇게 공공 알아가지고? 내가 느끼는 애로사항을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다른 여성한테 개별적인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하는 것이 내 역할인 거지. 내가 공공 알한다고 문제가 풀어진다면 공공 알죠.

Q: 공공 알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어떻게 하나.

추미애: 그래서 여성운동 하는 분도 필요하죠. 근데 또 나처럼 남녀라는 틀이 아니고, 여자로서 불리한 것도 많지만 그런 것을 다 속으로 죽이면서 아무일 없었던 듯이 씩씩하게 하면서 여자에 대한 신뢰감을 쌓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자꾸 입 벌리게 하고 말을 시키면 손해인 거예요. 우리 상대후보들이 뭐라고 하나면 남자는 당선되고 나면 사우나탕에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여자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거기에 내가 말려들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내 가족에게 더 많은 양해를 구하고, 공적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까지도 양해해 주는 내 가족이 있다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래 맞아, 사우나탕 같이 못 가더라도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때 가서 남녀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상의 차이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자기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부각시켜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의원의 15대 총선 캐치프레이즈는 "출발부터 동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였다. 그리고 16대 총선에서도 그는 15대와 똑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다. 15대 당시 실현불가능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대신 그가 출발부터 동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시한 핵심전략 중 하나는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을 위한 탁아시설과 유치원 교육의 국·공립화였다.

한영애 의원에 대하여 몇 가지 알고 싶은 것들

15대 여성의원 중 가장 극심한 회로예탁의 소용돌이 속을 헤엄쳐다닌 의원은 한영애 의원이 아닌가 싶다. 사실 이번 취재를 위해 11명의 여성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내심 가장 만나고 싶었던 의원이 바로 한영애 의원이었다. TV나 신문지상을 통해 한 의원은 지극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한영애 의원은 아마 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의 한 사람일 것이다. 한국 정치문화에서 필수적인 학연, 혈연, 지연 등 힘이 될 만한 모든 인맥으로부터 그는 소외되어 있



다. 그에겐 (그 혼한) 남편도 없다. 게다가 목소리는 사방을 뒤흔들 정도로 우렁차고, 덩치도 웬만한 남자 두 명은 합해야 될 정도로 거구다. 한국사회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곤 손톱만치도 갖고 있지 못한 그가, 대한민국에서 날고기는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국회의사당에 그의 이름 석자가 박혀 있는 명패를 턱하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프 취재진이 의원회관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때마침 시민단체의 낙천후보리스트로 온 나라가 들썩이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한의원의 이름은 '욕설, 저질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모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천후보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의원은 낙천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먼저 호소했다.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치더라도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상황은 보지 않고 저질발언으로 돌아붙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한창 반론을 펴고 난 한 의원은 30여 년간에 이르는 자신의 정치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았다.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나 경상도 땅에 와서 정당활동을 하면서 DJ를 만나게 되는 과정, 그의 정치적 신념이 동화되어 평생 동교동계 동지가 되기로 결심하기까지, 그리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견뎌온 궁핍한 생활에 대해 그는 소상하게 들려주었다. 지나온 삶을 돌이키는 동안 그의 눈에는 간간이 이슬이 맺히기도 했다.

그리고, 두 시간 후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프 취재진의 입에서는 "한영애 의원 괜찮네"라는 말이 동시에 나왔다. 그 동안 TV나 신문을 통해 지나치게 당리당략만을 따르는 듯한 그의 행동에 솔직한 거부감이 있었고, 세련되지 못한 구태의연한 정치매너가 눈에 거슬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 의원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가 단지 사람들의 눈에 다소곳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목소리가 좀더 크고 눈에 뜨는 체격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비난의 화살을 맞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직접 본 한 의원은 뻔뻔 없이 시원시원하고 호탕한 사람이었다.



한영애 의원.



한영애 의원은 지난 2월 11일 한국유권자운동연합에서 발표한 (15대 국회의원 평가)에서 99년 하반기 환경노동위 최우수 의원과 하반기 재경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나는 이제 싫든 좋든 유명인이 됐어요. 등뒤에 대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속 시원하다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것을 안고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걸러야죠. 내 스타일을 버릴 수는 없지만, 나를 싫어하는 계층에 대한 배려와 자세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성을 좀 덜 높게 한다든지, 즉각적으로 나오는 직언을 한 템포 늦춘다든지,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언론매체 등에 나의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한영애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제 16대 총선에서 그가 출마하게 될 전남 보성·화순지역의 유권자들이 내릴 것이다. 한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그는 경쟁자보다 평균 7~8%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한영애 의원의 정치스타일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받는 셈이니, 싫든 좋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왜, 여성위원이 필요한가

15대 여성위원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의정활동 자료를 검토하면서 여성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여성의 대표자라는 생각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운동가 출신인 이미경, 신낙균, 김정숙, 권영자, 오양순, 정희경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 출신인 추미애, 김영선 의원, 그리고 임진출, 박근혜 의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당에 참여한 이후에 다음 여성을 위해서 부족해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당에서나 국회에서나 행정부에 갔을 때나 생활 면에서도 그렇고, 업무추진 면에서도 더 노력하고, 나 때문에 다음 여성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라는 신낙균 의원의 말처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성정치판의 개척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중에는 지역구의 민심과 이반된다는 이유로 동성동본금혼조항 폐지를 반대하거나, 최근 여성계의 중요 이슈 중 하나인 부모성감아쓰기에 대해 선정적인 운동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의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경 의원은 "여성의원에게 여성의식은 필수"라고 말한다. 여성위원이 여성문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일을 훨씬 더 꼬이게 만든다. 여자의원 안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남자의원들을 결집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초기에 일부 여성위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제정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사례도 있다.

15대 여성의원 11명이 모두 여성의식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운동가 출신의 여성의원 두 명은 여성의식 있는 의원으로 똑같이 이미경, 신낙균, 김정숙, 권영자, 오양순, 정희경 의원을 꼽았다. 그렇다고 다른 의원들이 반여성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또 다른 지점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력 확보를 위한 법률을 제안하고 심사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국회여성특별위원회 박숙자, 김혜숙 전문위원이 한국의회발전연구회에 제출한 「여성정책에



관한 남녀국회의원의 관심 및 기여도 비교분석」을 보면 여성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신낙균, 오양순), 행정위원회(권영자, 김영선), 내무위(추미애), 환경노동위(한영애, 이미경)는 모두 여성관련 발언횟수가 많은 위원회로 나타나 여성위원의 존재와 여성관련 발언 횟수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남성의원들로만 구성된 건설교통위, 정보위, 윤리특별위 등에서는 단 한 건의 여성관련 발언도 없었다.

다른 한편 여성위원의 여성의식을 가능할 수 있는 좀더 다양한 기준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성정치인들이 더욱 많아질수록, 여성위원들의 정치행보가 초선에서 끝나지 않고 재선, 삼선의원으로 경륜을 쌓아갈수록 그들의 정치적 입장은 더욱 복잡다단해질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당과 계파, 그리고 지역적 기반에 따라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때로 여성이슈가 그들의 당리당략에 이용될 수도 있다.

김영선 의원의 '짜가지파동'만 해도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총단결해 여성비하발언이라고 강경대응했지만, 다른 당의 여성의원들은 이 문제가 "여성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유는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짜가지파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창근 의원을 설득해 김영선 의원에게 사과하도록 조율 작업을 했다는 신낙균 의원조차 "이 문제를 국회의원간의 질 나쁜 싸움으로 본다면 맞지만, 여성비하로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문제 앞에서 모든 여성 의원은 단결해야 한다'는 말은 점점 더 현실성 없는 구호가 될 수도 있다. 여성위원들의 총열기를 요청하기보다는 그들이 서 있는 지점에서 다양한 정치력을 키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다. 그렇다면 정작 필요한 것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여성위원들의 정치숙제를 읽어내고 견제할 수 있는 여성유권자의 능력일 것이다. [11]

황오금희

원고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여성의원 11명의 활약이 골고루 소개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지면의 한계, 공적 나열의 재미없음 등 여러 가지 핑계가 들 수 있겠지만 인터뷰 내내 채치있는 입담으로 취재자를 박장대소하게 했던 오양순 의원의 말대로 "스타성 있는 의원만 좋아하는 언론의 습성"이 이 기사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되었다는 생각에 죄스럽다. 여성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여성위원들의 활동을 기록해 줘야, 다음에 또 여성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취재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응해 주었다. 그리고 그 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바라건대 이 글을 읽고 독자들이 여성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글이 독자들의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열심히 인터뷰했는데 한 미디도 안 들어갔어?"라며 섭섭해 할 여성의원들에게 면목이라도 실 텐데...

여성의원 국회에서 살아남기

국회의원, 국회의 꽃?



여성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대한민국 국회 내 여성의원은 역사적으로 약 2% 내외였다. 13대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 299명 중 여성의원이 6명, 14대는 5명, 15대는 장족의 발전을 거둬 1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는 하나 역시 여성유권자를 대변하고 여성적 특성을 살려 정치문화를 바꾸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숫자다.

진출경로를 살펴보면 11대 국회에서는 김정례 의원만이 유일하게 지역구로 당선됐고 나머지 8명은 전국구의원이었다. 12대는 여성의원 8명 중 2명만이 지역구였고, 13대와 14대는 모두 전국구로 출선했다. 15대 역시 11명의 여성의원 중 박근혜, 추미애, 임진출 의원만이 지역구이다. 전국구는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채택된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6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지역구와 전국구를 다 포함해도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기 때문에 만약 전국구 제도가 없었다면 여성의원은 한두 명에 그치거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수적인 열세는 여성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가장 심각한 제한요인이 된다. 오랜 세월 남성의 성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국회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활동범위가 좁기만 하다. 국회 내 보수적인 분위기는 여성의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강력한 벽이 된다.



한국정치는 대부분 공식적인 영역에서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밤의 정치, 밀실정치라고 불리는 우리 나라 정치풍토에서 여성의원은 '술자리'에 끼어도 문제, 안 끼어도 문제다. 질권하게 벌어지는 비공식적인 술자리에 같이 어울리더라도 하면 당장에 안 좋은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고, 외면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오가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정치활동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싸가지’ 발언으로 단식농성을 한 김영선 의원.

술자리를 조심하라!

남성의원들 입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논란이 일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11대 국회의원의 경우, 그는 11대 국회의장의 통역비서관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13대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선출됐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3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 ‘남성의원 못지 않은 국제적인 감각과 실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들었으며,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현재까지 국제적인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남성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스스럼없이 끼어 농담도 하며 어울렸다가 모 남성의원과의 염문설 등으로 한동안 곤욕을 치러야 했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규정할 뿐 아니라 신체와 의식마저 지배한다는 옷입기 역시 여성의원들에게는 문제가 된다. 13대 황산성 전 의원은 바지를 입고 등원했다가 논란거리가 됐다. 15대 국회의원 최근에 와서야 여성의원들이 정장으로서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지만 13대 당시만 해도 남성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성이 입는 바지는 정장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14대 이후정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윤수경씨는, 더운 여름 날씨에 회식이 있을 경우 남성의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양복저고리를 벗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의원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한다. 남성의 드레스셔츠 차림은 자연스럽지만 여성의 블라우스 차림은 결례라는 것.

국회의 보수성이 단지 여성 ‘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내 여성직원이 복도를 지나다가 남성의원이나 남성직원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요즘 여직원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14대 국회 때는 국회사무처에서 예치원에 요청해 ‘예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국회 내 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의원사무실로 보냈다. 당시 4명이었던 여성보좌관들은 이 교육에 불참의사를 밝힌 반대서한을 사무처로 보내고 의원사무실의 모든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사흘간의 예절교육의 대상이 오직 ‘여직원’ 뿐이었기 때문이다. 여성보좌관들은 서한에,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예의이기 때문에 남성은 제외되고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첫날 예절교육에 단 3명만이 참석해 프로그램이 무산되자 사무처는 여성보좌관들이 나머



16대 공천 탈락에 거세게 항의하는 한나라당 임진술 의원.

지 여성직원들을 '선동' 했다고 모함했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전달했다고 한다. "예절교육을 거부한 것은 4급 직원과 9급 직원을 한 자리에서 교육받게 했기 때문이 아니냐.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게 "싸가지..."의 폭언을 한 사건은 국내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김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같은 당 여성의원인 박근혜, 권영자, 임진술, 오양순, 김정숙 의원이 국회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합류했다. 결국 국회의원은 농성 3일째 김의원을 찾아

가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연령과 성의 위계질서가 확고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여성의원들은 자칫 '싸가지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단식 농성을 풀면서 김의원이 한 일간지와 나눈 인터뷰는 씁쓸하기만 하다. "여성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여성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남성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사회에서 약한 여성들은 얼마나 당하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양보하라고?

우리 정치판은 다분히 남성적이다. 그 중 은밀한 거래와 모함이 오고가는 선거과정부터가 여성들을 국회에 진출하기 어렵게 한다. 일반적으로 정계에서는, 전문성과 사회적 경륜을 인정받아 외부에서 영입되는 전국구의원으로서 출발을 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로 의원이 되는 길을 권한다. 전국구로 당선됐던 여성의원들 역시 대부분 다시 지역구로 재선거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망설이는 이유는 우리의 선거 풍토 때문이다. 여성의원들이 보는 지역구는 '재력, 체력, 답력과 조직력'이 요구되는 만만치 않은 전쟁터이다.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 전국구는 전국구, 지역구는 지역구라고도 불린다.

전국구로 일단 여성이 지명되면 그 인물에 대한 가차없는 비난이 쏟아진다. 남성의원과는 달리 여성의원들은 사생활까지 도마 위의 생선처럼 파헤쳐진다. 15대 한영애 의원의 경우 14대 대용산에서 출마했는데 투표 바로 전날 지역구에 한의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졌다. '한의원 아이들의 성은 다르다'는 게 유인물의 내용. 한의원이 두 번 결혼한 사실을, 투표 바로 전날 '각기 성이 다른 자녀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해 비방한 것이다. 이처럼 여성이 지역구 등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속옷까지 뒤집어 보여야 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사생활이 공개되고 또 온갖 뒷소문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전국구 지명은 거의 일방적으로 돌연 통고 받거나 몰래작전으로 진행된다. 10대 김옥별 전 의원은 발표하기 2~3일 전에 자신이 발탁된 소식을 들었고, 11대 이영희 전 의원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국회의원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지역구 출마는 지역 유권자들과 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일도 힘들지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천을 받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구 4전5기의 선례를 남긴 임진술 의원은 15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약속받은 상태였으나 선거에 임박해 다른 남성의원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그러나 임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15대 국회의원이 됐다. 그 후 임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했을 때 그는 기존의 입당식에서 하는 환영절차를 가감히 거부했다. "언젠가는 날 버리더니 이제는 꽃다발을 주냐, 이런 것은 안하겠다"는 심정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환영식장에서 고위당직자나 당총재와의 인사도 없이 지역구 사람들만 참석해 치러진 당시와 같은 입당식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러나 임의원은 올 4월에 있을 16대 선거에서도 예상을 뒤집고 공천에서 탈락했다. 공천명단이 발표된 날 당사를 찾아가 "너희가 무슨 여성을 위한 당이냐"고 강력히 항의했던 장면은 신문과 TV를 통해서도 잘 알려졌다.

여성이 아니고 국회의원이자

국회 내 활동도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다. 초대국회에서 지금까지 국회의장이나 부회장, 원내총무는 고사하고라도 상임위 활동에서조차 한계를 느껴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여성의원들은 소위 인기 있다는 재경위원회나 농수산위원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 분야 상임위는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안건들을 다루고 지역구 유권자의 이익과도 일치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누구나 원하는 자리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당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강한 남성의원을 배치하려고 한다. 여기서 수적으로도 약하고 발언권도 적은 여성은 제외되기 마련이다. 12대 김옥선 전 의원이 국방위원회에 스스로 지망해 활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의원들은 대개 교육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속했다.

15대는 과거에 비해 가장 많은 수의 여성의원을 배출했지만 현직 여성의원들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여성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활동의 각 분야에 여성의원들이 포진해 중책을 맡고 서로서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그들은 "무엇보다 다음에 일하게 될 여성정치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여성의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한다.

여성의원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준비하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려면 여성의원들을 국회의원이 아닌 '여성'으로만 묶어두려는 국회와 사회의 통념부터 깨야 할 것이다. **김보미**

“정치, 널 먹고 싶다!”

토론자: 류숙렬, 박미라, 이숙인, 김신명숙, 황금희, 권혁란

초청자: 김유일(고양시 의원)

최순영(전 부천시 의원, 부천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서명숙(시사저널 취재1부장)

날 짜: 매우 추웠던 2000년 2월 17일 저녁 6시

장 소: 인사동 (사람과 나무)

박: 이번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현직 지방자치 의원과 언론사 정치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4·13선거를 앞두고 하시고 싶은 어떤 말씀이라도 좋아요. 유권자로, 지역운동가로, 정치부 기자로, 또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분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서: 내가 정치기자로 한 십 년 지냈는데, 사실 정치인보다도 유권자한테 유감이 있어요. 그 때도 정치부 기자 할 때였는데, 일하다가 너무 지쳐서 처음으로 필질방이란 데를 쉬러 갔어요. 옆에 여자들, 네댓 명의 여자들, 물론 아줌마들이지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게 됐죠. 더군다나 정치이야기니까. 서울에 자기 사는 지역에 여자가 후보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커리어랄지,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끔찍한 정치적 언어는 참 들어봤어요. “아유 재수없어. 무슨 여자가 나와. 우리 동네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그러겠어.” 그러면서 “너 무 똑팔린다. 지가 뭐가 잘났다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끔찍해서... 그런 여자들이다는 아니지만... 여자는 다 똑같이 자기들처럼 집에서 밥이나 해먹고 있어야 공평하고 속어 안 상한데, 잘난 걸 봐주질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여자들과 싸워야 하나, 화를 내야 되나,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혁: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서: 그 때가... 95년이요.

모두: 아주 오래 전 얘기도 아니네.

김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오히려 솔직하게 내놓

은 거 아니예요? 다른 여자들은 생각은 그렇게 해도 점잖게 숨기고 말 안한 걸 말한 것뿐이잖아요.

서: 그런 것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될 거란 이야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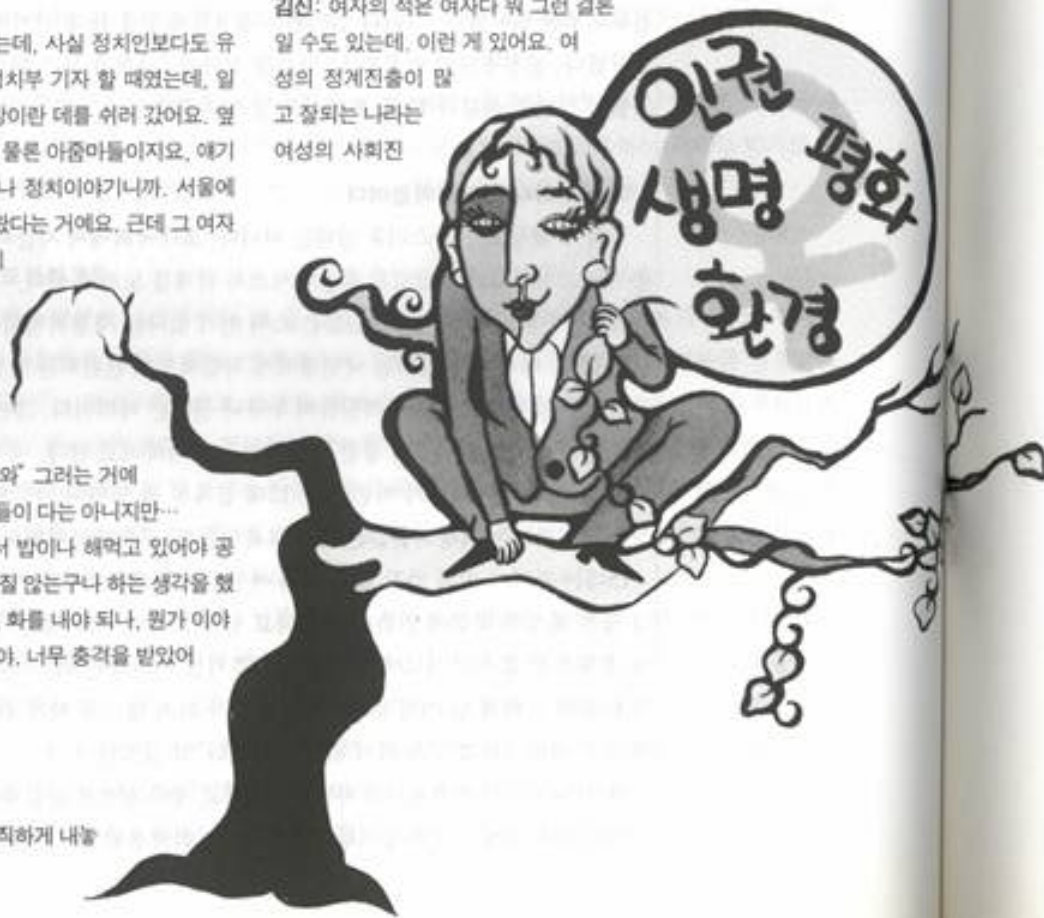
김신: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그런 걸론

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

성의 정계진출이 많

고 잘되는 나라는

여성의 사회진



출이 활발한 사회예요. 전업주부가 많고, 적절한 여자가 많은 데서는 여성정치인이 나오기가 더 힘들다는 건데, 두 분은 여성후보로 나섰을 때 여성들 반응이 어땠어요?

김: 저는 별로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신도시에서는...

모두: 신도시니까.

김: 1대 2대 거치면서 여성후보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나서 3대 때 나섰기 때문에, 또 시의원은 여자가 해도 된다는 데 동의한 편이었고,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그랬지, 여자라는 이유로 욕을 하지는 않았어요. 난 오히려 남자유권자가 더 힘들었어요, 남자들 대하기가. 그 남자들이 정치권이나 선거판에 몇 년씩 있던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은 여자운동원들을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특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80%가 여자예요. 늘 같이 술을 먹고... 어떤 남자의원은 이런 말도 해요. 여자들은 좀 주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 안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주물러줘야 되는 거다 그러지.

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를 반대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술집에 들어가서 좀 주물러줬더니 자기가 최고라고 하더라, 그러더라구요.

모두: (아이없어서) 하하하.

서: 그래요. 여자당원들은 데리고 다니면서 술도 먹고 노래방도 데리고가고 스캔심을 해줘야 좋아한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같이 술도 주고 그래야 한다는 거지.

김: 나야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못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당신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안건 하나 가지고 5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한다는 게 다른 시는 안건이 몇 장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기냐? 예산기금 책정은 거의 남자가 하는데, 다른 조례에 예금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례에 없는, 심의할 것도 아닌 걸 토론하고, 어쩌고 하면서 시간만 끄는 거예요.

김신: 고양시의회엔 여성이 얼마나 돼요?

김: 10%, 31명에 3명, 3명 다 상임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별 일도 아닌 걸로 힘을 다 빼고 거의 3일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남자들과 그런 문화의 벽이 커가지구.

김신: 근데 일산은 어떻게 당신이 됐어요?

김: 몸으로 다 댄 거지요, 뭐. 또 여성민주회 회원들이 다 뛰어줬죠.

김신: 여성민주회가 조직으로서의 힘이 있나요?

김: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게 열심히 뛰어줬어요. 다 일대일로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제일 큰 것은 시의원 정도는 여자가 해도 된다는 의식이 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선거에 뛰어들 사람들이 거의 다 관변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부녀회 같이 기존에 있던 단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는 그냥 일반인들을 만났는데 그게 유효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그렇게 직접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김신: 응, 후보가 열심히 뛰었다! 근데 아파트지역이라 다니기가 더 쉬웠어요?

김: 돌아다니는 사람은 더 없었어요. 사람이 없어도 운동원하고



최순영 전 부천시 의원.

“여성정치연대?

중요하지요. 그러나

선명성을 가져야죠.

어정평하게

‘범’ 여성연대로 가지

말고.”

나하고 몇 명이 그냥 서서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무도 안 들나보다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들었더라고요.

서: 아, 대단하다. 여자들이 더 독종이라니까.

김: 내 상대후보는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역을 것도 사주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됐어요.

박: 근데 국회의원과 시의원 운동의 양이나 방식이 다 다른가요?

김: 다르죠. 시의원은 여자라도 집안살림 하듯이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가진 권력이 적으니까 남자들이 덜 달려들죠.

서: 여자들이 좀 하향지원을 하는 거고, 남자들은 상향지원을 하는 거죠. 남자들은 못 먹어도 국회의원부터 시작하고 싶어하고, 여자들은 실제로 국회의원을 할 만한 커리어가 있어도 시의원부터 시작을 하고... 최순영 신배만 봐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하려는 남자들보다도 더 잘났어요.

김신: 전략을 그럴 그렇게 해야 했네. 기초부터 힘을 써서 나가자.

서: 그러니까 시도 의원 중에서 스타가 나와야 돼. 언론이 다뤄줘야 돼. 끊임없이 계속하는 성실성과 일의 성과를 알려주고 의정활동을 다뤄줘야 돼. 그래서 기반이 쌓여져야 해. 근데 언론에서 지방자치 몇 주년일 때나 다뤄주지 잘 다뤄주질 않아.

김신: 지방언론이 있잖아요.

서: 당에서 공천할 때는 중앙언론에 나온 것만 신경쓰니까. 우리나라는 로컬페이퍼가 힘을 못 써. 외국에는 기초의회부터 주옥

올라오잖아.

김신: 그게 정식 코스예요.

서: 우리 나라는 중앙언론, 중앙당에만 신경을 써요.

류: 여성정치인들이 너무 못해, 나는 속시원하게 써주고 싶은데도...

서: 여자를 정치하는 분들이 거의 전국구로 가잖아. 행동반경이 좁은 거야.

류: 개인적으로 난 화가 나. 너무 못해. 여자들이 너무 서브(sub)로, 구색으로... 스스로 그래. 여자장관, 여자국회의원 한 명 더 늘면 무슨 도움이 돼? 자신들이 일하는 여자라는 걸 입증해야지. 그까짓 거 명수가 무슨 소용 있어?

박: 그래, 그래요. 잘못했어요.

모두: 하하하.

류: 조심조심 하는 게 자기 입지를 굳히는 게 아니. 그게 서바이벌 전략이 되면 안돼.

서: 정치부에서 일하면서 존재의 희의를 느꼈지. 뭐냐. 여성장관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 말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그런 문제가 다른 여성들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된다니까. 내가 여자라서 감싸준 것도 없지만, 왜 여자만 치는다고 따질 수가 없어. 이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다가 당하면 좋겠는데, 너무 조심조심 하다가 당한다니까, 소신있게 뭐를 하다가 당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니까.

류: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니까. 기록관측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써다가 그냥 당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다가 별거 아닌 걸로 당하니까 화가 나지.

박: 그거는 판세를 제대로 읽어내서, 적확하게 뉴스거리가 되면 서도 내가 치명타를 입지 않을 것을 알고 발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경력이 짧으면 그게 잘 안되잖아.

류: 아니야. 정치경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록관에 편승하려고 하면서... 물론 불리한 조건이야 훨씬 많지. 그러니까 훨씬 정치적이어서 되지.

서: 여자들이 정치하려고 할 때, 정글이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데... 정글이야. 거기에는 어디 밑에서 부비트랩이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폭탄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몰라. 여자들을 전사로 안 내보내. 공주를 뽑아서 정글로 내보내니 살 수 없는 거지.

류: 거기서 싸우다 죽을 각오도 해야지. 정글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고, 전략적 사고방식도 갖고, 작은 싸움은 안 하고 큰 싸움을 해야지. 제대로 싸워야 하고, 싸우다가 죽더라도 해야지.

서: 이미경 의원이 그 싸움을 처음으로 해줬지. 동티모르도 그렇고. 그러니 지지를 받았잖아. 제대로 싸운 경력이 없으면 나중에 싸우려도 해도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 근데 관찰자들만 떠돌았

네, 일선에 계신 분들 말씀 좀 해봐요.

최: 나는 전국구, 30% 할당제 이런 거 다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주가 된 게 당연해요. 기반이 없으면 공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여성정치인들의 정당은 아무리 이름을 빌려 나가도 내 기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반으로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나는 제대로 여성정치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문제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여성들의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정당 민주주의를 해야지. 전부 낙하산이잖아. 기초부터 다지자는 거지. 여자들이 작은 조직이라도 장악을 해야지 기존 정당으로 바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신: 남자들끼리도 안 되는 게 정당 민주화잖아요.

최: 기본적으로 지금은 돈으로 하는 정치예요. 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그 조직이 나를 대변하고 그걸 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당이 어디 그래요?



김유영 고양시 의원.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잖아요. 그래서
인권, 평화, 생명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이
체화돼 있어요.”

서: 누구도 어려워요. 조직을 꾸리는 게.

최: 정치하는 남자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과부 다섯을 잡으면 선거는 끝난다. 그래요. 그런 여자들은 정치인을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뒷바라지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 뭘 짓거리를 하는 줄 알아요? 기쁨조가 되는 거야.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불러주고, 관광시켜 주고 밥에 불려도 달려나가는 거예요.

박: 아니, 누가 누구의 기쁨조가 되는 거예요?

최: 당연히 남자가 여자당원을 기쁨조가 돼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여자는 한 번만 땀겨주면 된다 이거야. 노래방 가고 춤 췄고... 우리 나라 정치가 그래요. 외국에서는 여성들이 정치 참정권 얻으려고 얼마나 투쟁했어요. 우리는 주는 것만 받아먹은 거예요. 투쟁에 의해서 그런 거가 아니고 똑 떨어져서 먹었으니까. 우리 나라는 여자들이 투쟁한 경험이 없어. 여자들을 바로 세워야지. 이대로 가면 정치에 무슨 희망이 없어.

김신: 어떻게 바로 세워요?

최: 여성정치연대? 중요하지요. 그러나 선명성을 가져야죠. 어

정평하게 '별' 여성연대로 가지 말고, 각 정당의 여성정책도 살펴봐서 지지하면 지지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 선명하게 가자는 거지요. 두리뭉실하게 여자들이면 모두 연대한다 그렇게 가지 말고.

김신: 그러면 선생님은 선거 때 어떠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최: 저 같은 경우는 시의원 선거 때 표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났어요. 제가 1등 했는데 2등하고 표 차이가 꽤나 났어요. 난 여자인데 동원만 썼고. 9시 땀 하면 같이 다 땀 났고. 당선됐는데 위원장이 됐는데 아주 냉정하게 했어요.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장님 왜 돈을 안 챙기나 그러더라고요. 당신네들 쓸 돈 많이 안 챙겼다고 성토대회를 할 테면 해라.

김신: 무슨 예산심의요?

최: 의원들이 쓸 돈 예산 말예요. 연수 가고 뭐 그런 거. 그걸 많이 챙기라는 거야. 내가 의원들 쓸 돈 챙기는 사람이에요? 안 했지. 운영위원장도 없이 회의하고 난리가 났었나봐요. 그러니 그들 눈에 밟히는 거지요. 정치하는 게 뭐예요? 여성정치가 뭐예요?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죠.

모두: (박수 치며) 와—

최: 사실 나는 언론에서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알려졌고, 그렇지만 그 이름 믿고 혼자 우아하게 할 순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선거 하기도 싫고 상부에서 하라는 선거운동을 같은 것도 하기 싫고. 한 7년 시의원하니까 정치판의 부패가 다 보여요. 이런 상태에서 희망이 없어요. 여성들이 아무리 정계에 들어가고, 공천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죠.

서: 선생님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일정 부분 하려고 하는 여지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싸워서 피 흘려서 조직을 완전히 건설할 때까지는 당에서 30%를 줘도 남자들한테 반납하고 이런 기회 줘도 더러워서 안 한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노동운동에서 조직적 체함과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큼 해낼 수 있었던 거지, 먹물 여자들은 그게 더 힘들다고 봐요. 더 뿌리가 없고 더 여성대중들과 가까이 가기 힘들고 실제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도 하나 학생운동 하던 친구였는데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구 군 단위부터 하고 있는데 좀 못마땅하고 덜 값어치가 있는 정당에서 공천 줄 때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은 정치인이나 여성유권자나 양쪽 다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과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이 동시에 있거든요?

김: 그래요, 맞아요. 유권자도 복잡하고 후보자도 복잡해.

서: 여성유권자들도 보면 정말 다양해요. 안 먹고 짝했다는 여자도 있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유권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슷한 자질이면 여자 짝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

리 어머니는 비슷하지 않아도 무조건 여자 짝해야 한다고 그래요.

모두: 와!

서: 일단 치마만 둘렀다 하면 내보내야 된다 하는데.

김신: 치마만 둘렀다 하면? 대단하시다.

서: 그래서 내가 자질 있고 겸장은 여자면 짝여야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도 부당했듯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 짝여요?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남자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 먹었던 경험이 없고, 먹는 기술이 없고, 일단은 먹어도 덜 먹을 거 아니냐. 한국정치는 능력은 두번째 문제고 조금 깨끗해야 되는데...

류: 어머니님 연구 대상이다.

서: 근데 여자들도 더 먹을 수 있는 여자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 네, 맞아요. 노출이 덜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서: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자가 그렇게 먹어본 부패의 경험이 많하기 때문에 일단 통째로 가져도 단가가 아마 비싸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여자들은.

모두: 하하하.

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부패의 단가가 싼 데는 그래도 여자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여자 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류: 그 엄마 대단하시다.

김신: 이프에서 섭외해야겠다.

김: 하하하.

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무조건 많이 먹고 선거 때 땀기겠다 이런 사람들... 최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기쁨조 불러내는 여자들은, 조금 겸장은 남자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정말 지역에 가서 여자를 만나기가 겁난다. 무조건 돈이다. 무조건 보자고 불러내서 돈 내라고 그런다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부패의 사회고리에 맨마지막에 놓인 것이 여자들이거든요. 자기는 큰 권력은 행사 못하는 대신에 이 선거에 가장 하층부에 개입돼 있는 게 여자들이예요.

김: 맞아요.

서: 난 정치부 기자 십 년을 했지만 무슨 지역구 하면 아직도 탁탁 안 튀어나와요, 솔직히. 아주 중요한 의원들을 빼놓고는, 근데 남자들은 정치에 개입도 안된 친구고, 기자도 아닌 친구들도 딱 어디 코드 누르면, 아 부천 어디 어디, 강원도 어디 어디 하면 누구누구... 왜냐하면 그건 난 호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이니 뭐니 해서 고향을 떠난 지 10년, 20년이 돼도 자기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 꿰고 있어요.

모두: 하하하.

서: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운동권

출신들도 10년 만에 만나서 보면 자기 지역 국회의원도 모른다. 아니면 자기 지역 국회의원 정도나 겨우 알고 있는 거야. 그런 훈련받은 거죠. 근데 여자들은 정치에서 아주 배설물 있잖아요, 아주 하부구조에만 갇혀있고 있는 거예요. 일부 관심있는 여자들은.

황: 근데 저는 선배님들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모순이 느껴지는 게, 조직이라는 건 사실 하부조직도 있고 상부조직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부조직이잖아요. 연이라는 거죠. 픽업되거나 어쨌든간에 상부조직의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올라가려는 학연으로 가든지, 할연으로 가든지 게파를 타든지 뭔가는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간 여자들은 깨끗하지 않고 소신 없다고 얘기해 버린단 말이예요. 그건 너무 모순인 거 같애, 나는.

김: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이 있어요. 일단은 조직이 없이 정치에 진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조직 없이는 절대 당선이 안되죠. 근데 문제는 좋은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든 모임이나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정치에 진출하는 거는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 다른 많은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유독히 정치부분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웠고 그만큼 또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서: 남자들이 딱 건 다 내주고 중요한 건 안 내준다고.

김: 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시각으로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제가 여성 시의원이지만 내가 '여'성의 원이라든가 인식은 많이 안 해요. 똑같은 시의원으로서 나는 특별히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부분이 우선이예요. 두번째로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여성복지에 관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이 취약하지만 남성들은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이 안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늘 정상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서: 여성들이 문제의식이 아무래도 있죠. 초점을 그 쪽에 안 맞추어두더라도.

김: 그런 부분들을 고집내주고 그 관점을 제시해 주면 남성들도 일부는 그걸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남성의원들보다 좀더 열심히 그 부분에 관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여성조직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출하면은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라면 당선돼서도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서: 그렇죠.

김: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회 조직으로 물론 갖지만 다른 계층 다른 단체를 갖고 있는 주부들을 다시 조직하고 있다고, 두 개 정도 거의 조직이 됐는데...

서: 조직이 되고 싶어도 그 대표적인 올라가이저가 없어서 못했던 조직들을...

김: 그렇죠. 그 사람들을 조직하는 그룹에서 또 여성들을 진출시킬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당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해요. 정치의 발전에서 보면 자기발전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 들어가서 깨지고 또 새로운 한두 명이 들어가서 깨지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일정 단계에서 20%, 30%, 저는 그 기점이 20%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서: 조직의 20%만 차지해도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이 있으니까.

김: 의원의 20%만 들어가면 그쪽 문화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의회 내 구조들이 다 남성문화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너무 힘들고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20%가 들어오면 여성문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명에 있어서든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서: 그리고 문제있는 여자들도 견제할 수 있어. 지금은 여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여자들을 견제할 수가 없어.

김: 그렇게 되면 일단 자기발전이 되는 거죠. 남성의원하고 똑같이.

최: 내 개인은 하부조직에 대단히 많은 가능성을 두는 거지, 다른 건 나쁘다 이런 아니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나는 이 쪽에 더 선명성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범여성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 이거죠. 우리는 민주당의 여성당당에 대한 뭐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뭐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장하라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들러리밖에 안돼요. 왜 그러냐면 시의원이나 기초나 광역이나 공천을 계속 안 줘요. 그걸 알아야죠. 뭐냐면, 지난번 2대 선거 때도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 안 줬가지고 위에서 막 난리쳤다고요. 여자 공천 주라구요. 근데 지역에서의 또 하나 주장은 여자는 정당에는 들어갔는데, 지역일은 열심히 했는데, 정당일은 별로 안했어. 그러니까 투표하면 또 저, 당원들의 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김: 그럼 정당일을 열심히 안 하고 뭘 했다는 이야기에요?

최: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갔어도 정당 당원들하고 관계는, 물론 일단서피 당원들이라고 해도 형편없죠. 물론 개판이예요. 그래서 못 놀겠다 이거예요.

김: 그럼 어디 가서 놀아요?

최: 그럼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딱 공천을 해야 할 판에는 여자는 당내에서 투표하면 저요. 왜? 당원들하고 관계를 안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남자들이 뻘 때면 여자는 할당제 주장이나 한다, 여자는 특혜다...

김: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은 첫번째 공천은 그럴 수 있는데, 두번째는 당선 가능성이예요. 당파의 관계보다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왔어도 됐었어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 그건 대단한 거죠.

김: 두번째 선거부터는 지역 내에서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는 거, 그래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지지도가 더 높으면 이 정당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활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서: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최: 그러니까 우리 김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수 있다. 지금은 의원활동 하면서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자기것은 다 챙겼다고요. 솔직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내친 그거 안되도 좋아, 나 그냥 나가,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서: 그게 나는 너무 불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일정기간은 할당제나 이런 거로 꼭 해줘야 된다...

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례제로 들어가든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든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갔으면 그 내에서 4년

동안은 자기 것은 챙겨야지 4년 후에 비례제를 또 주장하는 건 그렇다 이거예요.

황: 그러면 들어가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신은 무소속이고 다른 사람은 당이 다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제안한 정책들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최: 지난번에 제가 부천시에서 일할 때 두 가지 문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담배자판기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상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욕먹는다고. 의원들이 다 눈치보고 안 해줘요. 의원들은 악질이 뭐예요? 다음에 또 당선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쪽에서 조직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공청회까지 갔는데 공청회 때 우리 주부를 한 500명을 동원했어요. 거기서 담배자판기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엄마들이 전부 다 의원들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당신이 꼭 이 조례만큼은 보류를 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바로. 그러면 의원들은 악해지는 거야. 두번째 학교급식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급식문제를 놓고서도 처음에 다 안된다고 했어요. 그 급식문제를 제가 싸움을 처음 걸었던 거예요. 난 뭣도 모르고 공약에 걸었어요. 엄마들이 학교에서 밥 준다고 하면 다 찍을 거 같아서.

모두: 하하하.

류: 그건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최: 공약을 걸었더니 선거할 때 다녀보면 사람들이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찍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법에 걸리는 거예요.

모두: 하하하.

최: 얼마나 웃기냐면 교육법상 학교급식은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딱 걸리는 거야. 근데 조사해 보니까 예산에서 쓴 거예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초여성의원들 모임에 가서 이걸 함께 하지고 했어요. 근데 여성의원들이 뭐냐면 당에서 뭘보일까봐 다 공무니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갔어요. 이거저거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연에서 이걸 여성정책으로 다루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대통령 공약에 그게 있었던 거야. 그러가지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성단체에서 그거를 다루고 저는 부천에서 바로 조직을 했던 거야.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학부모연대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싸움을 하면서 그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1대 때는 이게 안되더라도 2대 때 가서는 의원들이 이걸 공약으로 걸 수 있는 싸움까지 가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엄마들하고, 그랬더니 엄마들은 얼마나 좋아. 내 돈 안 주고 밥 먹일 수 있다는 게.

모두: 하하하.

박: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아까 남자 국회의원들이 기쁨조가 된다는 걸 전 우습게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기쁘고 싶어



돈요, 그렇다면 여성의원들은 어떤 기쁨을 겪어 하나.

서: 여자들의 에너지가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단발마적으로 가기도 하고... 같은 기쁨이라 할지라도 못해봤으니까 갖고 놀아보고도 싶다. 전 그게 정말 이해해요.

박: 우리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나이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여성으로서 완전히 특색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왜 관공버스 타면은 버스기사들이 그렇게 잘 해준대잖아요. 서비스를, 근데 권력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해주면 자기들은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그런 기쁨이 있다면 도시락 문제에는 또 같이 다른 기쁨이 있는 거야.

황: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여성후보가 재수없다 그런 여자도 사실 분명히 있는데 그게 대표적이라고는 생각치 않아.

박: 그게 뭐냐면 그 기쁨을 아는 여자들이 학교급식의 기쁨도 아는 거야. 인간은 다면적이니까.

모두: 하하하.

이: 급식의 기쁨을 통해서 정치의식화가 되는 거지.

김신: 근데 그건 나도 문제가 있다고 봐. 이걸 정말 사랑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 뻔한 거 아니야? 표 때문에 잡아주는 건데.

박: 우리가 언제부터 사랑하고 그거랑 동일시했나.

김신: 그런 데 가서 그러는 여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 그거를 같은 책략추구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류: 김신명숙이 문제가 좀 있어.

모두: 하하하.

최: 아니 기쁨조에 대해서 여자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일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여자들이 정말 다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야말로 정말 몰라서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자치를 해낼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서: 경험이 없는 거죠.

황: 나는 아이러니한 게, 여성유권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임진출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 당선됐잖아. 지역구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여성유권자들이 표 몰아줘서 당선됐다고 얘기해요.

김신: 그렇게 얘기해요?

황: 네, 그렇게 얘기해요. 임진출은 자기 밀어준 것은 여성유권자들밖에 없었다는데...

박: 이프 만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프 기자 만났으니까?

황: 아니야. 이프 만나기 전에 처음 당선됐을 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 사람은 여성유권자들이 자기 밀어줬다고 얘기해요.

김신: 근데 추미애씨도 여자들이 뽑아줬다고 말해요?

황: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이 광진인데 거기가 젊은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이야. 그래서 그 사람 공약이 뭐냐면 맞벌이부부 타아시실 하겠다는 게 15대 제1공약이었어. 그렇게 밀고들어가니

까 여성유권자들 말 나오지, 그리고 자기 애들 셋이잖아요. 다 그 지역에 학교 다니고 다니니까. 그 지역의 젊은 주부들이 다 자기 마는 거야. 일반적으로 여성유권자가 다 의식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모인 거 같애.

김: 남자들이 만들어낸...

김신: 그런데 근데 난 문제가, 분당시 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서명숙 시사저널 취재 1부장.

"20%만 차지해도
변화를 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있는
여자들이 견제할 수
있어. 지금은
여자가 별로 없으니까
견제할 수가 없어."

모두: 하하하.

김신: 근데 다들 알아요?

이: 몰라.

김: 아니 근데 여성유권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남성이 후보였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접근을 많이 시도했고 정책이 없고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대했고, 돈을 얻어 써서라고 그 사람한테 그거밖에 줄 수 없었다는 거.

서: 자기 들로써 접근한 거죠.

이: 선거 때 보면 피켓 들고 막 음식집 가서 먹고 옆에서 보면 처벌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신이 나 있어.

최: 그런 것들을 바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 그러니까 기쁨조의 기쁨을 도시락의 기쁨으로.

김신: 근데 일상에서 주부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김: 자기 지역 문제에 대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알려줘요.

박: 어떻게요? 소식지를 만드신가요?

김: 그게 아니라 저희 지역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잘 보는데,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런 데다가 정보를 붙여놓는 거예요. 지역문제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고, 뭐가 문젠데 어떻게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낫다, 그렇게 정보를 주면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돼요.

김신: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모두: 하하하.

박: 근데 실제로 활동해 보니까 여성이 정치 하면 뭔가 더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김: 그럼요.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에 더 낫죠.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잖아요. 그래서 인권, 평화, 생명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이 체화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같은 문제들이 남자보다 빨리 눈에 보이죠. 남자들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살림을 하나씩 환경 쪽에 관심이 많죠. 근데 우리가 하는 살림 자체가 어떤 것을 살리고 키우고 하는 거지 파괴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는 눈도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여성들은 이런 게 정서적으로 체화돼 있으니까 시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둘째로 돈에 별로 연연하게 안 되죠. 남자들처럼 부조리한 돈을 안 받게 되니까, 거의 무급봉사로 하는 기초단체 시의원으로는 그래서 여자들이 적합한 거 같아요. 실제로 여자들 수가 많구요.

류: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다. 녹음 잘해야겠다.

박: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회의원 선거 얘기 좀 해요. 어느 경우엔 중앙에서 여성위원을 지역구로 공천하려고 해도 여성의원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서: 두려움이 일정부분 있었다고 봐요. 선거판이 너무 색었으니까.

김: 저는 지역관리가 안 됐으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지역구에서 리스크를 낳는 것보다 전국구로 나가서 활동영역을 확보해 주는 게 여성운동에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신: 근데 전국구로 나가서도 지역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류: 아, 해야죠!

김: 자기가 해야죠.

서: 그럼요, 자기가 나으려고 하는 지역에서 현직 위원장하고 총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해야죠.

김신: 그럼 그 위원장하고 총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서: 다른 남자들도 그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다른 남자들도 전국구에서 지역구로 옮기는 남자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미리 다 굉장히 작업을 해요. 다 작업을 하는데, 나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그냥 힘든 싸움을 안 치르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봐요. 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옆에 계셔서 아니라 진짜 선거를 치른 사람들은 일단 존경해요.

김신: 네, 대단하신 분들이지.

황: 그런데 끊임없는 힘든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지 않아요?

서: 그렇죠.

황: 이미경 의원도 사실 돈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서: 그렇죠, 우리 총선이라는 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선거니까, 그래서 여자들의 지역구 진출이 굉장히 소망스럽고 지역구로 진출해야 사실 제대로 힘을 받는 거예요. 지역구는 기반을 다져놓으면 "나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구는? 근데 당에서도 사실 전국구가 자기 목소리 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전국구는 늘 공천권자의 낙선을 기다려야 하고 재선은 거의 정말 아주 희한한 경우 아니면 불가능한 거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계속 회전문 식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새로 의정활동을 할 만하면 끝내고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여성 3선, 4선이 안 나오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젠데...

류: 여성의원 중엔 지역구로 뛴 만해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서: 이제 그러니까 선거공토의 변화하고 여성들의 지역구 진출하고가 맞물려갈 거예요. 조금씩 선거공토가 달라져야지.

김: 그 돈과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법정 선거비용의 반밖에 못 썼어요. 법정 선거비용 보고 못 나올 뻔 했었어요. 그 돈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쓰면 그걸 정했을까.

박: 법정 선거비용이 얼마였어요?

김: 15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지역구 관리하는 데도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없다. 경조사하는 못 나간다. 대신 내가 지역활동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단체장들이 모이면은 돈을 만 원씩 걸어서 정실을 먹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나 없는 데서 돈을 걷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돈을 내야 되고 거기서 한 번 내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내야 되니까.

김신: 어떤 단체장이요?

김: 동네 바로살기협의회, 부녀회 이런 사람들 모임이 단체장 회의예요. 시의원, 동장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단체가 10개도 넘어요. 한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점심에 만나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데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지. 당선되고 한 번도 밥 안 사고 선거과정에서도 한 번도 못 샀으니까.

이: 신기하다. 진짜.

김: 그 부분은 난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나 없는 데서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티켓을 사줘야 되잖아요. 음식을 팔기 때문에. 그러면 동장이 사놔요, 자기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그걸로 내 거를 딱 사가지고 몰래 주는 거야.

김신: 그 사람들 성별이 남자가 많아요?

김: 여자가 많죠.

서: 근데 '돈이 없는 의원' 하고 컨셉이 딱 정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자들은 남자들은 왜가는 거야.

김: 없는 데서는 욕하겠죠, 조금.

서: 일부 물지각한 사람들은 욕하겠지만, 근데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예요. 자기 소신과 신

냄을 갖고 안 해서 문제지, 그렇게 가면 그렇게 상황이 가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난 이해찬 의원 보면서 그거를 느끼는데, 그 양반은 9시 넘어서 집에 있는 적이 없어, 반드시 9시부터 10시 사이에 내가 전화하는데 반드시 집에 있어.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밤 12시 넘어서까지 술 먹고 새벽이면 또 밥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류: 상가집 가야 되잖아.

서: 그걸 전혀 안해. 상가집 전혀 안 가고 처음에는 지독히 욕먹었지. 싸가지 없다. 생긴 것도 그런데.

모두: 하하하.

이: 지역구 관리 잘 하잖아.

김: 그러니까 경조사 카드가 안 와. 초기에 몇 장 오다가 그 뒤론 한 장도 안 와.

서: 그래서 내가, 일찍 오셨네요. 땀만 뺀 거 같아서 놀라. 나보다 일찍 다녀. 그러니까 유권자들하고 미리 너무 타협해 놓고 유권자 욕하는 것도 있는 거야.

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난 정말 지금이 시작이라고, 인제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준비를 했잖아요.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서: 많은 조건들이 효모가 발효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있는 거 같애.

황: 이번에 386 다 나왔잖아요. 우상호나 허인회 이런 사람들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공천받아서 지역구에 나온단 말이에요. 김상현하고 경쟁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요. 그거 맥락이 뭔가 하는 생각이 전 들어요. 진짜로. 그 남자들은 어떻게 줄을 타고 거기서 공천을 받았을까. 저는 이미경 의원이, 제가 얼마 전에 이프 때문에 만났잖아요. 자기는 지역구 나간다고 했고 조직 다 만들었다고 했던 말이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천을 못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구를 받고 싶어서 줄 섰다기보다는 지역구 공천을 냈는데 사실은 밀린 거야. 왜냐면 지역에서 기반이 이미경 의원에 대한 여론 조성이 전혀 안됐다는 거예요.

김신: 아니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386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김유임씨는 386이시죠?

김: 네.

김신: 근데 386 여자는 왜 없는 거야?

김: 그 당시 총학생회장을 다 남자들이 했어요.

김신: 아니, 총학생회장을 남자들이 했지만 여자 학생회장도 있을 거고 여대생들 많이 참여했잖아요.

박: 여자386은 역사가 틀려요.

김신: 왜 역사가 틀려?

김: 그 때는 여성운동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올라온 힘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권: 그러니까 여자386은 남자386을 내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박: 맞아.

류: 불타는 질투를 느끼며...

김신: 그래도 임수경이나 권인숙 같은 사람들이 많았잖아.

김: 여자386이 모여서 힘을 갖고 들어갔으면 한두 명은 됐겠조.

김신: 그러니까 386도 남자들이 지들끼리만 오이고 여자는 안 꺼줬다 이 말이에요?

류: 아니, 그거는 아니지. 386이 친여성적인 부분도 많은데...

김신: 아니, 30대 아이들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여성문제 나오는 거 보면.

서: 난 그 보수적이라는 데 오히려 동의해.

황: 나도 동의해요. 전적으로.

박: 대부분 남자386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면 386 마누라들이 경제적으로 보조하거나 돈벌어준 거예요.

이: 보편하고 세밀조하고.

박: 그리고 대부분 여학생들 머리 숙인 사회민주화지 여성운동이 아니에요, 그 때 이슈 자체가.

류: 그 사람들한테 지금도 악몽처럼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나한테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386세대가 한국사회나 역사에 대해서 의무감이 너무나 컸다고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의식을 못하고 그냥 남자들하고 똑같이 싸운 거지. 그거를 지금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 나는 그렇다고 봐.

김신: 아니, 여성역사가 없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변혁운동의 한 세력으로서 여자가 한 명도 없잖아. 지금? 386 하면 남자들만 떠오르지 여자가 누가 떠올라?

이: 아니 꼭 정치를 안 하더라도 여성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 꼭 정치로 가야 하나?

김신: 그래도 지금 피갈이 한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하나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황: 여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밀리지.

김신: 누가 있어?

황: 국회의원회 부대변인 김현미씨가 386 아니예요? 근데 밀리잖아. 나는 그게 바로 조직인 거 같애.

권: 박선숙씨도 있잖아.

서: 박선숙도 386 세대지.

이: 근데 남자들은 오래 준비했잖아요. 임종석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시민단체를 조직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박: 그러니까 386세대에도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386세대의 여자들은 운동을 할 때부터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이러면서 운동한 사람이 참 없어요. 나만 해도 그렇거든요? 여자

들 같은 경우 영웅의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구 사회로 나가면서 다 정계로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김신: 여자들은 대체로 여성단체 쪽으로 가고?

박: 네. 시민단체로 가거나.

류: 여성단체는 둘째치고 좋은 놈 만나서 안애해 갖구 결혼하구



김신영숙 편집위원

"이런 게 있어요.
여성의 정계진출이
많고 잘되는 나라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사회예요."

서집가서 애 남구 그러느라고 그런 거지. 불타는 질투를 느끼면서...

김신: 뒷바라지 하면서? 근데 누구한테 질투를 느끼요?

류: 남편한테. 똑같이 운동했는데 남자들은...

김신: 그래서 내가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모두: 하하하.

권: 불타는 질투로는 막하지. 살의를 느끼지.

모두: 하하하.

서: 불타는 질투를 좀 넘어서면 살의를 느끼지.

권: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럼 사람들 많아요. 정말. 지금 말하는 386 중에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류: 그러니까.

박: 하기는 지금 그 많은 386 세대 남학생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 그리고 현안이 따져보면 자기는 현재 현실 정당에 안 들어가겠다. 또 노동정당 새로 만들겠다 이런 사람이 참 많지. 사실 오소독스럽게 운동하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 남자들 386 그거 한 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조금 많이 비웃어요.

서: 남자들이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김신: 그래도 여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한두 명은 적어도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참여했으면.

최: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보면은 여성들이 많아요.

서: 거긴 30% 지켜졌어.

모두: 하하하.

최: 지금 돈을 내는 점은 열성 여성당원들이 1600명 원대.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들이 거의 다 386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 맞아요. 여자들이 훨씬 더 원칙적으로...

김신: 난 허인회나 김민석이 조명받는 것처럼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그 박선숙씨 얘기하지만...

황: 그 사람들은 달라요.

서: 그 여자들은 당에 가서 10년을 헌신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386의 대표성을 갖고 얘기되는 건 아니지.

김신: 그럼 여자들이 한 회생에 대한 보상은 어딴 거야?

류: 회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와서 가슴 치면서 여성운동 하지.

김: 그런데 그게, 지금은 선거하는 데 학생운동 한 게 좋은 전력이 안돼요. 물론 그 순수성은 인정하지만 지역의 대표로는 다른 개념이에요.

최: 나는 오히려 그 강한 것을 다 내세웠거든요. 구속됐던 거까지 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거 가지구 꼭 된다 안 된다 하기에는...

김신: 근데 최선생님은 크리스마스가 딱 있어갖구, 뭐.

류: 신은경은 박성범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욕욕탕에 가고, 살도 찌우고.

권: 다른 여자 때도 있고.

최: 아니, 원래 남편이 정치하면 여자가 다 해요.

김신: 맞아요.

최: 여자가 나가면 남자들이 안 해도 되는데.

권: 근데 그 때 매일릴을 당하던 아줌마들이 그렇게 신은경을 칭찬했다는 거죠. 어떤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서: 근데 신은경만이 아니라 아까 정말 최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지역구 선거하면 3분의2는 여자가 치르는 거예요. 부인이.

최: 그럼요, 부인이 다해요.

서: 여성유권자들을. 그러니까 임진술 의원은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여성유권자들 유였지만 다른 남자의원들이 나오면 부인이 다 하는 거예요.

박: 근데 부인이 내조를 잘 하는 것과 여자가 직접 나오는 것은 그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서: 그러니까 나는 자기 남편 돕는 것만큼 열심히 하면 그 여지도 될 수 있다고 봐.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내조로 가버리고 또 진짜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람은 두렵고 무서워서 안 나올라고 그러는데, 남편 선거운동하는 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자기가 될 수 있어.

박: 아니 근데요, 그런 것은 있어요. 남편 내조할 때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가 나가는 것보다.



최: 근데 난 인제 여자들도 정치의식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서: 그럼요, 많이 나아졌어요.
최: 여자가 때문에 안 찍는다 이런 거는...
서: 덜해졌고, 남자들도 여자라도 혹은 여자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찍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퍼져 있거든요. 5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내부에서 요동치는 일종의 지각 변동은 일어났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너무 두려워서 자기 힘으로 못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 16대 때 그런 식으로 비례로 많이 진출 하더라도 그거를 기반으로 다음에는 직접 뛰어야 된다고 봐요. 여자들이, 지역구에서 많이 나와야 그게 항구적인 힘이 되지.
최: 그래서 이렇게 기초부터 김의원처럼 뒤편, 다음에는 광역 그 다음에는 중앙진출로 이렇게 단계로 가야죠.
서: 그게 가장 모범적인 코스죠.
이: 우리가 이사를 가서 물어줘요.
박: 근데 김의원도 기초에서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세요?
김신: 그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아까 여자도 권력을 즐겨야 된다고 하셨잖아.
박: 아니, 여성의원들이 지꾸 전국구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런 용기가 있기는 한 건가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서: 정치문화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선거문화가 조금 변해가면서 그거랑 때를 맞춰서 이제 준비된 이런 사람들이 꼭 진출해야죠. 그 때쯤에는 거의 그냥 용암이 분출하듯이 여기저기서...
황: 그래서 김정숙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그런 거 하잖아. 정치아카데미 열어가지고 2002년 1,000명 내겠다. 그래서 타이틀이 2002 1000이잖아.
김신: 난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키워내는 거...
황: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시하는 거죠. 2002년에 1,000명의 여성 지방자치의원을 내겠다,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야. 왜냐면 기존 정치인이 얘기하니까 정치적인 이슈겠지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박: 그래서 하여튼 지원세력, 견제세력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줘야 되고 일의 정치가 없으면 위의 정치인도 맨날 전국구밖에 할 수 없는...
서: 그리고 갔다가도 뭐 부패하고 힘이 없어서 타협하고 꺾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황: 우리 여성계의 역할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애. 그러니까 최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후보를 지지할 때도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면서...
박: 그러니까 여성조직도 당파성을 가져야 되는 거지.
최: 그렇지, 내 이야기가 그거지. 선명성을 갖고 그렇게 하면 훨씬 나옴데.
김: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 당에서도 낙태에 동의하고 하는 몇 개

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지원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황: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건드리려면 이런 여성단체들이 공천 리스트를 내릴 때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단지 여성이니까 전부 다 묶어서 해라 하기보다는 여성단체들이 각각의 자기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훨씬 더 공산력이 있다는 얘기죠.
서: 국회에서도 보이는 여성관련 법안에 대해서 남자의원이 보수적인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여자의원이 한두 명만 군열이 막 생겨버리면은 남자의원들이 질의할 때 같은 여자의원도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여자라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여자라고 다 장병이 아니라 의식을 제대로 가진 여자가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최: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 그럼 거의 이야기가 다 된 거죠?
김: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
모두: 하하하.
김: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재미있어요. 일단 공천과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근데 그 부분은 자기 혼자 힘으로 절대 안돼요.
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다는 거죠?
김: 일단 성과가 바로바로 나와요. 내가 이런 법안을 내가지고 세력을 모으고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바로예요. 법은 그 때부터 적용이 되니까.
김신: 파워를 딱 느끼는 거예요?
김: 아니,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가.
서: 시민단체에서 백 번을 얘기해도 안 되던 게 한 번에 법 개정으로 되니까.
김: 그리고 그런 이슈들이 아주 중요한 채널이라는 거, 그런 채널들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자들이 진출을 못하는데. 일단 그런 문화를 퍼뜨리는 게 중요해요, 재미있다...
김신: 책 하나 내세요. 정치하는 즐거움.
김: 아직은 1년 반밖에 안됐기 때문에.
서: 정치, 알고 보면 재밌다, 쉽다, 즐겁다!
김신: 나도 때론 정치가가 되고 싶다!
모두: 하하하.
서: 정치, 그 오르기즘에 대하여!
모두: 하하하.
서: 거의 오르기즘을 느낀다. 남자랑 자는 거는 유도 아니다.
모두: 하하하.
박: 우리 스스로 기쁨조가 되자 이거지.
김신: 정치는 색시하다!

김: 탈하고 싶다!
모두: 하하하.
서: 정치! 너를 먹고 싶다!
이: 아유, 김유임 의원 스타아! 조용한 얼굴로 무서운 얘기를.
김: 아니, 진짜 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뛰니까.
서: 이 조용하니 엄청난 메시지, 꼭, 이거는 삭제하지 말고.
김: 그러니까 386세대들을 조직에 끌어들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상품적 가치가 되고 단련돼서...
김신: 진짜 여자386을 한 번 조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 386 모여라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박: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더도 재밌지만 견제세력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재밌겠다, 지역에서...
이: 여기서 정치 할 사람 없어요?
서: 김신명숙씨 준비해 봐요.
김신: 나는 이기적이라 못해.
서: 이기적인 여자들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봐.
모두: 하하하.
김신: 나도 그렇다고 봐.
서: 우리는 공적이기는 하지만 이기적이거든. 엄청 못된 여자들이야.
이: 이타적이어야 해.
서: 이타적이긴 하지만 나는 할했는데 조금 이타적이고 공익적이고. 우리도 공익적인 관점은 있지. 근데 공익적인 것을 떠들기만 할 뿐이지, 마음으로 공익적인 실천이 안되니까.
이: 너무 알미운 거 같애.
서: 그래도 자기 자리는 지킨다니까.
김신: 우리는 자기를 알잖아. 이숙인씨는 소설 쓰고 나는 글 쓰고 류선배도 외국 꺼 막...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모두: 하하하.
이: 근데 지금은 정치적이다. 정치가다. 다 나쁘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위인. 영웅은 다 정치가였던 거죠. 원래 그 사람들이 이타적이기 때문에 위인이 된 거고, 훌륭한 사람은 정치가였던 거지.
서: 난 이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그래서 최선생님하고 김유임씨라고 봐. 현실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난 정치인들 욕하는 애들 막 욕하잖아.
모두: 하하하.
서: 정치인들 중에 한 30~40%는 무지 나쁜 놈이고 게으른 놈인데, 남자정치인도 보면 굉장히 무지런하고 이타적이고 굉장히 원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EQ가 높아요. 나는 정치인들을 만나면 한 30~40%는 존경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울 게 한 가지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논두렁 정치라고 타(153쪽에서 계속)

고인창성형외과



TEL 02)548-0055
02)548-0108~7
FAX 02)3445-3418



전문의 성형외과
고인창

바뀐1



바뀐2



4.13 총선을

뛰는 여성들



애초 여성계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16대 국회에선 여성 의원 수가 역대 최고가 될 것이 확실하다. '비례후보 30% 여성할당'이 법제화되면서 비례 14석은 이미 확보된 상태인 데다 지역구 공천을 따낸 여성숫자도 역대 최고여서 그야말로 지금 여성은 '뜨는' 분위기이다.

2월 23일 현재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여성은 민주당 8명, 한나라당 5명, 자민련 1명으로 총 14명. 이 가운데 대략 5~6개 지역에서 여성당선이 유력하며 여기서 무소속 출마 여성들까지 합류하면 충분히 '여성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까지 지역구 당선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3명의 의원을 배출한 4대와 15대 국회였으며 그외는 대부분 1~2명에 그친 수준이었다.



새천년민주당
지역구 후보



김경천(광주).



창영신(서울 구로구).



김희선(서울 동대문구).



박남희(대구 수성).

민주당, 호남권에 여성 2명 공천

역대 집권여당 중에서 가장 많은 여성을 공천한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호남지역에 여성 두 명을 공천한 것은 새로운 기록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나 평민당에선 호남지역에 여성을 공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호남권에 배정된 주인공은 김경천씨와 한영애씨.

광주에서 공천권을 따낸 김경천씨는 국회의원 공천에서 밀려난 것만 총 3번이다. 34년 동안 재야 시민단체운동을 벌여온 김경천씨는 14대, 15대, 그리고 97년 보궐선거 공천과정에서도 막판에 밀려 호남권 공천의 벽을 실감했던 인물이다. 13대, 14대에서 서울 용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15대에선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한 한영애씨도 드디어 고향인 전남 화순에서 공천을 따냈다.

민주당이 서울지역에 여성 세 명을 공천한 것도 기록적이다. 15대에 이어 재선을 노리는 추미애 의원이 광진을, 신당 공동대표로 정치권에 진출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구로을, 15대 때 출마했다가 근소한 차로 낙선한 김희선씨가 동대문갑에 각각 공천을 받았다.

특히 추미애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12대 이후로 끊어진 지역구 여성 재선의원의 맥을 잇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성 중에서 역대 지역구 재선의원은 임영신씨, 박순천씨, 김옥선씨, 김윤덕씨, 김정례씨 등 모두 다섯 명.

이밖에 박남희씨가 대구 수성에, 구형선씨가 함안 의령에, 최경순씨가 대구 북을에서 각각 공천을 받았다. 경북대 미대 교수인 박남희씨는 정호선 의원의 부인이며, 영남포럼불교방송 이사인 구형선씨는 정동호 전 의원의 부인. 영남여성포럼 대표인 최경순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신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의 공천이 당의 공식적인 발표처럼 '정당사상 초유의 여성 대거공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여성공천자는 전체의 4.8%. 여성계의 지역구 여성 최소 10% 공천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유례없이 이번 여성공천자가 3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물이 없었다는 말은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

동대문갑, 김희선·한승민씨 격돌

여성이 지역구에 취약하고 공천신청자가 9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공천결과와는 비교적 여성배려를 고려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여성공천자는 5명, 15대에서 유일하게 여성 1명을 공천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대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신한국당으로 옮긴 임진출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것은 여성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아쉬운 현재로서는 유감스런 대목이다. 임진출 의원은 현재 "무소속 출마나 신당 합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여성공천자들 가운데 가장 당선이 유력한 이는 역시 박근혜 부총재. 대구 달성에 출

4.13 총선을

한나라당 지역구 후보

마하는 박근혜 역시 12대 이후 끊어진 여성 재선의원의 맥을 이을 주자이다. 전국구로 15대 뗏목을 달았다가 높아진 인지도를 적극 활용, 지역구에도 도전장을 낸 오양순 의원의 한판 승부도 눈길을 끌 것 같다. 오양순 의원은 경기 일산에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 정범구씨와 일전을 치르게 됐다.

12대, 13대 전국구 의원을 제대다가 14대, 15대 두 차례 지역구에서 낙선한 양경자씨가 세번째 선거는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당 여성정책위원장이기도 한 양경자씨는 도봉갑에서 김근태 의원과 겨루게 됐다.

이밖에 386여성 두 명에게 공천을 한 것도 눈에 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당 부대변인에 전직 기용된 한승민씨는 김희철씨가 공천을 받은 동대문 갑에 공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일한 여성들간의 경쟁지역이 될 동대문갑에선 어떤 선거전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화제. 또 당직자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허남주씨가 전주 덕진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허남주씨는 95년 민자당 부안군수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15대 총선 당시 도지부 부대변인을 맡아 활동했다.

자민련 '여성 기피' 여전

자민련은 여성에게 인색한 당이라는 이미지를 당분간 벗기 힘들 것 같다. 자민련 여성공천자는 현재까지는 겨우 1명에 불과하다. 서초갑에 출마하는 신은숙씨가 유일하다. 지난 1월 당 부총재로 화려하게 영입된 신은숙씨는 순천향대 교수이면서 전국여성노수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치열한 전국구 공천 경쟁

이미 14석이 확보된 전국구 자리엔 여성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영입파가 많은 민주당의 경우 후보들은 줄을 서고 있지만 확실한 의석은 6~7석에 머무는 공천이 끝나면 후유증까지 예상된다. 민주당의 비례후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는 한명숙 당무위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맡았다가 최근 안희석씨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고 현재는 당무위원직만 맡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안희석씨에게 밀려난 게 아니냐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한명숙씨는 여성계 똥으로 민주당에 합류한 상징적인 인물이며 그의 민주화 이력 등을 감안, 비례대표 당선 1순위로 보는 이들이 많다.

한나라당에서 당적을 박탈당했지만 오히려 더 높은 인기를 누렸던 이미경 의원도 유력한 비



한승민(서울 동대문갑)



박근혜(대구 달성)



오양순(경기 일산)



양경자(서울 도봉갑)



허남주(전주 덕진)



신은숙(서울 서초갑)

자민련 지역구 후보



물망에 오른 전국구 후보



한명숙 전 여당 대표



최영희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이사



김정숙 한나라당 15대 의원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황산성 전 환경부 장관



최영희 전 여당 대표

례후보다. 경기 부천지역에서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최근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강력한 비례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의사라는 전문직 출신으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한 박금자씨도 상위권 후보다. 산부인과 원장이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창립멤버로 합류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이사까지 지낸 박금자씨는 신선한 이미지로 호감도가 높은 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서 곧바로 신당 추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던 최영희씨도 비교적 가능성이 있다.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이대 간호학과 교수 출신인 최영희씨는 여협회장 당시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또 전북 무안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정해숙 전교조 초대 위원장과, 전북 익산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역시 탈락한 여검사 1호 조배숙 변호사도 상위 순위에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 김영선 김정숙 손봉숙씨 등 물망

영입파가 별로 없는 한나라당의 경우 여성비례대표의 윤곽이 아직까지도 뚜렷하지 않다. 다만 양천갑에 공천을 희망했다가 밀려난 김영선 의원의 경우 15대에서 강력한 여당의 저격수로 부상한 만큼 다시 전국구 뗏목을 잡 확률이 높고, 국회 여성특위위원장하면서 동시에 당 여성위위원장인 김정숙 의원도 재등용 가능성이 높다. 14대, 15대 두 차례 전국구 뗏목을 탄 김의원이 이번에 다시 등용된다면 전국구만으로 3선 의원이 된다.

외부 인사로는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과 이연숙 전 정무제2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 이연숙은 우리 나라 대표적인 여성 시민운동가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또 김영삼 정부시절 장관을 역임한 이연숙씨 역시 여성 환경단체장을 거쳐 여성계의 대표주자로 꼽힌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성바람이 가장 악한 자민련에서 비례후보로 유력한 여성은 지난 1월 전격 영입된 황산성 변호사를 꼽을 수 있으며 이밖에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모임 부총재와 박보희 여성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수준이다. □

글 최진숙(여성신문 기자)

네티즌에게 가장 인상깊은 여성의원은 '추미애'

에드게이터컴 회원 1226명 대상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페미니스트저널 이프와 인터넷업체 (주)에드게이터컴(www.adgator.com)이 공동 설문조사

1. 당신의 연령은?

- ① 10대 (121명-9.87%)
- ② 20대 (600명-48.94%)
- ③ 30대 (416명-33.93%)
- ④ 40대 (76명-6.20%)
- ⑤ 기타 (13명-1.06%)

2. 당신의 성별은?

- ① 남자 (939명-76.59%)
- ② 여자 (287명-23.41%)

3. 당신이 알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 ① 1-2명 (627명-51.14%)
- ② 3-4명 (433명-35.32%)
- ③ 5-6명 (119명-9.71%)
- ④ 7-8명 (28명-2.28%)
- ⑤ 9명 이상 (19명-1.55%)

4. 당신은 어떤 여성국회의원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상에 남습니까?

- ① 김영선 (248명-20.23%)
- ② 신낙균 (114명-9.30%)
- ③ 이미경 (124명-10.11%)
- ④ 추미애 (368명-30.02%)
- ⑤ 기타 (372명-30.34%)

5. 당신은 여성의 국회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962명-78.47%)
- ② 너무 많다. (21명-1.71%)
- ③ 지금이 가장 알맞다. (237명-19.33%)
- ④ 모르겠다. (6명-0.49%)

6.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전체 의원 중에서 얼마나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이하 (264명-21.53%)
- ② 30% 정도 (682명-55.63%)
- ③ 50% 정도 (178명-14.52%)
- ④ 50% 이상 (30명-2.45%)
- ⑤ 모르겠다. (72명-5.87%)

7. 여성국회의원은 의정활동 중 어떤 일에 역점을 분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여성복지 (160명-13.05%)
- ② 남녀차별법 개정 (50명-4.08%)
- ③ 사회불평등 개선 (249명-20.31%)
- ④ 남성의원과 똑같이 활동해야 한다. (748명-61.01%)
- ⑤ 모르겠다. (19명-1.55%)

8.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의 능력을 비교해 본다면?

- ① 남성의원이 더 능력 있다. (78명-6.36%)
- ② 여성의원이 더 능력 있다. (41명-3.34%)
- ③ 개인의 차이가 있을 뿐 성별의 차이는 없다. (1082명-88.25%)
- ④ 모르겠다. (25명-2.04%)

9.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당신은 후보의 어떤 점에 가장 유의할 건가요?

- ① 소속 정당 (35명-2.85%)
- ② 도덕성 (573명-46.74%)
- ③ 정치적 능력 (508명-41.44%)
- ④ 공약 내용 (72명-5.87%)
- ⑤ 모르겠다. (38명-3.10%)

10. 당신이 속한 지역에서 능력이 비슷한 남녀 후보가 나란히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실 건가요?

- ① 여성 (146명-11.91%)
- ② 남성 (110명-8.97%)
- ③ 남녀는 상관없다. (942명-76.84%)
- ④ 모르겠다. (28명-2.28%)

11. 당신은 올해 있을 총선에서 한표를 행사하실 것입니까?

- ① 하겠다. (869명-70.88%)
- ② 하지 않겠다. (71명-5.79%)
- ③ 모르겠다. (158명-12.89%)
- ④ 아직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다. (128명-10.44%)

12. 99년 초부터 여성국회의원들은 국내 역사상 처음 바지정장 차림으로 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① 보기 좋았다. (866명-70.64%)
- ② 보기 싫었다. (58명-4.73%)
- ③ 모르겠다. (302명-24.63%)



"바지정장 입고, 도덕적이며 남성의원과 똑같이 활동하는 여성 국회의원을 지지한다."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된 네티즌들이 주문하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이다.

페미니스트저널 if는 바탕화면에서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주)에드게이터컴(대표이사 송경호)과 공동으로 4·13 총선과 관련,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네티즌의 인지도와 정치의식을 조사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주)에드게이터컴 회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새천년민주당(구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을 '가장 인상깊은 여성의원'이라고 답했으며, 여성 국회의원의 자질로 '도덕성'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꼽았다.

남녀의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차이가 있을 뿐, 성별의 차이는 없다' (88.25%)는 응답이 '남성의원의 능력이 더 낫다' (6.36%)거나 '여성의원 능력이 낫다' (3.34%)라는 차별적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구에 능력이 비슷한 남녀후보가 나온다면 '남녀 상관없이 투표하겠다' (76.83%)는 응답이 높아 네티즌들의 정치의식은 '남녀평등'에 한 발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대 국회부터 적용된 여성 국회의원의 바지정장 등원에 대해서도 '보기 좋았다'는 응답이 866명 (70.63%)에 달해 네티즌들은 여성의원이 꼭 치마를 입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티즌들은 여성의 국회진출과 의정활동에 대해 16대 국회에 '더 많은 여성이 진출해야 한다' (78.46%)는 의견이 '너무 많다' (1.71%)거나 '지금 알맞다' (19.33%)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고,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30%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5.62%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의정활동에 대해 '남성의원과 똑같이 활동해야 한다' (61.01%)는 요구가 '사회불평등 개선활동' (20.30%), '여성복지' (13.05%), '남녀차별법 개정활동' (4.07%)에 대한 요구보다 높았다.

4·13 총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0.88%가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투표하지 않겠다'

(5.79%), '모르겠다' (12.88%)는 답변을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후보의 소속 정당' (2.85%), '공약 내용' (5.87%)보다는 '도덕성' (46.73%), '정치적 능력' (41.43%)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

전세계 여성 국가원수 8명

사민당 출신의 타르아 할로넨이 2월 6일 핀란드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전세계에서 여성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은 8명에 이르게 됐다.

스리랑카: 찬드리카 쿠마라통가가 94년 11월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시라마보 반다라나이케를 총리로 임명했다. 반다라나이케는 이미 60년과 65년 사이 그리고 70년과 77년 사이 세계 최초의 여성총리를 역임했다. 방글라데시: 하시나 와제드가 96년 6월 총리가 되어 베국 할레다 지아의 뒤를 이었다. 지아 전 총리는 91년 주인의 86%가 최고인 방글라데시에서 정부를 이끄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아일랜드: 매리 매컬리스가 97년 10월 30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매컬리스의 전임자는 현재 유엔 인권담당 고등판관인 매리 로빈슨이다.

뉴질랜드: 헬렌 클라크가 99년 12월 10일 소속당의 총선 승리 후 총리로 지명됐다. 전임자는 뉴질랜드 최초의 여성총리인 제니 시틀리.

라트비아: 바이라 비케 프리에베르가가 99년 7월 8일 대통령으로 선출돼 동유럽 최초의 여성 국가원수가 됐다.

파나마: 볼루리 민주주의의 정치지도자이며 3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아르놀포리아스와 미망인인 미레아 모스코소가 99년 9월 1일 국가원수로 당선되었다.

그 밖에 대들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 97년 1월 23일 취임했다. 영국의 총리를 11년 반 동안 지낸 마거릿 대처는 영국 역사상 최장기간 연속적으로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 기록을 세웠다.

인디라 간디는 총리로 11년 2개월간 인도를 통치했으며 이중 한 차례 재임이 중단됐다.

image

이렇게 입어보면 어때요?

20대가 제안하는 여성정치인 옷차림

"남성의원들은 단순히 정장만을 고집하면 되지만 여성의원들은 옷의 형태나 색깔 그리고 코디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소하게는 액세서리나 치마길이, 화장, 머리모양까지 힘든 면이 많아요. 잘 입으면 잘 입고 다닌다고 입방아에 오르고 못 입고 다니면 못 입는다고 말들이 많지요." 지난 1월 28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신낙균 의원은 여성의원들의 옷입기에 대한 고충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고충이 어디 그뿐이라? 우리는 그가 털어놓은 옷입기에 관한 고민을 통해 국회 안에서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여성의원들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흔히 한 나라의 의상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정치적 현실을 파악하는 코드로 읽혀진다. 지난 96년 6월 15대 국회 개원식에선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김영선 의원이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남성의원들과는 달리 여성의원들의 능력보다는 외모에 집착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불편한 치마 대신 바지정장을 입고 등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얼마 전에야 가능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린 의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입을 수 있는 날을 상상해 봤다. 그들이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옷차림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정치풍토도 훨씬 유연하고 자유로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년 똑같은 얼굴, 똑같은 정치행태들에 신물난 신세대 유권자들은 우리 사회 정치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개성있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프는 아직 초보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의상 관련 전공 대학생들과 함께 여성정치인 이미지 바꾸기를 시도해 봤다. 기존의 의복관행에 물들지 않은 사람일 것, 여성의를 가지고 있을 것, 창의적인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많을 것 등이 이 초보디자이너의 자격(?) 요건이었다.

지난 1월 18일 대학로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몇 차례의 토론과 이미징, 신낙균 등 의원 인터뷰, 인터넷에서 자료찾기 등을 통해 총 6명의 의원을 선정하고 그들의 이미지에 맞는 의상을 디자인했다.

우리는 여성정치인들이 처한 옷입기의 어려움들을 모두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외모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단정한 정장 스타일이 아니라 그들의 카리스마와 개성, 체형을 잘 살리는 실용적이면서도 약간의 튀는(?) 옷을 제안함으로써 국회가 가진 권위와 경직된 사고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 몸집이 큰 사람과 개성이 강한 사람을 골고루 선정함으로써 기존의 여성적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은하(성신여대 여성학과 졸업)



6명의 현직 의원과 의상을 제안한 3명과 함께
원곡부터 구영웅(24, 한양여대 의상학과 졸업),
김민정(24, 성균관대 생물과학부 재학),
이은하(25, 이화여대 의류작물학과 재학)

은하가 상상한 미래국회

이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의원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국회의 모습에 적응이 놀랐다. 우선 의원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밝고 화사한 정장에서부터 생활한복이나 캐주얼까지 다양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국회 광장을 돌아 노란색의 날렵한 자동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구슬이 쏟아지다 노란색 나비로 변하는, TV 광고에서 본 조그만 자동차였다. 의사당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 자그마한 자동차의 출현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아닌 새천년 민주 통일당의 박의원과 신한국 용기당 김의원이었다. 국회에서 3당 원내총무들이 우리 나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당명에 각당 의원들이 선호하는 캐릭터 이름을 함께 쓰기로 합의한 이후에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블랙진에 세련된 통코트를 받쳐입은 박의원은 관계서류가 잔뜩 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들어가며 이의원에게 한 마디 건넨다.

"이의원, 오늘 선이라도 보려갑니까? 검은 정장이네요, 하하하."

별 생각없이 딱딱해 보이는 검정색 정장을 입고 온 이의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편지를 주는 탓에 말이 권하는 캐주얼 타입의 빨간 투피스를 입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오늘은 각종 현안에 밀려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날이다. 같은 법제사법 진달래위원회에 속한 자유민주 태권브이 연합당의 김의원은 밝은 연두빛의 생활한복을 입고 나와 이의원을 더 주눅들게 했다. 색다르게 시도된 변화 중의 하나가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에 식물 이름을 함께 쓴 것이다. 통일외무 시금치위원회, 재정경제 무궁화위원회...

뭐 그리 대단치 않게 보여도 효과는 큰 것이어서 식물 이름을 병기한 이후로는 간혹 나타나던 의원들간의 폭력사태가 사라졌다. 의원들끼리 역설잡고 싸웠다는 얘기는 이제 들을 수 없었다. 거기다 무자비한 날치기 통과나 국회 정가농성, 실력 저지 등의 사태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위에서 권위와 권력을 휘두르기만 했던 의원들이 사소한 변화에서 제 역할을 찾은 것이다. 이의원은 무사히 민생법안을 심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짐한 정부부처 공무원과 도시락을 먹으며 업무가 많은 내일은 청바지를 입고 등원해 불까 고민해 본다. [H]



민정의 제안



임진술 의원 — 4전5기의 신화

도시적이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요한 컨셉으로 해서 빛깔이 도는 록자주색을 기본 컬러로 정했다. 거기다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 밝은 화색의 산화 남색, 바지의 모임은 활동성을 강조, 나뭇 모양으로 내려오는 풀이 넓은 스커트를 추천. 특히 앞의 앞치마와 보주한 인상을 주기도 하므로 소량의 재질감과 배아지 개성의 개이 조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풍운새 재질로 그라데이션(Gradient)과 크릴를 처리를 한 스커트로 과감한 고집도 부여되었다.



김정숙 의원 — 장군 + 아줌마의 대표

발색과 안두색을 기본 컬러로 활동적이고 상용적인 편에 중점 공헌이 수를 놓은 가운에 원단을 제외하고는 중순재가 연, 금을 쓰거나 움직이기 편하도록 옷매무새를 줄이고 허리부분도 두꺼운 끈으로 어릴 수 있게 하여 편안함을 줄, 고름에 들어간 도를 반지락귀고리까지 통일하여 잘 어울린다. 김 의원은 어릴수록 대 걸러서, 김 의원은 좀더 젊어 보이면서도 뛰어난 50대의 버어스타일이 될 듯...





신박균 의원

되도록 본인이 느끼기에 편안하고 자신 있도록, 따라서 현재의 업무상과에 맞도록 디자인, 전체적으로 세련상을 강조하여 명료하고 권위 있으면서도 경쾌한 인상을 준다. 신의원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인 파스텔톤, 그리고 호박호박해 보이지 않는 옥스퍼드 구두, 같은 디자인을 다른 색상과 소재로 한 벌 더 구성해 보았고 치마와 더불어 바지도 제작하여 혼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안경과 머리모양을 바꾸어 볼 것을 제안한다.

〈블라우스〉

조금 두껍고 힘있는 감으로 만든 오버블라우스. 중년여성들의 신체 콤플렉스를 감싸주고, 허리가 고정되지 않아 활동이 더 자유로우며, 재킷을 벗더라도 청정으로서의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몸을 여유있게 하고 단추를 아랫단까지 달지 않아, 필요없는 긴장을 줄인다. 같은 감으로 만든 씨개단추와 소매가 포인트.

〈재킷〉

노컬라 재킷은 신뢰감의 경우 목을 시원스럽게 보이게 하여 사진을 잘 받도록 한다. 부분부분의 곡선처리로, 현재의 굳어보이는 이미지에서 실제 신뢰원의 자연스러운 본래 인상으로 전환. 근육 제인 어림은 신체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청정해 보인다. 패턴의 질감이 따로 있지 않아 박스형에 가까운 중간길이.

〈치마〉

그냥 서 있으면 드러나지 않는 큰 앞주름이 밑쪽에 달린 긴치마. 오래 앉아 있는 일에 적합하고, 다리의 표정이 자유로울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

〈바지〉

금슬 있는 질이로 아래 폭이 약간 벌어지는 바지는 신뢰감이 화면상에 서도 가장 손쉽게 세련되어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이다. 조금 절고 활기찬 느낌을 부담없이 줄 수 있다.



추미애 의원

현재의 추의원은 영커와 이집아, 여행사 직원의 절묘한 중간지점! 무성적이고 연령 추정 불가의, 개성을 억누른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본다.

〈간이집무복〉

편한 일상복 + 재킷이나 스카프 = 간단한 의복복. 내추얼론 트러트 수트와 맨-트 스카프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잡지 인터뷰나 홍보물 등에 실리는 최근 한 못차림의 사진 한 장은, 지금처럼 플레이지까지 밀려 연애제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도록 한다. 본론해(?) 보이는 긴 재킷과 랩스커트는 여성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갑옷' 신세. 허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무서울 게 없고 싶을 때 입는다.

여성적 반 청장구

무는 거부해도 좋겠다. 실내에서 밀릴 때는 연스타킹 또는 전발에 슬링백 구두, 보행시나 실외에서는 건발발에 대체로 부츠.

〈문예장한복〉

입고 싶어 입는 예쁜 옷이 춘철살인의 지성을 가릴 리 없다. 이것은 날개옷이다.





경음의 제안

이미경 의원

—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소신있는 정치인

참새, 사슴, 나무 등의 자연물 프린트를 넣음. 흰색 연과 미를 존중.



지난해 12월 28일 환경기자클럽이 선정한 올해의 환경인 에 선정된 이미경에 맞게 단순한 디자인으로 깔끔함이 베어나는 한복을 재봉. 멋있게 한복 재고리의 실상을 활용했으며 꽃무늬 자수로 포인트를 주었다. 핏피스 같은 A라인(루피스 아님).





영웅의 재인

김영선 의원 — 뛰는 신세대

오른쪽—강하고 뛰는 이미지를 살짝 누그러뜨리기 위해 전통적인 이미지의 색을 사용.

상의: 흰색 옷에 치마색과 동일한 군청색의 자수를 넣음. 네크라인은 네모형에 약간의 곡선을 줌.
하의: 건 플리에스테르를 혼용했으며 기분을 한복치마와 동일하게 디자인했다.

완벽—오리엔탈리즘으로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당당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함께 표현하였다.
자주색의 상의에 스텝드 칼라를 약간 변형시킨 곡선으로 목을 약간 길게 따름.



동이제약

확~
바꿔봐!



“정말 시원하네요?”



템포, 세 번만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라운드형이라 삼입이 너무너무 쉬워요. 내 몸 안에서 완벽하게 흡수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구요.
물론 그 날 수영장에도 갈 수 있고, 테크노도 맘껏 즐길 수 있어요.
템포, 세 번만 써보니까, 내 몸이 너무너무 편한거 있죠~



새로운 템포, 사용이 훨씬 편리해요
• 위생적으로 쉽게 써볼 수 있어요. • 사용 후에도 냄새가 없습니다.
• 피부 자극이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 흡수력 / 주사 두 가지로 선택해 딱 그 날의 나에게 맞는 템포를 선택하세요.



더 궁금하세요? 전화하세요
템포 상담실 02-620-6264/6265
문의처: 02-620-6264(주말 휴무)

클리오가 만드는 투명한 세상



오늘 아침도 자~알 먹었다



한뜻 안한뜻한 깨끗한 피부화장

클리오 누드 컨셉

www.clio.co.kr

클리오가 만드는 투명한 세상



잘 먹는 건 누드 컨셉

CLIO NUDE CONCEPT

- 잘 먹으니까 멘탈 같아요
- 잘 먹으니까 물뜨지 않아요
- 잘 먹으니까 잡티가 사라져요
- 잘 먹으니까 눈썹이 상쾌해요
- 잘 먹으니까 누드메이크업



디지털 기술이 주방까지 왔다! 대우 디지털냉장고 탄생



디지털 기술로 대우냉장고가 또 한번 앞서간다!

3면 입체 냉각방식의 입체냉장고 링크, 냉장고의 소비전력을 절반으로 줄인 링크냉장고 동시안착 등 한발앞선 기술력으로 대형 냉장고 시장을 선도해온 대우전자가 냉장고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만든 대우디지털 냉장고! 77%의 환경감지 센서로 모든 환경을 빠르게 감지하여, 마이크로 컴퓨터가 빠르게 적응하고, 디지털 입체냉각방식으로 빠르게 냉각시키는 대우 디지털냉장고가 냉장고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대형냉장고는 역시 대우전자입니다.

대우 **디지털** 냉장고



눈 뜨면 커피,
일할 때도 쉼 때도,
전 날 커피거든요.
그래서 더욱 부드러운 커피,
맥심 모카골드.
맥심 모카골드로 진정한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제 커피는 맥심 모카골드예요



Maxim Mocha Gold

MONTHLY ART MAGAZINE

art
www.artart.co.kr

TEL 730-1995-6 FAX 723-0290

일레니엄 프론티어-삼성

삼성출판 No.1
인터넷출판소

“딸깍”

작가 이문열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Click Cresens!
문화와 만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삼성이 만든 인터넷 서적 음반 전문몰, 크리센스

www.cresens.com

'무슨 책을 살까' '어떤 음악을 들을까' 최고의 평론가로부터 조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인터넷 서적 음반 전문몰, 크리센스! Amazon, Kinokuniya와 제휴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어떤 서적이라도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화가 사는 인터넷
cresens

최대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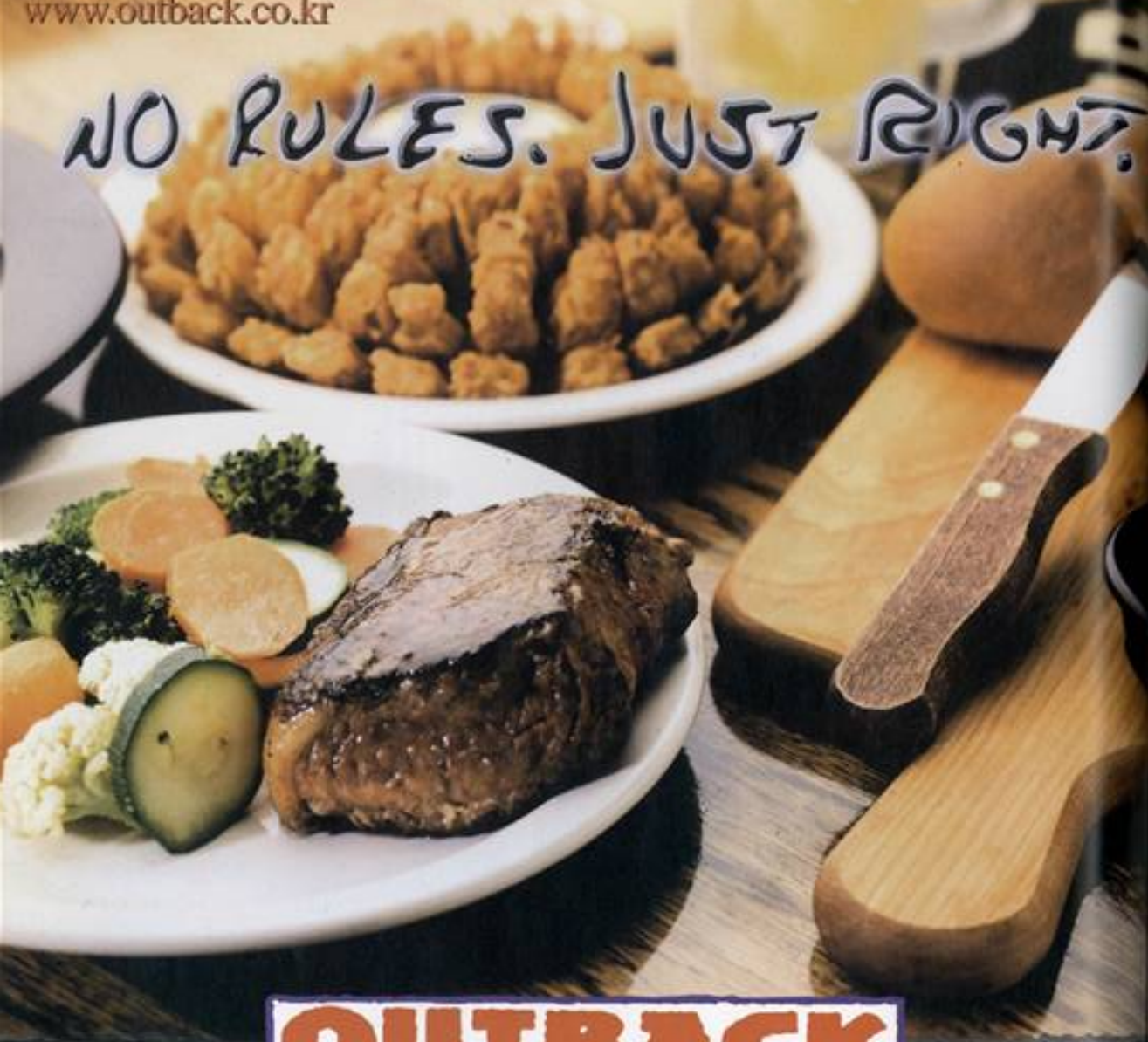
크리센스의 신특할 수 있는 서비스
• 국내 유일의 서적·음반·마포 전문몰
• 국내 최초 실시간 주문 배송 서비스
• Amazon, Kinokuniya와 제휴로 외국서적구입
• 다양한 검색방법으로 편리하고 빠른 검색 서비스
크리센스의 환경 좋은 서비스
• 무량간의 서적 및 CD/DVD 공개
• 자체 편집하여 어떤 특장점 서비스
• 검색, 출판, 음악 관련 정보의 전달 및 통합 서비스
• 책, 만화,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정보 제공

SAMSUNG

삼성출판

OPEN 365 DAYS (12pm~11pm)
www.outback.co.kr

NO RULES. JUST RIGHT.



OUTBACK
STEAKHOUSE®

"FORBES지 선정 '2000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

두툼하고 육즙이 풍부한 스테이크와 푸짐하고 다양한
American Food를 경험하세요.



아웃백 공항점 Tel. (02) 3661-1101
지하철 5호선 발산역 4번 출구



아웃백 홍대점 Tel. (02) 3142-4451
지하철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아웃백 강남점 Tel. (02) 3445-4701
지하철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한남대로 방면 700m 직진)



아웃백 청담점 Tel. (02) 548-9541
학동 사거리에서 강남구청 방면 10m 직진
(키네마 극장 대각선방향)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만든

산딸기차



새해선물로 최고의 만족을!

한사모 산딸기 차란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 (한사모)의 회장 하우청(43) 씨가 개발한 산딸기차(복분자차)는 산이나 들에 자생하는 야생산딸기를 고농축하여 구기자, 오미자, 감초 등을 가미해 무방부제, 무색소로 자연의 맛과 색을 살려 먹기 좋은 티백형으로 제작한 건강차이다.

산딸기 차의 효능은

산딸기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얘기는 여러 옛 문헌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옛날 중국의 노부부가 아들을 얻었는데 몸이 워낙에 약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의 처방대로 산딸기를 달여 먹었다니 건강을 되찾고 청년이 되어서 소변줄기가 하도 강해 요강을 뒤엎을 정도로 정력이 됐다. 그래서 산딸기의 이름이 복분자(覆盆子)로 불려졌다고 전한다. - 본초강목 - 간을 이롭게 하고 몸의 피로회복과 기운을 돕고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신장의 기능을 도와 남자들의 정력을 좋게 하며 머리털이 희어지는 것을 막고 임신을 도우며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과 '오줌싸개' 어린 아이에게 좋다. - 동의보감 -

자나치게 정력을 소비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성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제이다. -약초꾼 최진규의 '보종약초장수법' 중 산딸기편-

제품의 종류 및 가격

포장단위 120포 48,000원, 300포 (100일분) 98,000원
■ 전화주문시 전국 어디나 배달하여 드립니다.
■ 한사모는 상표가 등록된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의 약자(略字)입니다.
원조 산딸기차, 한사모 산딸기차는 같은 상표, 같은 제품입니다.
■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 (인터넷 이용 <http://www.hansamo.com>)
경향신문, 스포츠조선, 한국경제,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서울경제, 등에 산딸기 차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 되었음.

특허출원 99-47362
문의전화 (02)966-8836(대), 967-8838 야간 (02)965-5482
청우당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2동 892-84

정통 이태리 스파게티소스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세요!

스파게티의 나라 이태리- 그 본고장의 맛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토마토, 파망, 양파, 셀러리 등의 신선한 야채와
진한 소스가 맛있게 어우러진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면위에 뿌리는 순간, 스파게티의 풍부한 맛이 살아나요.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스파게티의 맛은
소스가 결정하죠!”



김동규

성악가: 김동규

한국의 대표기업을 넘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GLOBAL 삼성화재

이제 삼성화재가 세계기준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美 S&P**로부터 IMF이후
국내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최고신용등급 **'A'**!

- 삼성화재가 **美 S&P**로부터 투자추천(Strong)을 의미하는 신용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 이는 세계의 4,000여 보험사 가운데 상위10위 회사들과 같은 등급으로, 삼성화재가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기업임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세계적 기업임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 이를 계기로 삼성화재는 새천년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도하며 국내외 투자자와 고객과 기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S&P사의 신용등급과 FSR(Insurer Financial Strength Rating)은 영업성과, 투자현황, 자본의 적정성, 준비금 평가, 자산유동성 및 자본의 유연성 등 19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삼성화재의 A등급은 투자추천등급으로 재무 안정성 및 지급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 AM BEST 2년연속 Excellent등급 획득!
- KCSI자동차보험 부문 고객만족도 1위!

- KMAC신상 브랜드파워 1위기업!
- 아시아-태평양 신상 최우수 강령기업!

아래를 때 힘이 되는 친구



유산균 덕 보시려면,
보호막부터 챙기자구요!

네버다이

칸

네버다이

칸



보호막 요구르트 네버다이칸

위산에 강한 보호막 유산균!



위산에 너무나 약한 유산균-
보호막이 없으면 장까지 살아가기가
어렵죠. 위산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있어야 유산균이 더 많이 장까지
살아서 가져다줘요.
보호막 요구르트 네버다이칸!
이런 보호막을 꼭 확인하세요.

세계가 놀란 보호막 유산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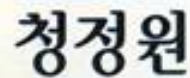
• 94년 미국 낙농학회 발표
과학자들로부터 뜨거운 찬탄을 불러내며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 받았습니다.

서울우유의 독자기술로 만든
보호막 요구르트 네버다이칸-
세계최초의 권위를 자랑하는
99년도 미국 낙농학회에서
유산균 생존율을 높여주는
보호막의 실험결과를 발표
과학자들로부터 뜨거운 찬탄을 불러내며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 받았습니다.



미국 식품 98년 제282호
네버다이 칸 유산균 함유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보호막 요구르트
네버다이 칸



청정원이라는 이름을 허락합니다.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타이레놀,
정말 좋은 두통약입니다



두통엔 타이레놀 - 믿으니까요!

전 머리 아플 때 꼭 타이레놀을 선택해요. 단일성분으로 두통을 깔끔하게 없애주거든요.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두통약, 타이레놀. 전 꼭 타이레놀이어요. 믿으니까요!



다이어트는 사람의 전후와 함께
소위된 어린이들에게 사람의 다이어트를 보이기
행복한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자율성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얻을수 있는

타이레놀

www.tylenol.co.kr

왜

타겟튜브여야만 하는가



기존의 설치식 바퀴살충제와는 달리 타겟튜브는 튜브식!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짜 놓을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의 통로인 좁은 틈새까지 짜 놓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으로도 온 집안의 바퀴를 꼼꼼하게 없애줍니다

틈에 짜 놓는 튜브식 바퀴살충제 - 타겟튜브

· 수량이 제한된 설치식 살충제와는 달리 온 집안에 원하는 만큼 짜 놓을 수 있어 보다 효과적·경제적으로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습니다.
· 미관상 보기 좋은 곳(천장, 바닥의 모서리), 설치하기 어려운 곳(가구나 벽면의 틈새)에도 손쉽게 짜 놓을 수 있습니다.



바닥과 벽 사이 틈



싱크대의 세면대 사이 틈



가스렌지와 벽 사이 틈



슈퍼에서 구입하세요

고객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 제품 개선, 상품명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는 모든 고객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며, 아이디어가 채택되신 분께는 별도의 상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9 · 우편번호: 135-080 · 본사대표: (02)421-6789
· 고객센터(전화): 080-022-9547 · http://www.oxv.co.kr · E-mail: csc@oxv.co.kr

OXY



고나아 뭐라도 한다. 뭐 하나라도 결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 이더라. 그래서 난 후배들한테 너희는 무책임하게 욕하지 마라. 덜 나쁜 후보 뽑는 게 최선이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후보, 기권하면 나내는 쪽을 놓 없어서 기권하는 걸로 의사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선거권이 낮아지면 선거가 취소되는 제도가 있으면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시이지만 그거 없으니까 열심히 골라서 그나마 덜 나쁜 놈 골라라. 근데 이렇게 정치인을 변호하면 나보고 어머. 선배 너무 정치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근데 그렇대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세상에 대해서 골든 예술이든 저널리즘이든 뭔가 표현하는 거는 일종의 사회적 발언 이잖아요. 다 권력을 지향하는 거래 사실은. 권력에 변형된 형태 일 뿐이래.

김: 그럼.

서: 그럼. 그건 난 정확히 동의해. 그래서 나는 붓의 권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지.

이: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자기는 사회적 발언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권력은 더러운 것처럼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중배반적이라는 거지. 사회적 표현이나 발언은 다 권력의 한 형태라는 거지.

박: 그렇죠.

서: 비천한 노동을 통해서 권력을 쌓아올리는 게 기지야. 왜냐면 꽃아다나며 누구 기다리고 막 이런 노동력이 아니면 권력이 안 생기니까.

이: 하하하. 남한테 말 시키고 자꾸.

서: 응. 말 시키고, 기다리고 계속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고. 어디 꽃아다나고 너무나 비천한 노동이야. 내가 이런 짓 하려고 태어났다. 근데 기사 쓰고 나면 막 부둣해지. 어떤 때는 심지어 신이여 이걸 내가 쓴 것이 맞습니까?

모두: 하하하.

김신: 아직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서: 아주 가끔.

최: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지역당 있죠?

김신: 중앙당의 일부요?

최: 아니죠. 지역에만 존재하는 당이 있죠. 스웨덴에는 스웨덴 린당이 있듯이 그거는 지방의회만 진출하는 거죠.

김: 주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연방제인 거죠.

최: 우리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그러거든요. 다 자기 허수인으로 생각해요. 정치를 무슨 수직관계로 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당이 공천을 하는 한 지방자치는 참 발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의 단체장이고 한나라당 의원이다 이렇게 하면 다 그 쪽 편이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단체장이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많다 이거죠. 이게 견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지방자치가 지금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지방자치에 대한 여

러 가지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을 투쟁을 해서 얻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당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신: 근데 그게 만약 상형식으로 되면은 그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게 거꾸로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최: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좋지 않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중앙에선 자기네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보면은 그런 지역당을 만들어가면서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법적 투쟁을 해서 권리를 획득을 해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나가면 중앙정당도 바뀐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봐요. 정말 박정희가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서: 꿈에도 못해봤지.

최: 그 때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을 하면서 나중엔 결국 유신정권까지 무너지게 됐잖아요. 아,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운동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유 희망이 있겠느냐, 너더러 그거 해가지고 언제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자꾸 하는데 나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서: 어느 순간에 와요. 어느 순간 버락처럼.

최: 자꾸 마음을 조금씩 먹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당장 뭐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생각은 안하고 당장 뭐를 따먹으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터뜨릴려고만 그러고 멀리 보지 않고 급히 할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오히려 운동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난 멀리 봐요. 그러니까 나는 지역운동 하구 지방의회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20년 앞을 보겠다...

서: 살다보면 20년도 잠깐이더라구요.

모두: 하하하.

최: 살다보면 잠깐이야. 우리 세대는 정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86세대는 그런 거를 바라보고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나는 여성정치 충분히 희망이 있다. 온다...

서: 10년 안에 올지 30년 안에 올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여자들이 참아왔기 때문에.

최: 그러니까 누가 아우, 외국에서는 몇백 년 이렇게 세월이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오나 그랬는데, 남들이 100년 갔으면 우리가 그 길을 알아 그 길을 질러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박: 아, 이렇게 희망적인 말로 끝내다니... 오늘 날씨도 추운데 위풍도 심한 곳에서 고생하셨어요.

김신: 장소섭의 잘 못 한 거 같애.

박: 장소섭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잘못했어요. 마갑 겹쳐 가지고 제 정신도 멍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M]

정리 김보미 권혁관/ 사진 조여권/ 일러스트 난나

‘타케트튜브’

호모 에로티쿠스의 변명



정승훈

74년생, 서울대 불문과 석사 졸.
지금은 낯선 신문, 낯선 환경에 적응 중.
21세기가 나의 세기가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하며 언제나처럼 암중모색.
Viva homo eroticus. ^^

1

꿈을 꾸다. 나는 방안에 누워 있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둘 또는 셋의 여자들이 여자친구 또는 유혹하는 자의 표정으로 들어온다. 그녀들은 누워 있는 내 몸을 둘러싸며 날 내려다본다. 난 올려다본다. 난 이럴 때일수록 행복하고 대답하다. 내 부끄러움을 표백할 것. 여자들은 날 먹이 취급한다. 난 먹히고 싶어서 그녀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허리를 들어주거나 뒤로 돌아눕기도 한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협조적인 것은 아니다. 마치 못해 무를 끓는 가련한 식민지 제물의 분위기를 약간은 풍겨야 한다. 그녀들은 내 옷을 찢어발기고 내 몸 위에 올라타고 내 페니스를 집어삼킨다. 나는 상상적으로는 강간당하고 있다. 이윽고 내 몸에서 뜨거운 용암처럼 정액이 분출한다. 정액 굴착기 같은 여자들. 난 내 일부를 빼앗기는 즐거움 또는 내 일부를 받아 마시는 그녀들의 즐거움을 사랑한다. 또는 이 정도에 휴지처럼 구겨지는, 내 존재가 몰락하는 느낌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몸의 산란 속에서 혼란스럽게 만끽한다. 꿈을 깨면 뜨거운 용암으로 뒤덮인 팬티.

2-1

사실 몽정은 하이틴로맨스처럼 과거 속으로 들어가 버린 줄 알았지만, 최근 몇 번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 몽정의 장점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내 몸의 주인공 자격을 박탈당하는 묘한 쾌감을 손 쓸 새도 없이 바라보

섹시한 아가씨가 된 그 아이의 휘하에는

나처럼 그녀의 지배를 받고자

모여든 남자들이 줄을 서 있다.

고만 있어야 하는 당혹감 아닐까. 나는 졸지에, 다시 말해 흥분과 교감의 과정을 생략한 채 오줌 싸개가 되어버린다. 어어어, 이런, 내가 배설하고 있네. 그 주저앉고 싶은 몰락감의 쾌락.

반면 몽정의 단점은 몽정의 장점이 가진 형이상학적인 상부구조가 결국은 자다 깨서 팬티를 벗고 몸을 씻어야 하는 현실적인 하부구조의 문제로 귀속된다는 데 있다. 물론 모든 남자들이 몽정의 순간 잠이 깨는지는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팬티가 젖어 있더라는 식의 얘기도 있는데, 나의 경우 몽정 후의 아침은 언제나 노팬티로 맞이했다. 그래서 때론 몽정을 참기도 했다. 이전 꿈이야, 라고 의식이 외치는 순간, 내 몸에 엉켜 있던 여자들은 의식보다 빨리 사라진다. 그런데 이전 꿈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은 이미 잠이 깬 순간이어서, 난 그녀들이 다시 와주길 바라며 다시 잠을 청한다(지상으로 뿔어져 흩어진 용암은 그 순간 죽어버린 것과 다름없다.

그것이 죽은 것의 냄새와 찻잔함을 남기지만 않는다면 좋으련만, 또는 내 몸은 수억의 잠재적 생명을 학살시키는 쾌락으로 들끓는다. 나는 학살의 대가로 시체를 치워야 한다).

2-2

내가 여자를 도미네이터로 상상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 아닐까 싶다. 친구의 여동생이 이때 보였는지 그 아이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기도 했다. 자기 전이면 그 아이가 보스인 지하 강단을 상상했다. 섹시한 아가씨가 된 그 아이의 휘하에는 나처럼 그녀의 지배를 받고자 모여든 남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녀는 싸늘하고 권위적인 선글라스를 낀 채 남자들 사이를 거닐며 이런저런 명령을 내린다. 충성을 표시하는 남자들. 그녀는 내게만 특별히 윙크한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다. 내가 보는 건 선글라스론. 도미네이터의 전형을 보고 싶다면 <쇼걸>과 전혀 상관없는, 그보다 열 배 나은 <쇼걸2>라는 비디오를 추천하겠다. 전위 스트립쇼아티스트가 여신처럼 군림하는 변태들의 언더그라운드에는 그녀의 노예가 되려는 남자들이 온갖 첨단장비로 포박당한 채 그녀가 부여하는 고통에 쾌락의 몸부림을 친다. 고통은 결코 강요되지 않는다. 받기 싫으면 그녀를 떠나면 그뿐. 그녀는 삽입을 제외한 온갖 성적 자극을 실험한다. 난 그녀의 실험 대상이고 싶다. 그녀의 두 다리 사이에 플러그를 꽂아주고 싶고, 하이힐을 신고 인력거가 되어 그녀의 채찍에 엉덩이를 맞으며 그녀를 태우고 달리고 싶다. 그녀에게 내 페니스를 빨리고 싶고(그녀가 내 페니스를 빨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비위를 거슬렀을 때 그녀에게 발히고 걷어차이고 싶다. 그녀가 나를 총애해 주길, 여신의 발톱에 황공

내 꿈의 별, 화성을 그녀와 단 둘이서 탐사하길 꿈꾸듯,
우리는 살을 섞는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 내가 원해서
그녀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번개처럼 내리쳤을 때,
그녀는 고통과 쾌락의 극과 극을 조우한 듯한 비명으로...

하여 머리를 숙인 채 날 내려다볼 여신의 시선을 조마조마해하며 느끼는 것, 당근과 채찍, 그 스
렐과 긴장, 그것이 그녀를 사랑하는 내 방식이다.

3

여자친구는 내가 몽정했다고 하면 재밌다는 듯이, 한편으론 어리다고 놀리는 듯이 들어준다.
그녀가 고맙다. 일주일마다 만나는 그녀를, 만나야 할 날에 못 만나게 되면 몽정을 하는 것이 아
닐까 분석도 해준다. 내 리비도의 바이오리듬 체크, 성욕이 삶의 원동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를 욕망하는 것은 분명 현재를 살게 하는 어떤 베이스가 된다. 욕망이 바벨탑처럼 치솟다가 곧두
박질치며 베이스를 무너뜨리는 일만 없다면.

여자친구는 내 사도마조히즘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다. 그렇다고 그녀가 날 채찍으로 후려갈기
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다(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그녀는 내가 내 욕망을 분
산시키는 프리즘과 같다(그녀에게 나 역시 그러하기를). 난 나 자신을 변태와 포르노로 몰들이면
서도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그녀는 그런 날 이해해 준다. 아마도 사랑이 도착과 다른 점이
바로 이 한 발 더가 아닐까 싶다. 이를테면 난 그녀에게 도미네이터를 요구하진 않는다. 날 지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잠깐의 유희일 뿐이다. 내가 정말로 매맞으며 즐거울 거라 생각지도 않는다.
단지 변태와 금기라 단정짓기 전에 상상으로는 섹스의 모든 것이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음을 인
정할 뿐. 여자의 엉덩이 아래 얼굴을 깔고 똥을 받아냈다는 히틀러의 심정을 진지하게 상상해 보
라. 너무나 비인간적이었던 독재자는 너무나 인간적이게도, 인간 변기였던 것이다.

현실에서 섹스는 사랑과 다른 공간을 그리면서 그것과 기묘하게 얽혀 있는 소우주이다. 마치
게임랜드를 뒤덮고 있는 안개를 정찰기로 걷어내듯 내 꿈의 별, 화성을 그녀와 단 둘이서 탐사하
길 꿈꾸듯, 우리는 살을 섞는다. 그녀의 등뒤에서 엉덩이를 움직인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
내가 원해서 그녀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번개처럼 내리쳤을 때, 그녀는 고통과 쾌락의 극과 극을
조우한 듯한 비명으로 비자의 커튼 하나를 찢어버렸다. 이제 그녀는 때려달라고 한다. 난 도미네
이터가 아니라 그녀의 연인이기 때문에 그녀를 때린다.

그러나 사도마조히즘이 에로비디오처럼 패키지 상품이 되길 원하는 건 아니다. 그것이 광고 카
피로 뒤덮힌 포르노사이트가 아니라, 백일몽에, 몽정에 속하는 것으로 남기를. 난 에로티시즘에
집착하는 별자리를 타고났다.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아마도, 왜곡된 사도마조히스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난 호모 에로티쿠스로 살아갈 것이다. 얼마나 인간적인가. **11**

인물에 관한 한

최고를 자부합니다

시사인물사전 3

강준만

시사 인물사전 1

시사인물사전 2

● 정기구독을 하실 경우

10권 90,000원을 67,500원에

20권 180,000원을 126,000원에

30권 270,000원을 175,500원에 드립니다.

정기구독 문의는 전화 02/471-4439로 해주시시오.

- 전국의 모든 도서관, 학교, 관공서, 입시수험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폭넓은 대화와 사교를 위해 시사적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일반 교양인들에게 값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1 강준만 외 / 각권 360쪽 내외 / 정가 9,000원

달리는 차를 세우는
마법의 주문

“응가!”



1998년 가을 이프 독자여행에서.

김세중

모 대학의 '한국음악문화서설' 총강 시간.
하루 스물세 시간 이상 켜두는 나의 '핸디
핸드폰'이 이례적으로 울었다. "여보세요...여
...여, 곧 가겠습니다." 강의실로 돌아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종강!" 미리 대기시켜둔
학생 차를 얻어타고
 시내 모 병원으로 향했다. 수심에 찬
장모의 얼굴이 댜 먼저 보였다.
"달이라, 조금 전에 나와서 선생아실 들어갔어."
1999년 12월 1일 오후 6시 8분, 이렇게
나는 둘째 얼굴도 모른 채 딸말이
아빠가 왜 있었다. 딸말이 키우는 얘기는,
좀더 키워보고 쓰자.

그냥 떠나고 싶었다. 아무 데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잠적
하고 싶었다. 단 며칠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숨어 있으면 아무 생각 없는 동행이 있으면 더
좋았다.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마침 하나 있었다. 나와 종씨
인데, 여자였고 게다가 아주 젊었다. 아니, 너무 젊었다.

역시, 아무 생각 없는 그여자는 나의 동행 제의를 대변에 수락했
다. 하지만 워낙 아무 생각 없는 상대이다보니 모든 일정과 비용을
내가 책임지는 건 물론이고, 그여자의 너댓살 분 짐까지 내가 대신
꾸러줘야 했다. 기본사양으로 수건과 세면도구, 첫날 마실 보리차
와 생수와 토마토주스 한 병씩, 약간의 간식, 차에서 들을 CD 몇
장, 여벌로 속옷 다섯 벌, 양말과 짧은 옷 위아래 셋씩, 긴 옷 위아래
둘씩, 점퍼 한 벌, 신발 한 켤레... 거기에 특별한 준비물과 소모품
몇 가지가 그여자를 위해 추가로 필요했다. 승용차 좌석과 숙소 좌
변기에 각각 장착할 특수기구 하나씩, '아○○랑'이라는 하얀 분말
열두 스푼에 '미××산'이라는 노란 과립 약간을 섞은 특별간식 다
섯 통, 그걸 물에 타 빨아먹게 꼭지가 달린 병 네 개(큰 것과 작은 것
둘씩), 뚜껑에 빨대가 달린 물병 하나, 패드의 일종인데 일반 패드
보다 훨씬 길고 넓고 두께는 얇은 것으로 밴드형과 팬티형 열 장씩,
어찌겠는가, 상대는 23개월 갓 넘긴 딸 새미였고 어차피 여행은 내
쪽에서 제안한 것을.

"나 찾는 전화 오면 '말도 없이 에 데리고 가출했는데 어디 갔는
지, 언제 오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 그래."

"어디 가는데?"

"나도 몰라."

"언제 올 건데?"

"모른다니까."

"잘해 보쇼."



아내는 출근하고, 부녀는 어디로 가겠다는 계획도 없이
길을 나섰다. 미시령을 넘어 속초로 갔다가 7번국도를 타고
동해안을 훑을 생각도 없었 해보았지만, 일행을 달아 아무
생각 없는 승용차는 덕소 초입에서 양평 대신 남양주로 머
리를 돌리고 있었다. 어렵사리 샛길을 빙빙 돌아 양평으로 들
어선 차는 이번에는 홍천이 아니라 여주 쪽 길을 향했다. '그
래, 맘대로 가라. 돈 있고 차 있는데 아무 덴들 못 가리?'
점심 먹기에는 이미 한참 지난 시각, 양평과 여주 경계에 제법 폼나는

판자집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다. 햄버거스테이크와 커피와 오렌지주스 하나씩을
시키자 종업원은 한참 실내와 주차장 쪽을 두리번거리다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물러난다. '드디
어 시작이군. 아무튼 예비가 에 달고다니는 꼴을 참보는 놈들이란...' 여행중 삼시세끼 밥 먹으러 식
당 들어갈 때마다, 밤에 숙소에 들어갈 때마다 어김없이 이런 '두리번 가우뚱'을 만났다.

무턱대고 나선 길은 여주에서 영동과 중앙고속도로를 거쳐 제천과 단양으로, 이슬비 내리는 월악산
을 넘어 문경은천으로(1박), 며칠씩 계속될지 모를 빗속을 뚫고 김천 지나 경북과 구마고속도로를 거
쳐 88고속도로를 지나 지리산 너머 온천단지로(1박) 이어졌다. 사흘째는 승주 화순 광주를 해낸 끝에
강진에 닿아 새미 무동 태우고 우산 받고 다산초당을 올랐다. 뉘엿뉘엿 날 저물 때쯤 다다른 해남 땅끝
에서는 사람들이다 "워메, 비 오는데 애기 안고 못 간당계" 하며 말렸지만 바득바득 우산 받은 채 새미
들쳐메고 까마득한 토말비(土末碑)까지 내려갔다 왔다. 고속도로 순례한 길에 서해안고속도로나 타
보자고 영암으로 빙 돌아 목포까지 갔지만 서해안고속도로는 아직 돌리지 않았다. 망연자실, 밤은 깊
고, 사흘 내내 비가 내리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벌써 1,200km 넘게 달린 뒤통이라 둘 다 너무
지쳐 광주 여관에 여장을 풀었다. 1998년 6월 초순의 일이다.

이 여름 새미는 아빠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을 두 번 더 했다. 한 번은 학회 MT로 수안보에 1박2일
(멤버 몇몇이, 참고로 내가 다니는 국악과 대학원엔 남자가 가뭇에 풍 나뒹 한데, 의기투합해 결국은
대전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2박3일이 됐지만), 다음은 전국 학회 건으로 제주도 3박4일.

워낙부터 MT나 회식이나 필드(예를 들어 동해안이나 계룡산 같은 데서 열리는 곳)를 다 따라다

ever dreamt of?

feminist portal site 네띠젠느 netizenne.com
feminist webzine 네띠젠느 netizenne.net
feminist action network 네띠젠느 netizenne.org
feminist ngo's league 넷·타이 nettie.org
feminist media group online 페미니프 feminif.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http://user.chollan.net/~odelmio no commercial approach welcomed

너 '명예 국악과 학생'이 된 새미는 대학원에 다니는, 저랑 같은 쥐띠(나이는 스물네 살 더 많지만) 언니 하나를 유독 따랐다. 이 '언니' (아직 사람을 이름으로 식별하지 못할 때)는 수안보에도 같이 갔는데, 수안보에서 새미를 처음 본 여자선배 하나가 나에게 물었다.

"에 아빠는요?"

"엄마요?"

"아니, '아빠'요."

"제가 아빤데요."

"아니, 그럼 재는...?"

선배는 새미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언니' 딸이고, 나는 그저 학회 따라온 후배 딸 잘 봐주는 다정다감한 아저씨인 줄로 알았다는 것이다.

아이를 달고 식당에 가보면 그 동네, 최소한 그 가게 사람들 인심을 알 수 있다. 갈비탕 한 그릇만 시켜도 "위메, 엄마도 없이 잘도 따라다닌다요잉" 하며 알아서 아이 밥과 국물과 조그만 수저, 포크 까지 갖다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한 그릇만 시킨다고 썰렁한 눈길에, "아이 멀어먹을 그릇 좀 주실래요?", "조그만 티스폰이나 포크 있나요?" 일일이 주문을 해야 마지못해 한 가지씩 갖다주는 집도 있다. 게다가 먹성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찢고 다지고 찢고 말아 떠먹이고 담아주는 일 같은 전쟁이 또 어땠나.

비 오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새미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대화.

"쉬!"

"짜!" (만약에 대비해 기저귀는 채워놓았다.)

"쉬!"

이런 대화가 세 바퀴째 계속되면 무조건 차를 갓길에 대야 한다. 또 다른 상황 하나, 수안보에서 대전 가는 충주호반 국도, 비가 오고, 민가도 구멍가게도 한동안 안 나오는 구간이다.

"옹가!"

"짜!"

"옹가!"

이런 땀 버스정류장이나 나무 밑, 그것도 여의찮으면 우산을 받치고, 팬티형 기저귀를 바닥에 깔고 통을 누인 뒤, 생분해가 잘 되는 배설물은 숲 속에 털거나 길옆에 파묻고(처리하기 전 반드시 양과 색깔과 점도와 냄새를 시각과 촉각과 후각으로 확인!), 환경을 오염시킬 기저귀와 티슈는 절대 길에 버리지 말고 돌돌 말아서 테이프로 잘 봉했다가 휴게소에서 버리든가



김세영

다음 비슷한 상황에서 재활용한다. 다행히 새미가 하루 한두 번씩 반납하는 그 물질은 맨손으로 집어든 손에 하나도 안 묻을 만큼 염소통 일보 직전이어서, 이 '휴대용 변기'는 몇 번이고 재활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아이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운 걸 활용한다. 달리면서 자는 것도 한도가 있지, 쉬지도 않고 단번에 서너 시간, 하루 열 시간 이상씩 달리는 자동차 여행이 아이들 안 지루하겠는가. 그런데 이 꼬마, 달리는 차를 단칼에 세우는 비결을 터득했었다. 다른 게 아니라, 생리적 욕구와 무관하게 "쉬!" 또는 "옹가!"를 집요하게 외치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아빠는 차를 세우고 자기를 데리고 내린다는 인과법칙을 학습해 버린 거다. 양치기소년처럼 말이나 통째로 짐짓 모르는 체하다 "거봐, 이번엔 정말 찌잡아" 하면 "그러게, 어른을 끌리는 게 아냐" 하고 맞아바치자...

이래저래 새미와의 여행에서 일방적으로 망가지는 쪽은 으레 내 쪽이다. 탈진한 징후는 건망증으로 댄먼져 나타난다. 땅끝여행에서 돌아온 저녁, 짐을 풀다가 중요한 물건 한 가지를 빠뜨린 걸 알았다. '좌변기에 장착할 특수기구'. 그러니까 유아용 변기커버를 광주 여관 화장실에 놓고 온 거다. 한 손에 들어가게 작지도 않은 걸 빠뜨린 것도 한심하지만, 무엇보다 아까웠다.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에서도 하루 너댓 번씩 유용하게 썼고, 평소 집에서도 꼭 필요한 물건인데...

아픈 만큼 아빠는 성숙하나보다. 그로부터 2년 반 뒤인 작년 12월말 또다시 새미와 단둘이 떠난 2박3일 제주도 여행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온 물건은 정말 사소한 것 한 가지, 속주머니에 꽂고 갔던 볼펜 뚜껑뿐이었다. 하도 대견해서, 새천년이 밝는 대로 아이 데리고 나가 처음으로 증명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진을 내 여권에 동반자녀로 올렸다. 언젠가 단둘이 떠날 유럽이나 일본 배낭 여행을 위해. [1]

김세영성형외과클리닉

TEL 515-0030

아름다움 속엔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전문의 비화사
김세영



〈숨결〉이 선사하는 '현기증'과 '울림'

변영주 감독의 새 다큐영화 3월 11일 개봉

1. 할머니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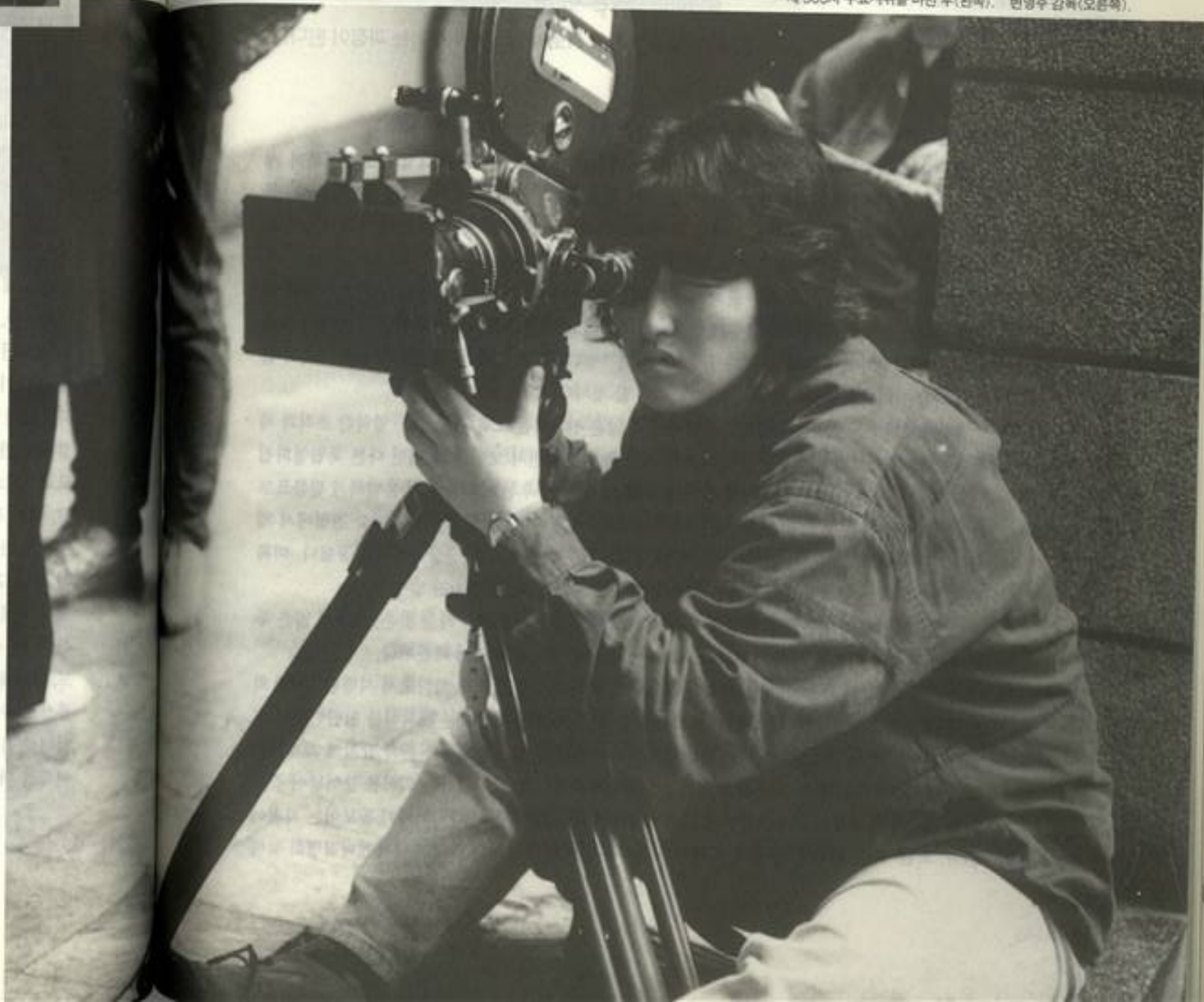
종군위안부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낮은 목소리〉가 처음 극장에 공개 상영됐을 때, 변영주 감독은 연출의 변에서 그 영화를 할머니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평소 변감독이 가장 존경하는 다큐멘터리리스트이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의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말이기도 하다. 삶의 대부분을 일본의 농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데 헌신했던 그는, "나에게 있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일본의 농민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단순히 들릴지 모르나 이 말은 다큐멘터리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연출자가 촬영 대상과 관계 맺는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연출자가 리얼리티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상과 취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작업에 임하는 태도와 세계관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변영주 감독의 종군위안부 다큐멘터리 3부작—〈낮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2〉, 그리고 〈숨결〉—은 변영주 감독 혹은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02-597-5364)이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오랫동안 써온 러브레터다. '러브레터'를 쓸 수 있게 하는 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수신자의 응답이 없어도 열정적으로 편지 쓰기

를 멈추지 않는 것. 오래도록 기다리고 겸허하게 대상의 존재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것. 미세한 낮은 중얼거림과 숨의 결조차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포착하고 남아채는 것. 그리하여 그 중얼거림의 입과 숨구멍을 통해서 육체에 각인된 기억과 역사에 이르는 것.

변영주의 카메라에는 이러한 '러브레터'를 쓰는 자, 사랑하는 자의 미덕이 있다. 어떤 자의적인 논평이나 주석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말을 걸기, 기꺼이 다가가고 함께하고자 함, 그리고 아주 미세한 반응조차 모조리 필름에 기록하는 것. 그러한 면에서 〈낮은 목소리〉 연작은 연서로 쓰여진 역사의 기록이다.

제 365차 수요시위를 마친 후(왼쪽), 변영주 감독(오른쪽).





〈숨결〉이 선사하는 '현기증' 과 '울림'

변영주 감독의 새 다큐영화 3월 11일 개봉

1. 할머니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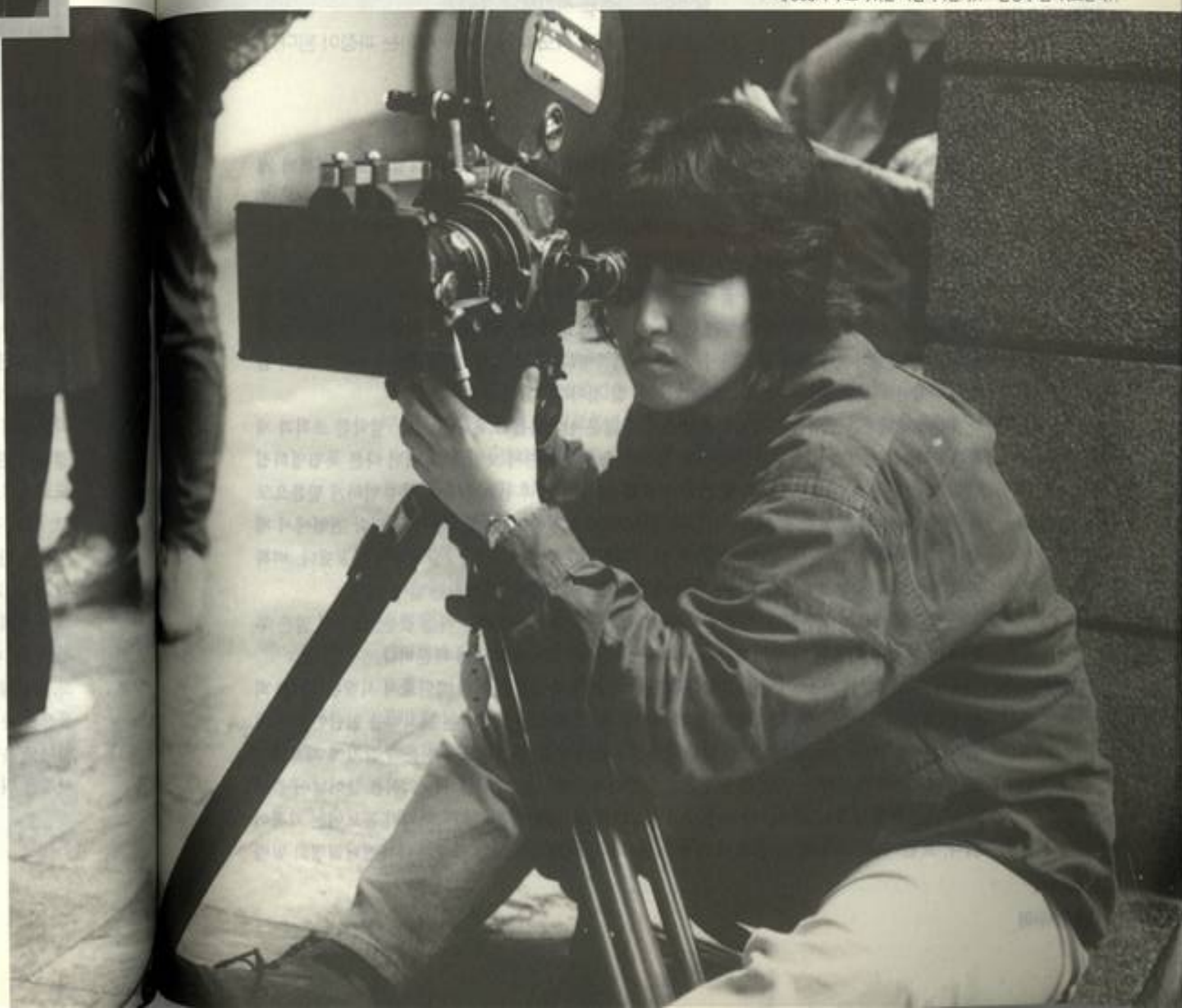
종군위안부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낮은 목소리〉가 처음 극장에 공개 상영됐을 때, 변영주 감독은 연출의 변에서 그 영화를 할머니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평소 변감독이 가장 존경하는 다큐멘터리리스트이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의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말이기도 하다. 삶의 대부분을 일본의 농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데 헌신했던 그는, "나에게 있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일본의 농민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단순히 들릴지 모르나 이 말은 다큐멘터리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연출자가 촬영 대상과 관계 맺는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연출자가 리얼리티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상과 취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작업에 임하는 태도와 세계관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변영주 감독의 종군위안부 다큐멘터리 3부작—〈낮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2〉, 그리고 〈숨결〉—은 변영주 감독 혹은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02-597-5364)이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오랫동안 써온 러브레터다. '러브레터'를 쓸 수 있게 하는 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수신자의 응답이 없어도 열정적으로 편지 쓰기

를 멈추지 않는 것. 오래도록 기다리고 겸허하게 대상의 존재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것. 미세한 낮은 중얼거림과 숨의 결조차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포착하고 남아채는 것. 그리하여 그 중얼거림의 입과 숨구멍을 통해서 육체에 각인된 기억과 역사에 이르는 것.

변영주의 카메라에는 이러한 '러브레터'를 쓰는 자, 사랑하는 자의 미덕이 있다. 어떤 자의적인 논평이나 주석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말을 걸기, 기꺼이 다가가고 함께하고자 함, 그리고 아주 미세한 반응조차 모조리 필름에 기록하는 것. 그러한 면에서 〈낮은 목소리〉 연작은 연서로 쓰여진 역사의 기록이다.

제 365차 수요시위를 마친 후(왼쪽), 변영주 감독(오른쪽).





포이름

61년만에 고향을 찾은 김본선 할머니(왼쪽, 플라우스 차림)와 동행한 아용수 할머니.

〈숨결〉에서는 할머니들이 인터뷰어가 된다. 할머니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매개자가 되고,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위무하는 과정이 된다.

2. 인디펜던트 필름메이커는 무엇으로 사는가

〈낮은 목소리〉연작의 세번째 작품 〈숨결〉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3월 11일 아트선재센터 개봉). 〈숨결〉은 하나의 독립적인 완결된 텍스트인 동시에 그렇지 않기도 하다. 〈숨결〉은 〈낮은 목소리〉연작들과의 상호의존적인 의미망 속에 위치한다. 사실 〈낮은 목소리〉연작이 지니는 중요성은 텍스트 내부에도 존재하지만 또한 텍스트 외부에도 존재한다.

영화의 제작을 둘러싼,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여러 복잡다종한 문제들, 즉 영화를 어떻게 관객과 만나게 하고 소통시키며 공유케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영화제작 비용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이 이룩한 성과와 그것이 묻고온 과제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은 독립영화진영에서 꽤 많은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열악한 조직과 제작환경, 그리고 그것에서 연유한 정신적 빈곤 등을 체험하면서 보임은 그 어떤 다른 독립영화집단도 도달하지 못한 지점들을 한 발 앞서 선취해 온 것이다. 우선 보임은 거의 유일하게 필름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는 독립영화집단이다. 무엇보다도 〈낮은 목소리〉연작은 독립영화 진영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일반 영화관객을 대상으로 한 극장개봉에 성공했다. 비록 관객 동원이라는 양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소박한 성과를 올렸지만 말이다.

〈낮은 목소리〉의 일반극장 입성에 더욱 격려의 무게를 실어주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많은 부분 보임 자체의 치밀한 사전 기획과 노력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낮은 목소리〉의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하나로써 시행된 '100ft 회원제'를 살펴보자. '100ft 회원제'는 영화를 찍는 필름 100ft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일반인들이 지원하는 제도였다. 독립영화로서는 드물게 스타들을 동원한 모집광고를 신문과 잡지에 게재하기도 했던 '100ft 회원제'는 시민들에게 뜻깊은 영화제작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대단히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그야말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기획이었다. 또한 '100ft 회원제'는 좀처럼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기 힘들었던 다큐멘터리영화 일반



암으로 투병중인 강요란 할머니를 방문한 이윤수 할머니.

포이름

에 대한, 그리고 이 경우 특히 사회 주변부에 위치한 종군위안부의 이야기인 〈낮은 목소리〉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화제작에 앞서 잠재적인 관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보임은 관객들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공유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을 찾아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기획, 홍보 및 배급 방식을 모색했다.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순회상영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후원배지 팔기 운동'을 펼쳐 영화제작 및 상영을 일종의 퍼포먼스적 과정으로, 공동체적 실천행위로 전환시켰다.

장기간의 일본 순회상영을 성공시킨 것도 또한 〈낮은 목소리〉의 성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낮은 목소리2〉제작 후에 발간한 『낮은 목소리2 제작노트』는 한 편의 독립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을 관객 및 동료들과 나누고자 한 시도였으며, 또 다른 의미에서의 다큐멘터리이다.

이 땅에서 독립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도 특히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종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대자본과 상업적 이윤추구 논리로부터의 독립, 〈낮은 목소리2〉에서 강덕경 할머니가 그린 〈빼앗긴 순정〉에 등장하는 여성의 나신을 문제삼는 졸렬한 검열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할리우드 식의 신나는, 달콤한, 스펙터클한, 흥미진진한 2시간짜리 '시간여행' 오락영화에 감염된 대다수 관객들의 지각체제로부터의 독립, 다큐멘터리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의 독립.

결국 이러한 겹겹의 난관 속에서 보임의 〈낮은 목소리〉가 이루어낸 결코 낮지 않은 성과는 그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것처럼, "인디펜던트 필름메이커는 무엇에 의존하고 무엇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그를 통한 정체성 찾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3. 숲의 자락에서 역사를 읽기

〈숨결〉은 〈낮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2〉의 연장선상에 있다. 〈낮은 목소리〉는 그 동안 공식적



수오시위에 참가한 할머니들.

이 땅에서 독립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특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중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 역사에서 가려져 있었던 중군 위안부 문제를, 혹은 그들의 존재와 육성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

로지 그들 내부에 둔중한 무게로

깊게 침전돼 있었던 기억을, 서울과 중국 무한을 오가며 그들의 의식 위로, 셀룰로이드 위로, 그리하여 우리의 의식 위로, 그리고 역사의 수면 위로 불러내는 작업이었다. 반면 <낮은 목소리2>는 '나눔의 집'에서 살고 있는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상에 주목하며 영화촬영 이후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참혹한 과거의 기억만이 그들 몸과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꺼안고 투쟁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제는 스스로 자신들의 재현에 기꺼이 개입해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말하자면 <낮은 목소리>의 작업은 할머니들의 마음과 의식 속에, 그것을 통한 그들의 일상 속에, 그리하여 <낮은 목소리2>에 고스란히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숨결>은 <낮은 목소리>와 <낮은 목소리2>에 뒤이어서, 혹은 그 둘 사이에 위치해 있다. <낮은 목소리2>에서 간헐적으로 자신의 표상을 재현해 내던 할머니들이 <숨결>에서는 인터뷰어가 된다. 중군위안부 할머니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매개자가 되고,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은 중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위무하는 과정이 된다. 이것은 또한 다큐멘터리의 시선의 전환이다.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질문자와 해설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중군위안부 경험이 있는 할머니의 내부의 시선으로 그리고 다시 외부의 시선으로, 즉 두 개의 시선 사이를 왕복하면서 중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 사유하게 된다.

중반부에는 다시 감독의 시선으로 옮겨지고, 전체적으로 상이한 여러 예각을 담고 있는 영화는 이제 영화 전편을 두고 가장 의미심장하고 감동스러운, 다큐멘터리의 생명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들을 향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할머니들의 증언과 투쟁의 일상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숨결>에서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뜻밖의' 장면들과 마주치게 된다. 중군위안부 경험이 가져다준 병력 때문에 장애인 딸을 가진 김윤심 할머니와 딸의 대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민망함과 수줍음, 진실을 드러내기 전의 긴장을—감독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이 날 자신의 과거를 딸에게 고백하고 '커밍아웃' 하기로 되어 있었다—감추느라 할머니는 계속해서 재봉틀의 행동을 돌린다. 그러나 그 옆에서 조용히 수화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 어

머니가 딸에게 감추어두었던 진실, 즉 중군위안부 경험과 그로 인한 고통을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추어진 이야기 혹은 진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 갑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의 현기증과 울림을, 그야말로 다큐멘터리의 힘과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이 장면에서 관객들은 다시 한 번 격렬한 동창과 소통의 연대를 확인하게 된다.

<숨결>은 한 할머니의 잦아드는 숨의 끝자락에서 끝난다. 끝내 숨을 거둔 할머니의 마지막 흔적에서 카메라가 멈출 때 그러나 <숨결>은 하나의 텍스트로서의 어떤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낮은 목소리> 연작이 필름으로 쓴 하나의 역사적 사료임을, 그리고 이러한 쓰기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함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많은 동시대인들의, 특히 여성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의 투쟁으로, 때론 가파른 때론 평온한 '운동'의 숨결로 점화될 것임을 믿으면서 말이다. ■

권은선

1968년생. 영화평론가. 서울여성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으며, 현재는 한국영화와 여성영화에 관한 책글들을 쓰면서 전주국제영화제를 위해 일하고 있다.



변영주 약력

1966년 서울 출생.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영화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80년대 영화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인 '장산곶매'와 여성영화집단 '바리터'를 거치면서 <작은 풀에도 이름 있으니>(90), <우리네 아이들>(90) 등의 작품에서 촬영을 맡았다. 그녀의 감독 데뷔작은 제주도 기생관광의 실태를 통해 매매춘과 오늘날의 성의식을 연관지어 다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93)이다. 1993년에는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를 다룬 <낮은 목소리>(95)를 제작, 일본 야마가타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아시아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낮은 목소리> 연작은 영화평론가협회 '영평특별상', 1997년 문화체육부 선정의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타이완다큐멘터리영화제 '메리트 프라이즈'를 수상했으며, 독일 뮌헨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추천, 암스테르담 엠네스티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추천, 뉴욕 여성영화방송인협회가 발표한 '세계여성영화 23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 3월에 개봉되는 <숨결>은 이미 제4회 부산국제영화제 '온파상'(최우수 한국다큐멘터리상) 수상,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9회 '민족예술상' 수상, 한국청년의전화 선정 '올해의 청년상'(문화 부문) 수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소년, 원조교제,

그리고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는 여고시절을 이 땅에서 보낸(혹은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는 중요한 문화적 텍스트이다. 〈여고괴담〉을 보고 그레 맞아, 우리 학교에도 저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선생(남이 아니다)이 있었지, 맞아 여고시절은 충분히 감춰졌어,라며 공분 속에 공포를 느꼈던 이들에게 두번째 여고괴담은 기대 이하거나 기대 이상이다. 전편에 준하거나 더 강렬한 공포담을 기대한 이들에게엔 이하이고, 대충 전편의 화두를 우려냈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이들에게엔 여고생을 심대여성으로 소화해 낸 본질적인 접근, 특히 도발적이면서

도 섬세한 레즈비어리즘이나 심대소녀들의 삶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기대 이상이다.

심지어 이 영화는 전편의 〈여고괴담〉이 장르의 법칙에 따라 정한 '여고의 괴담'이란 틀을 깨고, 여고란 공간을 심대여성에 관한 무한한 담론으로 확장할 여지를 보여준 획기적인 시도로 '여고 시리즈영화'로의 전환점을 보여주었다는 호평도 받고 있다. 무섭지 않다는 항간의 소문을 믿고 이 영화를 지나친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비디오로 찾아보면 과연 기대 이하인지 기대 이상인지 판단해 볼 수 있다. 물론 필자는 후자 쪽이다. 덧붙이면 대체로 심대라는 중요한 시기를 총각선생이나 짝사랑하는 철없는 문학소녀 취급이나 받으며 보낸 이들은 이 영화에 대해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일 만하다. 70년대 임예진이 주연한 〈진짜진짜...〉 시리즈나 알개시리즈,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남학생의 모험담에 순정파로 편승하는 여고생이 나오는 청소년 영화에 비하면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는 가히 군계일학이니까.

심대소녀 = 원조교제?

하긴 한때 심대소녀였던 우리가 잊어버린 여고시절은 한편으론 끔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나름대로 자족적인 빛나는 시절이 아니었던가. 그런 감회에 젖어 이 영화를 보던 나는 새삼 우리 사회가 타자화해 버리고 지워버린 심대소녀의 그 무겁고도 가벼운 존재감을 불현듯 깨닫는다.



우리 사회에서 심대소녀는 청소년 문화와 원조교제 사이에 엉겨주춤하게 걸려 있다. 청소년이라는 말부터가 청소년을 지워버린 채 소년만을 주체로 한 말이 아니던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꽤 오래 전 왜 '청소년'이란 말은 있는데 '청소년'란 말은 없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심지어 그걸 매우 유식한 남자 어른에게 물어본 적도 있다. 나는 소녀라고 배워왔기에 남자아이만 해당하는 청소년이란 말에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유식한 어른은 청소년에는 소녀도 포함된다, 라고 답해줬고, 나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여자애들만 제외한 청소년은 말도 안돼, 라고 너무 쉽게 이 편향된 용어를 접수해 버렸다. 그러나 그건 잘못이었다. 통념상 청소년이 청소년을 포함한다면 서 양성을 포함한 중립적인 용어(이를테면 어린이나 어른처럼)를 개발하고 유통시키지 않은 것은 성인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지워진 심대소녀의 위치를 보여주는 솔직한 고백이다.

청소년 문화에서 소년에 가려진 심대소녀가 요즘 뉴스를 타는 것은 고작해야 원조교제의 당사자인 일그러진 모습이다. 혹자는 미성년자 성학대/ 성희롱이 원조교제라는 말로 완화돼 표현되는 것 자체가 영계문화의 음모라고 하는데, 나 역시 동의한다. 미성년자 성학대/ 성희롱이건 원조교제건 이런 틀에 등장하는 심대소녀는 유희비와 멋부리는 데 쓸 용돈을 위해 나이트 아저씨



조숙하고 남다른 데가 있는 효신은
기이한 행동으로 왕따를 당한다.
소년 같은 외모를 지닌 시은은
육상선수였다가 청각장애에 시달리지만
효신이 집착하는 상대이다.

와 사귀는 겁없는 나쁜애들 취급을 당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다루는 뉴스는 십대소녀와 사귀는, 돈주는 아저씨 쪽에 혐의를 걸기보다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요즘 여자애들이 문제라고 나무란다. 십대소녀가 인정받는 또 다른 경우는 대중가요와 스포츠 스타에게 환호성을 올리는 오펙부대의 일원일 때이다. 이 경우 십대소녀들은 그 왕성한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음반 사재기와 스타 집 지키기, 공연장과 경기장에서 목이 쉬어라 스타 이름을 연호하는 것으로 푸는, 성적 욕망만 왕성한 철없고 주체성 없는 막강한 소비군단이다.

청소년이란 이름 속에 지워진 청소년, 원조조제란 허울 아래 성희롱과 성폭행의 대상이 된 십대소녀, 오펙부대란 이름으로 억압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몸만 큰 십대 소녀들... 이렇게 지워지고 덧칠되고 타자화된 십대소녀를 십대여성이라는 주체로 상정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해 진실로 무엇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비어 있는 진실의 부분, 십대소녀의 주체성, 그들만의 삶의 스타일과 문화를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는 탐구해 나간다.

여성의 시선으로 돌아본 여성주체

공포물로서의 괴담이라는 전편의 아우라 때문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를 화두로 내건다. 그러나 정작 영화 자체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여고생 또래집단의 관계망



이들은 십대소녀들의 삶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파고들어간다. 이 영화를 단 한 번에 봐내기란 만만치가 않다. 일반적인 대중영화의 내러티브란 한 명 혹은 두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물을 돌파해 가는 인과성으로 짜여진다. 그래서 웬만한 관객이라도 한 번 보면 핵심과 부수적인 면모들을 쉽게 간파해 낸다. 그러나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는 복수의 인물들을 겹겹이 내놓으면서, 신체검사 날이라는 하루를 통과하는 과거와 현재의 통합시간대를 설정하고, 우정(특히 레즈비어니즘)과 배신, 오해와 질투, 호기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려 나간다.

이상에 버금가는 난해한 지를 '있다—없다' 말놀이를 사용해 즉흥적으로 울을 정도로 조숙하고 남다른 데가 있는 효신은 국어선생의 편애에 기이한 행동으로 왕따를 당한다. 소년 같은 외모를 지닌 시은은 육상선수였다가 청각장애에 시달리지만 효신이 집착하는 상대이다. 이 둘이 쓴 교환일기를 주위 흠쳐보게 된 민아는 몰래 일기를 보면서 효신과 시은의 관계 속으로 빠져든다.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보며 모방하는 것을 꺼리는 대중영화 관습에서 이런 설정 자체는 여성주체의 시선을 남성의 매개 없이 담아낸다. 그리하여 민아가 보는 교환일기를 통해 현재와 과거에 걸쳐 장황하게 벌려놓은 텍스트를 다시 민아의 시선으로 모아가는 것이 이 영화의 내러티브 전략이다. 시은과 효신이 동료들의 눈을 피해 출입금지 구역인 학교지붕에서 카메라를 들고 노는 장면,

단편영화시절부터
공동 연출로 호흡을 맞춘
김태용, 민규동 공동감독은
이렇듯 십대여성이란 화두를
복원해 내면서 새로운
이미지 내러티브를
구사한다.



화장실에 같이 들어갔다가 선생님에게 걸려 수영장 청소를 하는 장면, 두 페이지를 가득 채운 시은과 효신의 각양각색 스티커 사진이나 미로 같은 지도에 독약까지 든 교환일기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황홀할 정도로 매혹적이다. '레즈 댄스'가 난다며 비아냥대는 친구들과 주변의 시선에 부담을 느낀 시은이 효신을 냉랭하게 대할수록 시은에게 집착하는 효신의 모습은 광적으로 그려진다.

처음에는 양념 같지만 주인공인 시은과 효신의 언저리에 존재하는 민아와 말팔랑이 두 친구들의 생생한 관계방식도 이 영화에 활력을 주는 데 일조한다. 캠프코더로 짝사랑하는 국어선생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몰래 찍고, 그의 사이즈에 대해 농담까지 하는 두 친구는 비장미까지 도는 시은과 효신의 관계 그리고 교환일기의 심각한 내용으로 가라앉아가는 텍스트를 띄워주는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본격 십대 '여성' 영화

이들이 번갈아 드는 캠프코더는 십대여성이 찍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생생한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선이다. 빠르게 이동하는 캠프코더에는 칠판 위 태극기 액자가 장난스레 부르는 애국가와 함께 잡히는가 하면, 두 대뿐인 선풍기가 잡힐 때면 "이게 뭘니까, 학생들 건강을 생각하는 겁니까?"라는 너스레도 더해진다. 화장하는 아이들을 잡고는 "아침부터 뽕칠한다"고 비웃기도 하고, 자는 아이를 카메라에 담고는 밤일 나가느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때론 아이들의 다리를 흘리지만 관음주의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산뜻한 시선이다. 분산된 텍스트처럼 분산된 시선은 관습적이면서도 권위적인 단 하나의 시선을 거부하면서 분방하게 관객을 끌어간다. 영화가 이렇게 분방하게 그러나 매혹적인 자유로움으로 여고생을 십대여성으로 복원해 내려는 의도를 깨닫게 될 즈음이면 더 이상 전편과 같은 공포를 기대하는 생각은 접어두게 된다.

물론 나름대로—전편의 중압감 때문인지—공포장치가 있긴 하다. 효신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후 민아가 귀신의 손길을 느끼고 괴성을 지르며 발작한다든가, 특히 막판에 죽은 효신이 학교 곳곳에 나타나는 장면도 있지만 이미지 전개방식과 전체 의미망에서 공포로까지 나가지는 못한다.

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로 판단하는 이들의 실망—"하나도 안 무섭다"는 것—은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공포영화라는 장르의 법칙보다는 십대여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의미심장한 문화적인 텍스트로 설정하고, 항간의 편견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미는 레즈비언리즘이라는 단호한 화두에 허를 찔릴 각오를 하는 게 영화보기에 도움이 된다.

사실 이 영화의 매력은 전편에서 보여준 관습적 사실주의를 떠나 요즘 십대여성들의 삶의 스타일과 인간관계를 파고드는 미시적인 사실주의적 탐구를 보여주는 데 있다. 친구에 대한 집착과 동성애, 특이한 아이를 왕따시키는 아이들간의 권력관계와 획일주의적인 사고방식,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기. 바로 그 가운데에 십대여성들은 놓여 있다. 그런 십대여성들 중에는 총각선생을 짝사랑하는 아이도 있지만 효신처럼 괜한 이상주의자인 국어선생이 가려해서 봐주느라고 자주는 아이도 있다.

이들은 스타를 추종하는 오빠부대나 돈 있는 아저씨와 만나는 원조교제하는 아이들과 다르다. 학교 안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또 자신만의 삶 속에서 충분히 고뇌하고 재미를 느끼며 사는 여고생들의 일상이 있었건만 그런 당연한 사실은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를 통해서야 비로소 공인된다.

단편영화시절부터 공동 연출로 호흡을 맞춘 김태용, 민규동(사진의 오른쪽) 공동감독은 이렇듯 십대여성이란 화두를 복원해 내면서 새로운 이미지 내러티브를 구사한다. 물론 <아라비아 로렌스>, <피아노>, <블루> 등 명작의 명장면에서 영감을 얻은 이미지장치도 여러 군데 눈에 띄이지만 그건 흠이라기보다 <여고괴담...>이라는 청소년용 대중영화를 명작수준으로 만들면 왜 안되는가, 라는 이유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다시 한 번 고질적인 한국영화의 편견을—어른들 영화는 수준있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영화는 유치하다—깨는 통쾌한 시도이다. [11]

커피인 없는 타이레놀 이야기

커피인, 왜 문제인가?

현대인의 생활은 카페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카페인의 일일복용 허용치는 약 170~200mg 정도인데 흔히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약 85mg 정도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녹차, 초코렛, 과자류, 탄산음료... 등 무수히 많은 식품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카페인이 허용 복용치를 넘어설 경우의 부작용은 무엇일까? 카페인을 매일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차츰 그 양을 높여야만 같은 효과를 느끼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복용량이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복용을 중단하면 두통, 불안, 초조 등의 금단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중추신경계 흥분에 의한 구토, 불면, 현기증 외에도 저혈압, 혹은 고혈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즐겨먹는 커피맛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등에도 들어 있는데, 이는 어린이의 성장을 저해하며, 신경을 자극하고, 수분을 빼앗아 탈수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 정지윤(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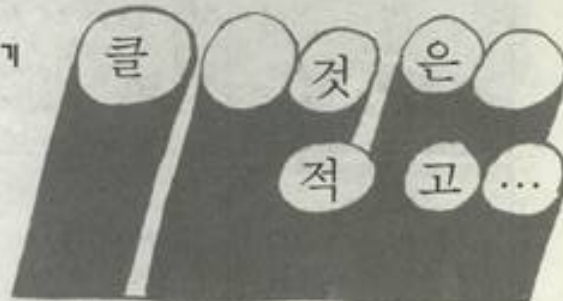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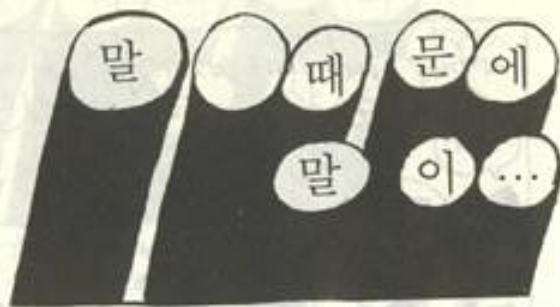
색녀열전

글·그림 / 장차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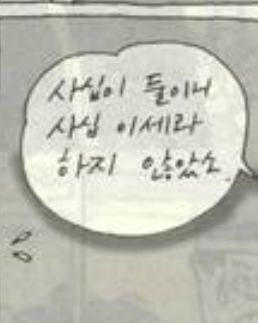
첫번째 이야기

알 패며 느리
인 사 법





나이 천십에 이 초시가
지냈을 것이다.
누가 천십노인에게
시집오라 설어
굴리하던 끝에 이 초시는
나이를 속여 처첩을
얻었다.



REVIEW

book · music · science · cartoon · advertising

REVIEWSCIENCE

요즘 여자들은 살기 편해졌다고?

REVIEWADVERTISING

아기분유 광고모델의 '의미심장' 한 조건

REVIEWCARTOON

김지윤의 '미아' 퍼니 베이비

REVIEWBOOK

if가 붉은 불의 책

REVIEWMUSIC

if가 '딱딱' 미는 여가수 음반



요즘 여자들은 살기 편해졌다고?

디지털 생활혁명, 무엇을 바꾸나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신문을 보며 "미래가 안된다니까" 하는 와침과 함께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해 준 말주연에게 고맙고 대견한 마음을 전한다. 이 원고를 읽고 "엄마 잘 썼어요. 그런데 우리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날카로운 지적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렇지. 너는 나중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의식이 내 딸의 삶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라고 다짐하면서."

"Happy ON, 새천년에도 디지털 〇〇가 행복을 켜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에도 고객 여러분은 사랑만 주십시오. 〇〇전자가 행복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처음 맞는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아침. 선두를 다루는 가전업체에서, 발행부수 선두를 달리는 일간지에, 독자 누구도 지나칠 수 없도록 양면 전면으로 낸 광고의 카피다. 광고에는 '행복이 가득한 〇〇 Digital Family'라는 큼지막한 제목과 함께, 설날인 듯 모두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가족의 모습이 천연색으로 실려 있다.

사진 중앙의 거실에서는 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소파에서 "이제 얼굴 보며 통화하세요—화상전화기"로 고운 한복차림의 젊은 여성과 통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오른쪽 바로 옆에서는 아들이나 사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한 손에 신문을 든 채 안락의자에 앉아서 "이



제 한 손으로 세상을 연다—핸드폰"으로 웃으며 전화하고, 그 오른쪽 방에서는 초등학교 남학생이 책상에서 "The Best PC—멀티넷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며 웃고 있다. 거실 중앙에서 왼쪽으로 보면, 미혼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서 한 손에 든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사운드—MP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면서 "두드려서 청소하는—청소기"로 이리저리 바닥을 청소하고, 거실 바닥에는 분홍색 한복차림의 여자 어린이가 옆드려 분홍색 카세트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며 분홍색 그림책을 보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의 부엌에서는 머느리나 결혼한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요리사가 집으로 찾아가는—가스오븐레인지"와 "품격 높은 생활의 파트너—식기세척기" 옆에서 오렌지주스를 따르고 있다.

이 광고 상단에 보이는 "세상을 바꾸는 힘—디지털 〇〇"라는 문

구는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이 사진에서, 그리고 디지털로 무엇이 바뀌었던 말인가? 최신 디지털 가전제품으로 가득한 이 집안의 남자와 여자는 예전과 다름없이,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남자들은 편안히 앉은 자세로 최첨단 사고와 취미를 즐기고, 여성은 서서 전통적인 집안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자들이 예전에는 등을 구부린 채 바닥에 엎드리거나 꾸구리고 앉아서 해야 할 집안일을 서서 음악까지 들으며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인가?

가전제품에 대한 몇가지 통념

"요즘 여자들은 살기 좋아졌어. 수도꼭지만 틀면 찬물, 뜨거운 물 다 나오지, 버튼만 누르면 밥도 되고 요리도 되지, 설거지는 식기세척기 사용하면 되지, 세탁기가 빨래 다 해주지, 청소도 진공청소기만 밀고 다니면 되잖아. 게다가 요

즘 남자들은 의식이 바뀌어서, 거리낌없이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하고 청소 도와주고 기저귀까지 갈아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간이 남지."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앞에 든 광고에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집 또는 가정이라는 단어는 보통 따뜻함과 휴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집이 가족들의 '쉼터'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수없이 많다. 빨래, 다리미질, 장보기, 요리, 설거지, 육아, 집안 대소사 챙기기 등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 지난 100여 년간 기술의 발전은 여성을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통념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상하수도과 가스, 전기시설이 갖추어지고 냉장

통합제도, 이런 가전제품이 급속히 확산된
192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
미국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고, 세탁기, 다리미, 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개발되어 급속히 보급되었다. 일찍이 일터에서의 기술 발전에 의한 산업혁명으로 생산노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전체 사회의 구조가 바뀌게 되었듯이, 각종 가사보조용 설비기술과 가전제품의 도입도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 그리고 가정생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가전제품의 개발은 가사노동의 육체적 강도와 시간을 덜어주고, 여성만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이 보다 많은 여가를 누리고 가정 밖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남성과 여성간의 성별분업과 불평등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세탁과 청소에 예전의 빨래판이나 손걸레 대신 전기세탁기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작업이 육체적으로 훨씬 수월해지고 시간도 절약된다.

또 이런 기계의 작동은 간단하고, 손에 물 묻히고 바닥에 몸을 구부린 자세로 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남성들도 심리적 부담 없이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가전제품이 급속히 확산된 192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 미국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새로운 가전제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도시지역과 낙후된 농촌지역 간에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남녀간의 가사분담 정도나 유형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기계화될수록 여성은 '혁혁'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간편한 상하수도과 온수공급 시설, 전기 세탁기와 다리미를 이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세제와 구김살 없는 옷감이 개발됨으로써 가장 큰 노동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탁 관련 작업의 경우, 오히려 그 소요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각자 보유한 옷가지의 수가 늘어나고, 세

탁 작업이 간편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청결과 위생 관념, 옷매무새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자주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요리도 손쉬운 조리기구가 발전하고 슈퍼마켓이 확산되면서, 매끼 식탁에 오르는 음식 가짓수와 조리방법이 훨씬 복잡해졌다. 청소시간에도 별 변화가 없고, 쇼핑과 가게관리, 육아에 들어가는 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가사노동이 쉬워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 새로운 종류의 가사노동이 출현하고, 기존의 가사노동이 정교해지고 기대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의 총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진다. 발전된 가전제품 덕분에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남성이 담당하거나 공동으로 하던 가사노동마저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기도 한다. 각 집에 놓인 전기세탁기는 예전에 빨래터에 모여 수다 떨고 스트레스 해소하며 빨

래할 수 있었던 재미를 앗아가기도 한다. 과거에는 힘들고 귀찮은 허드렛일로 여겨져 경제적 여건이 되면 당연히 하인을 두거나 살일로 맡기는 것으로 알았던 가사노동이, 이제 가족에 대한 애정과 헌신의 표현으로 미화되고, 가사노동의 수준에 있어서 '이상적'인 엄마와 아내의 기준도 높아간다.

앞으로 정보화는 가사노동에 또 다른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한다. 1세기 전 가전제품의 개발로 가능해진 기계화(mechanization) 단계에서 더 나아가 가사노동의 자동화(automation)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노동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 의료, 행정, 경제활동 등에 집중되었고, 가사노동은 사소하거나 거의 낭비에 가까운 것으로 치부되어 도외시됨으로써 정보기술의 도입에서 가장 뒤떨어진 부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여 년 전 1차 디지털혁명의 핵심은 기업과 사회의 정보화였

던 반면, 새천년을 맞은 이제 새로운 디지털혁명의 무대는 가정이라는 전방과 함께 '집안일' 알아서 척척 해주는 스마트

하우스나 '잘잘다 한 마디에 커피포트'를 끓이는 디지털 생활혁명의 대륙적인 미래상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서구에서 가장 정보화 모델로 태어난 '스마트 하우스' 프로젝트는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부들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실제로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가보다는 집안에 बैठ는 최첨단 홈바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관심사였다. 미국의 프랜시스 게이트(Francis Gabe)라는 여성이 27년간의 연구 끝에 가

사노동을 원천적으로 없애줄 수 있는 '자동청소형' 주택을 고안하여 실현하는 데 부딪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장벽이, 이런 아이디어가 쓸모있는 것임을 납득시키는 일이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도 가사노동의 성격과 수행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보조용 로봇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신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잘잘다" 한 마디에 커피포트의 물이 끓을 만큼 가사노동이 수월해지고 자동화된다는 하더라도, 그 "잘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여성이어야 한다면 인식의 바뀌지 않는 한 여성이 '잘잘다'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



내게 거짓말이라고 해봐!

아기분유 광고모델의 조건



이남경

지난 가을호 광고리뷰에서 '왜 대형차 광고에 여자는 없는가'에 대해 쓴 적이 있다. 얼마 전 한 시사잡지에서 방송인 박찬숙씨를 모델로 한 대형차의 광고를 발견했다. 드디어 여자를 대형차의 주인으로, 즉 실 구매자(구매자의 동승인이 아닌)로 인정한 셈이다. 늦게나마 이런 광고를 보게 되어 다행이다. 그런데 그 광고 만든 사람, 99 가을호를 봤을까?

지난해 유난히 많은 여자 연예인이 아기를 낳았다. 하희라, 신애라, 오연수, 옥소리, 김희애, 이영현... 그리고 '특정' 몇몇은 비슷한 시기에 분유광고 모델이 되어 브라운관으로 돌아왔다. 그 '특정' 몇몇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젊고 건강하고 인기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머지' 몇몇에게도 공통점은 있다. 젊고 건강하고 인기도 있지만 아쉽게도...

그 두 그룹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분유 3사의 광고(매일유업, 남양유업, 일동후디스)를 중심으로 '광고 속의 엄마와 아기'를 살펴보자.

"똑똑하게 키울거야"

분유회사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출산을 마친 여배우를 한 명씩 모셔갔다. 먼저 <매일맘마Q>(광고1)의 김희애, 가장 공부할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뽑힌 적이 있으며,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학구적인 이미지의 배우 김희애, 한때는 한국의 빌

게이즈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찬진이 남편으로 두고 있는 그녀는 분유광고 모델로 충분히 매력적인 존재다. "아빠보다 더 똑똑하게 키울 거"라는 멘트로 젊은 엄마들을 설득하던 요즘엔 "엄마는 역시 똑똑하고 봐야 돼"라고 하면서 둘째아이까지 맘마큐로 키우겠다고 선언한다(실제로 그녀는 둘째아이를 가졌다).

첫 출산 이후 일동후디스 <아기밀>의 모델인 김연주, 임백천 부부(광고2), 지적인 이미지의 MC 김연주 역시 분유광고모델로 탐낼 광고1.



광고3.

만한 인물이다. 특이하게도 남편 임백천이 "누굴 달아 이렇게 똑똑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편 임백천보다) 좀더 지적인 김연주를 '아기가 달아야 할 똑똑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에서 우리말과 영어로 동시진행을 맡기도 한 그녀는 국내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남양유업 <아기사랑>의 신애라와 오연수(광고3)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들의 경쟁 상대는 분명하다. 두 사람의 남편까지 동원해도 딱히 학구적인 이미지랄 게 없는 신애라와 오연수. 앞의 두 경쟁사를 의식한 건지 "누구보다 더 총명하게 키울 거야"라고 맞받아친다. 즉, '아빠보다 더~'나 '누굴 달아~'가 불가능해지자 '이찬진이나 김연주보다 더 똑똑하게'라는 의미의 카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세 배우는 분유 3사의 모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건강하고, 젊고, 더러는 학구적이기까지 하고, 하지만 여기엔 '사소

하지만 엄청난 출연비가 숨어 있다. 최근에 출산을 마치고 분유광고 모델로 발탁된 김희애, 신애라, 오연수는 모두 아들을 낳았다. 물론 우연일 수 있다. 아들이 태어났다가 아들 출산비용이 딸을 앞질러 버린 것은 이미 사회적 추세이므로 예닐곱 명의 여자연예인 중에서 3명쯤이야 아들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고도 옥소리, 이영현이 분유광고 모델에서 빠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연히 딸을 낳은 두

사람만 제외된 것인가? 출산을 알 둔 예비엄마들이 "저기 먹었다가 나도 딸 낳으면 어떡해? 기왕이면 아들 낳는 분유를 먹어야지" 하고 마음먹을까봐? 집에, 결혼,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연예인의 온갖 생활상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사생활과 재물이 아무런 연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연예인의 이미지는 곧 제품의 이미지다.

'저 분유 먹으면 김희애, 신애라처럼 아들 낳을지도 몰라' 하는 기대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게



광고2.

남양유업 아유식 스텝업선 프리미엄 광고의
아나운서 신은경



블루색의 옷으로 아기가 남자임을 암시한다.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아니, 더
우울한 생각도 든다. 웬지 딸 낳은
엄마는 본인이 딸을 원했던 아니
든 간에 아들 낳은 엄마에 비해 부
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
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모델이 공통으로 외
치는 "똑똑하게 키울 거야"라는
다짐조차 불온하게 들린다. 마치
똑똑하게 키워야 할 대상에서 여
자아이는 제쳐놓은 것 같으니 말
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아들을
낳고도 분유광고 모델에서 빠진
하희라, 그녀의 유산경험이 분유
광고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았나
보다.

6년 전 첫 출산 후 일동후디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주, 출
산한 지는 좀 지났지만 최근에 남
양유업 스텝업선 프리미엄의 모델
이 된 신은경(전 KBS 아나운서)의
경우는 그런 면에서 참신하다. 그
녀들에겐 어린 딸이 있다.

아기모델에게도 성구분은 있다
엄마역할을 아들 낳은 연예인이
맡았다면 아기는 남자아기 또는 남
자아기처럼 '보이는' 아기가 딸은

다. 물론 실제로 아기의 '물건'을
직접 보여주면서 '봐! 고추잡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남
자아기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기저귀만 차고 나오는 아
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바로
아이가 입고 있는 옷 색깔과 소품
이다. '남아는 블루, 여아는 핑크.'
기저귀, 양말, 소품, 아니면 전체
적인 색조를 블루톤으로 하여 남자
아기임을 암시한다. 핑크색 옷을
입은 여자아기를 메인 모델로 하
여 '남자아기용도 있습니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
다. 남아 여아가 동시에 등장하거
나 공주풍의 여아원피스를 광고하
기 전에는 말이다(칼라로 보여줄
수 없어 유감이다).

공주풍의 원피스나 특별히 여자
아기만을 위한 제품인 경우에는
색깔 말고 또 하나의 상징물이 필
요하다. 바로 리본이나 꽃핀, 레이
스 장식 등이다. 남자아이가 덴머
리로 나오는 거에 비해 여자아이
에게 예쁜 꽃리본은 필수다. 한 마
디로 기저귀 한 장이면 남자아이,
뭔가 장식물이 붙으면 여자아이란
동식이 성립된다. 남자는 그냥 작

가, 여자는 여류작가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기들
에게도 적용되는 셈이다.

딸 낳은 엄마들은 알고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아이를 위한 기
저귀를 쓰고, 남자아이를 위한 옷
을 입으면서 마치 여벌로 태어난
존재처럼 철저하게 부속물로 취급
한다는 것을.



여자아기는 공주풍의 원피스를 입고
레이스 장식 모자를 씌운다.

21세기는 3F(감성 FEELING, 상
상력 FICTION, 여성성 FEMININE)
의 시대라고 한다. 새천년엔 여성
과 미래의 여성에게 우호적인, 그
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광고가 나왔
으면 좋겠다. 이번 글은 100% 추
측성 글이 되길 바란다. [1]

아기에게 아기피부만을 위한 'NUK'을 권하셔요

NUK

이프의 새로운 주소를
기억해 주세요!



이프가 지난 2월 7일 자로 주
소와 전화번호를 변경했습니
다. 다음 주소와 연락처를 꼭
기억해서 다른 곳에 연락하는
고생하지 마세요!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
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610호

전화번호: 02-708-4550~3

팩스: 02-708-4554

E-mail: feminif@chollian.net
iftopia@hitel.net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와서 대
학로 쪽으로 100m 가량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 기독교회관 뒤에 기독교
연합회관이 있습니다.

로맨스와 결혼, 그리고 육아의 어려운 접속

김지운의 「마이 퍼니 베이비」



난나

73년 생. 날라리 만화가.
만화를 그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다.
열심히 만화를 고안하고
더불어 열심히 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순정만화가가 결혼 못한다?’ 혹은 ‘순정만화가가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는 여성이 태반인 순정만화 작가들의 절대다수가 독신(혹은 만혼, 혹은 이혼)이라는 이유로 만화계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들이다. 확실히 만화가라는 작업 환경상, 경제사정상의 어떤 특수성—결혼 적령기랄 수 있는 시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차압당하는—은 결혼을 선택할 필요나 명분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긴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순정만화 작가로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김지운(34)은 특이한 존재라 할 수 있겠다. 스물여섯 살의 적당함(?) 나이에 기업체 회사원과 결혼, 두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가사·육아와 작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3권으로 완간된 「마이 퍼니 베이비」(도서출판 대원)는 어머니이자 주부인 김지운의 경험을 반영한 작품이다. 대학생 부부 김수진, 김종민의 신혼을 유쾌하게 스케치한 「마이 퍼니 레이디」

의 속편으로, 결혼과 연이은 출산으로 작품 활동이나 성과가 한동안 저조했던 작가의 재기작이 되었다. 작업 노동량의 부담을 피해 짧은 호흡으로 에피소드를 끌어갔음에도 전체적으로는 결혼과 육아라는 통일된 주제와 내러티브를 지닌 장편으로 깔끔하게 재구성되어 있다.

육아만화는 최정현의 「반쪽이의 육아일기」나 마리오 라가와와 「아기와 나」 등의 히트작들로 이미 우리 독자들에게 친숙하다. 「마이 퍼니 베이비」는 본격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문제화한 첫 시도라는 미덕 때문에 앞서 두 작품 이상의 주목을 받을 이유가 있다. 특화된 전문 영역의 소재가 만화화되는 추세가 활발한 만화 현실에서 육아나 가사의 영역 역시 주부라는 관련직업 종사자의 관점과 방식으로 적극 활용된 것이다.

주요 생산자와 수요자가 여성이면서도, 결혼과 육아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여성문제를 다루었던 순정만화는 드물었다. 대체로 소녀

와 미혼여성들의 욕망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순정만화가 ‘실제적 상황과 유리된’ 환상을 현실인 양 공모한다는 오래된 혐의에 일말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전업주부의 미화?

「마이 퍼니…」 시리즈의 두 주인공은 일단 순정만화적인 로맨스를 기반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긴 하다. 대학 신입생과 복학생의 관계로 만난 그들은 첫눈에 반해 그대로 결혼해 버린다. 선남선녀가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신뢰하는 예쁜 러브스토리는 수상하게 반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고전적인 해피 ‘엔딩’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신선하다.

신혼생활을 시부모와 한 살림으로 시작한 김수진이 결혼 이후 새로운 관계에서 경험하는 좌충우돌 소동들이 「마이 퍼니 레이디」의 주요 내용. 구체적인 일상으로서의 결혼을 과감한 섹스 장면이나 대사 등으로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진작부터 화제를 부른 바 있

다. 약간의 유지기를 두고 이를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로 ‘적나라하게’ 발전시킨 것이 「마이 퍼니 베이비」이다.

이 작품에서는 눈앞이 어질어질, 세상이 시커멓게 죽어보이는 ‘임신 선고’에서 시작해 취학 가



가늘가늘 마냥
곱기만 하던
김수진도 스무
살이라는 나이에
이른 임신을 하고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여주인공의
매력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된다.



여주인공 김수진은
스무 살에 쌍둥이
엄마가 된다

한 나이로 쌍둥이 아들이 성장하고 난 후까지 수진과 종민의 가족사가 스피디하고 경쾌하게 전개된다. 그림, 스토리, 연출력에서 두드러지는 속도감과 발랄함은 작가의 공인된 특기이다. 주인공 김수진만 해도 작가 김지윤이 창조한 여성캐릭터군의 물리적 환경과 외모, 성격적 전형성을 고스란히 확보한 인물이다. '순진무구하면서도 현대적인 여성'이라면 상큼한 활력으로 로맨스를 조직하는 순정만화 여주인공의 인기있는 캐릭터 유형 아닌가.

그런데 가늘가늘 마냥 곱기만 하던 김수진도 스무 살이라는 나이에 이른 임신을 하고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예상치 않은 육체적, 심리적 고단함으로 로맨스 여주인공의 매력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된다. 몸이 붙어 살이 늘어지고, 아기들의 구토나 똥과 싸움하면서 품날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구나! 육아는 정말 이지 대단한 중노동이야! 김수진이 엄마가 되어가는 지난한 과정은 만화를 보는 미혼여성을 새삼스럽게 불편하게 만들 정도다.

아쉬운 마무리

그러나 매 상황을 '가련하게' 돌파하고 마는 장한 아내-어머니-며느리 김수진. 남편과 시대, 친정식구들의 애정과 배려가 피로에 지친 그녀의 낙천성과 씩씩함을

독려한다. 그러나 아기 쌍둥이는 날이 갈수록 말썽의 스케일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악다구니를 연출한다. 그러나 그녀,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통과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다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 난 그저... 귀여운 아기를 안고 따사로운 봄별 사이로 산책하는 부부의 행복한 광경만 상상했었는데..."(1권, 76쪽)라고 푸념하던 그녀이지만 모성은 실로 위대하기 때문이다.

가정에 대한 김수진의 이러한 애정과 사명감은 두번째로 임신을 하면서 어렵게 취직한 잡지사 사직하는 결단으로 이어진다. 그녀가 직장생활을 하며 절감한 '가장 소중한 일'이라면 '내 아이들과 놀아주고 적절한 운동과 여가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3권, 76쪽)이었다.

직장생활의 포기과 함께 작품의 재미를 조직하는 동력이었던 김수진의 '고군분투'는 마무리된다. 직장일과 회계사 공부를 병행하는 남편 종민의 치열함과 대비될 수밖에 없는 수진의 안주, 세번째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수진과 가족들의 '가슴 혼 혼한' 장면은 육아와 일을 끌어안고 버둥대는 아줌마의 지리멸렬한 대오에서 전업주부로 선회한 행로를 미화시키는 듯 보인다. 이런, 결국은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해피홈의 로맨스? 미약하게나마 유지되던 그녀의 사회적 욕망이 정지하면서 작품은 긴장을

잃고 급속도로 순정만화의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회귀한다.

지금·여기·우리 여성의 이야기

성인여성의 가정사를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그려낸 작가의 '일부'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전체'가 되지 못하고 두려움과 서글픔의 일상적 감성이 제거된 오래된 동화의 세계로 편입되어 버린 것이 못내 아쉽다. 주류 순정만화적 로맨스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음에도 결과적으로 모성신화를 재생산, 확대하는 결계 안을 산책하고 돌아오고 만 것은 아닌지. '어머니와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보다는 본질적인 관계나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할 순 없었을까.

그러나 여성들에게 실로 광나는 대안이라는 것이 있긴 할까? 그녀의 작품 역시 일과 가사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여성의 직접적 고민과 경험의 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싶어진다. 김지윤은 또 다른 육아만화를 연재하는 잡지 '앙팡' 대담(1999년 12월호)에서 육아와 만화작업을 병행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고충과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 있다. 그리고 김수진의 최종 선택이 실상 어머니로서 그녀가 꿈꾸는 이상적 상황이라고 부연하기도 한다. '마이 퍼니 베이비'의 결말은 그래서 통속적 추락이기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작가의 현실적인 모색이며 하나의 선택인 셈이라고 자



위해 본다.

여성 정체성의 진정성보다 소녀적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작품 위주인 순정만화계에서 지금·여기·우리 여성의 이야기는 소재적 차원이거나 발굴되고 성숙할 필요가 시급하다. 이 바람은, 순정만화 작가들이 독신을 유지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하이틴 로맨스의 환상에 구속된 미숙한 소녀적 감성과 태도 때문이라는 유력한 해석을 거부하려는 발악과 궤를 같이한다. '매혹'보다는 '공감'으로 여성독자에게 접근하는 작가 김지윤에 대한 기대는 순정만화라는 여성 주도 대체의 건 강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다름아니다. [7]

if가 봄은 봄의 책

소설

『그 사람의 첫사랑』

(배수아 지음 · 생각의 나무 펴냄)

‘실체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 충실해야 하는 것은 역할이다. 그것이 조직인간이다.’

그녀의 차가운 다짐처럼 군, 무열, 김무사, 시로 등 비현실적인 이름을 가진 배수아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들이 맡은 일정한 캐릭터를 연기하고서 책을 덮으면 사라진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스쳐가는 어떤 순간이다. 그러므로 지리멸렬한 삶의 어느 순간을 클로즈업하는 그녀의 축수는 귀기가 서려 있으나 삶의 고단함을 어

루만지는 손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싸늘하다.

『情은 눈지도 알아』

(이경자 지음 · 문이달 펴냄)

가부장적 폭압에 맞서 ‘홀로서기’를 꿈꾸는 여성캐릭터들을 그려냈던 작가가 본처와 첩실의 대립문제를 인연과 운명의 관점으로 풀어내며 찰지고 속깊은 정을 애무한다. 자칫 페미니즘에서의 전향(?)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질박한 강원도 사투리의 조근조근한 입말 속에서 애증의 환부를 원초적인 삶의 문제로 끌어안는, 싸워본 자의 아량이 웅숭길다.

『어떤 나들이』

(박민서 지음 · 문학동네 펴냄)

쓸데없는 수사나 과장이 없는 박완서의 소설들은 지나치다싶게 극적인 사건도 멋드러진 인물도 없다. 일상을 짓누르는 부조리를 소리도 없이, 무게도 없이 노력하다가 여윌 있게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인간사의 거대한 중앙감들의 실체를 슬며시, 잡아채는 노련한 포집망을 지녔다. ‘분단’, ‘중산층의 삶’, ‘여성문제’로 대표되는 작가의 문제작들을 연대기별로 묶은 전집의 제1권에 해당하는 책.

『열집여자』

(박성현 지음 · 창작과 비평사 펴냄)

내 본심과는 달리 내 소설들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싶어한다고 말하는 하성란은, 개개인의 본질



봄은 봄의 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과 갈등의 거래방식을 정밀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훑고 있다. 전업주부, 세일즈맨, 매장의 감시요원, 횃집주방장 등 평범한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부품으로 마모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기 고통스러울 만큼 느린 화면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꿈이었을까』

(문희경 지음 · 현대문학 펴냄)

은희경의 문체는 너무 말쑥해서 기본 나뭇 가지가 있다. 삶의 나약함, 초라함, 청승, 비루함마저 잘 세탁해서 다듬질해 놓는 재주가 남다르다. 인간에 대한 불신과 위악의 포즈가 주 특징인 그녀의 모델들은 변함이 없으나, 이전 작품보다 작가의

개입이 덜하다. 암튼 변신을 꾀하고 있는 그녀의 행보가 궁금하다.

기타

근친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사랑의 무게』(정길연 지음 · 이룸 펴냄), 엇비슷한, 의례적 일상의 권태로부터 일탈과 전복을 꿈꾸는 자들의 에피소드를 담은 『열세 가지 이름의 꽃향기』(최윤 지음 · 문학동네 펴냄), 삶의 중후반에 들어선 중견 여성 작가들의 신작 중단편 모음집, 『인생상당 듣는 여자』(윤명혜 외 지음 · 바다출판사 펴냄), 자유분방한 남매의 갖가지 에피소드를 담은 『맨스필드 파크』(제인 오스틴 지음 · 김지숙 옮김 · 움직이는 책 펴냄) 등이 나왔다.

김정복(자유기고가)

중세의 대대적인 마녀사냥의 희생자 중 90% 이상이 여성이었다. 왜 하필 여성이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화려한 활약을 펼친 성녀도 함께 등장했다. 『여성에게 문화는 있었는가』(이게가미 순이치 지음·강웅천 옮김·사계절 펴냄)에서는 남성들의 극단적인 여성혐오와 여성승배이데올로기 속에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었던, 마녀와 성녀의 모습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본다.

『시대를 앞서간 여자들의 거짓과 비극의 역사—조르주 상드에서 애가사 크리스티까지』(로사 몬테로 지음·정창 옮김·작가정신 펴냄)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심지어는 '미친 여자'로 치부됐던 여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담았다. 그것은 사악하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잣대로 해석되던 그녀들이 훨씬 풍요로운 존재로 되살아난 것만은 사실이다.

한비야가 해남 땅끝에서 민통선까지 우리 땅 우리 사람들을 만났다.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한비야

지음·푸른숲 펴냄)에서 저자는 내 발로 직접 걸으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가슴으로 직접 느낀 국토는 더 이상 지도 위의 한 조각 땅덩어리가 아니며, "애국은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땅을 사랑하려면 제 발로 국토를 한번 걸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작년에 솔직한 성교백서를 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서갑숙이 이번에는 누드에세이를 냈다. 『누드/연적/18』(글 서갑숙·사진 이영자·영미디어 펴냄)은 길의 원형인 실크로드에서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담았다. 그의 가슴에 길게 난 칼자국이 인상깊다. 대상화된 여체에서 많이 벗어나고자 했으나, 그래도 그 시선이 좀 불안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

『재혼 그리고 함께서기』(마주해 지음·국민일보 펴냄)는 재혼안내서다. 부인과 사별한 남편, 그의 두 자녀,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네 자녀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까지의 힘겨웠던 과정들을 담았다. 어려움의 극복과정이 신앙간증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쉽지만,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된 사람들의 이성교제와 재혼길라잡이로서 그냥 읽어볼 만하다.

또 하나, 레즈비언들의 섹스길라잡이 『섹스 말하기』(한채운 지음·해울 펴냄, 구입문의 706-5196). 저자인 한채운은 동성애잡지 『버디』의 편집장. 이 책은 레즈비언들의 행복한 성생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제동서이며 안내서인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도 솔직하게 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다뤘다.

윤숙경

한나 아렌트의 『폭력의 세기』(이후 펴냄)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20세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공한다. 제2의 로마 북셈부르크로 불리는 저자는 20세기를 전쟁의 세기, 혁명의 세기로 규정한다. 20세기는 '과학기술

의 발전'이 뚜렷한 시기로 흔히 '진보'의 시기로 불려왔지만, 저자는 20세기를 언제나 목적을 내세워 폭력수단을 정당화하는 시기로 파악한다.

그녀는 또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을 반박하면서 폭력과 권력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역설한다. 권력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상호간의 동의와 지지에 바탕하는 반면 폭력은 권력을 잃은 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단'으로, 강제와 복종만을 지향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폭력행위를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며 인간의 행동능력을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일본의 저명한 여성학자인 우에노 치즈코가 쓴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펴냄)는 한국의 정선대할머니들의 고발을 지켜보면, 일본땅에 사는 여성지식인으로서의 심란한 고민들을 정리한 책이다. 치즈코는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는 역사적, 사회학적 의미를 살펴면서, 그 속에서 교묘하게 위장된 젠더(양성간의 신체적 차이와 구별되는, 남녀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를 찾아낸다.

또 하나의 문화에서 나온 15번째 동인지 『여성의 일하기 세상바꾸기』는 한국땅에 발을 딛고 21세기를 살아야 할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

다. 각종 미디어에선 21세기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97년 IMF 이후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은 여전히 실업과 임시직장의 경제선에 놓여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이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 데 있었다면, 이제는 닫혀져 있는 사회를 향해 일을 내놓으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리 높여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집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여성의 조직을 꾸리고 연대하는 이들의 씩씩한 모습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P여고 학생들의 장래희망은 대단히 진지하고 긍정적이어서 부럽기까지 하다. 이 힘든 세상에 뭐 하러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여성들이라면 '적금을 들지 못하는 여자의 결혼이야기'를 읽어 보길 권한다.

SF 하면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공상과학소설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SF야말로 복잡다단한 현대문명사회에서 새로운 미학적 은유의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이라는 일종의 은유를 통해 편견에 가려져 있는 진실이나 부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SF는 상당히 매력적인 장르이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SF작품들은 신간은 아니지만, 국내에 소개된 몇



안되는 여성작가들의 작품들이며, '모두가 수용하는 현실'에 대해 섬뜩한 상상과 비유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작들이다. 『세계유명SF결집선』(홍인기 편역, 도솔 펴냄)에 실린 단편 「채소마누라」(땃 머피 지음)에서 농부 편은 병들지 않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갖기 위해 '채소마누라'의 씨앗을 뿌린다. 채소마누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성욕을 함께 키우던 그는 성장한 채소마누라가 도망치려 하자 강간하고, 사슬로 묶어놓는다. 그리고 뱀은 몸을 지방관리에게 보였다는 이유로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한다. 여성을 식물(채소)에 빗대 자신의 성적 충족만을 채우려는 남성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또 하나의 단편, 「사랑하는 내 딸들이여」(코니 윌리스 지음) 역시 SF라는 장르적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여성의 수동성을 찬양하는 남성들의 욕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세상의 아버지들이 '딸'의 전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을 위해 또 다른 대속자를 이용하는 비정함을 중첩된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

어슐러 K. 르권의 장편소설 『어둠의 원소』(시공사 펴냄)은 여성과 남성의 양성(兩性)을 모두 가진 외계인과 한 지구남성의 감정적 일치를



그런 작품으로 지구인 켄리가 행성 카르하이드를 방문하여 우주연합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다. 그곳에서 만난 카르하이드행성 사람들은 여성도 남성도 아니며, 26일마다 남녀 변신이 가능한 독특한 생물학적 구조의 생명체이다. 켄리가 그 곳에서 양성을 가진 카르하이드인들을 진정한 동지로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섬세하게 그려진다. 이 밖에 여성사에서 펴낸 『세계여성소설결집선 1, 2』(조안나 러스 외 지음) 등을 권한다.

유여홍(인터넷서점 알라딘 편집부)

주목 받는 책



깨어나는 여신

(김재희 역, 정신세계사 펴냄)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일컬어지는 에코페미니즘은 '영성 없는 과학과 사회, 과학 없는 사회와 영성, 사회 없는 과학과 영성'이라는 단절되고 왜곡된 문명을 극복하고 상호소통을 통해 온전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들 영혼 속에 숨죽이고 있는 녹색의 감수성과 거룩한 신성을 일깨워, 인간과 우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지난 1월 25일 정신세계사에서 발간한 『깨어나는 여신』은 에코페미니즘의 패러다임으로 구성된 책으로, 깨어나는 여신/가이아의 과학/생태문명의 비전 즉 종교·과학·사회라는 세 가지 맥락에서 새로운 세기란 과연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무너 스토크(Starhawk), 녹색성인 헬레가르트와 신과학의 선구자 바바라 맥클린톡,

인도 침묵운동과 만다나 시바에 대한 글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임은 물론, 우리의 여신인 삼신할머니와 바리공주를 고찰함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한 여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 외에도 여성의 고유성과 녹색정치 가능성을 살펴보는 글, 남자가 쓴 살림론과 육아일기 등을 수록했다. 화폭에 에코페미니즘을 담은 화가 김명숙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다.

한편 여신의 깨어남을 축하하고 함께 즐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3월 11일에 개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가면무도회'와 6월중에 열릴 '여신축제'가 그것. 이와 같은 행사는 여성의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해 수련과 놀이를 결합시킨 새로운 개념의 유희 마당이다.

박미숙

아주 특별한 용기

(앨런 베스, 로라 데이비스 지음)

(한국여성학연구소 기획, 이경미 옮김, 돌네 펴냄)

착한 남자들이 들으면 섭섭한 이야기지만 성폭력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모든 남성들을 두려워한다. 이처럼 성폭력은

사람간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그런데 우린 성폭력에 대해서 세월이 약이라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잊어야 한다고, 그리고 용서만이 최선인 것처럼 말한다. 그럴 정말 성폭력은 없었던 것으



로 되거나 치유가 되는 것일까?

30여 년간 미국 전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워크숍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앨런 베스와 성폭력 치유에 대한 전문가이며 근친강간의 생존자(성폭력의 고통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인 로라 데이비스가 공저한 『아주 특별한 용기—피해자와 가족, 상담자를 위한 안내서』를 소개한다.

18세 이전에 세명 중 한명 꼴로 당하고 있는 어린이성폭력, 그 중에서도 근친강간을 당한 50명의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그 치유과정을 꼼꼼하게 담았다. 아이였을 때 성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느끼지 못한다. 성폭력 당한 사실을 벌일 아

니라고 최소화하거나, 부정, 또는 아예 기억에서 없애버린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가해자를 합리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해서 그 후유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성폭력은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성행위를 포함하여 사랑을 주고받기 어렵게 한다.

물론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전 인생에 걸쳐 진행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야 한다. 성폭력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상처 입었다는 스스로의 느낌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애써 잊고자 한 지나간 기억과 감정을 모두 불러일으킬 것, 강요된 침묵을 깨고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 절대 당신의 탓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기, 용서하지 말고 분노할 것, 가능하다면 가해자 또는 가족과 직면하기 등을 반복적으로 거처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성폭력적인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

윤숙경

if가 '팍팍 미는' 여가수 음반

얼마 전 한 스포츠신문에서 '여가수의 조건은 노래 아닌 몸매?'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쏟아지는 가수의 홍수 속에 우선 뛰어보자는 전략으로 여가수들이 과감히 밟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기자의 의도가 가요계의 '상술'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문장 '앨범 자켓에서 다각적인 모습으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처럼 '눈이 즐겁다'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여가수들이 점점 가요계의 주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만큼 상술에 현혹되기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적인 '색'을 찾아나가자고 말하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 여기 그 '색'이 분명한 가수 7명을 소개한다.

이은미 (NOSTALGIA)



'팬발의 가수', '라이브의 여왕'. 무대 위에서 굉장한 카리스마로 청중을 압도하는 가수 이은미. 평소에는 어떤 노래들을 즐겨 부를까? 그가 자신의 애창 곡들을 모아 앨범으로 엮었다.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전유나의 <너를 사랑하고도>, 윤상의 <이별의 그늘> 등을 이은미 식으로 새롭게 불렀다. 그 외에도 친근한 곡들이 많다. 원곡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각 곡마다 다른 방식으로 불러 색다른 느낌을 담아냈다. 라이브무대 외에는 접하기 힘든 이은미의 노래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허쉬 (Hush~ Her? She.)



파격적인 음반 제정으로만 여성듀오 '허쉬'를 평가하면 큰 오산. 음악에서는 그런 야한 분위기는 절대 없다. 클래식을 전공한 두 멤버가 작사, 작곡, 보컬, 코러스, 건반까지 직접 참여해 아주 세련된 앨범을 만들었다. 우선 음색이 맑고 편하며 편안한 색깔이 짙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일품적인 기질을 대신 클래식하게 편곡했고 R&B, 팝발라드, 모던록, 디스코넌스, 라틴댄스 등 다양한 곡들이 담겨 있다. 가요에서 느껴지는 트로트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할 만한 앨범. 추천하고 싶은 곡은 타이틀곡인 <허쉬>, 모던록 <Addicted Love(중독)>와 디스코인 <애인>이다.

양파 3.5집 (A Letter from Berkeley)



연초에 잠깐 활동하고 지금은 미국 보스턴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양파가 고국의 팬들을 위해 선보인 앨범. 이번 앨범에 수록할 곡을 선정하기 위해 99년 11월 한 달간 팬클럽과 천리안, 하이텔 등 통신사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총 16곡 중에 신곡 <다 알아요>, <미로>를 제외하고는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천사의 시>, <괜찮아> 등 팬들이 직접 추천한 곡들이다. 또한 음악CD 외에 다른 한 장의 뮤직비디오CD에는 양파의 보스턴 생활 모습을 담았다. 무대 위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예쁜, 화장이 없는 얼굴의 발랄한 양파를 볼 수 있다.

이소은 2집 (신비(神秘))



1집 <작별>로 20대부터는 10대들에게 많이 알려진 가수. 여성적이고 맑은 목소리가 매력적이며 가창력도 뛰어나다. 타이틀곡인 <하방님>은 대금과 가야금을 사용해 동양적인 선율로 세련되게 편곡했다. <신비>는 뮤지컬 스타일의 곡으로 색다른 느낌을 주고, <충성>은 코팅팅이 소리로 부르는 재밌는 노래. 가수 이승환이 프로듀서를 맡았고 유희열, 윤상, <하방님>의 박용준 등이 함께 했다. 고운 음색을 가진 이소은에게 바라는 점은 '이소은답다'는 진정한 음악스타일을 정립하는 것. 기사에서 보이는 수동적이고 약한 '소녀'의 느낌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17살의 고등학교 2학년생인 만큼 앞으로의 성숙이 기대된다.

미나 (내 안의 사랑)



22살의 신인가수 미나가 1년 넘게 준비해 내놓은 데뷔앨범. 미나는 무엇보다 약간 허스키하면서 중성적인 음색이 특징. 외모도 중성적이면서 예쁘다. 고음치리가 뛰어나고 신인답지 않은 세련미가 엿보인다. 이소라, 김현철, 김건모의 앨범에 참여한 그룹 <스토리>의 이승환과 이은규가 작곡, 작사한 <내 안의 사랑>이 타이틀곡. 웅장하고 클래식한 분위기의 편곡, 대니정의 색소폰 연주가 미나의 음색과 잘 어울린다. 곡 대부분이 팝발라드와 R&B이므로 듣기에 무리없이 편안하면서 감미롭다.

박혜경 (+01)



박혜경이라면 낯설지만 그룹 <더다>의 보컬이라면 친근할 듯. <더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박혜경의 솔로음반이다. 그의 매력은 허스키하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개성있는 음색. 게다가 맑은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까지 받게 할 정도. 타이틀곡 <고백>은 부드러운 멜로디에 기타와 다이아몬드 드럼 소리가 가미된 곡발라드이다. <굿바이>, <원인>, <해바라기> 등의 곡은 박혜경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 앨범 작업이 '자유로운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그의 노래들 들으며 이 봄 자유로운 기쁨을 반짝하소서.

진주 2집



폭발적인 가창력과 7옥타브를 넘나드는 음역을 자랑했던 <난 괜찮아>의 진주가 2집을 냈다. 이번 앨범의 테마는 '솔(soul)'. 각 시대별 솔음악의 특징을 분석해 되살려놓았다. 대부분의 곡들이 예전의 '소리를 지른다'는 느낌이 아닌 '절제된' 느낌을 준다. 타이틀곡인 <가니>도 역시 화려한 고음보다 중저음대의 보다 낮은 음역의 노래. 뛰어난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이해나 섬세한 감정 처리 등에서 미숙함을 보였던 1집에 비해 훨씬 성숙하고 풍부한 느낌이다. 진주는 음 5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버클리음대로 진학한다.

“난 그저 퇴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고전음악시대 여성작곡가

가요, 팝송, 클래식 그 어느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음악은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음악 속에 담긴 남성우월적인 성향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음악은 수 세기 동안 거의 남성에게 의해 창작, 연주되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고전이라 여기는 클래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바흐, 헨델,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바그너 등...

그렇다면 과연 여성음악가란 존재하지 않는가? 뮤즈로서의 여성만이 존재하는 것일까?

대답은 단호히 '그렇지 않다'이다. 음악사 곳곳에서 많은 여성음악가들의 자취를 만날 수 있고, 남성중심의 음악계에서 살아남고자 발버둥쳤던 그들의 몸부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음악은 신학보다도 한층 더 보수적인 분야로 알려져 있다. 중세에는 수녀원을 제외하고는 남성들만 음악을 배웠고 그나마 여성의 음악교육이 허용되었던 18세기에도 피아노와 성악 부문이 전부였다고 하니 어쩌면 여성들의 창작활동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포지마, 이리 와서 내 곁에 머물러다오!”
1981년 케리커처.



포지마 바그너

18세기 말 교육가인 헨젤(J.D.Henzel)은 여성이 배우는 학문과 예술을 '필요한 것',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나누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바느질, 요리, 빨래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악기 연주와 성악은 부차적인 것, 작곡과 음악 이론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 다른 교육가는 여성들의 예술적 재능은 주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은 왜 '여자' 베토벤이 탄생하지 못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슈만보다 유명했던 천재소녀

먼저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 1819~1896)의 경우를 살펴보자.

클라라 슈만은 독일의 뛰어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다. 또한 피아노 교사로 유명한 프리드리히 비크의 딸이자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였다. 다섯 살 때 아버지 비크로부터 피아노를 배운 그녀는 그 뒤 1935년까지 '천재소녀'로 전 유럽의 음악무대를 휩쓸었으며 괴테, 멘델스존, 쇼팽, 파가니니 등 위대한 음악가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1838년 빈 제재중에는 '황실 명연주가(K.K.Kammervirtuosin)'란 칭호를 받으면



Clara Schumann

클라라 슈만



클라라 슈만의 전기

서 더욱 명성을 떨치기도 했으나 1840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슈만과 결혼하게 된다. 이전까지 남편 슈만보다 더욱 유명했던 그녀는 작곡과 연주여행을 못마땅해하는 남편과의 갈등이 커지자 아내로서, 또한 8남매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꿈을 접고 만다.

클라라의 일기 한 대목을 잠시 살펴보자

“나의 피아노 연습은 또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로베르트(슈만)가 작곡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내게는 한 시간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너무 퇴보하지 않기만을 바랄 따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기를 바랐던 남편 슈만과 불평등한 사회, 가사노동과 음악 사이에서 평생을 고민했던 클라라. 결국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슈만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할애하게 된다.

현재 그녀의 작품으로는 <#단조 변주곡>, <피아노곡 op.3, 4, 6, 7~11>, 슈만의 연가곡 <사랑의 봄> 중 2, 4, 11번 등 다수의 피아노곡과 가곡, 그리고 오케스트라곡과 실내악곡이 있다. 이 작품들은 엄격한 형식 아래 우아한 화성과 자유롭고 풍부한 선율을 잘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그녀의 기

량이 모두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남편의 충실한 후계자로 살아남다

리스트의 딸이자 바그너의 아내였던 코지마 바그너(Cosima Wagner: 1837~1930).

그녀도 클라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며, 음악사 강의를 했던 그녀는 바그너와 결혼한 후 모든 활동들을 포기하며 바그너를 위해 살았다. 그는 그녀가 없으면 작곡을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며 그녀의 음악활동을 막았으며 그녀가 자신의 창작활동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뮤즈로 머물기를 바랐다. 바그너는 종종 "나의 일이 곧 당신의 일"이라는 논리로 그녀를 묶어버렸으며 그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찬미하면서 절대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 바그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오페라 <탄호이저>, <니벨룽겐의 반지> 등으로 유명한 작곡가 바그너는 낭만주의의 새로운 장을 연 인물이지만 음악 내적으로는 반 유태사상과 더불어 철저한 성차별적 사상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으며 독일인이 아내에게 좀더 폭력적이지 않은 것이 불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여성을 신격화해 끊임없이 의존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우월감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바그너를 절대적으로 숭배한 코지마의 태도였다. 그녀는 바그너를 신앙처럼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바그너에게 인식시켰으며 결국 충실한 후계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끝없이 갈등했던 클라라 슈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음악사전에서 발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그녀의 삶을 대변해 주는 듯하다. "바그너의 훌륭한 보조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그너 사후 바이로이트 음악제를 지속시킨 음악가."

참고속에 묻힌 음악

또 한 명의 여성음악가로는 파니 헨젤(Fanny Henel:

1805~1847)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신세계로부터>, <이탈리안> 등으로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의 누나이자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였다. 동생 멘델스존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그녀는 13세에 이미 헨델의 오라토리오를 편곡했으며 15세에 작곡을 시작했다. 그녀는 15세가 되던 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동생처럼 좀더 깊이있게 작곡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펠릭스(멘델스존)에게 음악은 '직업'일 수 있지만 너에게 그것은 '장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잘라말했다.

결국 그녀의 작품은 동생 멘델스존의 이름으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파니 헨젤은 결혼 후 자신의 곡을 출판하기 위해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동생 멘델스존에게 그 의향을 물어봤다. 다음은 어머니에게 보낸 멘델스존의 회신 내용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창작활동을 기뻐하며 동시에 그녀의 작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압니다. 따라서 그녀가 이미 출판을 결심했다면 최대의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출판을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계속 작곡가로서 현신하겠다고 생각할 때만 출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작품을 작곡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파니는 고작 여자의 천직인 주부의 일을 완수한 후라야 비로소 청중이나 음악세계, 음악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동생의 편지를 읽은 파니는 큰 상실감에 빠졌다가 결국 9년 후에나 가까스로 출판집을 내게 된다. 그러나 이 9년의 공백기간은 그녀에게 창작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된 주원인이 되었다.

현재 발표된 그녀의 작품들로는 <무언가>, <여섯 개의 정원의 노래>, 피아노 삼중주, 그리고 작품번호가 없는 몇몇 피아노 작품들뿐이다. 그녀 작품의 대부분은 아직도 발표되지 못한 채 멘델스존 작품보관소에 묻혀 있다.



클라라 슈만



헨델가르트 폰 빙엔



파니 헨젤

남자의 이름으로 작품을 쓴 여성들

그렇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공한 여성 음악가들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헨델가르트 폰 빙엔, 소피아 구바이리나, 에델 스미스, 릴리 블랑제와 같이 왕성한 활동을 했던 여성음악가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일례로 헨델가르트 폰 빙엔의 경우 그녀의 음악이 수록된 앨범 <엑스타시의 노래>, <비전>, <신의 숨결 위의 깃털> 등이 권위 있는 음반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그녀의 탄생 9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제 준비작업이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러시아 음악가인 소피아 구바이리나도 여성이다.

그러나 더욱 많은 여성작곡가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몇몇의 인물만이 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늘 아쉬움을 남긴다. 출판 당시 사회적, 가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수 없었던 여성음악가들이 아예 남자의 가명을 쓰거나 이름을 인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사는 지금, 많은 여성가수와 연주자들이 무

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아직도 작곡가, 지휘자, 평론가들과 같이 음악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이들은 남성이 다. 여성작곡가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편견들과 싸워야 한다는 전제를 안고 출발점에 선다. 상업권을 쥐고 있는 출판사와 레코드회사 등의 편견이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유럽 지휘자의 98%는 남성들이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뿌리깊은 편견과 지휘계의 여성 과소평가 현상도 만만치 않다.

여성과 남성의 음악적 성향을 명백히 나눌 순 없다. 그러나 여성의 서정적이며 뛰어난 감수성은 남성 음악가들과는 또 다른 면모다. 작곡가 슈만이 여성적인 경향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정작 그의 드라마틱한 면모는 그만의 특징이 되었던 것처럼 보다 많은 여성작곡가들이 활동했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음악계는 사뭇 다른 발전적인 양상을 띠게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고의 예술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7]



박선민

1997년 이대 작곡과 졸업
현재 MBC 방송작가 활동중



근대화된

여성들의 옷입기

하나



1. 장옷(혹은 쓰개치마)을 접어서 머리 위에 얹은 의복쓰개(의복)의 여인 (신원복, 술집 미상)

보통 의복의 근대화라고 하면 대개 서양인들의 옷과 그들의 문화가 이 방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기 쉽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이미 조선 후기에 여성들은 기존의 계급복식에 저항하는 의복기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의 여성들은 유교사회의 문화와 규율에 부합하는 계급복식의 문법 안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여성들이 그 지겨운 장옷과 쓰개치마 밑에서 껍소리 못하고 순종하며 살아간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 여성들의 옷입는 방식엔 무슨 일이 있었나?

우선, 당신이 외출할 때마다 장옷이나 너울, 방앗 따위의 쓰개류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건 정말 미칠 노릇일 거다. 특히 더운 여름엔.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악법은 본디 착하고 명칭한 사람들이나 지키는 법이다. 사회가 활기차게 변화해 가던 영·정조 시대에 다수의 여성들은 그럴듯한 방식으로 엄격한 사회규율의 틈새를 비집고 나왔다. 쓰개치마와 장옷을 접어서 머리에 얹어 묶는 방식을 고안해 낸 것이다(그림1). <화성원행도>에서 왕과 왕비의 행차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상당수의 여성들이 장옷과 쓰개치마를 접어서 머리 위에 얹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2, 3). 물론 아예 쓰개치마를 쓰지 않은 여자들도 있다(이러한 과도기적인 편법을 이슬람여성들에게 넘기지 귀찮게 쥐도 좋지 않을까?).

2. 왕세 발비의 행차를 구경하는 여인들 중 쓰개치마와 장옷을 얹은 이는 한 명도 없다. 많은 여자들이 의복쓰개를 머리에 얹어놓았을 뿐이다. 연암공인 여자들이 쓰지 않는다. (화성원행도: 奉安圖) 중 제7쪽 사출판어행도(병풍)의 일부. 김홍도 1795년. 후임미술관 소장. 중앙일보사비판국에 이 제19권에서 인용

3. 서장들의 여자들이 의복쓰개의 전형적인 착용방식을 따르고 있다. (김홍도의 유가상주와 부인들) 촬영자 미상. 1911. 김홍도의 모습. 한국사적박물관의 '유리' 원판으로 보는 동물 1891-1930.에서 인용

4. 264들의 복장이 영·정조대의 전형적인 의복기호를 보여준다. (단오풍경: 端午風情). 신원복, 간송미술관 소장. 중앙일보사비판국에 이 제19권에서 인용



그러한 변화는 사실 조선 후기의 여성의복 기호에 생긴 근본적인 변화에 비하면 피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페미니스트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조선 후기의 여성들은 지독한 사회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책임기와 활발한 글쓰기, 그리고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근대적 주체로 버려나아가고 있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의복기호의 대대적인 변환이 있었다. 여성의 의복기호에 새로운 의설성이 나타난 것이다. 여성으로부터 여러 권력을 빼앗아 여성을 사회의 타자로 고정화시켰던 조선의 남성중심주의 문화에 부메랑처럼 다시 날아와 꽂힌 단검. 그게 바로 '의설적 여성주체'였다(이 지점에서 당신이 전후 대한민국의 '자유부인'을 떠올렸다면 이프 독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저고리가 짧아지고, 소매는 좁아져서 팔과 어깨의 선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치마는 부풀어올랐다. 17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짧아지기 시작한 저고리는 영·정조대에 이르러 가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짧아졌다. 부풀린 치마는 앞으로 돌려 묶어서 아예 속치마를 내보이고 다니게 되었다(그림4, 5, 6).

물론 이러한 변화를 남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좋아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원복은 그러한 새로운 유행과 관련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모습이라 할 만하다(前未發 可謂奇)"라는 글을 남겼었다. 이 문장에서 취기어린 눈빛으로 마냥 좋아라 하는 신원복의 얼굴을 상상해 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복유행을 다들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아니



5. 왼쪽-그림4의 부분 확대. 옷심부름을 하는 몸종의 모습. 기녀의 최신 유행을 몰다가 그만 헝가슴살이 삐죽 튀어나오고 말았다(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 수피모델 흉내내느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다니지 말자).

6. 오른쪽-길이가 짧은 적상과 치마를 입은 일반여성의 모습. 스튜디오 촬영이다. <아낙>, 1910년대, 한국사진박물관의 '유리 원판으로 보는 풍물 1891~1930'에서 인용

었다.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僞說)』에서 '부녀의 짧은 저고리와 소매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귀천에 관계없이 통용되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더구나 여름 흘적삼은 위로 말려올라가 치마허리도 감추지 못하니 더욱 괴벽스럽다'고 했다.¹¹ 하지만 이 고상한 어르신들의 비판에 귀기울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이익의 말대로 귀천에 관계없이 유행했던 이 '아한 옷' 들은 점점 더 괴벽스러워져갔던 것이다.

특히 그 괴벽스러움을 더한 것은 머리모양이었다.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등장한 엷은머리의 유행은 다리(남의 머리)를 덧대어 끌어올리는 가체(加體)의 유행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체의 크기는 장대해졌는데, 전해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가체 때문에 목이 부러지기도 했다고 한다(그림7, 8, 9). "결혼식에서 가체로 멋을 낸 어린 신부가 절을 하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는 게 그 흉악스런 전담의 요지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건현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를름 머금은 커다란 다리를 끌어올리고 앞꽃이, 뒤꽃이 등을 여기저기 꽃아 한껏 멋을 내고 나면 10kg 이상의 무게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일부 여성들은, 가슴을 짓눌라면 치마 때문에 폐를 비롯한 흉부 전체가 미발달한, 기형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그들은 무척 허약했을 것이다(게다가 영양가 높은 건 죄다 남자들이 먹어치웠잖아!).

장옷과 쓰개치마를 벗어 접어 엮을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가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꽤 유용한 편법이었다. 가체의 미덕은 그래서 그치지 않는다. 값비싼 다리를 여



7. 기녀들이 다리(가체)를 다듬고 있다. <기녀>, 유문홍, 중앙일보사의 '한국의 미' 제19권에서 인용

리 개 멋대서 만든 가체는 상품의 경우 집 한 채 값을 넘었고, 그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가 뒤흔들렸다. 가체 덕분에 가능해진 값비싼 머리장식들의 유행(그림10, 11)은 계급구조의 변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가체와 장신구 따위의 유행을 통해 상인계급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를 축적한 중인남녀들은 사대부의 대감 나으리들과 마누라님들의 흉내를 냄으로써 사회기강을 문란하게 했다(오죽했으면 한때 경어(敬語)였던 '마누라'가 부인을 속되게 낮추어 부르는 말이 되었을까).



8. 위-장대해진 가체의 크기를 보라! <미인도>(부분), 작자 미상, 전남 해남 윤영선 소장, 중앙일보사의 '한국의 미' 제20권에서 인용

9. 아래-조선 후기 여성들의 거대한 가체풍습은 20세기 말 일부 여성들이 브레이지에 몸을 대거나 가슴에 인공이식물을 집어넣는 풍습과 상당히 유사하다(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 유행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진다. 늘 새로운 게 나타나서 문제지!). <미인화장>, 김홍도 전,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중앙일보사의 '한국의 미' 제20권에서 인용

가체의 유행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영조는 재위 32년 정월에 가체 금지령을 내린다. 영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대부녀의 가체를 금하고 속명 '족두리'로 불리는 머리장식으로 이에 대신케 한다. 가체의 제도는 고려시대에 시작되었으니 즉 몽고풍이다. 요즘 사대부가의 사치가 날로 성하여 부인의 한 번 가체에 곧 백금을 소비해 가면 서로 본받기를 힘쓰고, 되도록 높고 크게 만들려 하므로 이를 금한다." 그러나 이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더 큰 문제만 낳았다. 왕족여인들의 계급 상징인 족두리가 사대부에 허용되자 곧 일반여성들에게까지 유행한 것이다. 그러나 족두리는 주례로 장식할 경우 다시 집 한 채 가격에 육박했으므로 절약기풍의 확립에도 하등 기여한 바가 없었다. 일반여성들은 사대부녀들의 눈치를 보느라 원칙적으로는 결혼할 때에만 족두리를 쓸 수 있었지만, 그것도 그리 쉽게 규제된 것 같지는 않다.

아무튼 조선 후기 여성의복의 대대적인 변화는 계급간의 차이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새로운 외설성을 유포시켰으며(조선

후기 춘화의 유행과 남녀상열지사를 다룬 다양한 문학의 발달은 당시 사회의 의복기호 변화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오호통재! 지면부족이 한이로다.) 여성에게 사회적인 비주얼리티를 부여했다. 여기까지의 변화과정에는 그 의복기호

변화의 놀라운 진폭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냄새를 조금 풍길 뿐, 여성의 근대적 주체에 걸맞는 의복으로 간주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끝에 가체의 유행이 끝나자, 새로운 변환이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여성의복 문법이 등장한 것이다.

10. 오른쪽-머리꽃이의 일종인 딸창이다. 딸창 장식은 달려 있어서 딸창이라고 부른다. (《딸창》, 1750년경, 화순 읍주 알뜰 유물,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의 미-의상, 장신구, 보」에서 인용)

11. 아래-스프링으로 딸창을 단 머리꽃이다. (《딸창 오양의 머리꽃이》, 조선 후기, 장숙한 소장,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의 미-의상, 장신구, 보」에서 인용)



근대적인 여성의복의 등장

개항기의 조선땅에서, 여성들에게 쓰개치마와 장옷의 착용을 요구하는 사회의 규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개화여성들이 나타났다. 이 쪽진머리의 여성들은 남성의 두루마기를 여성의 옷으로 착용했으며 다양한 모자들—조바우, 아얌, 족두리, 함경도 머릿수건(말이 머릿수건이지 모자이다. 그림12)—을 발전시켰다. 가체가 사라진 머리 위에 다시 감싼 장옷과 쓰개치마를 두르게 되는 당시의 퇴행적 의복경향에 저항하기 위해서 모자는 필수적이었다.

이름에서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루마기 착용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두루마기가 무슨 근대적인 의복이냐고 의아해하실 것이다. 하지만 본디 두루마기는 왕족과 사대부는 입지 않던 평민의 옷이었다. 이 두루마기가 남녀와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널리 입혀지게 된 것은 1894년 이후의 일이라고 전한다. 왕이 술선수범하여 포(袍)의 소매부리를 좁히고 몸통의 사방을 두루 막은 두루마기를 입었기 때문에 사대부와 왕족들은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서구의 초기 자본주의 문화에서 부르주아들이 모두 프록코트와 실크햇을 착용한 것과 같은 변화였다.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일부의 서구여성들은 남성의 재킷을 자신들의 친취적인

사회활동에 적합한 옷으로 받아들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부의 조선여성들은 남성들의 두루마기를 자신들의 옷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두루마기의 착용을 통해 여성들은 스스로의 의복문화에 나름의 모더니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의 근대의복이 남성의복의 문법을 차용함으로써 남성들의 모더니티를 모사·재구성해 나가는 길고 험난한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옆의 사진은 개항기에 유행했던 수많은 기생업서 중 하나



12. 함경도 여자들은 장옷의 일종인 처녀를 변형시켜 모자(함경도 머릿수건)를 만들었다. (《덕산관 부근 모녀 일가족》, 1911. 함경도 부인의 나들이 옷차림, 한국사전박물관의 「유리 원관으로 보는 풍물 1891~1930」에서 인용)



13. 그리스와 콘트라포스트 입장을 연상시키는, 개화여성의 여유있는 자세는 근대여성 주체의 새로운 자의식을 방증한다. (《기생 업서》, 1910년대 추정, 개연소장, 권행가 촬영)

이다(그림13). 기생업서 문화에 대해 비분강개하기 전에, 우선 이 여성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보라. 사진관에서 멋드러진 포즈를 취한 이 여성의 여유있는 모습은, 강력한 근대사상에 감염된 여성주체들의 새로운 의복기호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구태의 장옷이나 가체 대신 아얌²⁾을 쓰고 있다.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의복기호를 구사하는 이 여성의 모습은, 더 이상 19세기 미인도의 여성과 같이 어정쩡하게 다리를 벌린, 선 좁은 어깨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다. 이 여자는, 마치 균형미 있게 적절히 조각된 대리석 입상처럼, 콘트라포스트(contrapposto)³⁾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자세에서는 근대적인 문물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개화여성의 새로운 당당함이 배어난다. 이 땅에서 근대적 여성의복 문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다음 호에선 개화여성들의 혼성적인 옷입기와 여성지식인들의 의복기호를 분석해 보겠다.

- 1) 이익(1681~1763), 『성호사설(星湖叢說)』, 민족문화추진회 편, 송, 1997.
- 2) 오늘날 '아얌 편다'는 말은 아얌의 아얌내림(아얌 부분의 술)을 흔드는 모습에서 나온 말이다.
- 3) 아르카데의 시대에서 벗어난 인체입상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포즈를 콘트라포스트라고 부른다. 콘트라포스트의 등장은 그리스(남성)민주주의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정우(임우근준) queerafter@vega.co.kr

옷입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전직 동성애자인권운동가 혹은 문학소녀, 가끔은 외설가(예술가?)로서 전시행각을 벌이기도 하지만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디자인 루크지인 「DESIGN | TEXT」(vega.co.kr/designtext)를 기획하는 일이다. 요즘엔 신문박물관 준비실에서 일하느라 곁눈에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봄이 오면 양재기술을 익혀 아시시한 셔츠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영나니가 건진유머

심심풀이 땅콩 퀴즈

돈 받은 것 만큼만 몸과 시간을 허락하는 것—공중전화
여지도 서서 소변 보는 곳—수영장
미워, 미워, 미워를 네 차로 줄이면—셋다 미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화장실은—전봇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는 일은—죽었다 깨어나는 일
슈퍼맨 가슴의 'S' 자는 무엇의 약자인가—스판
‘당신은 시골에 삽니다’를 세 자로—유(you) 인(in) 촌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진짜 휘발유
애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학교가 애들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개미의 주소—허리도 가늘고 안으면 부러지리
쓰레기통에 뚜껑이 달려 있는 이유—먼지 들어갈까봐!
물고기의 반대말—물고기
‘화장실이 어디죠’를 중국어로—위따 통싸
콜라와 마요네즈를 섞으면—버려야 한다.
산토끼의 반대말—물토끼, 죽은 토끼, 키토산, 판토끼, 알카리성 토끼
세입자의 천적은—사위
3개 국어를 동시에—한들 이빠이 켜어.
가제트 형사의 성—미정
등고래를 영어로 ‘돌핀’이라 한다. 그럼 고래를 영어로 하면—핀
뉴코아백화점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리본으로 묶어놓았다.
목수리가 다섯 마리 모이면 목수리 오행제이다. 그럼 쥐 네 마리가
모이면—쥐포
곤충의 몸을 3등분하면—죽는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으면—엄마한테 맞는다.

할아버지의 비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는데, 항상 이기는 건
할머니였다. 싸움에 한이 맺힌 할아버지가 한 번 이겨보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오종 멀리 싸기”였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또
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할머니의 한 마디, “손대가 없슈.”

요즘 유행하는 삼행시

- 고! 고통어아~
통! 통에 곱 붙었어.
어! 어?
- 해! 해파리아~
파! 파리가 널 좋아한다.
리! 리얼리?

3. 지! 지네아~

네! 네!네! 지네 앞숨이습니까?

4. 때! 때미아~

때! 미안합니다. 전 때미가 아닙니다.

5. 때! 마꾸라지아! 너 이름이

꾸! 꾸라지니?

라! 라지니?

지! 저는 뽕장언데요...

담배 이야기

외국 유학할 때 일입니다. 외국담배에는 건강에 대한 경고가 항상
들어 있고 담배마다 문구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담배는 ‘흡
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또 다른 담배에는 ‘흡연은 태이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식의) 내가 아는 어느 형은 항
상 ‘Long beach’라는 상표의 담배를 피웠는데, 형에게 왜 Long
beach만 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은 담배 한 귀퉁이에 써
있는 경고문 ‘Smoking kills’ (담배는 널 죽인다)를 가리키며...
“여기 담배 맛 죽인다고 쓰여 있잖아.”

핸드폰 유머입니다

난 원래 날.....뽕기 선수였어,
죽을 때까지 너만.....두 억울래?

텔미쌤상과 텔미쌤당의 차이점

텔미쌤상은 스틸러, 텔미쌤당은 드릴러.

토끼쇼

() ~ ☆	()
(@, @)	(~)v 브이~
호기심 많은 토끼	문가 자랑스러워 하는 토끼~
()	() ~ uZZzz
(π, π)	(=, =)
물어서 얼굴이 부은(~~;) 토끼	잠오는 토끼
()	()
(\$, \$)	(‘‘’)
돈에 눈이 먼 토끼..~~;	평소 때의 토끼
()	()
(-)	(“o”)~
얼 받은 토끼	즐거워 토끼~
()	() ~ ♡
(-)+ +	(ToT)
문가 불만인 듯한 토끼	얼얼 우는 토끼
	핑크하는 토끼



유인경의 웃 이야기

21세기 몸의 섹시 스펙트럼

너무나 복합적인 시대인 요즘은
딱히 ‘이거!’라고 하나의 트렌드를
규정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취향의 옷들이 유행하지만
그래도 2000년 봄의 두드러진 특징은
뉴클레마와 섹시룩이다.



루이 비통 2000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새천년에 유행할 봄·여름 옷들을 보면 어지간히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 새옷 사입고 싶어'란 욕망을 느낄 만큼 눈길을 끄는 옷들이 많다. 핑크나 로열블루 등 파스텔톤의 화사하고 감미로운 색상, 봄과 여름용인데도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했고, 레이스와 스팅글의 화려한 장식, 사랑스러운 꽃무늬 등 여성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너무나 복합적인 시대인 요즘은 딱히 '이거!'라고 하나의 트렌드를 규정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취향의 옷들이 유행하지만 그래도 2000년 봄옷의 두드러진 특징은 뉴글래머와 섹시룩이다.

노출의 정치학

입사귀로 가릴 데만 살짝 가린 '이브의 나뭇잎옷' 이후 섹시룩은 여성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이다. 2,000여 년 전에도 앙큼한 클레오파트라는 뱀모양의 가슴받이로 풍만한 가슴모양을 자랑했으며 마릴린 먼로는 속치마 같은 옷들로 관재리룩의 선종을 일으키며 영원한 섹스심벌로 남아 있다. 10여 년 전에 마돈나는 속옷처럼 생긴 장 폴 고티에의 옷차림으로 무대에 서서 섹시함도 자랑하고 엄청난 돈도 벌어들였다.

제2의 마돈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여성연예인들은 토크쇼전 퀴즈프로전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속옷인지 잠옷인지 모를 옷차림으로 안방에 찾아오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여염집 여성들도 비슷한 옷차림으로 직장과 거리를 활보한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 직장여성들처럼 옷을 화려하고 대담하게 입는 이들은 드물다"고 놀란다. 모

든 여성들이 밤무대 복장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물론 보여줄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맘껏 자랑해야겠지만 제대로 보여주는 법을 알아야 한다. 21세기의 섹시룩은 다른 차원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외모나 나이에 상관없이 도발적이고 섹시한 옷차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보다 은밀하게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이 권력과 평등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과감한 옷차림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있다. 남성을 유혹하거나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여성적인 특성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패션계의 원로 최경자 선생을 인터뷰하는 중에 한 제자가 "최선생님은 여든이 넘은 지금도 코르셋을 착용하고 있을 만큼 늘 옷차림이나 몸매에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팔십이 넘은 할머니가 이 정도인데 젊은 여성들은 오죽할까.

옷은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옷차림에 의해 심리상태나 행동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비군복을 입은 남자들은 대학교수건 부랑자건 지위고하나 학벌에 상관없이 똑같이 보이듯 여성들 역시 그 날 의상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날은 터프가이처럼 동작도 커지고 아무 바닥에나 털썩 주저앉는다. 하지만 타이트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다면 걸음부터 조신하게 타박타박 걷고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우아하게 움직인다. 각각의 차림새에 따라 걸음걸이와 행동방식이 달라지고 동작 하나하나마다 유혹적이고 계산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



GIORGIO ARMANI 광고

여성들은 외모나 나이에 상관없이 도발적인 옷차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 성적인 매력을 은밀하게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이 권력과 평등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과감한 옷차림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있다.





i.n.v'u.

섹시룩의 기본은
몸의 선이나 신체부위를
드러내는 것.
착 달라붙는 옷을 입었을
때는 신체의 각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강조되지만
부드럽고 혈렁한
옷을 입으면
관심이 얼굴에 쏠린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하야시 마리코는 "날고 촌스런 속옷을 입은 날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데도 요조숙녀처럼 몸을 도사리게 되지만 야하고 화려한 속옷을 입은 날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옷을 벗고 싶어진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 어떤 옷보다 섹시룩을 잘 연출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남의 시선을 굳이 의식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만을 과시할 뿐이다. 관능적인 것과 천박한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섹시룩, 전략적으로 입기

섹시룩의 기본은 몸의 선이나 신체부위를 드러내는 것.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었을 때는 신체의 각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강조되지만 부드럽고 혈렁한 옷을 입으면 관심이 얼굴에 쏠린다. 옷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패션평론가인 토비 피셔 미르킨은 "알아차릴 수 있을 듯 말 듯한 미묘한 유혹과 노골적이고 대담한 도발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것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지나치게 섹시한 이미지만 강조하다 보면 오해를 살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신체 곳곳이 드러난 드레스나 야한 스웨터를 입은 여성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가진 것은 단지 육체뿐이며 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섹스뿐"이란 메시지를 내보낸다. 심하게 노출되거나 천박한 옷차림은 타인의 눈길을 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자기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리는 타인에게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야한 옷차림에 도전하지만 다른 이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만약 정말 이성을 유혹하거나 자신의 성적 매력을 자랑하고 싶다면 과감한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다.

미주리대학에서 실시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자들은 한 여성에게 도발적인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입게 한 다음 20명의 남녀를 상대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부탁했다. 응답자들은 모델인 여성이 연출한 몇 장의 사진을 보았다. 브래지어 위에 다 티셔츠를 입은 모습, 노브라에 젖은 티셔츠 차림, 셔츠단추를 단정히 채운 모습, 가슴이 보이도록 셔츠 단추를 풀어헤친 모습의 네 종류였다. 남자들은 도발적인 옷차림을 한 여성에게서 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여성 응답자들도 오히려 매력이 감소한다고 답했다. 남녀 모두 어느 정도의 절제미를 갖춘 옷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올봄에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어디를 드러낼 것인가보다 어디를 가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실제로 홀라당 벗은

루이 뷔통 2000년 컬렉션.



누드모델보다는 수건으로 몸통을 가린 여성의 목덜미나 어깨선이 훨씬 유혹적이다. 미이라처럼 온몸을 감은 것 같은 스파덱스의 미니원피스보다 살짝 옆부분이 터진 통스커트가 엄청난 상상력을 유발시킨다.

올봄에 유행하는 옷들로 섹시룩을 연출해 보자. 몸에 꼭 붙는 스파덱스보다는 살짝 몸의 선을 살려주는 니트스웨터나 실크블라우스에 무릎을 덮는 길이의 가죽스커트, 단정한 수트에 V넥의 셔츠 등을 받쳐입으면 우아하면서도 섹시하고 관능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패션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섹시해 보이는 의상은 의외로 남성용인 흰 드레스셔츠이다. 하얀셔츠는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인 매력과 아름다움, 신비함을 동시에 뽐내준다. 이 셔츠에 타프타 등 질감이 돋보이는 스커트를 입으면 된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을 기억해 보자.

침대에서 남자의 셔츠만 입고 있는 여성을 벗어나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상상력의 산물만은 아니다. 어땠든 여성의 섹시함은 무기이며 자랑거리이지 결코 부끄럽거나 죄가 아니다. 다만 유혹적인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메시지는 요란한 고함소리가 아니라 달콤한 속삭임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

유인경(경향신문 생활문화부 차장)

영나니가 건진유머

클린턴의 딸

어느날 딸 클린턴의 딸 헬시가 백악관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엄마!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매트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정말 멋진 남자예요!"

저녁식사 후에 클린턴이 딸을 조용히 불렀다.

"헬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매트는 너의 이복형제야."

헬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일년쯤 지난 어느날 다시 환한 얼굴로 클린턴에게 말했다.

"아빠, 저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어요. 이름은 로버트인데, 우리 결혼 할 거예요."

클린턴은 다시 딸에게 말했다.

"헬시, 안됐지만 그 녀석도 너의 이복형제다." 헬시는 너무 화가 나서 엄마 힐러리에게 달려갔다.

"엄마! 전 이마 결혼도 못 할 거예요. 아빠는 내가 사귀는 남자마다 모두 이복형제예요. 이런 경우가 어딴데요!"

힐러리는 딸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아가, 아빠 말에 너무 신경쓰지 말아라. 그 사람은 너의 아빠가 아니야."

명청한 은행강도

어느 명청한 범죄조직원 몇 명이 보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들끼리 은행을 털기로 했다. 여러 차례 계획을 한 결과 발목에 침입해둬 금고 털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째로 봉고차에 싣고 오기로 했다. 일단 옮겨오기만 한다면 돈은 분해하든 아니든 무슨든 어떻게든 돈은 나오리라는 생각이었다. 결국 작전은 성공하여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보스에게 보고했고,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려 나타난 보스는 한참을 둘러보다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 님들아~!! 니네 동네엔 통장정리기에도 돈 들어있나?"

運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내가 결혼한 '이유'

?

이런호의 주제가 '나는 왜 결혼했나'를 시작으로 결혼이야기를 시리즈로 기획했다. 오래 전부터 결혼에 관한 특징을 다루는 말이 있어왔으나 주제가 너무 방대해 한 호 특집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제 의견을 모았다. 다양한 필자들의 사례들을 기본으로 하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글도 함께 실는다.

다음 호 주제는 '첫날 밤'입니다. 글을 보내주신 분께는 글이 실린 이프와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나는 왜 결혼했는가

"너는 결혼관이 어떠니?" 혹은 "너는 왜 결혼했니?"라고 누군가 물어오면 우리는 진부하다고 웃는다. 유사 이래로 우리는 수없이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사색하고 찬미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결혼에 관한 한 우리는 가장 광대하고도 굳건한 집단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한 경험을 한(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뒤돌아서서 얼빠진 표정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했지? 온갖 고난 끝에 왕자와 공주는 결혼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자알 살았다는 그 얘기는 왜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걸까...

또하나의 문화 8호 『새로 쓰는 성 이야기』에서 여성학자 김정희씨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경우 "상대남성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결혼할 것이라고 믿을 때 성관계에 응한다"고 말한다. 결혼과 성관계를 결정할 때 많은 여성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남성의 생각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강하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남자가 너무 원해서..." 우리는 주변의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다. 이렇게 시작된 성관계는 상대남성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당했다'가 되기 쉽고, 이렇게 시작된 결혼은 '사기' 이기가 쉽다. 남성이 제안하고 주도하고 연출하고 연기하는, '나'라는 주체가 빠진 결혼과 성관계에서는 상대남성이 모든 권리와 함께 책임도 져야 한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당신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라면 결혼생활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남자가 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결혼하자고 했어?" 아, 우리는 이 어리석은 신뢰조 대사를 영화와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며 내 마음속에서 또 얼마나 되뇌었던가.

우리 사회 결혼의 시작에는 빠져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우리 시대에 맞는 현실성과 구체성이다. 우리는 과연 결혼 앞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가. 아니 뭘 고민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조한해정 교수(연세대 사회학과)는 "서구적 각본의 수입에 따른 연애와 사랑의 환상은 우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자포자기, 실망 등으로 사회적 관계의 피상성과 이중성을 더욱 높여놓고 있다"고 말한다.

결혼에 대한 피상성과 환상만 키워온 만큼, 결혼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던 만큼 결혼생활은 더 불행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적응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던 우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혹 우리는 상처가 심각하게 곪아가고 있는데 돌취보기가 두려워 한없이 덮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잔인하게도 이르는 상처의 처음, 결혼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했다.

우연하게도 이번 원고들은 결혼 후의 불행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많은 한국여성들이 결혼 후에 비로소 여성문제를 절감하고 있으며, 현지 모를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래 원고들이 그저 우연한 사례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결혼했나.' 그들의 이야기, 아니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세상에 별 남자 있나?"

세월이 지나고 사회주의 붕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진보운동진영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믿고 의지했던 선배들은 하나 둘 떠나고, 주위 친구들도 극심한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힘겨워했다. 나 역시 심한 슬럼프에 빠져들고 있었다. 연일 계속 마셔대던 술로 몸은 한없이 망가져 있었다. 그 즈음 울산에 사는 어떤 총각이 나를 좋아한다고 한 번 만나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울산에 놀러가자는 제의를 했다. 무심코 바람이나 뭘까 하는 마음에 따라나섰다. 울산에 도착하니 두 남자가 우리를 기다렸다.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방이 진 가서 술 먹고, 그리고 어찌다보니 둘이 남게 되었다. 그 남자는 술 탕인지, 진심인지, 애절한 구애를 해댔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다. 나는 그렇게 키 작고, 팔 많고, 의존적인 그 남자가 싫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계속 내게 연락을 했다. 울산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대체 얼마나 잘난 여자가 이 순진한 총각을 마음 아프게 하느냐'는 얘기들이 오고간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모든 것이 허무했고, 내게 주어진 건딜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나는 매일 술만 먹었다. 나를 아끼는 친구들은 울산의 그 사람을 만나 사귀어보라는 충고를 끊임없이 했다. 나도 나 자신이 죽도록 싫었다.

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다. '저렇게 내가 좋다는데 나한테 아마 잘 해줄 거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살면서 서로 맞춰질 거야', '세상에 별 남자 있나? 사람 착하면 되지, 뭐가 더 필요

어서오십시오
WELCOME!

낙원

해? ...

나는 그냥 그 사람과 동거를 시작했다. 자신 있었다. 저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맞춰주면 된다고...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다. 그냥 부산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울산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제 나는 달라질 거라고 다짐하며.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다. 2년 뒤 아이도 낳았다. 이제 6년이다. 내 머리를 조개고 싶다. 나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언니에게

이번 명절에 해리하고 나하고 여행을 갔다왔어. 시댁에도, 친정에도 가지 않고, 내 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일단 집을 나왔어. 그리고 약간의 간식을 사서 동해를 따라 차를 몰았지. 좋더라. 상쾌하고.

저녁이 되자, 해리는 뭔가 이상한지 집에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어. 여관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야. 내가 민감한 탓일까? 아냐. 여관주인도 나보고 고향 안 갔냐고 이상한 눈으로 묻더라. 내 참 기분 더러워서... 약간은 후회도 되더라고. 남편하고 같이 올 걸 잘못했나 하고.

남편하고 같이 왔으면, 오는 내내 지루하게 싸우고 스트레스 받을 것을 편히 짐작하면서도 그 짧은 순간 남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그토록 싫어하는 그 남자와 같이 올 것을 생각했어.

언니가 나한테 그랬지. "수경아, 너는 왜 이혼 못하는데?" "몰라." "수경아, 넌 장점이 많은 아이다. 잘 할 수 있어." 언니야, 치사한지 모르지만 난 비겁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외로움이 두려운 거야. 늘 잘난 척 머리 속으로만 생각했지만, 이번 여행에서 천천히 치사하고 비겁한 나를 봤어. 난 이번 여행을 혼자 살아야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했어. 난 좀더 무뎌지고 강인해져야겠다고. 나도 이렇게 어색한데, 어린 내 딸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내 딸을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었지?

언니, 나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을까? 나를 격려해 주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언니, 나는 정말 내 인생에서 결혼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 그저 내 삶의 돌파구라고 생각했어. 어리석게도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고, 어떤 남자를 통해 새로운 삶을 희망했어. 막연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긴 시간의 삶을 선택하고 말았어. 자의식이 높은 내가 남자를 하늘처럼 받들고 살아야 한다고 나를 채찍질했지.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목소리를 죽였어. '남자 기죽이면 안 된다'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남자는 에다 루듯 다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터져나오는 내 분노를 누를 수가 없었어.

언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억제하거나 누를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내 삶에 대한 용기와 연습이 필요해. 이렇게 내 속에 숨어 있는 힘을 찾게 도와준 언니에게 감사해.

석수경(33세, 주부)

누가 나에게 주문을 걸었나?

어느 해 겨울, 모임을 끝내고 집에 와보니 편지 한 통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오늘 많이 추웠지? 방 따뜻하게 해놓고 꼭 자라. 예쁜 꿈도 꾸고."

발신인은 '그'였다. 나는 처음 보는 그의 서체를 여러 번 확인한 후, 말 잘 듣는 아이처럼 보일 러 온도를 높여 방이 따뜻해지길 기다린 다음, 마음속으로 '예쁜 꿈 꿔야지' 이렇게 다짐까지 하고서 자리에 누웠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집과 사무실로 편지가 왔다. 사무실로 배달되는 편지엔 주로 '수요일 12시에 ○○로 나올래? 점심 사줄게'와 같이 만남을 정하는 약속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고, 집으로 오는 편지엔 '편지리거든 저문 강물을 보아라' 등의 그가 좋아하는 시 구절과 '기다림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처럼 달큰한(달살 돈은?) 내용이 물씬 풍기는 언어들이 나열돼 있었다. 나도 모르게 출퇴근길이 즐거워졌다. 당시만 해도 운동단체에서 사생활을 보호받기란 대단히 어려운 노릇이어서 나는 그와의 은밀한 아침데이트를 마음놓고 즐기 위해 아침마다 부지런을 떨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줄줄이 이어지는 회의와 모임과 뒤돌아볼 만할 줄창 시계만 쳐다보았다.

나는 솔직히 그를 만나는 것보다 그의 편지를 읽는 게 더 좋았다. 그러나 이것이 '그'보다 '그'의 편지'를 더 좋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확히 말해서 나는 그의 편지가 아닌 '편지를 보낼 줄 아는 그'를 좋아했던 것이므로, 그랬다. 편지를 보낼 줄 아는 남자란 당시 나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 나아가 나의 일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뜻했다.

때는 내 나이 스물여섯, 며칠만 지나면 일곱이 되는 겨울이었다. 5학년이 되도록 학생운동을 하다가 그제 지겨워서 현장(공장)에 들어가 1년 다니다가, 또 거기에 실증을 내고 단체로 가서 1년을 보낸 나는, 삶의 공간이 달라져도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에 진저리치고 있었다. 당시의 나에게 모든 게 지겹고 귀찮을 뿐이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나 외의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6개월쯤 흘렀을까. 어느 시점에 이르자 우리는 서로의 이면을 보기 시작했다. 창으로 우습게도 그의 장점이 단점으로 보였다. 섬세함은 유약함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우유부단함으로, 매사에 여유가 넘치는 생활태도는 굼뜨다 못해 게으르고도 무기력한 자세로 비쳐졌다. 물론 그도 나에게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다. 주관이 뚜렷해서 좋다면 칭찬은 '고집 센 이기주의자'라는 질책으로 바뀌었고, 매사가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말은 인간미가 부족하고 차갑다는 말로 둔갑했다. 당연히 싸움이 잦아졌다. 별 거 아닌 것에서 시작한 싸움의 끝엔 항상 상처로 누더기가 된 만신창이만 남았다.

나는 점점 '별 거 아닌 게' 사실은 '별 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 그리고 곰곰이 따져보니 정말 그랬다. 둘 다 자취를 하고 있던 우리는 서로의 방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며 살았기 때문에 싸움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밀착된 것', 이를테면 라면을 누가 끓일 것인가, 라면에 달걀을 넣을 때 계서 풀어넣을 것인가 통째로 넣을 것인가,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인가 따위에서 시작될 때가 많았고, 대개는 남녀차별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다가 급기야는 '결혼해서도 그럴 거냐'는 경고성 확인을 넘어서, '우린 너무 다르다'는 포기과 체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별 거 아닌 게 아님을 깨달은 나는 결혼에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또한 결혼을 생각하기엔 그의 현실적인 조건이 말 그대로 찻잔산중이었다. 장남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병들고 가난한 그의 어머니와 여럿 되는 형제자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담이었다. 게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인지 그는 나와 연애를 시작한 이후 직장을 여러 번 바꾸었고, 나중엔 뭘 준비한다면서 아예 집에 눌러붙어 있기까지 했다. 나는 점차 그가 부담스러워졌고 나중엔 삶을 대하는 그의 기본적인 태도마저 불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헤어지기가 더 어렵게 되더라는 것이다. 이번에 회사에 들어가면 헤어져야지, 이번에 시험 붙으면 헤어져야지 하고 속으로 다짐했지만, 그의 인생은 자꾸만 꼬여갔다. 그 무렵 그는 나와 싸우고 난 후 자주 눈물을 보였고 나는 그게 너무 싫으면 서도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에 대한 연민이 커질수록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커졌고, 나중엔 '뭘 대로 댈라'는 심정이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더 지나자 '어쩌면 그가 처한 상황은 대수롭지 않은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 생각해 보면 헤어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운 것 같다. 시어머니? 모시지 뭐. 돈? 같이 벌지 뭐. 살림? 아무렴 나도 사회생활 하는데 안 도와줄까, 그래. 한 번 해보는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주문에 걸려 몽롱해진 상태에서 나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2년 후 별거를,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혼을 했다. 나도 그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변할 수 없다는 것이 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게다가 내가 그렇게 믿어의심치 않았던 주문마저 어찌된 일인지 결혼 후에는 조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연민과 망용 덕에, 어쩌면 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쓸쓸한 경험을 한 셈이다.

나는 결혼 이후 줄곧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다. 착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출나게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 내가 왜 분수에도 맞지 않는 오만을 부렸나 자책하기도 했고, 그런 나와 결혼한 남편을 미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실패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운명을 욕하며 찢고 까발기도 했다. 외연한 척, 내 발로 집을 나와 별거를 하면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던 이와 같은 감정이 비로소 자취를 감춘 건 완전하게 이혼을 하고 나서다.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무 감정이 없어진 까닭에 나는 이제 전 남편이 된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게 됐다.

가끔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다시 누군가와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까?" 대답은 "아니오"다. 나는 나를 잘 안다. 별로 감동적이지도 않은 멜로물을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나는 사랑을 하는 그 순간 다시 텅빈 연민과 망용에 빠질 것이 뻔하고, 어쩌면 또다시 주문을 걸지도 모를 일이다.

같은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는 사랑을 막을 생각은 없다. 아무래도 나는 아직 주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다. 사랑의 쓴맛을 좀더 봐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려나...?

박해경(30세, 자유기고가)

왜 결혼했냐고 묻지 마세요, 제발...

내가 아는 어떤 이가 내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사랑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생각이 짧은 나는 글썽, 영원할 것만 같던 사랑의 마음이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처럼 빛바래거나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 있지 않는 뭐 그런 거 아닐까? 그 대답을 하고 나니 정말 나는 사랑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결혼까지 해놓고서).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전혀 엉뚱했다. 그가 생각하는 사랑의 딜레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였다.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한 나머지 영! 그게 뭐야. 누가 나에게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느냐고 물어보면 지금껏 나는 수없이 이렇게 대답해 왔다. 예, 그건 말이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혹은 상대에 대한 헌신을 이유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된다 이거죠. 상대방과 지나치게 동일시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참조준거를 가지는 기술 그것은 곧 자신이 혼자 설 수 있을 때 상대방과도 함께 설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거죠. 오, 그런 믿음은 실로 그 때까지 나를 떠받치고 있던 굳은 반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듣기에 따라 얼마나 멋진 말인가?

허나 그는 여성학 개론서이나 나올 법한 그런 이론(?)을 몰라서 그리 얘기했던 건 아니었다. 그의 답변은 우리가 수없이 남발하는 사랑이 열정이나 친밀함 그리고 헌신성 이외에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 정말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실함과 진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좀더 실존적인 문제에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성에 대한 고민은커녕, 나는 내가 했던 얘기들도 근사하게 포장한 관념에 다름아니었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이제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만 26살이 되던 해 겨울에 결혼했다.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남편과 나는 결혼식이 있기 1년 전부터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 이름하여 동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떨어져 있는 것은 시간낭비 같기도 했던 우리는 함께 지내기를 원했다.

그러나 좀더 직접적인 계기는 이런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친척집의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얹혀살고 있을 때고 남편은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을 때다. 나는 하필 그 때 무릎에 큰 부상을 입어 무릎인대를 다른 사람의 인대로 잇는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악재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좋은 핑계를 만난 것이다. 이미 두 집안의 부모님께서는 사귀는 사람으로 인사가 돼 있었고 남편은 몸이 불편한 나를 간병하겠다고 나의 부모님께 아주 간곡히 부탁드렸다. 아버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잘라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달랐다. 어차피 결혼할 것 같은데 지들 좋은 대로 해주자는 주의였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두 번 하셨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 후 우리는 1년을 한 방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은 잠깐이었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른다. 왜 아니었겠는가. 정말 피 터지게 싸울 때마다 그래, 나는 아직 결혼한 게 아니니까 언제든 헤어질 수 있어, 수틀리면 끝내는 거야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동거라는 것



은 서구처럼 자유롭게 만났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 생기면 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미 우리의 관계는 우리만의 관계가 아닌 우리를 둘러싼 주변환경과 우리가 함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 파리를 틀고 있었으며 그것은 크든 작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결속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 결속력은 대개 이런 것인데,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헤어지면 너희가 사람이니', 혹은 '이미 그렇게 그런 사이였는데 어디 가면 모르겠나'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그

러나 그 압력은 늘 우리를 지지하고, 혹은 정말 친하다고 하는 이들이 '너희들이 헤어지는 건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그들만의 불타는 사명감으로 교묘히 치장돼 있어서 우리는 정말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어떤 징표도 내보이지 않았다.

아니,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일지 모른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나 혼자서 그들이 나를 그렇게 볼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생각해 왔던 것 같다. 그러한 내 안의 두려움은 사랑과 결혼의 주체적 선택을 가로막았다. 물론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나 살다보니 이제 사랑인지 정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이 지점이 나의 비극이다. 이프가 제안한 이 주제는 내가 왜 결혼하게 됐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아직 이 이야기는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주어진 원고매수는 이미 넘겼다. 결혼 이후 하나 확실해진 건 결혼은 결국 '혼자'라는 풀이어를 가진 단어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김민아(29세, 대학원생)

나는 아이를 원했다

"당신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난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난 지금의 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절대'라고는 못하지만 아마도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 나는 혼전임신을 했고 그 아일 낳고 싶었다. 결혼은 빠고.

그러나 그건 내 희망사항일 뿐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혼전임신이라니 부모님이 아신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함께 아이를 만든 사람은 모든 선택을 내게 맡기겠다고 했지만 그도 준비가 안되건 마찬가지였고, 우리 둘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다. 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처지였고 그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잃었다. 나 역시 취직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오랜 백수생활로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게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어렵게 잡은 직장을 놓치는 것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의 낙태 경험이 있었고, 더 이상은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거기에 사랑이란 것은 켄 자리가 없었다.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란 것은 오래 전에 물건너 간 옛날이야기였고, 이미 내 마음속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접어들어야 했다.

드디어 양가의 허락을 받고(사실 허락이랄 것도 없었던 것이 그와 나는 9년 동안 사귀어온 사이였다) 날을 잡았다. 그러나 내 임신 사실은 그 때까지도 숨겼다. 그게 밝혀진 건 내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야겠다고 느낀 사건이 있은 후였다.

그는 평소에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는 등 상당히 간섭하는 편이어서 싸움이 잦았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잡은 이후로 그 증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매일 싸움이 이어졌다. 나는 시비를 걸려거든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해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런 내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이 때 기선을 잡아야겠다는 듯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 무슨 말도 통하지 않았고 그저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9년이나 사귀면서 난 대체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도저히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처음엔 필릭 뒤시던 부모님도 그가 내게 하는 모양을 보고는 그의 부모님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전했다. 당연히 그 쪽에서도 난리가 났고 코너에 몰린 그는 내 임신 사실을 알려 버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내 예상과 달리 담담하게 상황을 이해하시고 "정말 네가 싫다면 아이를 지우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하셨다. 체면도 중요하지만 당신 딸이 시집가 불행하게 사는 것보단 한 번 창피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신 것이라.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자 그는 내게 불쌍하리만큼 저자세로 나왔다. 그제서야 자신이 양보를 안한 것이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나를 설득했다. 내게 남아 있던 눈곱만큼의 애정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나서야 그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이다. 다시 아이가 내 발목을 잡았다. 엄마에게 "아이만 낳으면 안 되느냐"고 한 마디 했다가 "미혼모로 사느니 차라리 이혼녀가 낳다"는 말을 들었다. 물론 엄마가 그러길 바라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내겐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그와 나는 휴전협정을 맺었고 일주일 후 결혼식을 치렀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나는 처음 태동을 느꼈다. 그제서야 아이가 안심을 한 것일까.

결혼하고 일주일 후부터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고, 나는(시집에 들어가 살았다) 서툰 가사노동과 남편과의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쳐 마침내 3개월만에 만삭의 배를 안고 법원에 가서 이혼도장을 찍고 말았다.

이혼 몇 개월 후 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나는 호주가 되었고 내 아이의 성은 나와 같다. 그 아이는 지금 내 곁에서 세근세근 잠들어 있다. 상처는 많았지만 어쨌든 나는 원하는 것을 얻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

임수연(28세, 자영업)

학력이 결혼을 배반하다

결혼시장의 상품가치로 볼 때 남자와 다르게 여자의 학력은 높아질수록 그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실하게 학위과정을 밟아온 나에게 자기성취의 증표라고 생각했던 나의 학력이, 자기성취의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으로 생각했던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건 전혀 예

축 밖의 일이었다.

오랫동안 학교 선배배로 알고 지내던 남자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결혼을 생각할 만한 시기에 다시 만난 우리 두 사람은 이야기가 통하고 살고 싶은 방향이 모두 비슷했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기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 두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남자의 집에서는 나의 학력이 문제가 되었다. 여자인 우리집에서는 남자의 학력이나 현재 학생이라는 신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남자의 집에서는 여자가 박사과정의 학생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다. 여자가 박사라는 사실도 문제였지만, 더구나 현재 학생인 아들의 뒷바라지는커녕 여자도 뒷바라지를 받으며 같이 공부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게 크게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남자의 집에서는 며느리감이 직장인이어서 남편의 학비를 벌 수 있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암전히(?) 남편 시중이나 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하는 눈치였다. 더구나 유학을 예정했던 남자의 집에서 며느리까지 유학비를 대줄 수 있겠느냐는 계산이 눈에 보였다. 내 학비는 내가 내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어했고, 또 그렇게 돼도 남자 집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이야기이다.

남자쪽 집의 이런 반대는 나를 몹시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 때까지 이루어온 자기성취의 증표와도 같았던 학력 따윈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다. 난 무언가 쓸데없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온 것 같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싫어지는 것이었다. 학위증 따윈 어디다 버려버리고, 거짓말로 학력을 속여서라도 남자 엄마의 마음을 붙잡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겨우 결혼 때문에 자기가 소원하며 살아온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싫어하는지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기껏 남자 하나로 나를 부정해? 왜 내가 누추해져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왜 남보다 더 공부를 해서 이런 지경이 되었나?", "왜 엄마는 당당한 전문인이 되라며 공부하라고 했지?"라며 나를 자학하곤 했다.

결국 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건 남자의 태도 돌변 때문이었다. 막상 자기집의 반대가 심해지자, 여자도 남자처럼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통할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같은 우리는 결혼해야 한다고 하던 남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남자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든지, 아니면 내조라도 해줄 수 있어야지 본인의 인생길이 보다 쉽다는 것이었다. 집안의 축복을 받고 하는 결혼이 행복하지 그렇지 않은 결혼은 고생길이 원하

다고도 했다. 난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과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는가란 문제로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가끔씩 나는 구겨진 나의 첫사랑과 그 결혼을 떠올려본다. 그리고 그 첫사랑으로 철저히 게 현실적인 결혼관을 갖게 된 지금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 그런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II**

김상림(35세, 대학 강사)

신분 확실하고 가장 친절한 모범택시

• 지방출장 및 김포공항전문



올림픽로(02)
모범택시 **665-6565**



당신의 성격은 어떤 타입인가? 3

낙천적 유형 알아보기

13)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 지갑을 놓고 와버렸습니다. 그 지갑에는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약간의 현금이 있었죠. 마침 지갑에는 당신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둔 메모도 있습니다. 한 시간 반이 지나 찾으러 되돌아왔으나 지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5 - 누군가 찾아주려고 가져갔고 그냥 기다린다.

4 - 누군가 돌려주려고 가져갔지만, 이번만큼은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한다.

3 - 누군가 돌려주려고 가져갔을지도 모르지만,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빨리 서둘러 한다.

2 - 지갑을 돌려주려고 모르지만 혹시 돌려주지 않을까 조금 기대한다.

1 - 휴게간 계 분명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0 - 휴게간 계 분명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14) 당신은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 첫날 시내에서 꽤 떨어진 한적한 곳에 여관방을 잡았고 그곳에서 여침 목을 예정했습니다. 잠을 여관방에 부르고 다음 날 아침 거처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문득 여관방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놓은 채 그냥 나왔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0 - 회의를 중단하고 돌아간다.

1 - 회의를 중단하고 여관으로 전화를 한다.

2 - 엉망으로 회의를 끝까지 하지만 누군가 내 물건을 모두 훔쳐갔을지도 모른다.

3 - 대중 회의를 끝까지 하지만 누군가 쓸 만한 물건 일부를 훔쳐갔을지도 모른다.

4 - 별 걱정하지 않고 회의를 마친다.

5 - "방안이 환기도 되고 좋지"라고 생각한다.

15) 친구에게 전세를 물건을 차에 싣고 운전해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물건만 싣고 전세주고 올 생각이었고 주차할 곳도 미정할까 큰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친구 집으로 뛰어가 물건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집에 들어와 차라도 한 잔 하고 가려고 한사로 끌어올립니다. 두고 온 차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0 - 절대 못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 - 극도로 불안할 것이다.

2 -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3 - 조금 불안할 것이다.

4 -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5 - 매우 흔쾌하게 생각한다.

16) 직원 세 명이 승진서류에 해당되지만 그 중 한 명만 승진됩니다. 당신이 그 중 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승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5 - 100% 확실하다.

4 - 거의 확실하다.

3 - 희망적이다.

2 - 의심스럽다.

1 - 거의 가능성이 없다.

0 - 전혀 가능성이 없다.

17) 친구가 재한 관계를 잘못 받아 사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가난하고 불행할 운명인 것 같다고 비관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0 - 친구가 불행한 상황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다.

1 - 희망하지만 회복할 희망이 조금 있다.

2 - 친구는 견뎌내고 회복할 것이다.

3 - 친구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잘 해나갈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생각한다.

4 - 친구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잘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5 - 친구는 이번 일로 이미 교훈을 얻었고 더 잘 해나갈 것이 확실하다.

6 - 친구에게 이번 일은 하나의 기회이고 앞으로 훨씬 더 잘된다.

18) 보기에도 훌륭 정도로 머리를 지나치게 길게 길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0 - 나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

1 - 나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거야.

2 - 내 생활에 커다란 손해를 끼칠 거야.

3 -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그 동안 혼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보내야지.

4 - 아는 사람들을만큼 내 머리 모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5 -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내 머리 모양에 신경이나 쓰겠어.

6 - 별일 아냐. 금세 도로 자라날 텐데 뭐.

88쪽에서 231쪽 계속

백수, 아르바이트 하다



김영선

(e-mail: alicekim@hanmail.com) 사실 지난번 백수일기를 쓰고 나서 나는 잠시 동안 텔레마케터로 일했었다. 생소한 일이었지만 제법 재미도 있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텔레마케터는 거의 여자다) 맘에 맞아서 행만하면 오래 일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실직자가 되었다. 사정을 들은 박로 편집장은 "그래? 그럼 이번 호에도 백수일기 써봐"라고 말했다. 나는 왜 이프가 나올 때만 되면 백수가 되는 걸까? 계간지이나 그나마 두 달 정도는 일이 있지, 월간이나 주간이 된다면 일지리를 가질 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긴 솔직히 점점 백수생활에 이력이 붙어가는 것 같긴 하다. 어떤 친구는 날더러 혼자서도 잘 놀고, 충분히 뽀뽀하고 '내츄럴본 백수(타고난 백수)'라고 한다. 어쩌면 나중에는 정말 백수전문가, 혹은 자유직업종사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인가?

665-6565

가능하면 밖에 나가

지푸라기라도 주워온다는 신념으로,

나는 아침밥을 먹으면

무조건 밖에 나갔다.

지난 일주일은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다. 대어 점에서 빌린 책은 대어 기일을 넘겨 연체료가 쌓여가고, 두 건의 저녁약속을 사양해야 했으며, 심지어! 연극 공연을 보여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나를 동정하면서도 나의 이런 상황을 굉장히 낯설어했다.

백수는 절망하지 않는 법

"도대체 백수가 왜 그리 바빠?"

나도 동감이다. 일주일 전만 해도 아침이면 지나간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하나를 고민했고 알 수 없는 짜증과 분노와 무기력과 지루함과 싸워야 했으니까.

가능하면 밖에 나가 지푸라기라도 주워온다는 신념으로, 나는 아침밥을 먹으면 무조건 밖에 나갔다. 할 일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으면 단골책방 창가의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다. 하다못해 동네 뒷산에 가서 약수라도 떠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한 마리 하이에나처럼 도시의 이 골목 저 골목을 쫓다니며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즐겁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배경음악: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하지만 진짜 백수는 절망하지 않는 법이다. 나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며칠 집에서 꼼짝 않고 묵자고 뭇가 할 일이 생길 때까지 쉬었다.

그리고 걸려온 전화 한 통화.

"언니, 아르바이트거리 있는데 생각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빠졌다. 며칠 내에 열몇 권의 책을 요약·정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생전 관

심도 없던 분야의 책을 정리하자니 핵심과악도 어렵고 쉬이 잊히지도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 두는 건데...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하루에도 열두 번은 일을 맡은 자신을 원망했다가, 좋은 경험이 될 테니 잘 해보자는 암시도 했다. 하도 오랜만에 일 때문에 골치를 썩히는 것이라 스트레스 해소법도 희미하기만 하다. 그래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전에 읽다가 접어두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았다. 세상에나, 신기하게도 한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다.

문득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었던 때가 떠오른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날 밤이었다. 시험공부를 하려고만 하면 왜 그리 잠이 오는지... 몇 번이나 세수를 하고 잠을 쫓다가 책꽂이에 꽂힌 책을 보았다. 친구가 읽다가 재미없다며 내게 준 것이었는데 나도 몇 번이나 읽어보려 하다가 그냥 꽂아두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촌촌한 세로 글씨가 박힌 삼중당문고판 「죄와 벌」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지루했겠는가. 하지만 머리를 식힐 겸해서 몇 줄 읽기 시작한 책을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덕분에 내 중간고사도 날쌔다!

백수의 지조

그 어둡고 침침한 인간탐색의 경험이 왜 그리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이었을까? 삼중당문고를 앉은자리에서 독파하게 한 이해력과 집중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실 그건 너무 쉬운 질문이다. 정말로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이 닥쳤을 때는 그 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재미있어진다. 죽어라고 안 읽히던 박상룡의 「죽음

의 한 연구가, 밀린 빨래가, 싸야 할 자기소개서가, 정리하고 분석해야 할 웹서핑 자료들이 갑자기 흥미로워진다.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했던 일상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게다가 일이 끝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할 시간을 자신에게 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더욱 즐거운 것이다. 반대로 하나의 과제가 끝나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사는 게 피곤해질 것이다.

아직 나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했다. 그걸 찾을 때까지는 아무 직장이나 쟁박해서 시간만 축내고 싶진 않다. 더 나이 들어서 자신에게 미안해질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동안은 아마 백수이거나, 그 비슷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생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좀 덜 쓰는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감당 못할 일 때문에 탄짓도 실컷 하겠지만, 그 모두가 내게는 삶의 활력이 되는 경험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백수임을 광고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사람을 만나고 웹서핑을 하러 간다. ■

영나니가 건진유머

'잘 자~ 내 꿈꿔' 시리즈

최민수 → 니 꿈은 내가 꾸다
박찬호 → 엄~ 그~ 그러니까~ 구웃~ 슬립(Good Sleep)~ 하구~
김정은 → 다른 사람 꿈 꾸지 마~! 다쳐.
박명수 → 에이~ 잘자구요. 내 꿈꿔 이~씨~!
김자옥 → 어머~ 음하는~ 잠 잘 때도 이 미인이 꿈만 봐야 해.
이도호 → 몰랄라~ 모두모두모두 잘 자시구오. 있짜나오오.
내 꿈 마니마니마니 꾸서야 되요오.
심현섭 → 니 잠자니? 우리 씨바나에선 내 꿈만 봐야 된~당~! 뽀빠야아아아아아~!!
김영철 → 네, 네, 꿈 말씀이십니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꿈은 내 꿈입니다. 엄데여?
심현섭 → 니 미친나~! 내 꿈 꾸게~!
김영철 → 그래 나 미쳐따~. 내 미쳐서 내 꿈꾸다~! 이 화상아~.
김경희 → 안된다. 니가 내 꿈 꾸순 엄따.
김미화 → 허허~ 내 꿈을 꾸다니 내 너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김대중 대통령 → 예~ 잘 주무시구오. 예~ 내 꿈은 꼭~! 꾸서야 됩니다. 아셨죠?
김영삼 전 대통령 → 역사와 민족 앞에 잘 자며~ 꿈은 확실히 내 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노태우 전 대통령 → 잠은 지더라도~ 보~통~ 꿈을 꾸서야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 본인은~ 빠지는 사람 없이 잘 자기를 바라며~ 본인 꿈 꾸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 아~ 니가 잔다고 내 꿈 안 꿀 줄 아리세어어어~.
박영규 → 아이~ 장인이든 자는 데 어떻게 내 꿈만 꿀니까. 장인 어른.
선우용녀 → 박서방, 자네 내가 자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그냥 내 꿈이나 꾸게~.
피카츄 → 피카~피카~ 자아~ 내꿈~내꿈~ 휴~~~~~.

공주병 초기 증상

1. 세상 여자 모두에게 항상 미안하다. → 나만 너무 예쁘니까!
2. 숲 속에만 가면 잠이 온다. → 숲 속의 잠자는 공주니까.
3. 경복궁에 가면 안방 같이 편안하다. → 예전에 살던 내 집이니까.

공주병 중후군

1. 잠만 자면 영원히 못 일어날 것 같다.
2. 사과만 먹으면 죽을 것 같다.
3. 물에 빠진 남자를 보면 목숨 걸고 구한다.
4. 12시가 다가오면 불안해진다.
5. 때론 로마에서 휴일을 보내고 싶다.
6. 복만 보면 뽀고 싶다.
7. 바보만 보면 결혼하고 싶다.



당신의 성격은 어떤 타입인가? 4

낙천적 유형 알아보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각 질문의 점수는 답의 왼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를 모두 합한 총점에 1.1을 곱하세요. 그러면 최종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최종점수=총점×1.1). 이 최종점수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0~19점: 극도로 비관적인 유형의 성격

당신은 철저하게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실제보다 세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며, 속으로는 '나는 되는 일이 없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많은 일들과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면 크게 좌절하여 고통을 받기가 쉽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죠. 마치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는 것처럼 최대한 시각을 낙관적인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도 필요할 겁니다.

20~39점: 비관적 성향의 성격

당신은 극도로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저절로 낙천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것'이란 행복한 가정, 성공, 능력, 건강, 외모, 친구, 돈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당신을 잠시 낙천적으로 만들 뿐 당신을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터 얘기지만 이 모든 조건들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당신은 도로 좌절할 테니까요. 대신 당신이 먼저 인생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면 이것들은 언제라도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당신이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헤쳐나간다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고 어려움을 이겨낼 의욕을 줄 것입니다. 인생의 밝은 면을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세요.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밝은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부정적인 상황은 오히려 당신이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40~60점: 중간 유형의 성격

당신은 현실에 근거를 두고 사는 유형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삶과 태도는 적응적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신이 세상을 좀더 장미빛으로 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고 힘든 때가 닥쳐도 이겨낼 의욕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중간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인생의 밝은 면을 보려는 노력이 좀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밝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60~79점: 낙관적 성향의 성격

당신은 상당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유형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힘이 넘치고 모든 일에 최상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담하지 않지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비관적인 일에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지요. 이러한 당신의 특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키우십시오. 당신에게 커다란 장점이 될 것입니다.

80~100점: 철저한 낙관주의의 성격

당신은 전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변함없는 낙관성 뒤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당신은 비현실적이고 판단에 있어서 상식적인 면이 많이 부족하군요. 주변의 일들을 실제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성이 높은 일들을 잘 구분해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꾼에게 잘 넘어가거나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말이지요. 지나친 자신감으로 위험한 일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낙관적인 태도가 좋기는 하지만 절대로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

227쪽에서

전지홍(전지홍 신경정신과 원장)



수련이 여성주의를 만날 때

내가 수련을 접한 것은 1992년 봄이었다. 당시 나는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고 수련도 육체적 건강 관리에 좋은 대체라는 정도에서 접근하였다. 수련을 하면서 육체적 건강을 회복했음은 물론 내 사고방식과 생활에도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내 체험으로 수련에는 개인적 건강은 물론 사회적 건강의 기초로도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이것이 내가 수련에 길어보는 기대이다.

첫째로 수련은 몸이 건강해지는 만큼 정신도 건강하게 한다. 수련을 하면서 몸과 정신이 하나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면에서 수련은 신비주의가 아닌 철저한 경험적 증명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한의에서는 '통즉불통(痛即不通)'이라는 말을 쓴다. 기의 원활한 흐름으로 막혀 있는 경락, 혈이 풀리는 그만큼 건강해지고, 신체기능이 민첩하게 기능하는 그만큼 객관적인 사고력도 증대되는 것이다.

둘째로 증대되는 사고력—객관적 사고력은 수련에서는 우선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성찰력의 신장—으로 체험된다. 이 점이 수련이 다른 사회과학적 이데올로기 비판과 뚜렷한 선을 긋게 되는 점이다. 우리는 파쇼에 대응해 온몸을 바쳐 싸우면서도 자신이 파쇼

의 축소판인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이런 것은 소설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사회과학적인 이론 분석에서는 모순투성이의 체제를 지탱해 주고 있는 체제의 달은꼴로서의 자기 성찰은 탐구되지 않는다. '허위의식'이니 '즉자적 의식'이니 해서 주체의 피동성, 노예성을 문제 삼는 범주는 있으나 이 역시 자기 밖의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기준일 뿐 자신에게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는 기능은 하지 못한다.

스스로의 권위로 홀로 서는 여자

그러나 수련은 입문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와의 싸움이다. 30분, 1시간, 3시간, 24시간을 자기와 대면하기를 요구한다. 수련을 해본 사람들은 좌선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처신이나 판단에서 많은 성찰거리들과 대면하게 됨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이 밀도있게 진행되면 될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들여다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은 바로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망상(妄想)들을 떨구어내는 과정이다. 바로 여기에 수련과 여성주의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다. 자아의 일부로 파리를 틀고 앉아 있는 가부장제의 반(反) 여성적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떨구어내면서 새롭

게 깊고 넓어지는 자기의 확장(=無我로의 수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수련은 반(反) 가부장적인 자기 여행, 자기 탐험을 심화시키면서 탈(脫) 가부장적인,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홀로 서는 여자를 만들어간다. 가부장제가 여성의 몸을 전장(戰場)으로 해서 벌이고 있는 싸움—여성과 여성의 몸과의 싸움—은 이만한 자기 성찰과 새롭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없이는 승산이 없다고 할 만큼 집요하다. 가부장적 야만의 하수인들은 여성 몸을 가학하는 온갖 무기, 물질적 자원들을 갖고 있다. 여성은 오로지 자기의 몸만을 갖고 있다. 이 몸이 수련과 만날 때 어떤 음모도 어떤 무기도 넘보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수련은 나눔의 문화를 향하며 합리적으로 나누고 더할 수 있는 능력의 증진을 가져온다. 수련하는 내가 해바라기라면 나눔의 문화는 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바라기는 말 그대로 해를 바라본다. 아니 어쩌면 수련의 정점에서는 아예 내가 해가 돼버릴 것 같다. 왜 수련은 나눔의 문화를 향하는가? 그것은 사람 인(人)자가 설명해 주듯,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원활한 소통의 관계, 그것이 가족관계든 교우관계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든, 우리는 그 관계가 열려져 있을 때 편안함, 행복감을 느낀다. 반면에 우리는 관계의 단절에서 고독과 소외감과 고통, 불행함을 느낀다(현대 도시인들은 이 벽을 편안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끔찍한 정도로 존재 왜곡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련문화의 중심에 여성이 있다

그래서 수련에서 말하는 건강은 개인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그리고 생활건강(=사회적 건강)을 모두 아우른다. 이 삼자의 어우러짐 속에서 비로소 나는 깔끔하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타자, 온 우주가 들어와 있기에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의 아픔이 더 이상 나와 상관 없는 남의 아픔만은 아닌 것이다. 이 단계에서 수련과 여성주의의 만남은 사회적 차원의 성격을 띠게 된다. 너와 내가 상생(相生)하며 공생(共生)·공영(共榮)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삶만들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련과 여성은 소원하지 않은 않다. 오히려 수련문화의 중심에 여성이 있었음을 암시받기도 한다. 역사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의 수련집단인 화랑도의 전신은 진흥왕(540년 즉위) 당시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여성우두머리를 둔 여성집단이었다(『삼국유사』 권2 탑상(塔像) 제4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남모와 준정의 싸움으로 원화제도는 폐지되고 수 년 후 남자 중심의 화랑제도가 통일도를 닦는 수련집단으로 다시 탄생한다.

원화제도가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원화의 후속제도인 화랑을 수련집단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국 고대사회에서 수련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열려 있었으며, 또





수련이 여성주의의 대안이다

한 여남간에 주변과 중심으로 질서화되지 않고 있었음을 추측해 해준다. 또한 중국 도교의 전통에서는 많은 여성 수련집단의 발흥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성의 미는 건강미, 생명력으로 이해되었다. 중국 도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여성수련의 전통이 우리 전통사회에도 존재했는가는 연구거리이다. 불교에서의 천배, 삼천배와 같은 수련 실기의 한 전통은 여성을 통해 맥을 이어왔으나 그 동기가 가부장적 욕망과 결부되어 있는 면이 있어 여성수련의 전통으로 말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학적인 전쟁터에서 생명이 움트는 몸으로

이제 다시 수련문화를 회복하여 수련을 매개로 하는 여성운동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가부장적 야만의 망상 떨치기와 새로운 삶만들기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왜통분만과 태교를 위한 임신부 교실을 해볼 수도 있고, 수행 실기를 함께 하는 우리 몸 다시 보기 강좌나 아름답고 건강한 몸가꾸기 교실도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련은 동시에 주부건강증치료 프로그램으로도 탁월하다. 자녀와 엄마가 함께하는 수련교실은 세대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생활문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 수련교사는 거리와 술집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자기 계발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의 흐름을 체험하는 디자이너들은 여성의 몸을 욕되는 옷이 아니라 몸이 숨쉬기에 편한 의복을 디자인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수련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여성 삶의 현상이 곳곳에서 만들어진다면, 여성들의 몸은 가학적인 전쟁터로 상처받는 데서 벗어나서 생명을 움트게 하는 공경받는 '어머니 몸'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젖이 쪼그라들까봐 분유를 수유하는 어머니들보다는 당당하게 젖을 물려 자식을 길러내는 어머니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어머니를 경험하는 여성 인구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한편 여성의 몸을 성적 희롱거리로 보는 남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수련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부장적 언행이 뚝뚝 튀어나오는 남자들이 있다. 이는 가부장제가 그만큼 심급의 성찰을 요하는 난제임을 입증한다. 이 부분에서는 남성 수련인구가 해내야 할 일정한 몫이 있다. 수련을 하면서 가부장적 남성 야만이 해체되어 감을 몸과 생활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건강한 남성문화를 일구어내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는 소유와 지배의 인간형을 추구하면서 소유와 지배의 해계모니를 잠은 남자-지배계급의 문명으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인류문명의 진보란 없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부장제의 극복은 인간형의 진화 없이는 극복될 수 없고 가부장제를 뛰어넘고자 하는 여성주의는 수련문화의 지향점과 마찬가지로 인류역사의 새 장을 여는 거대한 기획인 것이다. [7]

김정희(공동육아연구원 부원장)

음식기행

문화도 속속들이 숨겨져

사이버윈도우

사이버, 남자들의 천국

가상리포트

미래일보 "오늘의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발굴

조선시대 관동지방의 민생



세상 밖으로



남이 해주는 밥이 좋다

강화에서 기(氣) 받기



도(道)란 호젓한 곳에서 인연을 끊고 호율로 정진하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지옥탕화 같은 오욕칠정 속에서 인연이란 오맛줄에 묶여 남편 섬기는 '인내공', 제 살을 발라 만든 자식 '육아공', 그리고 그들에게 수만 번의 끼니를 만들어줘야 하는 '밥공'을 수련하는 여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도인이 아닐까. 그런데 그 수많은 도인들이 대접을 못 받는 이유는 뭘까? 천대받는 농사꾼이 지어서 시시한 여자들이 밥을 하니까 우습게 아는 거겠지.

나는 반찬하기가 피가 나 한 번에 콩나물을 왕창 삶아놓고 한 번은 콩나물국, 다음에는 무침, 또 한 번은 콩나물비빔밥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인지라 남이 해주는 밥은 무조건 황송해서 감지덕지다. 요즘은 육아공, 한의공, 호폐공만 해도 힘겨워 전국을 떠돌며 다른

밥도사들이 해주는 밥을 즐겨이 얻어먹고 살아간다. 게다가 점입가경으로 일요일에도 따끈한 아침밥을 주는 집, 밤 열두 시 넘어 새벽에도 고기나 안주가 아닌 달걀찜에 백반 한 상을 차려주는 집을 알아놓으니 호뜻하고 든든하다.

강화의 밥도사가 차려주는 밥상

바다를 볼 수 있어 위안을 주는 섬, 강화도에 아침밥을 먹으러 자주 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氣)가 센 곳, 빛이 내려온다는 뜻으로 강화라는데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서울을 떠났다는 실감이 든다. 에이, 그게 바다야, 하며 길 막혀 짜증난다는 사람은 필시 복잡한 외포리나 전동사 앞에 가서 비싼 꽃게탕이나 물경한 밴댕이 회 먹고 바가지 쓴 사람일 터. 놀고먹는 데도 정보와 부



부모님과 다니기 시작한 <우리옥>은 이제 딸 지영이를 데리고 다니는 우리 실태의 단골 밥집이다.

지련함이 받쳐주지 않으면 비싼 술 쏟고 바지 적신 꼴이니 누굴 탓하랴.

강화읍에 가면 중앙시장 옆 BYC 골목 안에 <우리옥> (032-934-2427)이란 밥집이 있다. 재작년 수재 나기 전까진 낡은 한옥이었는데 여름 물난리 때문에 수리를 해서 이제는 옛날 맛이 덜하다. 어릴 때 부모님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원래 주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며느리가 주인할머니가 되셨다. 아침 7시 반에 갖는 데도 조금 기다리면 불 때서 지은 밥과 따끈한 무국에 고소한 콩비지가 나온다. 서너 가지 나물에 생선조림, 장아찌, 참조개찌, 순무김치 등 12가지 반찬이 수수하고 정겨운데 밥값은 얼마일까? 퀴즈로 내놓을까나 ^^.

메뉴는 단순한데 맛은 고향의 맛이요 가격은 대만쪽이다. 새우 넣어 끓인 대구매운탕은 소(小)자가 3,000원인데 2~3명이 먹을 수 있다. 5명이 먹어도 5,000원짜리



이층 '한옥'이 이채로와 강화의 명물이 된 강화성당.

면 된다. 이 매운탕을 한 번 먹고 나면 일식집 만 원짜리 탕은 비싸고 싱겨워서 못 먹는다. 탕글탕글 짭짤한 작은 굴한 접시가 9,000원, 몽땅 자연산인 병어회 한 접시도 9,000원인데 둘 다 두터운 '무채방식' 따윈 깔고 나오지 않는다. 생선회라면 광어나 도미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생소하다고 병어회 외면하지 말자. 아직 항생제 먹여서 병어 키운다는 소리 못 들어봤으니까. 나는 늘 둘 다 먹고 싶어서 반반씩 한 접시 달라면 기꺼이 주신다. 궁금한 것은 일요일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언제 주무시는 것이다. 늦은 저녁시간에 들렀더니 한가한 틈마져 손녀딸 스웨터를 뜨는 걸로 매우고 계셨다. '으옥! 사부, 져습니다!' 하고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모님 같은 <우리옥> 밥보살님들은 평생 남의 입 호강시켜 주는 큰복을 짓고 계시는 도인들임에 틀림없다.



해수탕에 물 달그고 기 충전하기

강화섬의 동서남북 해안은 둘러 있지만 황해도와 마주보는 북쪽 해안은 철책으로 막혀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애기봉이나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북녘땅의 낯설음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좁은 바다 건너 육지가 편히 바라다보여 충격을 받았다. 신전문구와 철책만 없다면 미루나무가 서 있는 평화로운 백사장 강마을인데 저길 못 넘어와서 중국에 팔려가고 굶어죽는구나. 그 동안 만나보았던 탈북여성들 생각도 나고... 올해 문화일보 신춘문에 작품의 주인공인 망명한 북조선 외교관 구스타프 김이 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며 서서히 생명을 방기한 채 걸인으로 발견된 곳 철산리. 신분증과 약간의 호기심과 용기만 있으면 그곳에 갈 수 있다.

사람들은 외포리나 전등사를 가려면 꼭 복잡한 냉정삼거리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섬을 한 바퀴 돌면 어땠고 고개 넘어 가면 어땠가. 강화를 지나 이름도 아름다운 국화저수지를 지나 제일 높은 고천고개를

를 넘어 고려저수지 가는 길에는 마음 둘 만한 곳이 많다.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역새밭도 낙조대도 거기 있다. 넉넉한 저수지를 지나 돌고 돌아 화도면 마니초등학교 앞에서 우회전하면 선수리, 장화, 동막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이다. 선수 횃집촌에는 넓은 유리창으로 바다가 훤히 펼쳐 보이는 해수탕이 있다. 해운대나 완도 보성 속초는 너무 머니가 탕이 좀 작더라도 불평하지는 말자. 탕 속에 앉아 목만 빼고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면서 작아지고 점손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선수바닷가를 넘어가면 언덕 아래 조용히 자리잡은 〈조단〉(불개 비치는 낙조라는 뜻, 032-937-8294)을 만나게 된다. 나는 가을 청소년 같은 어린 웨이터가 서빙하는 양식집은 맛도 들며 있고 마음도 연잖아서 안 간다. 이곳은 어머니가 어찌다가 양식이 드시고 싶다면 모시고 오는 곳이다. 우리 모녀는 손바닥만한 스테이크보다 닭다리, 생선, 햄버거스테이크가 조금씩 골고루 나오는 정식을 좋아한다. 종달새같이 명랑한 목소리의

강화 속속들이 즐기기

1. 그리스 빌

김포에서 강화 거의 다 가서 오른쪽, 유리공장, 유리제품 전시장, 레스토랑 '콤플렉스(Complex)' 등이 모여 있다. 모래가 유리로 변하기까지의 '마술'을 볼 수 있는 곳. 어른 아이 모두 좋아한다. (0341-981-3344)

2. 강화성당

강화읍 고려당 골목 안쪽에 있는 최초의 이승 '한옥' 성당(1900년 건축).

3. 고려산의 낙조대, 역새밭

관광지도나 등산지도는 군청 민원실에 널려있다. 〈우리읍〉에도 관광지도가 있다. 마니산 말고도 400~500m 급의 멋진 산이 많다.

4. 먹이는 도로가 걱정이라면

토요일 오후에 들어가 일요일 점심에 나오거나 일요일 일찍 가서 밤늦은 시간에 나오면 된다.

아름다운 주인아주머니는 달라기도 전에 땀은 물론 와인 한 잔에 밥과 김치까지 알아서 주신다. 양식집인데도 기름진 밥에 김치도 맛있어서 같이 먹다보면 완벽한 한양식 퓨전푸드가 되어버린다. 단골이라서 알아서 준다 고? 아니.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단골이 된 거지.

햇살이 가득하고 정갈한 조단의 공기 속에서 갯벌을 바라보며 갯 뽕은 커피를 먹을 때의 여유가 소중하다.

갯벌에 빠지고 싶으면 〈조단〉 아랫길로 내려가면 된다. 용감하면 전신 머드팩을 할 수도 있고 바지 걷고 맨발로 빠지면 그대로 체험 삶의 현장이 되는 거지. 바위에 걸터앉아 낙조를 기다리다보면 서울에서 운기를 잃고 까칠해져 빨간색의 충전 경고등이 깜박이던 몸과 마음에 물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Battery full! [11]

일러스트 신지영

이유명호

남강한의원장,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호폐모) 주장장 온니. 우리 나라는 쌀 자급률만 90%이고 나머지 식량은 30%쯤 자급된다. 모든 먹거리의 70%는 수입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요즘처럼 스스로 굶기(다이어트라나?)를 밥먹듯 하며 밥을 소홀히 하다가 식량 생산이 더 줄어들면 식량 무기화 시대에는 어찌 살아남을까 걱정된다. 또 우리 나라는 일 년 동안 골고루 내려야 할 비가 여름 석 달 동안 한꺼번에(70%) 쏟아지고 그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그것이 바로 물 부족의 원인이다. 그때 넓은 논은 저수지로 변하여 물을 가두어 홍수를 막아주고, 천천히 스며들어 지하수를 채워준다. 환경보존의 큰 공덕에 대해서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자연의 에어컨이니 돈으로 따지자면 수십 조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 밥이 생명이고 하늘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



cyber

사이버, 남성들의 왕국

cyber

분노한 남성네티즌 군대가 온갖 게시판을
휩쓰는 동안 여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수백 통의 폭탄메일,
욕설과 협박을 포함한 수백 건의 반박 게시물을 경험한
이후 여성토론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얼마 전 교육방송에서 오래된 흑백영화를 보았는데, 소원하기만 하면 갑자기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을 갖게 된 어떤 남자가 나오더군요. 영화 중간에 그는 급진적인(?)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 의논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을 없앨 것인지, 혹은 모든 빈곤을 먼저 사라지게 할 것인지. 2000년을 앞둔 시점에 아주 들어맞는 영화였어요. 왜? 2000년이 되면 그 남자의 소원처럼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기라도 할 것처럼 오도방정들이었잖아요. 아니면 와이루케이 문제로 핵폭발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썩 사라질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영화의 결말처럼 허무하게도 아무 일 없이 새천년(정확히 하자면 1년이 더 남았지만)에도 현천년과 똑같이 해가 났습니다. 그래요, 2000년 들어서도 다들 무고하시죠?

저는 아주 지겨운 마음으로 새천년을 맞았어요. 지구가 통째로 증발하는 것도 괜찮은 현천년의 연딩이었는데, 세상은 조금도 변한 것 없이, 지긋지긋한 논란이 천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군가산점제 문제 얘깁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PC통신과 인

터넷은 그야말로 핵폭탄이라도 맞은 듯합니다. 정부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뒤흔어지고 여성단체와 여자 대학의 홈페이지들이 다운되고 각종 토론게시판과 유머란은 여성들에 대한 비아냥으로 가득찼더군요.

군가산점제 논쟁이 드러낸 진실

나는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우선 놀랐고, 두번째로는 그 폭력성에 놀랐습니다. 나우누리의 '러브어겐'이라는 이용자는 "정신대 보내서 똥꾸녕 찢어지게 고생 좀 시키자"라고 올렸더군요. 그들이 추천한다는 '눈물나게 울은 말들' (<http://www.ssaw.co.kr/>)에는 "평등 운운하며 군가산점을 폐지하자고 하는 망국적 여성단체들과 이화오적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글들도 대충 비슷비슷한 논지였구요.

아, 여러분, 단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건 단지 '노골적' 일 뿐입니다. 어디 저런 말들을 우리가 PC통신에서만 볼까? 나이 어린 여자라고 쉽게 반말지거리 당하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웠다고



지난 1월 29일 새천년민주당 앞에서 벌어진 군가산점 폐지 시위에서 남녀 대학생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뺨싸대기 얻어맞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 아남니까? 언어 자체보다도 언어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하여 더 예민해집시다. 그게 후일을 기약하면서 칼을 품는, 아니 전략을 세우는 길이지요.

〈달나라 말세포〉의 이소리님은 "어떤 종류의 욕설들과 비하적인 표현들이 많은 남성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치되고 반복되는 것[은]... 단지 그것들[이] 여성들의 면전에서 숨겨져 왔음을 말해 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신년담화에서 여성부 신설을 언급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주부들의 명절증후군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그 시점에도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은 보통 우리 눈앞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의 고통이 잘 드러나지 않듯이, 권위에 찬 말들의 위세에 눌려 그저 소리없이, 암묵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대중매체와 같은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점잖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진실의 언어들을 걸러내고 검열합니다. 그런데 분노라든지 루

념이라든지, 어떤 언어들은 갑작스럽고 거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고는 합니다. 마치 얼마 전 의회에서 남성의원의 입으로 발화된 '싸가지' 처럼 말이지요. 그 말은 이 사회가 여성정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사이버 공간의 욕지거리들을 환영하는 편입니다. 착한 척하는 바보상자는 이제 필요없습니다—결국 바보가 되는 것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무대 뒷편에서 출입을 통제당한 채 구경을 강요당하는 여성들 같은 사람들 뿐일 테니까요.

이번 논쟁의 노골성은 특히 '미디어 권력을 민주화' 시키고 있다는 소위 '네티즌'들의 사회적 성(젠더)을 여실히 폭로했습니다. 군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사는 으레 '찬:반=3:7'로 마무리되었더군요. 그래서 열 명 중의 일곱이 군가산점제 존속을 찬성한다며 '네티즌 여론'의 이름을 달고 많이 인용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연하게도 PC통신·인터넷 이용자의 성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걸 어떻

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성대결의 양상을 띠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분명 한 사회와 군제도의 문제이고, 평등한 노동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대결구도를 띠게 된 데에는 소위 '사이버 여론'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자가 어딜 감히"

군가산점제 존속 주장자들은 위헌소송의 두 주체, 장애인과 여성 중에서 여성을 공격의 타깃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군'이라는 지배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약자들에게 퍼붓는 과정이었는데, 그들은 이 과정에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지배적인 위치 또한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 대해서일까요? 많은 남성들이 여성(단체)을 상대로 "너 밤길 조심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성일 때, 그들은 여성에 대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의식하며, 또한 발휘할 수 있음을 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요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성폭력은 남성의 공간인 기계의 공간에 진입하려는 여성에 대한 힘의 과시'라는 어떤 주장을 상기해 봅시다. 남성 영역으로 간주되는 직업 분야에 여성이 진출했을 때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것은 실상 "남자들 일에 여자가 어딜 감히!"라는 남성들의 엄포이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남성들의 집단적인 의사표현과 주장 역시 일종의 남성 권력의 과시이자 성폭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군가산점제 논란이 노골화되고 성대결의 양상을 띠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거기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하여, 결국 군가산점제 문제는 군제도 개편이라는 궁극적인 주제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사이버 공간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여당은 '국가보안정력가산점제'를 복원하

많은 남성들이 여성(단체)을 상대로

"너 밤길 조심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의식하며, 또한 발휘할 수 있음을 압니다.

겠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네티즌 여론'을 들먹거리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요.

네티즌은 갖가지 이유로 깃발을 들고 웅기종기, 때로는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유명하지요. 바로 그렇게, 불특정다수의 남성네티즌들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군가산점제 존속'이라는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찬성하는 여성네티즌들은 이 유명한 네티즌에 대한 속설과는 상관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답답했고 또 가장 놀라왔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유명한 네티즌 집단의 특성은 남성네티즌들만의 것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현재 결정을 지지하는 여성네티즌들의 집단적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성동호회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플라자에 진출하도록 선동도 했고,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 의논을 해보자고도 하였습니다 (woman@list.jinbo.net). 여성단체들의 홈페이지가 폭격을 당할 때, 드물지만 "개새이들아!"를 용감하게 외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네티즌'은 아직 남성명사

그러나 남성들이 '남성학회' (go men)를 꾸린다면 한창 분주한 동안 여성네티즌들의 목소리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소리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분노한 남성네티즌 군대가 여성게시판을 포함한 온갖 게시판을 휩쓰는 동안 여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수백 통의 폭탄메일, 욕설과 협박을 포함한 수백 건의 반박 게시물을 경험한 처음 며칠 이후 여성토론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남성이 수적으로 압도적이고, 공격적인 토론 관행과 폭력적 언

어를 전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아, 예외가 있긴 있군요. "나도 여자지만"으로 시작하는 군가산점제 존속 주장들만은 열화와 같은 '네티즌'들의 추천을 받아 전제하더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여성네티즌'이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네티즌이란, 이 공간을 선점한 남성들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남성들의 언어로, 남성들의 논리를 갖추어 입고, 그들의 비위에 어긋나지 않는 주장을 해야만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또 "밤길 조심해"라는 위협으로.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해 두죠.

천년의 달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니, 네트워크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성적입니다. 군가산점제 논쟁이 이를 잘 드러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티즌'이라는 무성(無性)적인 언어에 현혹되지 않는, 여성네티즌을 찾아가는 과정을 피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논쟁과정에서 사라진 그들을 찾아나섭시다. 여성네티즌이란 누구이며, 그들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고군분투합시다. 그 전까지는 누구든, '네티즌 여론'이나 '사이버 여론'과 같은 단어를 쓸 때 함부로 '우리'를 포함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7]

라인헤어컬렉션 Line Hair Collection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3-20 화랑빌딩 5F
예약 및 문의 : TEL. (02)544-1991 FAX. (02)545-9366
영업시간 : AM 9시30분~PM 8시 (일요일 정상 영업)

미 래

2050년

‘남성당’ 이번에도 물건너가나

계파갈등 끝내 주먹다짐... 준비위 발족 무산
남성단체 “낫뜨겁다” 낙천·낙선운동 선언

오는 4월에 있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일부 남성들이 ‘남성당’ 결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내부의 갈등이 워낙 큰 데다가 외부적으로도 지지기반이 극히 허약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당 결성은 지난 2002년 여성정부 수립 이후 총선 때마다 거론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내부분열, 극우파 남성들이 가부장제로의 회귀를 부르



짚으며 호주제 부활 등을 주장하는데 반해 온건파는 남성할당제 확대, 양성평등교육 실시, 육아수당 지급 등을 관철시키는, 이른바 세계 내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사정은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월 20일 종로구에 위치한 모 중국집에 모여 ‘남성권리선언문’을 낭독한 후 ‘남성당 창당준비위원회(가칭)’를 공식 발족하려던 이들은 선언문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발족

식 대신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사장 윤박모(61)씨에 따르면 서로 ‘현실을 모르는 과격분자’, ‘기회주의자’, ‘여성의 하수인’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고성을 지르다 급기야는 술잔을 내던지고 주

일 보

3월 8일

먹질을 하는 등 추태를 보였다는 것. 이들을 수사한 후 불구속 처리한 종로경찰서 이강하(52)서장 역시 “남자들은 정당 결성 전에 먼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상식과 예의를 배워야 할 것”이라며 혀를 찼다.

한편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여성유권자들보다도 남성유권자들이 더욱 크게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主夫)클럽중앙본부 김나입분(43)회장은 “남성들이 패권주의와 폭력성 때문에 정계에서 추방당한 뒤 근신하기 시작한 것이 겨우 반 세기 전의 일이다. 그런 남성의 처지를 잊고 정치에 뛰어들어든 것도 불쾌한데 더욱이 그런 추태를 보여 남성의 얼굴에 또다시 먹칠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정당을 결성하고 총선에 출마할 경우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단체연합(공동대표 김이복종, 이정착한, 박남후너)도 성명서를 통해 “남성유권자들은 일부 남성들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말고 늘 해왔던 대로 부인의 뜻에 따라 투표해야 큰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오늘 3·8 여성파업 50주년

“50년전 우리는 위대했다!”

모의파업·남근 깨기 등 이벤트 다양

3·8 세계여성파업의 날 50주년인 오늘부터 한 달간 서울과 전국 각 시도에서 다양한 학술·문화행사 이벤트가 열린다.

3·8 세계여성파업의 날은 2000년 3월 8일 전 세계 여성들이 군사적, 반환경제, 비윤리적 남성집서에 대항하여 파업을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여성정부연합에서 제정한 날로, 해마다 3월 8일이 돌아오면 전 세계인들은 당시 파업을 계기로 각국에 여성정부가 들어선 것을 찬양하고 그 의의를 기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해 왔다.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뜨거운 올해 행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8 모의 파업’, 이 행사를 직접 기획한 준비위는 애초에 “이 날 하루동안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파업을 해야 하며 대신 남성들은 여성의 일을 경험함으로써 여성의 노동력이 지난 창조적 힘과 가치를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단 하루라도 여성의 역할을 남성에게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준비위는 공원 관리, 우편물 분류, 부품 조립 등 비장에 남성이면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작업에 한해서만 체험하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이외에도 30년 전 파업을 주도했던 캐나다, 스페인, 한국 여성들이 합동으로 준비한 대규모 학술대회와 각 시도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눈길을 끈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미 하나마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있는 남성의 모호한 정체성을 고찰하는 ‘영남미술전시회—인간과 침묵 사이’, 상척사가 준비한 ‘남근 깨부수기 대회’, 인당수에 뛰어드는 희생정신으로 부성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심하규를 본받코자 이 땅의 아버지들이 백령도 앞 바다에서 개최하는 ‘나도 심하규!’ 등을 추천했다.

장씨대감 “나는 이몽년의 증손자”

10년형 해당... '양심선언' 사법처리 여부 관심



복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시역사관이 제작한 것으로, 이정씨는 이 작품에서 남성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남성의 본분을 깨우치는 주인공 '장씨대감'으로 열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정씨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소설 '초이쓰'를 집필해 청산되어야 할 남성 오적에 뽑힌 작가 이몽년이라는 것.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 6일, 이정진실씨는 이 날 다큐멘터리 영화제 폐막제가 거행중인 나혜석문화회관 중앙홀 무대에 올라 “작가 이몽년이 나의 증조할아버지이며 여성과 역사를 왜곡 날조한 선조를 대신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참여했다”고 말한 후 “헌법에 따라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정부 수립 직후 마련된 여성 오적 연좌처벌법에 따르면 이몽년의 3대 후손에 해당하는 이정씨는 10년형을 살아야 할 판. 하지만 그가 전 재산을 털어 아무도 모르게 일본으로 이민을 가 법망을 교묘히 피한 선조를 대신하여 양심선언을 했다는 점, 역사의

피로 얼룩진 남성들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부끄러운 자화상>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이정진실(사진)씨가 고(故) 이몽년 작가의 후손인 것으로 밝혀져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부끄러운 자화상'은 가부장제가 지배하던 과거의 역사를 낱알이 보여줌으로써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반복

진실을 밝히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법무부를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정씨의 양심선언은 분명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이몽년의 죄가 워낙 중대한 만큼 심사숙고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도 군대를” 철없는 젊음 또 아파트 투신 할당제 등 병역법개정 논의 확산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20대 남자가 ‘나도 군대에 가고 싶다’는 요지의 유서를 남기고 20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 그 자리에서 사망함에 따라 가족들이 군입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내는 등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투신자살한 유박모(21)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그의 성격과 생활 태도는 마치 여자처럼 쾌활하고 적극적인이었다고, 어머니 유정나미(47)씨가 “남자 팔자 뒤웅박이니 빨리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이를 거부하고 간호학원에 다닐 정도로 사회활동에 대한 꿈이 컸다고 한다. 더욱이 유박씨는 남자로는 보

기 드물게 사회성도 강한 편이어서 가족들은 물론 주변 친구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나흘 뒤, 책상 서랍에서 유박씨가 자살 직전에 쓴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사건의 파문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그가 유서에 “왜 여자에게만 입대의 특혜가 주어지고 우리 남성들은 갈 수 없는가”, “루데타를 일으키는 등 군 권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건 윗세대 남성들인데 왜 후대인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 “왜 여성들은 출산과 국방의 특혜를 모두 갖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이 밝혀지자, 가족들과 일부 남성들이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에 올린 탄원서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전체 여성과

장애남성에 한해서만 입대를 지원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남녀 모두’로 개정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라는 것, 그리고 둘째, 기회의 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 남성할당제를 도입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군생활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남성에만 선발하라는 것.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한 명 죽을 때마다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용인경찰서 심리계 장한분(44) 계장은 “주변 정황을 조사한 결과 유박씨가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저돌적이고 나서길 좋아해 남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자주 들었고 왕따를 당하는 등 수모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한 뒤 “어렸을 때의 상처로 정신이상에서 따른 자살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1] 박미숙

당신도 이제 사랑받는 남성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은 달라집니다!

남자가 알아야 할

33가지 내조법

인기 남류작가 엄찬팔려의 야심찬 신작

여자가 밖에서 하는 일을 알려고 하지 말 것/ 말대꾸하지 말 것/ 여자의 만족을 위해 밤마다 세 다른 이벤트를 준비할 것/ 큰 소리내지 말 것/ 일하는 아내를 위한 영양식을 만드는 법/ 아내에게 맞는 옷 고르는 법 등 33가지의 기적같은 신비의 비결 수록

• 발간 이틀만에 재판 물인, 서점에서 지금 일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2-1010-245

도서
또 하나의 참회

“이 책이 아마도 우리 시대 남성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명쾌한 해답서다” ***** 왕조은글(45, 비평가)

“내조법을 읽고 따라한 덕에 올 봄 드디어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됐다” ***** 최강내즈(34, 회사원)

“한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책이 나온다니 믿기지 않는다” ***** 그레투 피토(27, 영어강사)

간통살인죄와 정부일죄?

조선시대 간통살인죄

흔히 조선시대는 유교사회라 대단히 윤리적이어서 간통살인 같은 것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듯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보다 간통을 더 죄악시했던 시대라 간통이 발생하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할 성종 10년(1479)에 일어난 간통살인사건은 조선시대 남편은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조금 색다르다.

어느날 박종손이란 자가 양반집 여종인 근비라는 여자와 통정을 하고는 근비의 또 다른 정부였던 차경남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형조는 살인범 박종손을 사형에 처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근비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하여 곤장을 때리는 것으로 처리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간통살인사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듯했다. 흔히 일어나는 간통살인 정도로 이

해하고 그 수준에서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살인을 방조한 간통녀 근비 또한 남편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재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간통녀 근비에게 남편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해된 차경남이 과연 그녀의 남편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성종시대 간통살인사건

이 문제로 조정에서는 한차례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당시 이 논쟁에 끼어들지 않은 대신이 없을 정도였다.

처음 이 사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좌승지 김승경이었다.

"천한 여종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간통한 남자가 자연히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차경남을 근비

간통

어느날 박종손이란 자가 양반집 여종인 근비라는 여자와 통정을 하고는 근비의 또 다른 정부였던 차경남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 남편으로 인정하여 그녀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좌승지 김승경의 재심 신청으로 차경남 살해사건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렇듯 좌승지 김승경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은 재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반대측의 입장은

"근비가 부모 허락 없이 혼자 차경남과 간통한 것이니 죽은 차경남은 남편이 아니라 정부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렇듯 조정 대신들간에 서로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서게 된 까닭은 죽은 차경남이 남편이나 아니냐에 따라 근비가 받아야 할 형벌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차경남이 남편이 될 경우엔 근비가 비록 살인범이 아니어도 '남편살인방조죄'가 적용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남편개념 논쟁이 나오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결혼이 성립하게 되는 법적 조건과 풍속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이야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결혼하는 데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닌 세상이지만, 조선시대 결혼이 성사되는 전제조건은 '중매'였다. 물론 법적 효력은 혼인단자, 즉 폐백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중매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말하자면 중매를 통하지 않은 결혼은 '간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비와 죽은 차경남이 비록 결혼식을 올리는 않은 사이더라도 중매를 통해 만나 정을 통했다면 사실혼이 적용되어 부부로 인정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중매는 결혼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주관하는 것이므로 '근비의 부모가 차경남을 모르는데 어찌 이들을 부부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근비가 양인여성이 아닌 천인여성이란 점이었다. 노비들은 중매나, 혼인단자나 하는 결혼예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로 눈이 맞거나 주인이 맺어주면 그냥 살붙이고 사는 인생들인 것이다. 따라서 여종 근비에게 양인여성의 결혼예례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제일 먼저 정분을 나눈 남자가 남편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유부녀들에 대한 경고조치

그렇다면 최종결정론자인 성종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차경남은 중매를 통해 근비를 만났으니 정부라고 볼 수는 없다.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일 때 근비는 전혀 말리지 않았으니 남편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은 성종의 결정으로 근비는 사형에 처해질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처음 이 사건을 맡은 형조가 사형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사형반대론자들도 다시 "앞서거나 뒤서거나 했을 뿐 차경남이나 박종손이나 모두 근비의 정부일 뿐입니다. 먼저 정을 통했다고 남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며 거들고 나섰다.

찬반론이 서로 맞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자 '형법 경감주의'에 입각하여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하는 것이 도리어 나으니 사형만은 면해 주자'는 견해도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근비는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사실 그녀가 죽은 것은 여종이라는 한미한 신분 출신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혼례를 치르지도 않은 정부였음에도 단지 통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적용을 받은 것이다. 그 당시 분위기에서 천한 여종에게 혼례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가 양인여성이었

근비를 죽인 성종의 속셈은

혹 사랑하는 정부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이른바 유부녀들에 대한
'경고조치'였다.

고 임신까지 한 상
태였다. 그야말로
'법대로' 처리하면
처음 혼약한 집으
로 되돌려야 했지
만, 현실은 그럴 수

다면 이같은 결론은 나올 수도 없는 일이었다.
더욱 억울한 것은 죽은 차경남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다. 설사 사실혼이 적
용된다 하더라도 근비는 정식 부인도 아닌 첩
일 뿐인데 여기에 남편살인방조죄라는 죄목이
더어 켜워진 것이다.

조선시대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면 사형을 당했으나,
첩일 경우엔 사형은 면했다. 게다가 부인도 첩도 아닌
관계의 여자가 살인을 방조했을 경우엔 곤장 백대와 3
년 실형이면 충분했다. 따라서 근비는 법적으로 봐도
사형까지 당할 범죄자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성종이 굳이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비를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실혼' 운운하며 무리하게 근비를 죽인 성종의 속
셈은 혹 사랑하는 정부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이른바 유부녀들에 대한 '경고조
치'였다. 가부장 사회로 치달리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었던 것이다.

법이냐 현실이냐, 그것이 문제였다

성문화된 법전과 실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게
마련이지만, 근비사건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유독 심했다. 성종대에 그러한 사례가 또 한 차례
발생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이경세란 자의 딸이 이른바 '납례' 라
는 혼인신고까지 해놓고는 어떤 연유인지 그만 파혼하
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서 시작되었다. 이경세의 딸
과 혼인하기로 한 신랑측 집안은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
여 이경세와 그의 딸을 고소하였다. 이 고소로 조정은
또다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논쟁의 쟁점은 이미 다른 집으로 시집간 이경세의 딸
을 처음 혼약한 집으로 되돌려보내야 하는가였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만, 조선시대에
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던 조
선시대 법으로는 납폐도 엄연한 결혼이었으므로 처음
혼약한 사람이 본남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경세의 딸은 이미 다른 남자와 부부연을 맺

고 없고 게다가 그녀를 첫 남자에게 되돌린다면 한편으
로 재혼하는 꼴이 되기도 했다. 파혼은 할 수 있지만 개
가는 더더구나 안되는 것이 조선시대 법이었다.

성종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비록 부부연까지는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은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이
다. 그렇다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어렵구나."

법을 따르자니 현실이 옳고 현실을 따르자니 법이 무
너질까 걱정되는 문제였다. 드디어 신하들은 다음과 같
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재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나라법인데, 만약 첫번째
남자에게 돌려보낸다면 국법이 재혼을 허락하는 꼴이
됩니다. 원래 결혼이란 것은 부모가 결정하는 일이니
아비만 벌주고 딸은 그냥 두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성종은 이 말에 따라 이경
세만 벌주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당시 법으로 혼인약속을 파기한 가장에게는 '곤장 80
대'였다. 그런데 성종은 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중죄
로 다스리라 명령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국법과 현실이 이처럼 차이가 나
게 된 것은 중국법인 이른바 '대명률'을 사용했기 때문
이다. 중국사회의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명률은
조선사회 현실과 이렇듯 거리가 있었는데도 그 당시 위
정자들은 사회현실보다 법규를 우선시했던 것이다. 11

정성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서각 연구.
『한국사 101장면』, 『조선의 성풍속』 저자.

I'm

still



loving you

내 사랑 투명반창고 마지막

이숙인, 장편소설 『학교는 다다』의 작가. 본지 객원기자.

I'm

—아니죠, 전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여자가 매일 밤 나 아닌 사내놈의 살을 맞대고 잠을 잔다는 것, 때로 그놈의 딱딱한 살형이가 내 여자의 보드랍고 촉촉한 자궁 속에 들어가 끈적하고 달콤한 신음을 빚어낸다는 것,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곧 죽어갈 생명의 씨를 마구 뿌려댄다는 것...

(맞은 편의 여자, 길게 한숨을 쉰다.)

—아니, 아닙니다. 그 정도의 불쾌함은 아무 것도 아니죠. 맛있는 걸 먹을 때, 내 여자가 좋아했던 것, 레몬을 넣은 시나몬향 파이라든지, 또 있어요. 어쩌다 근사한 술집을 발견했을 때, 늦은 저녁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잠에 빠져 있고 혼자 멀거니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다 치진 몸통이가 부르르 떨리며 열에 들며 웅얼거리는 걸 봅니다. 그럴 땐 그저 그 사람 손잡고 그 사람 곁에서 단잠이라도 이루었으면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저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냅니다.

(맞은 편의 여자, 일어나 초조한 듯 왔다갔다한다.)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늦은 밤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런 밤, 전철을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는 게 그저, 시간이 흐른다는 게 그저 끔찍할 때가 있어요. 점점 빠져가는 머리칼, 이제 늙어가는 애비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딸년들... 주위를 둘러보면 온갖 악취와 무례, 썩어가는 세상의 추레한 꼬라지, 그런 전철을 혹시 타본 적이 있습니까? 훗, 당신 같은 이는 타봤을 리가 없지. 하지만 고마운 일이었소, 그놈의 전철에서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여자분도 저처럼 남편과 자식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우린 다 묶여 있는 몸들이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천 년의 세월도, 우리를 둘러싼 어떤 장벽도 넘나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나요, 왜 그 여자를 죽여야만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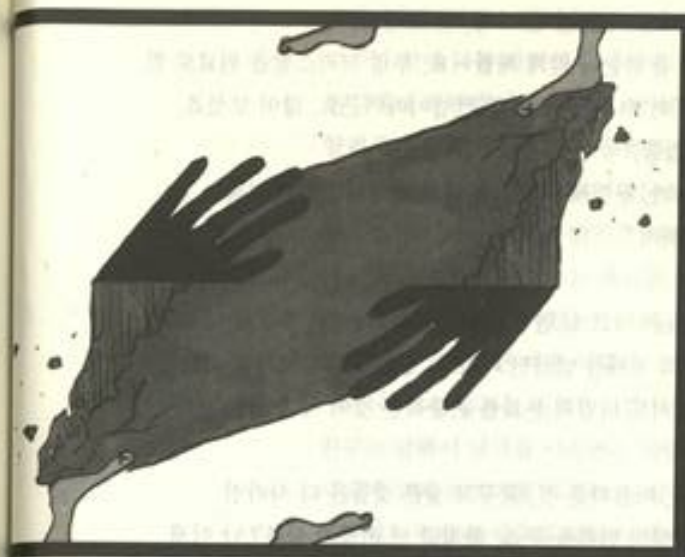
연극은 지루했다. 하지만 참고 끝까지 보기로 한다. 어떻게든 밤시간을 피곤하게 보내야 했으니까. 무엇에든 몰입해서 내 안에 꿈틀대는 널 지워버려야 했으니까. 네가 사라진 처음 한 주일, 나는 사막의 낙타처럼 두리두리 세상을 걸어다녔다. 수없이 들어오는 모래바람을 말없이 견디는 낙타처럼, 따로 울지 않으나 늘 눈가가 젖어 있는 낙타처럼. 나는 줄곧 질금질금 눈물을 흘리며 돌아다녔다. 먹을 수 없었고 잘 수 없던 몇 날이 그렇게 흘렀다. 마음 한구석에서 언제나 피가 줄줄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위가 별정계 부어 진물이 흐르는 느낌, 물 말고는 무엇 하나 제대로 삼키지 못하던 시간이 또 열흘쯤 흐르자 나는 서서히 바닥에서 일어섰다. 이게 뭔가. 나에게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가. 이대로 굳어져 고요히 사라지고 싶던 열망도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고통의 역리, 너무 지독하게 아프면 무감각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반복되는 고통은 차라리 지겨움에 가까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또다시 흘렀다. 그러자 때로 문득 문득 어쩌면 네가, 내가 오래도록 바라던 '그'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까지 되었다.

(남자는 고개를 푹 떨구고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이름에서 만약 남자가 절규하며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당장 일어나 나가버려야지, 하고 나는 생각한다. 어리석은 놈들, 그리고 더 어리석은 나여, 의심하고 정죄하고 묶어두고 뒤흔드는 게 그토록 바라던 사랑의 포즈였던가. 나는 입술을 깨물며 뒤흔드는 후회를 한다. 영원을 넘어, 죽어서까지, 내 맘대로, 너는 종처럼,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 개××!

(남자가 일어나 관객을 바라본다.)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장한 정사(情死) 앞에서 흥분한 내 여자가 약을 혼자 다 마셔버린 겁니다. 정말이에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약이 없었어요. (관객들 웃고 웃는다.) 그리고 난 정신이 들자 숨도 쉴 사이 없이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달린 거죠.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약이 없어 죽지 못했더니, 내 참, 당신은 정말 비겁하군요. 호텔 안에는 과일을 꺾어먹은 흔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언제나 스위스제 나이프 입술을 지니고 다녔잖아요. 보이스카웃 출신답게.



still

참을 수 없이 웃음이 비쳐나와 극장 안을 빠져나오고 만다. 번역극의 작위성이라니, 머리 벗겨진 남자와 보이스카웃이라니... 거리는 차고 스산하다. 나는 지금 계절을 짐작할 수 없다. 늦가을인가 초겨울인가. 그냥 집까지 걸기로 한다. 눈에 비늘이 낀 것처럼 앞이 흐리다. 나는 두 눈을 힘차게 비빈 다음 다시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앞서 걷는 두어 쌍의 연인이 사진처럼 망막에 걸려 순간 정지해 있다 움직인다. 스윙, 쇠스랑 같은 것이 가슴을 훑어내리는 것 같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걸어야지, 그러면 잠에 푹 푹 아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내일 오전엔 중요한 홍보물을 맡긴 디자이너의 프리젠테이션이 있다. 잘해야 되는데, 나는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한다. 아마 2시간쯤 걸으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취수(兄死取嫂)는 가능한가, 아니 그 역(逆)도 가능한가, 동류의 유전자에 대한 끌림,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그러함, 가능한 일일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3대 조상의 유전자지도가 거의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된다 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 비율은 각기 차이가 난다고 했으나,

오후까지 계속된 홍보물 제작 설명이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들 앞에서 잘 넘어가 주었다. 국내 디자이너에게는 처음 맡긴 일이어서 우리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함께 자축하며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던 것 같다.

"김지원씨, 제안한 컨셉이 적절했던 것 같소. 사람도 잘 선정했고."

"방향이 명확해서요, 언제나 선택이 분명하시잖아요."

처음으로 인공청음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드러난 것이 기뻐다.

"이런, 오늘은 세번 할 들어가는데."

"그 호수 모양 로고 말이예요. 실은 제가 북구 디자인전시장 가서 얻은 힌트를 변용한 거예요."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크고 높아져 있었다.

"아, 언제 거길 다 갔지? 나도 가려다 차일피일 미룬 건데, 그래, 볼 만했소?"

"차갑고 깨끗한 디자인이 북유럽풍이라는 걸 한눈에 알게 해줬어요. 투명 크리스탈을 원료로 한 화병이 참 아름답던데 그게 거의 전세계로 퍼져나간 유리가공 컨셉이라더군요. 많이 보셨죠, 왜, 테두리가 요철곡선으로 된 호수 모양 컵들."

"변기 디자인 공모전까지 상황인 지역이니까, 무엇보다 자기들 국토의 생태적인 특성을 외형에까지 자연스레 구현하는 점이 대단하지."

"그 역시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닐까요?"

"김지원씨, 또 그런 식의 발상을, 물론 그들은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지. 하지만 호수의 나라로 불리는 핀란드만 해도 20세기까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요. 성급히 무장해제를 하는 우리들이 문제지, 자기들 빗장을 고집하면서도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꼭 포식한 자의 트림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난 이제 세상에 그럴 듯한 것, 아름다운 것, 꿈꾸고 싶은 것들은 다 사라진 기분이에요. 일 따윈 그래요, 오늘 하루 분량의 만족을 주죠. 하지만 난 어떻게 살죠? 난 이제 비참하게 늙어갈 거예요."

많이 취했다. 부정을 부리고 있는 거다.

"너무 바닥까지 내려가는군. 당신은 덩치만 큰 어린애요."

그런 어느 즈음, 나는 온몸의 물기가 피부 밖으로 스며나오는 느낌에 사로잡혔고 실제로도 얼굴이 흠뻑 젖어들기 시작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디 가서 잘 있을 거야, 너무 조바심치지 말아요."

"나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만나고 싶던 사랑이었는데, 부끄럼 없이 날 다 드러낼 수 있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좋았고 그도 나처럼 그랬을 텐데, 우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려서부터 준서는 잘 사라지던 아이였어, 책을 읽다 다락방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처음 집을 나가기 시작한 뒤로 일년에 한두 번은 꼭 바람처럼 사라졌다 불쑥

나타나곤 했지. 그럴 때 그해 머리 위론 늘 새로운 구름 냄새가 나곤 했어. 하하, 무슨 말인지 알겠소? 지금 여기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수증기와 다른 빗발 먼지로 빚어진 색다른 구름의 냄새 말이오, 늘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침대 위에서 뒹굴던 나에 비하면 그랜 거침이 없었지."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마치 무대 위의 등장인물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본사에서 온 남자들도 그 곁에서 시종들던 팔동신들도 조용히 어디론가 꺼져버렸다. 저 여자들은 이제 무얼 할까, 나처럼 가볍고 한들거리던데, 나는 나방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했다. 어디로 가자고 했던 걸까, 나에게 네 방 열쇠가 들려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네 형과 나는 함께 네 거처로 들어섰을 것이다. 네 형은 비틀거리는 나를 부축해 네 침대에 나를 눕혔다.

"무엇보다 요새 황당한 건 말이예요, 주혜의 환영이 죄다, 몽땅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소, 비밀 예금계좌니 친구의 아이니 하던 것, 다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벌써 세번째 말하는 거요."

"미안해요."

초월, 직관, 비밀스런 이끌림, 예감이나 예지... 운명적인 힘이라든지 거부할 수 없는 필연 따위가 한때 나를 강력히 지배하던 적이 있다. 뉴욕에서 돌아와보니 너는 종적을 감추었고 현지에서 확인한 바론 주혜의 아이란 애초부터 없었다. 숨겨놓은 구좌와 비밀번호 따위를 알려주어야 할 망령은 다시 출몰하지 않았고 그것은 내가 사라진 시기와 우연히 겹쳐 드디어 이 지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만이 분명해졌다.

미국경찰은 내가 신분을 밝히고 애걸하듯 매달리자 조심스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가 매우 빠른 속도로 뱉어놓는 새로운 사실 앞에서 나는 말을 잊었다. 그 속도감 때문이었을까, 그 안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을까, 나는 머리 표면이 따끔거리 전모를 차근차근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그의 말을 요약하면 대충 이렇다.

"우리측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신 친구의 남편은 거기서 새로운 애인을 만났어요. 당신 친구는 남편이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전혀 몰랐나봅니다. 충격이었겠죠. 그러다 어느날 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술에 취한 당신 친구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시신에서 알콜이 검출된 사람은 셋 중에 당신 친구뿐이었어요. 이웃들 말로는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소란이 있었다는군요. 한번은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하도 정중히 사과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갔었지요. 그리고 이주일쯤 후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웃 증언에 의하면 여자가 연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 들렸다는군요. 그리고 이어 총소리 한 방이 먼저 울렸고 다음 두 방에 이어 한참후에 나머지 한방이 각기 시차를 두고 들렸어요. 총알이 나간 각도나 방향을 보면 당신 친구가 먼저 당긴 것은 빗나갔고 남편의 애인이 놀라 방어하려다 쓴 총에 당신 친구가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 당신 친구의 남편이 애인을 제지하려다 쓴 사냥총에 그 애인이 맞고 당신 친구의 남편은 뒤이어 자살했다고 추정됩니다."

신혼초, 주혜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하염없이 제방에 틀어박혀 비디오를 본다고 했다. 이건 완전히 따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냐? 나랑 결혼한 이유가 무엇보다 편안해서라나?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영화애호가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의 소견이 답답했던 기억이 난다. 기다리던 아이도 생기지 않고 남편은 잠자리를 멀리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던 주혜가 돌아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오히려 가엾은 것은 이 땅에서 커밍아웃하지 못하고 이국에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었던 그 남자의 비극적 삶이 아닐까. 그들은 왜 헤어지지 않았을까, 왜 차라리 이혼하고 이민을 떠나지 않았을까, 도미 비용을 대준 남자 집안의 눈치가 보였겠지. 혹은 그 남자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기 싫었을까. 그래서 낯선 땅에 가면 뭔가 새 삶에 몰두하리라는 기대를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있는 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지."

두어 차례 속을 뒤집고서야 나는 술에서 깨어났다. 그는 준서가 입던 헐렁한 셔츠를 걸치고 어느새 말끔히 샤워까지 마친 다음 내 곁에 앉아 있었다. 혼자 뇌까리던 이야기를 전부 들은 모양이다.

"몇 시예요? 피곤한데 눕지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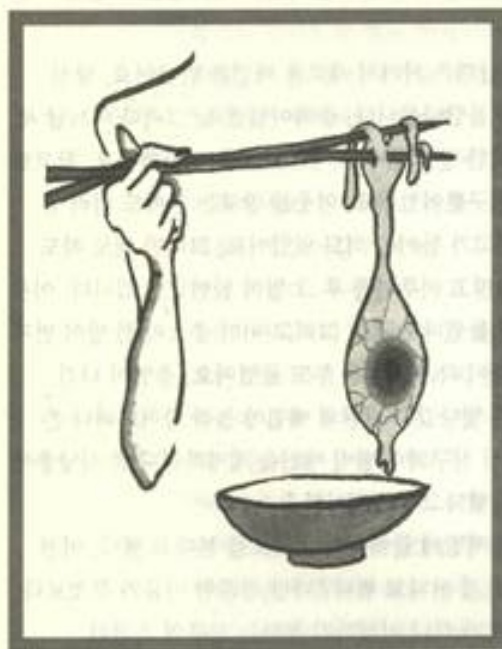
작은 유리창을 통과해 은은한 달빛이 새어들고 있었다. 나는 몸을 굴러 침대 한쪽에 빈자리를 만들었다. 네가 주로 누던 자리다.

"이대로 앉아서 새벽 푸른빛을 맞고 싶은 걸."

네 형은 단정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나는 불쑥 그 미끈한 등쪽을 후려치고 싶은 기분이 들었고, 조금 후엔 이런 말까지 꺼내고 말았다.

"좀 안아주세요."

내 마음은 이상한 심술과 외로움과 짜증으로 범벅이 된 채 그를 불렀다. 그러나 네 형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팔짝, 열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처럼 네가 방으로 스며들었다. 하나씩 옷을 벗기 시작하던 나는 얼어붙었고 네 형은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었고 너는 피식, 조금 웃더니 이내 쓰러져 잠이 들었다.



10월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한태평양 조산대 지역은 격렬한 태풍권에 진입하고 있었다.

"태풍의 핵으로 들어가다니 미친 짓이야."

"내 평생 처음 만나는 큰 바람이에요."

너는 돌아온 지 보름만에 불쑥 연락을 해서 여행을 가자고 했다. 여름휴가도 쓰지 못한 나는 한숨 돌린 터라 특별히 네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도리어 감사히 응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리엔 비가 연일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아예 양동이째 비를 퍼부었다. 여기저기서 땅이 움푹 파여나갔다. 여행지로 잡은 일본은 이미 태풍권에 진입했다. 네가 가자고 제안한 곳은 며칠 후면 태풍의 중심에 놓인다는 큐슈지방의 화산지대였다. 나는 미리 겁에 질렸다. 거긴 아직 활화산이잖아. 하지만 네 얼굴은 신나는 모험을 앞둔 사내처럼 밝게 빛났다. 아주 큰 분화구예요. 아직도 용암이 펄펄 끓고 있대요... 알았어. 사람들이 아무도 떠나지 않아 비행기표는 쉽게 구했다. 당일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지. 어쩌면 비행기는 뜨지 않을지도 모른다.

"짐을 오래 싸는구나. 아주 멀리 가더라도 할 것처럼."

엄마는 휠체어를 사드린 이후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동시에 점점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저 내일 떠나요. 사나흘 후면 돌아올 거예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매일 저녁 방영하는 시트콤을 보며 쿡쿡 웃고 있었다.

"기분 좋으세요?"

"저기 편지 다시 한 번 읽어봐라."

"벌써 두 번이나 읽었어요."

"난 갈란다."

"외국에 가면 뭐든 다 낫고 뭐든 다 좋을 줄 아세요?"

큰언니가 모처럼 자별하게 편지를 띄웠다. 이제 자기도 살 만하다고. 북미로 건너간 이후 언니는 자립에 성공했고 외국인 남편과는 헤어졌다. 아이가 셋이나 되니 이제야 엄마가 필요해진 건가. 나는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의 기분을 어떤 예감처럼 떠올리게 된다. 엄마 아마 평생 애보게나 집보게가 될 거야.

"재산을 꽤 많이 모았나보다. 나 원래 외국 좋아했잖아. 시애틀엔 커피점이 정말 유명하다더라. 분위기 좋은 카페가 지천이란다. 의사도 좀 잘 알아서 봐주겠니."

혹도 배려면 생활이 쫓겨지는 건데 엄마는 조금도 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 짐을 덜어주니 얼마나 큰 시혜인가고 여기는 듯했다.

"요즘은 옷이 다시 점잖아졌구나."

그래도 그 때가 좋았어요, 엄마. 젊은 척하며 대학가를 쏘다니고 아무 길에서나 떡볶기며 순대도 곧잘 사먹고, 질투도 양탈도 부리며 한 남자를 길들이려 하고, 내 손아귀의 좋은 것은 다 가지려 했을 때가 그리워요. 돌아보면 이승우화에 나오는 주책맞은 당나귀가 되어 어울리지도 않는 재물을 떨었던 거죠. 그리곤 시간이란 이름의 주인에게 호되게 쫓겨난 거예요. 엄마는 어느새 잠에 폭 빠져들었다. 관절을 치료하는 약은 정말 독하니까. 어쩌면 빨리 보내드리는 게 나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 여자까지 보내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제 내 주위엔 정말 아무도 없는데. 뽕족한 성미 탓에 편히 늙어가는 친구들을 외면한 지도 오래고, 하나밖에 없던 친구는 어이없이 갔고, 그리고 너, 미친 여행 따위나 제안하는 넌 이미 내겐 바람으로나 다가를 뿐이지 않은가.

아침부터 비가 심상치 않게 퍼부었건만 비행기는 별 탈 없이 이륙하나보다. 집을 나설 무렵부터 회색 포도는 점점 검게 젖어들었다. 마치 초저녁처럼 어둡신하던 하늘, 우산을 제대로 펼칠 수 없을 만큼 바람은 거세었고 얇은 유리창들은 끝임없이 크고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아마 바다 위를 지날 때 기체가 몹시 흔들릴지도 모른다. 바다에 빠지면 살 확률은 얼마나 되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지난 밤은 꼬박 새웠다. 하지만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마음은 편안했다. 아마 떠남의 기호가 수련거리리는 공항이란 곳이 언제부터가 좋아졌는지도 모른다. 수요일 오전, 적당한 수의 여행객과 침침한 하늘 아래 회색빛으로 서 있는 공항 안으로 나는 서서히 끌려들어갔다. 여행용 가방이 굴러다니는 매끈한 바닥, 이런저런 제복을 입고 종종거리는 일꾼들, 부산스럽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디론가 곧 사라질 이 장소의 사람들. 간신히 무릎을 구겨놓아야 하는 좌석에 앉아서 오랜만에 펼쳐 읽는 기내 책자까지... 언제나 낯설지만 이내 익숙해지는 이런 것들이 편안해서 나는 모처럼 너를 옆에 두고도 평화로울 수 있었을 게다.

깜박 잠이 들었었나보다. 음료를 들겠냐는 승무원의 권유에 나는 소스라치듯 깨어났다. 옆을 보니 너는 내 손을 가만히 잡고 고요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잤었니?"

"코까지 열게 골았어. 귀엽더라."

뒤이어 함께 나온 주먹밥에 매실장아찌를 곁들여 나는 간단한 식사를 아주 달게 먹어치웠다.

그러나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대려는 순간 돌연 기체가 가우뉘, 흔들렸다. 속이 메스했다.

"토할 것 같다."

"재미있어."

다시 기체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몇몇 아이들의 고향에 옆자리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뒤섞여 신경을 자극했다.

"저 여자, 비명소리가 칼로 귀를 찌르는 것 같아."

"고소공포증 환자래."

"그럼 비행기를 타지 말았어야지."

여자는 급기야 발작을 일으켰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 고향을 지르고 울부짖기 시작한 것이다. 너무 파래서 투명한 홍채를 지닌 여자는 눈물까지 똑똑 흘렸다. 그러다 스튜어디스가 먹여주는 진정제를 먹고 서서히 발작이 잦아들 무렵 기내 조명이 별안간 켜, 하고 꺼졌다.

태풍의 영향권에 아주 약간 들어온 것에 불과하지만 안전벨트를 다시 매달라는 방송과 신호가 들려오고 마치 둔중한 고래가 몸을 뒤척이듯 기체는 이리저리 한부로 흔들렸다. 여기저기서 짧은 비명과 탄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있는 힘껏 네 손을 잡았다. 내 양 손바닥엔 식은 땀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손이 흠뻑 젖었어."

"무서워."

이대로 바다에 처박히는 건 아닐까.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너는 천연스레 눈을 감고 다만 내 손등을 톡톡 두들겼다. 승무원들이 부산스레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기체는 계속 아래로 아래로 하강하는 기분이었다. 참을 수 없이 두려웠다. 나는 살고 싶었다. 그때였다. 문득 너와 몸을 나누던 절정에서 내가 "이대로 같이 죽고 싶어!"라고 크게 소리치던 순간이 떠올랐다. 이렇게 설탕처럼 맞붙어서 한꺼번에 물에 녹아버려도 좋아... 그런 말도 했을 것이다. 웬지 머쓱해진 내가 너를 흘깃 바라보니 너는 눈을 감고 늙은 염소처럼 웃고 있었다. 30분쯤 지났을까. 기체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나는 완전히 탈진한 기분으로 벨트에 널부러져 묶여 있었다.

"그만 돌아가자."

평지부터 시작해 완만하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산악철도, "그쪽은 완전히 태풍의 중심이에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간헐비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구." 표를 끊을 때 또렷한 우리말로 말리던 웬 할머니가 떠오른다. 하지만 너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차에 올라버렸다. 마치 세상에 기차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처럼. 기차 안은 이 빠진 듯 들성들성 몇 사람만이 앉아 있었고 그것도 외지인 행색은 우리 둘뿐이었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를 둘러싼 하늘은 거대한 먹구름대와 창백한 빛지대, 둘로 나뉘어 있었다. 기차는 자꾸만 더 높은 산꼭대기로 오르고 있었다.

"왜 아무 것도 묻지 않니?"

"뭘."

"난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내가 바라고 꿈꾸던 사랑이라는 것도, 현실을 초월한 신비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믿음도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한 거야."

다다미방에 드러누워 역시 사각으로 나뉜 천장과 유리창을 바라본다. 일본식 여관에 짐을

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슬거리며 내리는 비에 아소(阿蘇)의 거리들은 부연 유희빛으로 젖어들었다. 객실도 거리도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전염병으로 모두 소개(疏開)되어버린 마을처럼.

"뭘 물어야 하지?"

"왜 따져묻지 않는 거야."

"너도 날 가만두잖아."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뭘가."

"다시 전처럼 지내고 싶어. 난 잠시 숨이 막혀서, 내가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여겨져서 널 멀리했던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넌 날 떠났어. 매달리는 날 버렸고 심지어 날 귀찮고 두려운 인간으로 여기기까지 했어."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전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일 산에나 올라가자. 당신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날 때리고 싶으면 때려. 난 그 동안 널 너무 많이 때렸어."

넌 나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러더니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를 통해서 뭔가 네 삶에서 하나라도 풀어냈다면 다행이야. 그만 자자. 내일 많이 걸어야 하니까."

배가 고왔다. 하지만 몇 개 안되는 음식점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저녁을 굶은 채 우린 어둠 속에 두 마리 짐승처럼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너는 곧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난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내 창문이 부서져내릴 것처럼 무섭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바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산발한 여자들이 찢어진 옷을 펴려이며 수도 없이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할까. 그 여자들은 모두 맨발에 갈기갈기 찢어발겨진 겜보라색 외투를 입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던 것은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 그랬다. 바람은 비명처럼 우리 주위를 감쌌다. 이어 그것은 거친 사내들의 고향으로 바뀌었고 밤이 길어지자 더욱 커다란 맹수의 포효로 온 세상을 위협했다. 나는 견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려 밤을 꼬박 새웠지만 너는 순한 아기처럼 굳히 잠에 빠져 있었다.

세 지대로 나뉜 화산 가운데 네가 꼭 볼 것이 있다는 중산(中山)까지는 본디 버스와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폭우가 너무 심한 데다 며칠 전 작은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너무 가까이 가면 유황재에 화상을 입거나 유독가스에 중독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는 입간판도 우리말로 쓰여 있었다.

"그만 가자. 재발."

검은 우의를 차려입고 너는 씩씩하게 길을 나섰다. 나는 매달려 돌아가자고 했으나 너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내 손을 움켜쥐고 채 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리저리 물어 찾아헤맸다. 우리는 말없이 빗속을 뚫고 한없이 펼쳐지는 푸른 구름 위를 걸어올랐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얻어먹다시피한 즉석라면 두 개가 금세 소화되어 버릴 만큼 많이 걸어야 했다.

"킬리만자로가 화산인 것 혹시 알아?"

"..."

"화산은 말야, 지각이 가장 불안정한 곳에 숨어 있던 돌이 한꺼번에 녹아 지표면으로 탈출하는 구멍을 말하지. 그 녹아버린 돌을 마그마라 하는데 그 때 돌의 온도는 무려 1,009도나 된다는 거야. 수킬로를 달려가는 뜨거운 광석은 그가 지나가는 모든 물체들을 파괴해 버려."

나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그의 말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화물야차는 바람에 몸이 기우뚱하는 순간 그가 나를 잡으며 다시 소리쳤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가 아니라구!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그것도 화산이야. 바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무려 9,000미터나 된다고. 나는 그 꼭대기에서 사라지고 싶어. 날아서 말야. 바람에 날려 화산재가 되어버리고 싶다고!"

"그래, 날아, 날아가버려. 아주 가서 오지 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게 네가 항상 바라는 일이고 꿈꾸는 일이지."

나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너를 뒤에서 마구 밀며 후들거렸다. 너는 도망치듯 더욱 빨리 걸었다. 저센 바람에 밀려 나 역시 너를 쫓아 앞으로 떠밀려갔다. 서로 쫓고 쫓기며 손발을 마구 휘두르며 게다가 시야를 가로막는 눈물과 빗물까지 마구 흠치며 폭풍우 속을 얼마나 걸었을까. 더는 걸을 수 없다고, 이제 혼자 돌아가겠다고 내게 말하려 할 때 우리는 드디어 세 개의 화산 중 가장 높은 꼭대기에 이르렀다. 바람이 너무 강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분화구 언저리. 거기서 나는 보았다. 천년이 넘도록 거기 고여 있는 그것. 내가 나에게 꼭 보여주겠다고 말하던 그것. 거대한 물웅덩이에 호수처럼 고여 있는 칼데라의 물웅덩이... 지구 저 밑에서부터 녹아 가장 불안한 지표 위에 구멍을 뚫고 수킬로에 이르기까지 도중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마침내 굳어버려 생긴다는 화산이란 놈. 그것이 만들어낸 이 물빛은 마치 에베레스트와 수정이 녹아 있는 듯, 초록과 하양과 투명한 젤리를 한 데 섞어 풀어놓은 듯 밝은 초록빛으로 황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너무 숨이 막혀 굳어버린 용암 무더기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순간 엄청난 속도로 바람이 불어닥쳤다. 크고 작은 돌들이 우르르 날아와 얼굴을 따갑게 때렸다. 눈물이 펄 돌도록 아팠다. 나는 문득 등을 돌려 너를 찾았다. 너와 함께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의식이든 제의든 좋았다. 죽은 아버지도, 주혜와 함께 죽은 그 남자들도 떠올랐다. 그들을 초혼(招魂)하고 너를 방생(放生)하고...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칼데라의 초록 호수에 내가 넋을 앗겨 있는 동안 너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널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한편 이젠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너와 함께 설탕처럼 맛보려 초록빛 호수로 녹아들든 혼자 살아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고보니 몹시 배가 고팠다. **II**

일러스트 이승민

그 여자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 글은 KBS 2TV <뉴스투데이>의
박에스터 기자가 쓴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의 저자) 취재기이다.

박에스터씨는 지난 2월 3일 자 방송에
이하천씨의 책을 소개하기 위해
1박2일간 이하천씨와 함께 했다.



데스크가 나에게 이하천씨(사진)의 취재를 제안한 건 그의 특이한 외모 때문이었다. 다음 리포트 주제로 잡은 아이템이 핑크나자 데스크는 나에게 이하천씨와 그의 책 「나는 제사가 싫다」의 취재를 지시한 것이다. "에스터야, 그 여자, 50이 넘는 여자가 머리에 노란물을 들이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무슨 이상한 집에서 산대. 아무튼 특이해. 재미있을 거야."

물론 나로선 대환영이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제사가 싫은가에 있었다. 게다가 이 말을 하는 주인공은

20~30대의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50대의 아줌마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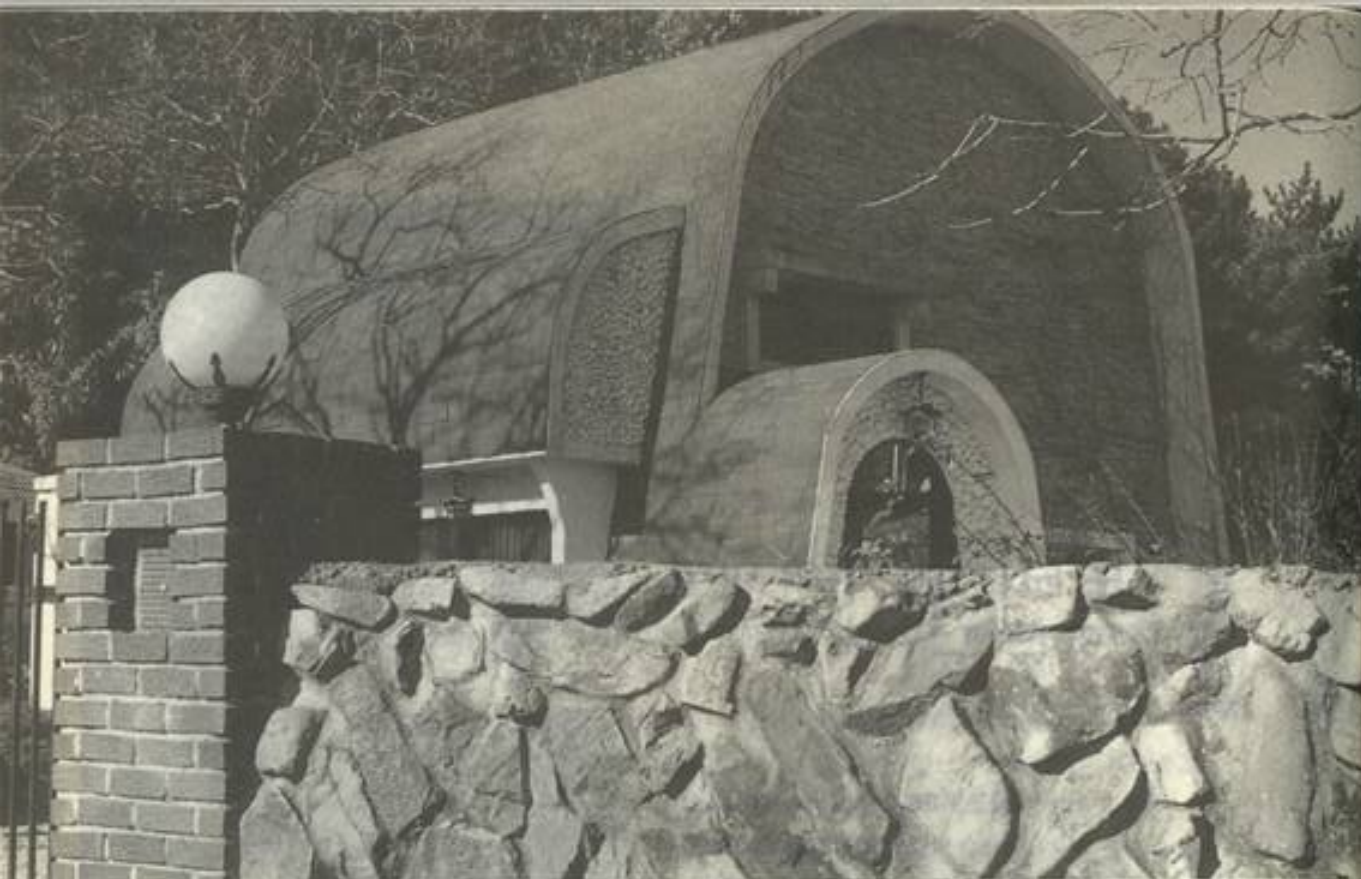
출판기획을 맡은 이프의 권혁란 씨와 통화를 하고 연락처를 알아냈다. 첫 통화의 느낌, 호탕하다고만 하기에는 따뜻함이 느껴지고 스스로 철저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니만큼 솔직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신뢰가 가는 목소리였다. 우리는 1박2일간의 취재를 약속했다.

주인을 알아 두면 집

그 날 밤 나는 당장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읽지 않으면 안됐다. 다소 거친 표현이 눈에 띄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제사 거부에 대한 논리, 며느리의 정당한 위치에 대한 생각 등은 나를 감동시키는 데 충분했다.

월요일,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려서 차 타고 2시간 가까이 달려 기장군에 있는 그의 집에 도착했다. 마을 어귀에서 멀리 그의 집이 보였다. 조용하고 작은 시골마을에서 그의 집은 금방 눈에 띄었다. 아치형 지붕의,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글동글한 모양의 갈색 지붕의 하얀 벽돌집. 집 앞에서 벨을 누르자 먼



기장군에 위치한 동근 지붕의 이하천씨 집.

저 개들이 인사를 했다. 두군거리는 순간, 그는 노랗게 물들인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분홍색과 까만색의 눈 화장, 분홍색 입술과 밝은 초록색의 매니큐어, 분명 진한 화장이었지만 "처음 보면 약간 키메라 같아요"라는 권혜란씨의 설명을 들은 후여서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다. 또 그의 외모가 무슨 상관이라.

취재는 곧 시작됐다. 7가지 해방 개념이 들어간 집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그녀의 집은 어떤까? 아마 방송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궁금할 것이다. 그녀가 '신당'이라고 부르는 그 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소파와 책상, 책장 외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다. 방이 없이 하나로 뚫어져 있고 작은 주방 위에는 계

단을 타고 오르는 2층이 있으며 7미터 가까이 되는 천장의 중심 부분에 서부터 5색의 동그란 등이 길쭉하게 내려와 있다. 멋지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오히려 푸근한 느낌을 주는 집, 꼭 그녀를 닮았다.

고양이 밥주기, 빗발매기, 집 앞 들판 산책, 집필 장면과 인터뷰, 촬영은 저녁도 거르고 계속됐다.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그리고 첫날의 마지막 촬영주제인 향아실 위 제사의식.

이런 남편이 뒤에 있었기에...

자, 이제 그의 남편 김경근 교수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나는 사실 그녀의 남편이 더 궁금했다. 한국남자 일반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터였기 때문이다. 또 리포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편 김경근 교수의 인터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촬영 전에 김교수는 나의 인터뷰 제의를 거절하며 1박2일간 다른 곳으로 피해 있겠다고 했지만, 저녁 8시가 되자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촬영을 계속하면서 김교수를 재빠르게 관찰했다. 촬영 때문에 집안은 어수선했다. 그는 촬영팀 뒤에 가만히 서서 촬영장면을 지켜봤다. 나는 한국남자들의 어증잡은 권위 의식을 잘 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60대 남자라면 대부분 무관심한 척 자리를 피할 것이다. 속으로는 어떻게든 겉으로는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부인의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한다.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당연



나는 제사가 싫다

이하천씨의 생각은 누구로부터 배우거나

학습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느낀 그 막연한 문제의식을

수년간 혼자만의 사색과 공부로 정리해 낸 것이다.

하리한 의구심도 있었다. 그러나 이 의구심은 채 5분이 되지 못해 무너졌다.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물을 뜨고 항을 피우는 과정에서 김교수는 말없이 이것저것 챙겨줬다. 오히려 남편을 의식하며 긴장한 건 이하천씨 쪽 같았다. 그리고 끝으로 책을 촬영하기 위해 텔레비전 모니터에 카메라를 연결하고 화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김교수의 한 마디, "아, 이렇게 보니까 책이 더 예쁘네", 그는 정말로 부인의 작업에 대해 애정을 갖고 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인의 작업에 완전히 동의하느냐를 떠나서, 김교수는 부인의 작업이 의미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날 김교수의 서재를 촬영하려고 들어갔을 때 나는 더욱 놀랐다. 부인도 보지 못한 각종 신문과 잡지에 보도된 기사들을 모아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이 선생님의 뒤에는 이런 분이 계셨구나. 나는 정말 이하천씨가 부러워졌다.

배우지 않고 몸으로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이하천씨의 '신당'에서 잠을 잤다. 첫날 취재가 끝날 즈음에 와서야 그에 대한 이해의 물이 잡혀갔다.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이씨와의 토론과 대화는 계속됐다. 나는 여관에서 편한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이씨와의 밤늦은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새벽 1시를 넘기면서까지 선생님의 그 조그만 주방에서 녹차를 끓여 마시

며 나는 그의 생각에 더 깊숙히 들어갔다.

대부분의 우리 세대는 남녀평등에 대해, 이 사회 여성의 위치에 대해 배우고 학습하며 알아간다. 투쟁의식은 실생활에서 자생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 경로의 학습을 통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의 친구 3명과 함께 4학년 언니를 선생님의 모시고 여성학을 공부한 적이 있다. 나의 생각과 관점은 대부분 그때 기본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하천씨의 생각은 누구로부터 배우거나 학습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느낀 그 막연한 문제의식을 수년간 혼자만의 사색과 공부로 정리해 낸 것이다. 그가 학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의 책에서 다소간 논리 전

개의 취약성과 비약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학자로서의 처세를 배우지 못했기에 표현이 솔직하다 못해 과격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생각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나는 그의 생각에서 오랜 시간의 사색에서 우려난 사상적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남편 김교수의 집으로 자리 간 뒤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리포트를 통해 정말 알려야 할 것은 그 책과 저자의 화제 '성'이 아니라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었다.

비행기가 예약돼 있어서 이틀째 취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됐다. 이하천씨의 마지막 인터뷰가 방 안과 마당에서 진행됐고 옛날 사진들, 그리고 김교수와 함께 있는 장면들이 주요 촬영 내용이었다. 이 부부는 참 부러운 부부였다. 한 마당에 붙어 있는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또 지적, 감성적인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학문과 생각을 발전시켜가고 있었다.

우리는 아쉽게 서둘러 헤어져야 했다. 꽃피는 4월에 반드시 다시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헤어질 때 이하천씨는 우리 촬영팀을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안아줬다. 어깨를

힘껏 두들기면서, 그 가슴의 푸근함을 간직하고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방송 뒤 밋밋한 항의전화

서울로 돌아와서 새벽 5시까지 일을 했다. 촬영테이프를 다시 보면서 인터뷰를 정리하고 원고를 썼다.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방송으로 내보내기에는 너무 과격한 주장이었다. 최대한 온화한 어조로 쉽게 써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투사가 된 기분이었다. 성금관 등 유림의 반발이 얼마나 클지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다음날 원고를 본 우리 부장은 원고를 거의 고치지 않았다. 죽도록 노동을 한다거나 며느리와 아무 상관 없는 시댁의 제사라는 등의 몇 가지 표현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편집은 정말 어려웠다. 막상 편집을 시작하고 보니 이하천씨의 말이 너무 느려서 시간이 제한돼 있는 뉴스에서는 쓸 수 없는 인터뷰가 너무 많았다. 겨우 겨우 5분 15초 정도의 길이로 리포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생방송, 리포트가 끝나자 앵커가 한 마디 덧붙였다. 나도 끝까지 모른 일이었다. 부장은 내 원고를 고

쳐라 해봤자 내가 별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는지 리포트 원고는 그대로 두고 시청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앵커를 통해 한 마디를 덧붙인 것이다. "그래도 제사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끝나자마자 우리 부서는 전화에 붙이났다. 대부분 40~50대 남자들의 전화였지만 여성들의 전화도 있었다. 도대체 명절을 앞두고 이런 리포트를 해서 어찌자는 것이냐, 공영방송인 KBS가 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리포트를 해도 되는 것이냐,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등등. 나는 한 번 전화를 붙잡으면 20~30분씩 통화를 하며 설득을 해야 했다. 이하천씨 부부는 너무나 흡족해했다. 그것으로 족하다. 인물을 다룬 리포트에서 내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취재원의 반응이다. 리포트의 질이나 재미 여부를 떠나서 그 인물의 인격과 생각을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방송은 나가지 않았는가. 전화를 하지 않은 많은 시청자들은 아마 또 다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으리라 믿는다. [1]

박에스터

나는 요즘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모님은 그 정도가 노력이나 하지 않지만 가끔 소개팅도 하면서 나오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자에게 결혼은 뭘까.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혼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하천씨의 책을 읽으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하천씨가 책 앞에 적어준 글귀 "진흙 속에 방치된 이 땅의 여성성의 부활을 위해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를 떠올리며 조용히 생각한다. 그래, 억지 삶을 살지는 않으리라.



은혜 받은 자의식의 소유자들

지난해 인문사회과학 출판영업자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회 인문사회과학도서비평대회에서

『미스코리아대회를 폭파하라』(김신명숙 지음·이프 퍼블)에 대한 비평문을 써 가작으로 선정된 글이다.

『미스코리아대회를 폭파하라』가 인문사회과학 도서목록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잠시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분명 픽션이고, 주인공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진 문학, 그 중에서도 소설이 아닌가? 중등교육과정을 무사히 수료한 모범생인 나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했다. 인문사회과학 서적이려면 선배들이 열구리에 끼고 너털해질 때까지 밑줄을 박박 그으면서 읽는 어려운 책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음미하고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파하며 이제 바로 페미니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회과학서적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내가 흥미롭게 읽었던 그 책이 끼어 있었다는 반가운 사실에 비평이랄 것도 없는 나의 생각을 몇 자 적어보기로 한다.

작년에 '오르가즘을 찾아서'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획기사가 눈에 들어와 사보였던 if 라는 페미니스트저널이 있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는 바로 그 if가 사건의 배경이자 주인공인 셈이다. if를 꾸려가는 보통이 아닌 여자들이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기발한 태리를 꿈꾼다. 그건 바로 '트로이의 목마'처럼 적의 소굴로 파고 들어 폭탄을 터뜨리는 것. 물론 진짜 폭탄은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미스코리아 진을 만들어 당선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런 미인대회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인간모멸의 극치인지를 선언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if에서는 지난해 미스코리아 대회를 앞두고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이라는 작은 반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설 속에서처럼 미스코리아대회가 숙대밭이 되는 통쾌한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인식 속에 오래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미인대회가 근본적으로 억압적인 성차별 구조의 사회가 여성들에게 가하는 폭력이었고, 뜨거운 조병 아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몸매를 뽐내는 여인들은 그 시스템에 편승하여 비싼 신데렐라가 되고픈 헛된 꿈을 꾸는 가련한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미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의 기준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저런 계기로 if가 낯설지 않았던 나는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허구의 인물 같지가 않았다. 책을 쓴 김신명숙씨는 현재 if에서 활동하고 있는 편집위원이다. 그러므로 연두보라, 고여해(고약한 여성 해방론자), 김유미, 가이런, 이제나, 고마, 마녀, 비비탄, 이들 모두 혹은 일부가 if와 더불어 살아가는 실존 인물들로부터 캐릭터를 따왔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들은 예의 그 장난기를 발동하여 멋진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늦은 시간이니 만큼 소주라도 한 잔씩 걸치면서 왓자지껄한 수다와 함께 유쾌한 웃음을 날리고 있을 것만 같다(그리고 나는 거기에 끼고 싶어 안달이 나있다). 사실과 허

구, 현실과 이상이 뒤섞여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역동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곳, 무기력하고 부조리한 일상을 버티듯 살아가는 내게 그 곳은 마치 해방구처럼 느껴진다.

내가 이 소설을 비평적이나 하는 작업에서 문학적 평가는 제외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벌써부터 그 소설 속 주인공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버린 듯한 동지의식을 느끼고 있기에 나의 어설픈 문학적 소양을 들어 작품을 재단하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래서 다만 이 소설이 사회적으로 갖는 몇 가지 미덕과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가 인문사회과학 도서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그 길지 않은 이야기 사이사이에 여성학의 기본 개념과 고민해 볼만한 논의들, 여성운동권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이르기까지 읽기 쉽고 친절하게 풀어놓고 있다. 여성학 하면 왠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끼는 대학 새내기들이라든지, 남성들 중 그간 페미니즘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었던 분들에게는 그 자체로 훌륭한 여성학 입문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소설의 형식을 빌려 페미니즘을 큰 부담 없이 접하게 해준다는 점은 내가 대학 1학년 때 읽었던 『이갈리아의 딸들』과 비교해 볼 만도 하다. 이러한 접근은 읽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인간사를 통해 페미니즘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준다. 소설은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 살 속에서 느끼는 억압과 부딪쳐야 할 사회의 편견이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또 다른 여성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나는 김유미와 같이 '생기지 못한 여자'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 가정과 자신의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가여운일 수도 있고, 혹은 남자의 배신에 가슴을 뜯으며 사는 김유정이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연두보라와 같이 성폭행의 아픈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치열한 살 속에서 나는 그 억압에 함께 분노하고, 함께 고민하고, 피하지 말고 부딪쳐 싸우라고 마음속으로 용원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며 힘을 얻는다.

소설의 의의는 무엇보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치수화된 기준에 쫓겨 재단하려 하는 이 사회의 천한 근성을 고발

하고 그 안의 성역압적 요인을 지적함으로써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짓눌린 미의 허상을 낱알이 고발한다는 데 있다. 해마다 장미꽃 만발한 5월이면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근 한달 전부터 시작되는 대대적인 예고방송과 깊은 밤을 잠 못 들게 하는 전야제를 거쳐 그 화려한 막이 오르면, 주말저녁 황금시간은 온 나라가 들쭉들쭉한다. 수영복에 짙은 화장, 사자머리를 한 한 무리의 여인들은 예쁘게 봐주세요~을 연발하며 상품으로 전락한 자신의 육체를 자랑스럽게 뽐내고, 가족들은 모여 앉아 해가 갈수록 예리해지는 눈빛으로 내가 띄운 후보의 진(眞) 당선을 장담하며 답소를 나누는 호ות한 광경이 연출된다. 계승처럼 한 눈을 TV에 고정시키고 침을 흘리는 남성들과, 나는 왜 저런 신체조건을 타고나지 못했나를 탄탄하며 그 원망을 부모에게 돌리는 여성들이 있다. 이견을 면치 못하여 하는 희극이다. 그 미의 허상을 좇는 많은 여성들 덕분에 오늘도 다 이아트 산업은 번창하고,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재료가 되며, 딸 뒷바라지 한 번 해보겠다는 부모들은 미스코리아 왕관 하나를 따기 위해 미장원에 수천 만원을 갖다 바치고 있는 거다. 이런 현상이 오직 허영에 찌들어 있는 '머리 빈 장롱'들만의 책임일까?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나와 같은 평범한 여자도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유리창에 모습을 비추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어쩌다 가끔 화장도 하지 않고 집에서 입던 옷을 대중차려입고 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한다.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심지어는 화장을 하는 것은 여자의 기본적인 예의라며 댄 얼굴을 단지 게으름으로 매도해 버리는 논리도 있다. 왜 이렇게 여성들은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걸까? 카피에서 흔히 보듯 아름다움은 여자의 본능이고 여자의 변신은 무죄일까?

내 생각에 여성이 특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본능이라기보다는 강박이다. 댄 얼굴로 거리를 나설 때의 그 위축감이 싫어서 그녀들은 오늘도 화장을 한다. 세상 모든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고개만 돌리면 매스컴에서는 화장 잘 받는 미녀들이 세상이 내 것인 양 활개를 치는데 나의 칙칙한 피부와 뜨다만 듯한 눈을 어찌 그냥 내놓고 다니겠는가? 그리고 그 강박관념은 근본적으로 여성은 선택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택을 당하는 객체의 위치에 놓여 있다

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은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며 알콩달콩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라는 거짓된 신화의 틀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진입이 제한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갖는 것이 어려웠고, 경제력도 권력도 남자보다 뒤쳐진 채 남에게 인정받고 선택받기 위한 방편으로 겉모습을 꾸미는 데 치중해 온 것이다. 이렇게 선택받는 데에 익숙해진 수동적인 태도는 또 다시 여성을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한다. 이 못된 악순환의 고리는 지겹게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조금씩 약해질 뿐.

내가 이 소설에서 특히 높이 사고 싶은 부분은 페미니스트의 경계를 한껏 넓혀놓았다는 점이다. 부시시한 모습에 무슨 말만 나오면 싸움닭처럼 달려드는 것이 페미니스트라는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는 그것을 타파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 소설 속에는 맹렬 페미니스트로 자처하는 if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등장한다. 1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주인집 할머니, 배신당한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한다는 김유정, 연예인이 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인 허영분, 레스토랑을 경영하며 기독교 남성들에게 기생해 살아왔던 홍마담, 도저히 페미니즘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에게도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 있었고 세상을 향해 토해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주인집 할머니는 배우지 못한 한을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아 여성운동에 쾌척하는 것으로 풀어냈고, 철딱서니 없는 허영분도 나름대로 이 세상과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가를 고민해 온 셈이다. 남자의 말 한 마디, 손짓 하나에 인생을 결정해 온 김유정 역시 내면에 숨겨져 있던 분노와 억압을 미스코리아가 되는 순간 터뜨려버린다. 날 쳐다보지 말아요. 오빠, 난 놀이감이 아니야.

맞다. 페미니스트란 '은혜 받은 자의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했던 어느 이론가의 정의는 틀림없이 맞다.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남보다 교양한(?) 성미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차별적인 세상에 대해 분노를 느낀 적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페미니스트이다. 고백컨대 나

도 대학에 들어와 나름대로 페미니즘에 관한 책도 읽고 세상의 불평등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페미니스트로 지목을 하면 아니라며 한 발을 빼고 물러나기도 했다. 나는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며 살고 싶지 않았고, 남의 눈에 북하면 트집만 잡는 못된 여자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래요. 나는 페미니스트예요. 남보다 은혜 받은 자의식을 가졌죠.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상을 그리면서도 남녀 이분법적 성대경구도를 취하지 않았다. 남성들 중에도 든든한 페미니스트의 우군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의 적은 여성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은 것이다. 절망만이 남아 있는 듯한 현실의 모순을 가감 없이 파헤치면서도 더불어 변화, 발전하는 여러 종류의 인간상을 등장시켜 아직도 우리에겐 버려진 안될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긴 페미니스트들에게 이러한 희망마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에게 희망만이 유일한 양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왜 부모 성(姓)을 동시에 쓰는지, 어떤 의미인지, 세대를 거치면서 두 배수로 늘어나는 그 숫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못생긴 여자들이 불만만 많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호주제를 폐지하라,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는 소리 높여 외치는 거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전사가 되고, 또 열두 번씩 좌절하는 우리의 페미니스트들!

소설 밖의 이야기로 글을 맺어야겠다. 이렇게 작은 변화에도 감동하고 착박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낼 줄 아는 페미니스트들이 이루어낸 또 한가지 희망은 if라는 잡지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일 것이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용분에 찬 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가끔은 세상을 씹으며 신나게 수다 떨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는 if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자신들의 모토처럼 웃고, 뛰고,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if가 오래오래 번창하며 이어지기를, 그리고 양성평등의 이상을 향한 그 길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 스스로 몸을 높이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주기를... [1]

정선희 (외국어대 신방과 4년, 대중매체광고팀 입사)



if에게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if!

절여저요!

if를 만나면 내가 젊어지는 걸 느낍니다. 늙은 것까진 아니지만 20대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남어야 할 배, 캐트려야 할 벽, 이 그만을 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그 의미를 일깨워주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if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새 천년에도 곳곳하게, 적적하게, 더욱더 (활전) 전전하시길 바라며...

임인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나에게 if는 몇 살?

네 살이 되는 if는 우리 현실에서 몇 살의 나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10대의 자유로움 보는 if에게는 20대의 고뇌를, 20대의 부딪침으로 보는 if에게는 30대의 자라잡기를, 30대의 안일함으로 보는 if에게는 40대의 진지함을,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if에게는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력으로 다가서는 if가 됐으면 좋겠네요.

김강호 전북 진안군 진안읍

포르노그래피에서 걸어 나온 여자.

서갑숙'을 읽고

진급인터뷰라고는 하지만 이미 몇 달 전 타 잡지들에서 읽었던 얘기들이다. 질문내용도 대답도 다 잡지 내용과 다를 게 없다.

김정현 경남 양산시 교동

딸에게 물려주고픈 if

내겐 이제 6살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세기를 보낸 후 새날을 보내던 어느 날, 엉뚱하고 다분히 이른 감도 있지만 딸에게 물려줄 것에 대해 생각을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 책(그간 내가 읽거나 소장한 도서 중에서 간추린), 그리고 그리고 자유로운 사고 등... 난 또한 딸아이가 자라 if를 읽을 만큼 때가 되면 꼭 if 독자가 되기를 주저없이 권할 작정입니다. if 관계자 여러분, 꼭 if가 장수하도록 발바닥에 땀나도록 수고해주시고요, 몇 몇 잡지들처럼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사. 따라하지 않사. if를 만세

역국에 사는 조용한(?) 아줌마 박미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고은광순님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모두지 이해불능인 단 1%의 인간의 논리를 찾아볼 수 없는 남성우월론자들을 상대해 주는 이유가 뭐니까? 아예 상대도 하지 않는 게 금 같은 if 지면의 낭비도 막고 독자들의 스트레스도 줄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그런 글들을 자세한 해명(아니 혼)까지 덧붙여 답장까지 해주는 건 되려 그런 글들을 호기심으로라도 부추기는 효과만

날게 될까 염려됩니다. 우리가 욕먹어가면서 페미니스트를 자칭하고 '운동'하려는 것도 보수와 진보의 어중간한 경계에 있는 가능성 있는 남자들과 여성들을 동참시키고 일깨우려는 거지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과 소모적인 입씨름에 힘 빼며 열내고 시간낭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순님 이씨실 겁니까? 그런 놈들 글 올리지 말고 차라리 제 글을 올려주시든지 욕을 할 거면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주든지... 에이 뭐 거시기나 말어 저버려라!

정아진 (조바르다. 我美나는 참외다, 여자이므로)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전체적인 짜임새 신경 써주세요

진취적이고 깨어 있는 좋은 글들...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이 너무 단조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짜임새 있는 구성이라면 더 좋겠지요?

배현복 경남 양산시 교동

이런여성들에 관한 글을 읽고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알고있던 이슬람문화권의 여성들의 상황과는 너무 다르더군요. 차도르를 쓰는 것 외에는 참 자유로와 보였습니다. 남자랑 맞담배 피는 사진은 정말 멋지더군요. 이런여성의 인권지수가 높아졌다면 환영하지만 논조가 일관되지 않아 몹시 헷갈렸습니다. 단순한 여행감상문을 넘어서서 탄나라 여성들의 삶을 그 사회의 맥락에서 조목조목 풀어주셨으면...

김소희 대전시 유성구 궁동

아래 글들은 dame.net에 있는 if 독자들의 if매 ifmania에서 퍼왔습니다. 지난 호에 if 모니터링 모임 공지를 빠뜨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저희들은 if매에 있는 if 매와 다음넷의 ifmania if매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모임 공지를 올렸습니다. 죄송죄송!!! 사이버 공간에서도 if를 만나시고 싶은 분들은 한 번 둘러보세요.

(www.daum.net → if매 →

검색어: 페미니즘 → if매니아 if매)

if 모니터링 모임 이야기

if 모니터링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카페지기 수연님도 보고 nika님과 카르멘님을 뵈어요. 류숙영님, 박미라 편집장님, 권혁만 아트디렉터님(?), 난나님, 우안님. 그 외 if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그 분들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좋은 분이었고 넘 재미있었구.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간 자에게 좋은 교훈도 주었구. 아마 20대에서 40대까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힘을 거예요.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았구.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기쁘고 이런 좋은 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네요. 맞다. 천여... 수연님이 넉넉한(외모) 아주머니일 줄 알았는데 정말 날랜 분이더군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웃어주시던 우안님! 혹 가명이 아니신지? 이름이 너무 예뻐요. 카르멘님과 nika님, 하시던 말을 잘 들었구요. 그 외에 재미있었던 분이 정말 많았는데... 머리의 한계로 이름을 외우지 못하고, 압론 정말 좋은 시간이었구요. 다음에 모니터링 하면 꼭 갑니다.

기연

*사라 주~가연님은 조금 늦게, 함께 오셨던 권혁만 단행본팀장과 재미만 아트디렉터를 교묘하게 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도 제사가 있다

'나는 제사가 있다'를 읽구 있습니다.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잠시 일이 있어서 읽다말구 켄망에 왔습니다. 병개가 있던 날 밤, 영미워 9시 뉴스에 '나는 제사가 있다' 책 사진이 나오면서 잠깐 아주 잠깐 이야기하고 가더군요. 명절문화가 이렇다구... 뭔가 큰 것을 기대해서인지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시청자들에게 생각해볼만한 혹은 반성해볼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구 인터뷰만 조금하고 말더라고요. 아쉽지만... 열심히 읽구 널 다시 올리겠습니다.

nike

독자도 수다방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번 호를 보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다방에 일반 독자 몇 명을 참여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예요. 왜냐면 if라는 잡지는 열린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믿거든요. '페미니즘 좋다'는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자기선언하고 마는 거라면 그 의미가 없다고 봐요. '페미니즘 좋다'... 이런 열린 구조, 그래서 한명 한명씩 동참시키고 동참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이루어나가며 생각을 심화시키는 것을 병행해야겠지요. 그런 방침을 잡지에 반영하는 형태로 '수다방'을 운영해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도 무척 재미있고 통쾌하고 자꾸 뭔가를 다시 생각해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럼~

virginmind

독자 모니터링 모임

연재: 4월 7일 금요일 늦은 7시

어디서: 수재비와 포차(365-7884)

신촌기차역에서 신촌방향으로 50m 가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허름한 편지집 노란 색 입간판이 눈에 띄어 금방 찾을 수 있음.

if를 읽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편하게 물어놓는 자리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if 신문고

if 신문고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불편부당하다고 느낀 것을 고발하는 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권고나 드러나지 않은 잡지 등을 보신 후의 반론도 환영합니다. 원고지 5매 내외로 자유롭게 쓰셔서 4월 20일까지 if로 보내주세요. (한리안, 나무누리 leminu/ 이이들 itopis, 보너스인 분에는 글이 실린 if로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백문일'을 쓰자~

김문경 (미국 May역화점 서울지사 근무)

1. 미혼(XX) - 비혼(XX) / 미혼(XX) - 독신(XX)
'미혼'은 결혼을 해안다 또는 '결혼' 모두 한 '미'는 결혼을 해안다 하는 미(未)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인 비(非)자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 역시 출산의 전제를 결혼으로 두고, 결혼하지 않은 아이의 양육을 불완전한 존재로 간주하는 의미와 '미혼' 대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표현하는 '독신'을 쓰는 것이 좋다.

2. 사립(XX) - 공립(XX)
물론 부가입력을 전제로 하는 호주제가 시행되고 있는 한 '사립'은 맞은 표현이 아니다. 하지만 사립상의 문제가 고쳐지지 전이라도 의식적으로나 혼란을 일찍이 아닌 '독립'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호주제가 폐지되면 '사립'은 맞은 표현이 틀린 말이 된다. 또한 남자에게도 '친정'이 생긴다.

3. 사(제)차(제)XX - 사(제)차(제)XX 또는 사(제)차(제)XX
남편의 집은 '제'으로, 아내의 집은 '가'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양가 모두 '가'로 내려보든지 모두 '제'으로 올려 쓰는 것이 좋다. 이것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다르게 대우하는 '가'가 '제'도 '제'도 vs '제'가 '제'도 고대 관련이 있다.

4. 장안(제)장(제)XX - 어머니(아버지) 또는 어머니(아버지)XX - 시어머니(시아버지)XX
아내는 남편의 부모를 자신의 친부모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면서 (실제와는 맞출때도 맞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국문칭 단어까지 쓴다. 남편은 아내의 부모를 호칭에서부터 부모대접하지 않는다. 남편은 아내의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아내는 남편의 부모 호칭 앞에 '시'자를 넣어 부른다?)

김밥 할머니가 원망스럽다!

여성단체나 이프에 기부하는 김밥행상 할머니는 없나. 그 할머니들 배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보다 여성이기 때문인 거 모르냐? 우린 애꿎은 할머니를 탓해 본다. 「나는 제사가 싫다」가 뜬 후(홍보는 잘 됐는데) 요즘 아침인사는 “오늘 주문이 몇 부야?”다. 언제쯤 효자(아이쿠! 이하천 선생님이 알면 어찌 자식을 부모부양 용도로 생각하느냐고 호통치실 텐다)상품이 나와 이프가 돈벼락 한 번 맞아볼 수 있을갑? 어쨌든 아직은 이프 가족 여러분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한 명 한 명 독자를 늘리는 길만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절감, 또 절감한다.

공마

“우리를, 조속이이며 문명으로부터 밀려난 우리들, 재갈 물려 물어박힌 아름다운 입술...”

엘렌 식수의 말이란다. 십 년 넘게 할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한 날들. 그래서 관계는 어그러지고, 회복불능으로 굳어져버렸다. 사람을 미워하느라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날들이 너무나 힘들다. 계간지라서 그런 거겠지. 책 한 권 나올 때마다 계절이 바뀌어버려 심승생생해진다. 사람들은 슬슬 다가와 한 보따리씩 제 고민과 제 설움을 풀어놓고 좀 가벼워진 얼굴로 손을 흔들며 가버린다. 나는 내 설움과 분노를 껴안고 이 거리, 저 술집을 떠돌아다닌다. 상가집 개처럼 눈치를 보면서, 기웃거리면서... 올 봄엔 내 입의 재갈을 풀고 자존의 회복을 위해 싸워볼 작정이다. 오랜만의 루지로 가슴이 설렌다.

남마

정치인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특집기사 때문에 15대 여성 국회의원을 거의 다 만났다. 정치인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과

위풍당당한(?) 국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름 모를 위축감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치인은 뭔가 다른, 인간적으로 어떤 매력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만난 후에 들었다. 본인의 장점을 잘 찾아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킬 줄 아는 사람. 나와 정치인 사이의 벽은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지만 아직도 의원회관의 일반인과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일반인과 의원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다른 것은 씁쓸하다. 한국인과 정치, 여성과 정치 아직도 어렵다. 시민이라는 자각이 없어서 그런가... 여하튼 16대 총선에 임하는 내 자세가 이전과 다를 것임은 확실하다. 참 얼마 전 수신인 난에 ‘페미니스트 전월’이라고 적힌 우편물을 받고 웃었다. 진짜 웃겼다.

박마

영업걸의 지방출장 이야기~!

(018버전으로)난 영업걸이다. 난 지방출장 다닌다. 이제 난~ 돈도 벌어난다. 이프 영업걸은 두 달에 한번(꼭수달만) 지방출장을 다닌다. 지방출장의 목적은 두 가지. 새로 나올 책 홍보도 하고 우리 책들 전시는 잘 되어 있는지 다른 책에 밀려 평박혀 있는 건 아닌지 매장도 둘러보고 그리고 수금~!! 첫 날은 정말 볼루탈라~ 소풍기분으로 고속도로를 탄다. 첫 도착지 대전. 첫 거래처에서 다른 출판사 영업자들을 만난다. 주로 여기서 만난 영업자들은 그 뒤로 내내 만나게 된다. 그들도 오늘이 시작이고 지방 도는 방향이 비슷하므로... 그렇게 거래처에서 다른 영업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때부터 괜히 바빠진다. 그래서 점심도 건너뛰고 전주로 뛴다 달린다. 빨리 움직여서 먼저 출사야지 하는 이상한 경쟁심(?)이 불끈 생기니까. 전주는 진입로부터가 참 기분 좋게 뻗어 있다. 시원하게 펼쳐진 평야도 전라도답고, 전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서점이 있는데 전북대구내서점이다. 구내서점이다보니 다른 서점들보다 매장이 넓지도 않고 여기저기 쌓여 있는 교재들로 정신은 없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멋있는 분들이다. 참 신나게 일하시는 것 같다. 다른 매장 직원들과 정말 틀리다. 가끔 이프 모니터도 해주고 앞으로 낼 신간에 관심도 보인다. 뭐... 그렇다고 여기서 이프가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북대구내서점은 기분 좋은 서점이다.



전주에 가면 꼭 들르는 식당이 있다. 홍지서림과 금강문고 뒤에 있는 뽕이집. 이곳의 메뉴는 3,000원 짜리 뽕이해장국 하나다. 콩나물을 듬뿍 넣어서 시원하고 간은 새우젓으로 하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다. 전주에서 하루 묵는 영업자는 다음날 아침 뽕이집에서 모두 만나게 된다. 그만큼 영업자들에게는 꽤 유명한 집이다(전주에 가시는 분은 꼭 둘러보시길). 이 식당 명함에 써 있는 광고문구 하나 ‘손님이 주무시는 시간에도 육수는 끓고 있습니다.’

색마

지난 3개월 나는 무엇을 했나?

지금은 마감. 원고들을 외우고 있는 나는 몇 초전의 일도 생각나지 않는다. 오악~ 돈에 눈이 어두워(₩.₩) 밀레니엄 복권을 샀다. 20억 당첨되면 어떻게 쓸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하염없이 즐거워하다. 다음넷의 이프매니아 카페에서 재밌게 놀았다. 생활도자기를 배우러 다녔다. 친구 두 명이 결혼했다. 결혼식장에서 ‘부부는 이심이제’라고 말하고 맞아죽을 뻔한 이후 친구의 결혼식은 가급적 불참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굉장히 신성한 파티를 했다. 행복하고 재밌었다. 나는 재미중독자다. 좋아하던 친구에게 그 사이 애인이 생겼다. 친구가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췌다. 1년만에 만난 친구와 엄마에게 동판을 맞았다. 태어날 때는 눈이 얼굴의 절반이었는데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 엄마의 ‘작품’을 손상하고 있는 무식한 소장자. 또한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으며 헛구역질을 자주 한다. 유난히 햇빛이 나를 따라다니더니만... 그렇지만 “나는 창조에 대한 만능적인 의욕부진을 순교자의 십자가처럼 껴안고 살아왔다. 나는 그것을 ‘착하다’ 혹은 ‘성실하다’는 말로 포장된 영혼의 잘못된 감각을 살피우는 데 써왔다.” 참회와 반성으로 마무리를...

사랑마녀

당신의 제사 경험 사례를 보내주세요!

- 각종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에 이어 텔레비전에서까지 ‘제사’의 문제점을 환기시켰던 이프의 세번째 단행본 「나는 제사가 싫다」를 계기로 여성들의 제사 경험 사례를 모집합니다. 어떤 때 제사의 모습을 어떻게 느꼈었는지, 제사상 차리느라 동분서주하는 엄마의 모습, 혹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부계조상의 제사에서 어떻게 소외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적인 제사의 양식이 있는지를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여남소노 누구나 제한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은 후의 서평도 좋습니다.
1. 마감: 4월 25일(달일 도착 분까지 유효)
 2. 원고분량: 7매 이상
 3. 상품: 1등: 이프 3년 정기구독권과 독자여행초대권(1명)
2등: 이프 2년 정기구독권(2명)
3등: 이프 1년 정기구독권(5명)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이프 여름호(13호)를 드립니다.
 4. 보내실 곳: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610호 또는 천리안, 나무누리 feminif, 하이텔 iftopie
 5. 문의: 출판팀장 권혁란(02-708-4551)

이프가 제안하는 초봄의 묘한 독자여행!

이프가 지리산으로 여행가요. 여행의 제목은 ‘우리 속에 숨은 여신을 찾아서 — 지리산 마고 기행’ 이고요. 국내에서 가열한 예코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계신 김경란, 김재희 선생님이 송수련과 여신 강의도 해주신답니다. 지리산 일지락에서 맛있는 밥도 먹고, 온천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송수련을 통해 당신 안에 숨은 여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올 6월 17~18일 정도가 될 거 같구요. 경비는 약 7만 원 정도 준비해서야 할 듯. 작정에 다니시는 분이려면 17일 토요일엔 필차라도 내셔야 될 거 같구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요? 아마도 6월 초에 나오는 이프 13호에 실릴 것 같은데요. 참, 이 내용 보는 대로 일찍 신청하세요. 신청순이니까. 전화로 연락주세요!

신청: 708-4550(담당자: 우안녕)

이프 이사했슈!

왜냐고요? 지면이 부족해서 말할 수 없슈. 변경된 주소랑 전화번호랑 알려달라고요? 본지 187쪽으로 가보셔유. 다 나와 있슈.

에코페미니스트 가면무도회에 오세요!

시간이랑 장소함 알려달라고요? 본지 39쪽에서 보셔유! 미안해유, 고생시켜서...~!!!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화 708-4550~3, 팩스 708-4554).
- 책 속의 엽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34,000원

정기구독 혜택

- 본사에서 발간하는 단행본을 구입하실 때 할인혜택이 있으며, 본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회원특전이 있습니다.
- 구독기간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배달사고·주소변경

- 미착, 분실, 반송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번호는 708-4550입니다.

구독료 내시는 법

- 지로번호와 온라인번호가 대폭 변경되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반드시 본사로 전화해 주십시오.
- 지로영수증에 신청자 성명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로 직접 연락주십시오.
- if 지난호는 페미니스트저널 고마(02-364-5950)나 본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지로번호: 5104723

• 온라인 입금: 예금주 (주)도서출판이프

초흥 592-01-002980 / 국민 349-01-0056-563

한빛 148-203097-13-101 / 농협 096-17-009311

서울 16508-3667201

IF를 만든사람들

- 발행 (주)도서출판 이프
- 발행인 김민숙 • 매니징디렉터 박혜숙 • 편집장 박미라 • 아트디렉터 제미란 • 디자이너 김명진 • 포토디렉터 엄윤순
- 편집위원 김세중 김숙진 김신명숙 김재희 김혜경 류숙렬 손자희 오한숙의 유채지나 이해경 • 사진기자 조여권
- 기자 권혁란 김보미 • 객원기자 이숙인 황오금희 박미숙 • 광고기획부 정유미 윤숙경 김영란 • 정기구독·교열 우안녕
- 주문전화 708-4551(김영란) • 디자인 장일문화사 박선미 권순나 • 인쇄소 고려서적
- 등록번호: 파-02699
-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610호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110-740)
- 전화: 708-4550~3 • 팩스: 708-4554 • 하이텔 ID: iftopia • 천리안: 나우누리 ID: feminif
- 하이텔에서도 if를 보실 수 있습니다(go feif).



이성의 욕망을 아는 잡지

페미니스트저널 **if**

웃자!

if

놀자!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610호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부

110-74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610호

페미니스트저널 **if** <이프에게> 담당자앞

110-740

